

30

1986 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사

노동의 미래를 향한 연대와 전진

198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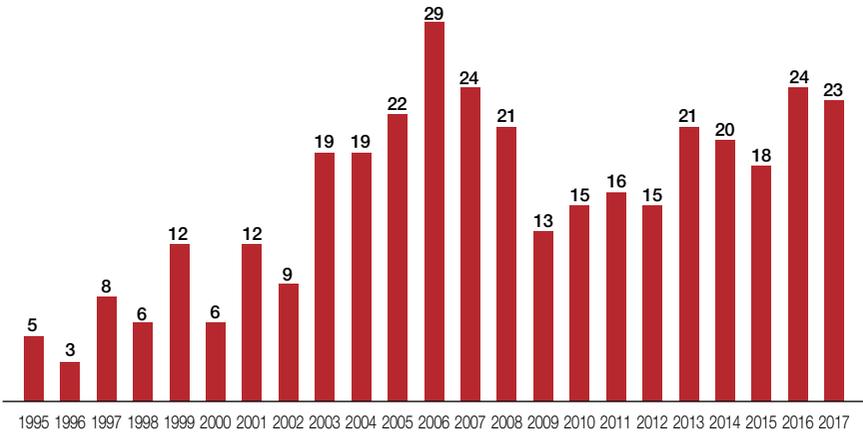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사

노동의 미래를 향한 연대와 전진

숫자로 보는 노동사회연구소 30년



연구사업 360 건



연구사업 전체 건수 연도별 추이와 누계 : 1995~2017년

연도	연도별 연구사업 수	연구사업 수 누계
1995	5	5
1996	3	8
1997	8	16
1998	6	22
1999	12	34
2000	6	40
2001	12	52
2002	9	61

연도	연도별 연구사업 수	연구사업 수 누계
2003	19	80
2004	19	99
2005	22	121
2006	29	150
2007	24	174
2008	21	195
2009	13	208
2010	15	223

연도	연도별 연구사업 수	연구사업 수 누계
2011	16	239
2012	15	254
2013	21	275
2014	20	295
2015	18	313
2016	24	337
2017	23	360

199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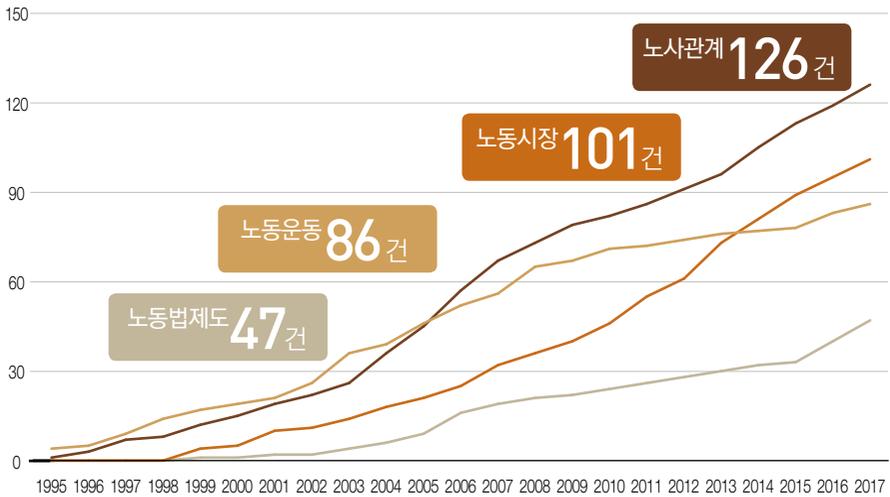


연구사업 전개과정의 시기 구분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시련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년 이후)
연간 평균 건수	7.6건	22.3건	14.7건	21.2건
연구 주제 순위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법제도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노동운동
주요 협력 기관	외국기관 노조상급단체 단위노조 연구소 자체사업	노조상급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 단위노조	노조상급단체 의회·정당 공공기관 단위노조	노조상급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주제별 연구사업 건수의 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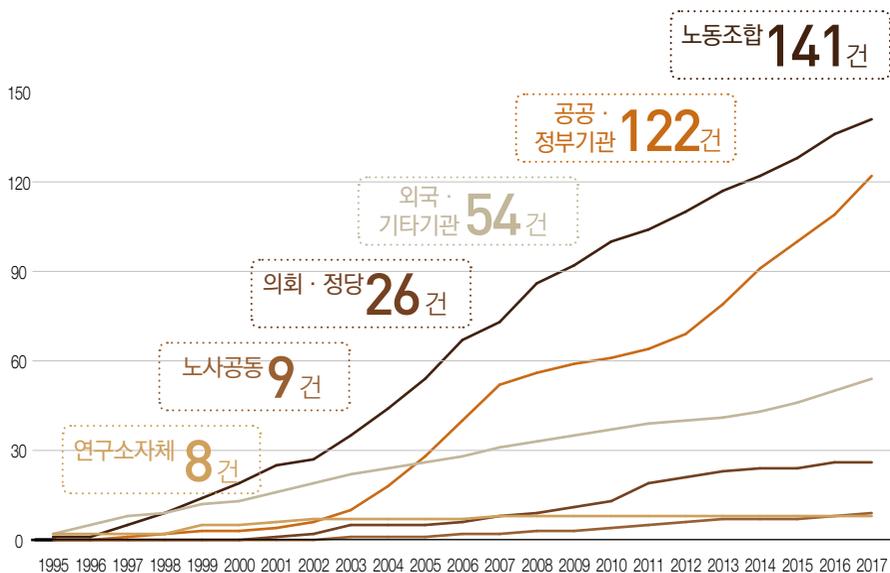


연도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1995	4	1	0	0
1996	5	3	0	0
1997	9	7	0	0
1998	14	8	0	0
1999	17	12	4	1
2000	19	15	5	1
2001	21	19	10	2
2002	26	22	11	2
2003	36	26	14	4
2004	39	36	18	6
2005	46	45	21	9
2006	52	57	25	16

연도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2007	56	67	32	19
2008	65	73	36	21
2009	67	79	40	22
2010	71	82	46	24
2011	72	86	55	26
2012	74	91	61	28
2013	76	96	73	30
2014	77	105	81	32
2015	78	113	89	33
2016	83	119	95	40
2017	86	126	101	47



연구사업 발주기관별 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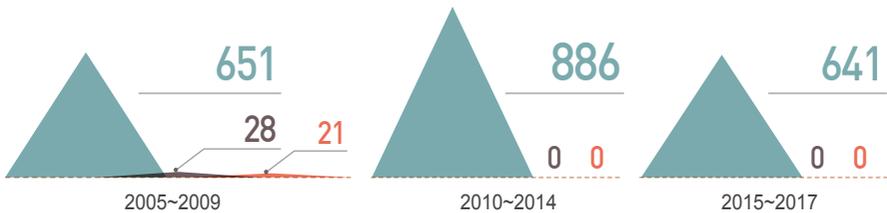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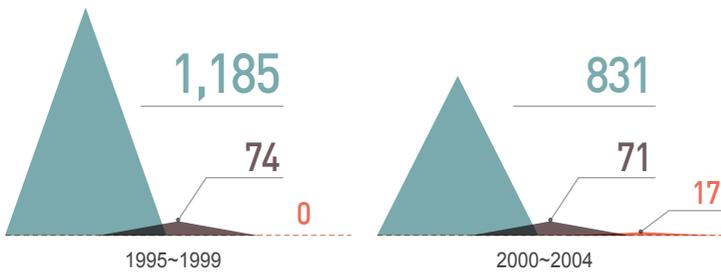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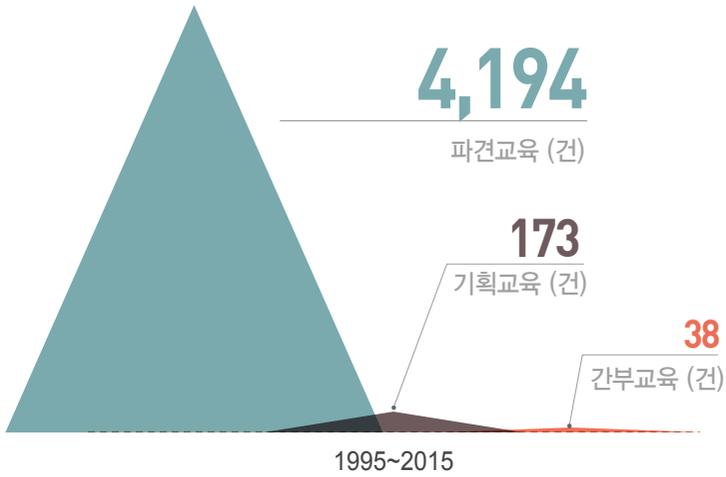
연도	연구소 자체	외국 기타기관	노동 조합	노사 공동	의회 정당	공공 정부기관
1995	2	2	1	0	0	0
1996	2	5	1	0	0	0
1997	2	8	5	0	0	1
1998	2	9	9	0	0	2
1999	5	12	14	0	0	3
2000	5	13	19	0	0	3
2001	6	16	25	0	1	4
2002	7	19	27	0	2	6
2003	7	22	35	1	5	10
2004	7	24	44	1	5	18
2005	7	26	54	1	5	28
2006	7	28	67	2	6	40

연도	연구소 자체	외국 기타기관	노동 조합	노사 공동	의회 정당	공공 정부기관
2007	8	31	73	2	8	52
2008	8	33	86	3	9	56
2009	8	35	92	3	11	59
2010	8	37	100	4	13	61
2011	8	39	104	5	19	64
2012	8	40	110	6	21	69
2013	8	41	117	7	23	79
2014	8	43	122	7	24	91
2015	8	46	128	7	24	100
2016	8	50	136	8	26	109
2017	8	54	141	9	26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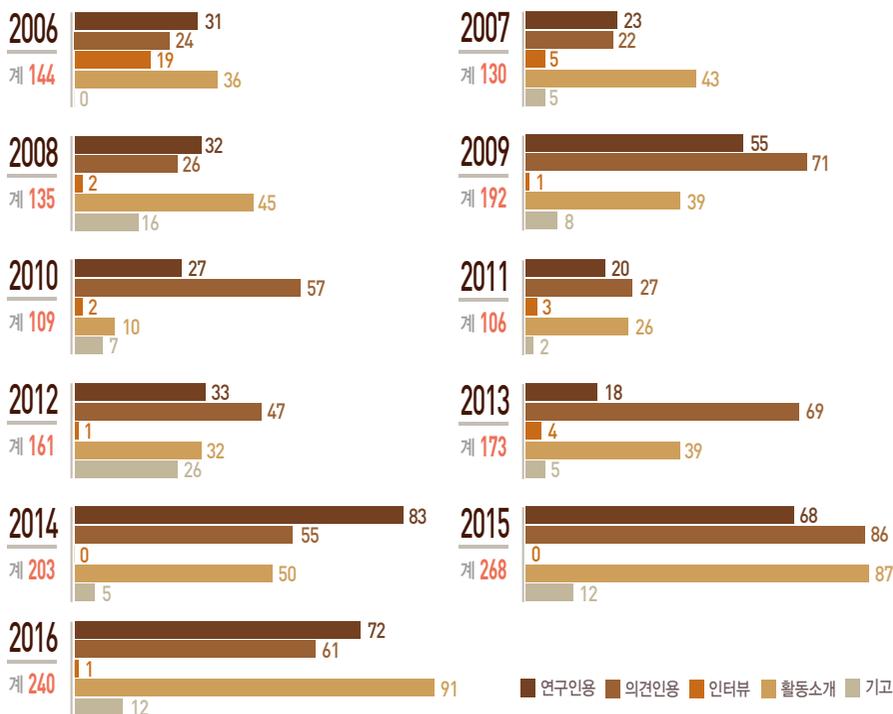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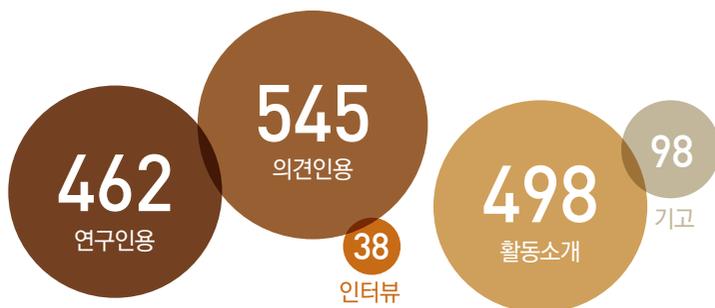
교육 활동 현황

외부교육, 기획교육, 간부교육





언론에 소개된 연구소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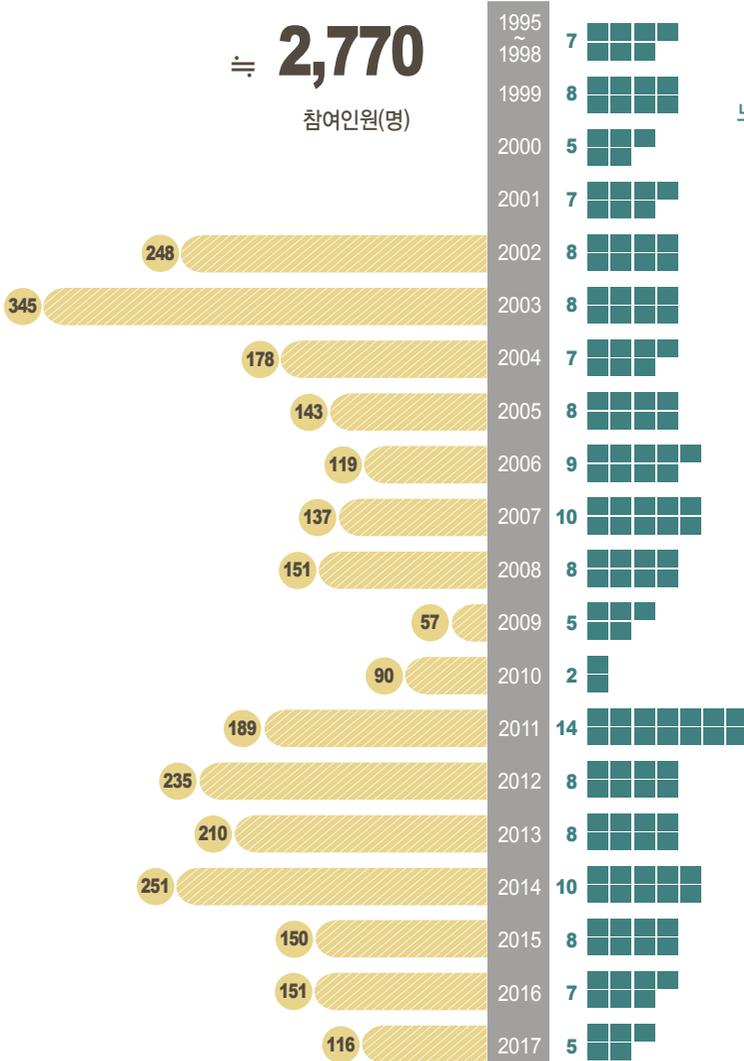




노동포럼 횡수 및 참여 인원

≙ **2,770**
참여인원(명)

152
노동포럼 횡수





회보 『노동사회』 발간 현황



통권(권수)

197 권



기사총수(월평균)

2,895(15) 건



외부필자

1,667 명



쪽수(월평균)

27,862(142) 쪽



발행부수

160,710 부

연도	통권(권수)	기사총수 (월평균)	외부필자	쪽수 (월평균)	발행부수
1995	1~4(4)	44(11)	19	559(140)	3,200
1996	5~9(5)	48(10)	22	690(138)	4,000
1997	10~17(8)	136(17)	86	1,103(138)	4,000
1998	18~28(11)	185(17)	138	1,654(151)	5,800
1999	29~39(11)	150(14)	78	1,433(130)	8100
2000	40~49(10)	137(14)	66	1,159(116)	8,800
2001	50~60(11)	158(15)	85	1,388(127)	7,700
2002	61~71(11)	186(17)	103	1,487(136)	7,800
2003	72~82(11)	229(21)	128	1,663(152)	8,900
2004	83~94(12)	260(22)	169	1,755(147)	11,000
2005	95~105(11)	239(22)	154	1,847(168)	11,000
2006	106~116(11)	189(18)	120	1,796(164)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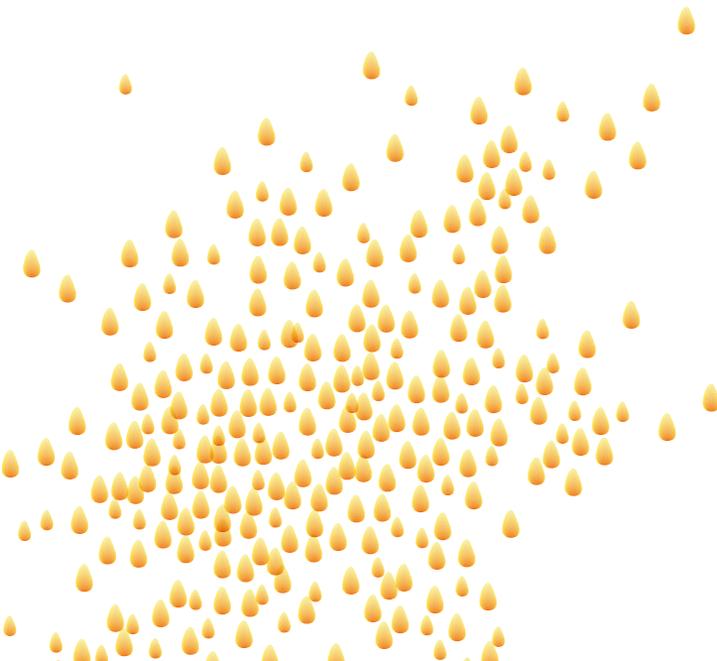
연도	통권(권수)	기사총수 (월평균)	외부필자	쪽수 (월평균)	발행부수
2007	117~127(11)	173(16)	114	1,887(172)	11,000
2008	128~138(11)	162(15)	117	1,710(156)	11,000
2009	139~149(11)	114(11)	54	1,374(125)	11,000
2010	150~155(6)	55(10)	19	725(121)	6,000
2011	156~161(6)	46(8)	16	751(126)	5,400
2012	162~167(6)	58(10)	23	898(150)	5,400
2013	168~173(6)	68(12)	31	837(140)	4,600
2014	174~179(6)	71(12)	36	859(144)	3,920
2015	180~185(6)	62(11)	24	781(131)	3,620
2016	186~91(6)	61(11)	27	773(129)	3,410
2017	192~197(6)	64(12)	38	733(123)	3,060
합계	197	2,895(15)	1,667	27,862(142)	160,710

사진으로 보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입으로 말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론과 정책을 생산합니다.
현대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선도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싱크탱크입니다.

첫 마음을 되새기며,
함께 걸어온 지난 30년을 돌아봅니다.



1



2



한국노동교육협회

- 1 1993년 한국노동교육협회 월례토론회 "ILO 권고와 한국의 노동법"
- 2 1993년 10기 강사훈련과정에 참여한 노조 활동가들과 협회 사람들
- 3 한국노동교육협회가 발간한 자료들
- 4 한국노동교육협회 현판

3



4



5



6



7



8



9



1990년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5 199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기인총회
- 6 1997년 전국택시노동조합과 함께한 "조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7 1997년 화학산업노조 강사훈련에 참여한 교육활동가들과 연구소 사람들
- 8 1997년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故 김진균** 서울대 교수(당시 이사장)
- 9 "남산 시대"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람들
- 10 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3국 연대회의 참여자들과 함께

10



11



12



13



14



15



16



17



2000년 이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11 2003년 노동포럼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 12 2004년 어느 봄날 서대문 기독교장로회선교원에서 연구소 사람들
- 13 2005년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 14 2005년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 15 2007년 연구소를 방문한 베트남 노사정 관계자들과 함께
- 16 2007년 연구소 가을아유회에서
- 17 2010년 제100차 노동포럼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 방안”

18



19



20



21



22



23



- 18 14년간의 서대문 시대를 마치고 옮겨간 2013년 공덕동 사무실 개소식
- 19 2013년 중국 황산에서 연구소 사람들
- 20 2013년 『세계노동운동사』 출판기념회
- 21 2014년 독일노총의 프랑크 자하 중앙집행위원 초청강연
- 22 201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 23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남상헌 전 이사장과 사문걸 에버트 재단 소장에게 감사패 증정
- 24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기념 촬영하는 연구소 임원들과 내빈들

24



25



26



27



28



29



30



25 지금까지 발간된 회보 『노동사회』 연구 창간호

26 오병철 선생의 글씨로 제작한 연구소 현판

27 2016년 서대문 사무실 개소식

28 2016년 베트남 워크숍에 참여한 연구소 사람들

29 2017년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강좌

30 2017년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에서 강의중인 김유선 이사장

[발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사를 펴내며, 노동의 희망을 다짐하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995년 4월 28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인 한국노동교육협회는 1986년 4월 26일 세상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30여년이 흘렀습니다. 출범 당시 연구소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입으로 말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이론과 정책을 생산하고, 현대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선도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론 예기치 못한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때론 부족하고 더딘 스스로의 걸음 걸이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 지향을 저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실로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땀과 열정을 바쳐온 연구원들, 그리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현장 노동자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개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주년 행사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한국노동교육협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지난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협회와 연구소가 한국사회의 역동성에 호응하여 살아낸 삶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거울을 통해,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희망에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책은 그런 조언을 부족하나마 우리의 손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고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난 30여 년의 한 세대 동안 한국노동교육협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살아온 삶의 구석구석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무엇을 실현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희망했으며 무엇에 낙망했는지를 가감 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에서는 각각 한국노동교육협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통사(通史)로서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995년 4월 창립 이래 지금까지 남긴 성과를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출판사업, 그리고 연대활동과 조직운영 등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가를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여 년을 순서대로 복기한 연표를 담았습니다. 또한 책 서두에는 연구소의 역사를 보다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진들과 그래픽을 실었습니다. 연구소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사진과 그래픽, 그리고 통사부터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연구소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연표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민주적 노사관계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도약, 그리고 참다운 평등과 자유가 충만한 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노동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연대와 전진의 길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인포그래픽	4
화보	12
발간사	22

제1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1. 1980년대 중반기 노동사회 상황	
1)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87노동자대투쟁의 폭발	30
2) 민주노조진영의 구축과 성장	34
2. 협회의 출범	
1) 출범의 배경	39
2) '87노동자대투쟁과 활동의 확대	42
3. 협회의 지향점과 운영체계	
1) 목표의 설정	44
2) 활동체계의 정비	46
3) 협회의 일꾼들	47
4. 협회의 분야별 활동기록	
1) 개요	49
2) 교재 및 노동관계 책자 발간	49
3) 회보 발간	51
4) 조직화 지원	52
5) 노동교육	54
6) 월례토론회	57

제2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년의 궤적**

1. 노동운동 상황의 변화	
1) 자본의 세계화 공세와 1996/97 총파업	62
2) 외환위기와 노동운동의 충격	64
3)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68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창립	
1) 설립 논의	72
2) 설립 준비	74
3) 창립대회	77
4) 초기 운영 상황	80
3. 연구소의 성장과 변화	
1) 기반형성과 성장	83
2)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85
3) 외환위기와 활동의 변화	87
4. 시련과 위기의 5년	91
5. 재도약을 위한 성찰과 모색	95

제3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부문별 활동 기록**

1. 연구사업	
1) 개요	104
2) 연구주제	110
3) 협력기관과 연구진	127
4) 기타: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 창	140
2. 교육	
1) 개요	147
2) 기획교육	148
3) 파견교육	152
4) 교육방법론 개발 연구	154
5) 토론회 및 노동강좌	154
6) 교재 발간	156
7) 기타 활동	158
3. 출판	
1) 개요	161
2) 회보 : 『노동사회연구』와 『노동사회』	162
3) 일반도서	168
4. 연대	
1) 국제연대 및 교류	170
2) 노동사회 연대	182
3) 대외활동	186
5. 조직과 운영	
1) 체계	188
2) 회원	193
3) 회의	197
4) 연구원	2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사

부록	[부록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 창립취지문	204
	[부록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관(안)	206
	[부록 3]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설립취지문	212
	[부록 4]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1) 연구사업	214
	2) 노동포럼	228
	3) 노동교육 관련 연구	234
	4) 연구소 발간 단행본	236
	5) 회원총회 개최	238
	6) 이사회 개최	239
7) 감사	241	
8) 역대 임원진	242	
9) 역대 연구소 구성원	245	
연표	연표	246

제1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1. 1980년대 중반기 노동사회 상황

- 1)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87노동자대투쟁의 폭발
- 2) 민주노조진영의 구축과 성장

2. 협회의 출범

- 1) 출범의 배경
- 2) '87노동자대투쟁과 활동의 확대

3. 협회의 지향점과 운영체계

- 1) 목표의 설정
- 2) 활동체계의 정비
- 3) 협회의 일꾼들

4. 협회의 분야별 활동기록

- 1) 개요
- 2) 교재 및 노동관계 책자 발간
- 3) 회보 발간
- 4) 조직화 지원
- 5) 노동교육
- 6) 월례토론회

1. 1980년대 중반기 노동사회 상황

1)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87노동자대투쟁의 폭발

노동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앞서서 노동자의 입으로 말한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출범한 날은 1995년 4월 28일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열망을 담아 역사적인 대결집을 향해 가는 시점이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 계기점이 있었다. 한국노동교육협회가였다. 1986년 4월 26일, 세상에 얼굴을 알린 협회는 '노동'이 천형마냥 천시되는 거친 황야에 한 점 노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만들어진 곳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협회'를 말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한국노동교육협회가 등장한 1986년은 민주화 열망과 독재정권의 연장 음모가 정면충돌을 향해 치달던 시기였다. 1970년대 말 유신독재체제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광주민중항쟁을 잔혹하게 진압한 전두환 정권은 유신시대를 넘어서는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민중들은 잠시 숨을 죽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절한 저항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1984년 말 이른바 정치적 '유화국면'이 초래되었다. 야당과 재야에서는 민주화 투쟁이 격화하고 학생운동에서는 '사회변혁'을 향한 모색이 치열하게 전개했다. 전두환 정권은 다시 강압의 채찍을 휘두르려 했으나 이미 저항세력은 제압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1986년 들어 야당과 재야세력의 개헌서명운동이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며 더욱 독재정권을 위협하고, 교육, 언론, 출판, 청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한 조

직화가 급진전되는가 하면, 학생운동에서는 사회변혁을 향한 움직임들이 갈수록 더욱 치열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다. 독재정권은 막대한 외채도입과 시장개방, 노동자·농민의 희생을 통해 독점자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1980년대 중반 경제상황은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이라는 '3저 호황'(저유가·저환율·저금리)의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권력과 거대 독점자본만의 잔치일 뿐 민중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노동자는 1980~1987년 사이에 646만 4천 명에서 919만 1천 명으로 42.2%나 급증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70년대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과 세계 최대의 산업재해 속에서도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마저 어려운 수준이었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주택난과 물가상승 등에 시달리며 노동력이 마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노동운동은 새롭게 변모하고 있었다. 1980년 초 폭발적인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운동은,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단행된 민주노조의 파괴와 이른바 '3금'(복수노조 금지, 정치활동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으로 집약되는 노동법 개악으로 극도의 침체와 질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정치적 유효국면이 시작되자 노동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먼저 신규 조직이 늘어나고 노조민주화 투쟁이 빈발했으며, 노동자투쟁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1982년 88건에서 1986년 276건으로 나타났다.

제도권인 한국노총의 취약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제도권 밖의 노동운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전면으로 부상했다.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와 지역별 해고노동자단체 등 재야노동운동단체들이 결성됐고 제도개선투쟁이 활발해졌다. 아울러 사회적 모순과 노동자의 요구를 알리는 선전 홍보물이 쏟아져 나왔고, 노동관계 서적이 대량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대학생 등 지식인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서울과 수도권의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노동경험을 익히고 소그룹 활동을 벌이면서, 노조결성, 노동쟁의

등에 참가했고, 노학연대를 실천하고자 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도 연이어 폭발했다. 1984년 6월 대구·부산의 택시 노동자들의 파업시위가 일어났고, 1985년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대우자동차(인천 부평)에서 파업이 폭발하고 서울 구로공단에서는 ‘동맹파업’이라는 새로운 투쟁이 등장했다. 동맹파업은 한 사업장 노조간부 구속에 항의하여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이 동조파업을 전개한 것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정치적 요구를 내걸기도 했다. 구로 동맹파업은 이후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정치투쟁 조직이 출범하는 근거가 됐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활발해지자, 정권은 1985년 하반기부터 다시 탄압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량해고, 노동운동가에 대한 비방선전, 블랙리스트 강화, 노조설립 봉쇄, 휴·폐업, 형사처벌 강화, 구사대 설치 등의 조치들이 이어졌지만,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운동은 급변했지만 한국노총은 군부독재권력의 위압에 눌려 민주화세력과의 결합이나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요구에 따른 내부개혁 요구를 거부했다. 1984년 이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회관에 몰려와 농성하는 일이 잦아지자,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철문을 설치하여 농성장을 차단해 버렸고, 1985년 7월에는 전임간부 5명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개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해 버렸다.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을 지지함으로써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다시 한 번 역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열망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을 넘어 비등점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전두환 정권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1987년 ‘4.13 호헌조치’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절규하는 민주항쟁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거세게 타올라 곳곳에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전국적인 시위투쟁으로 확대되었다.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은 혁명 전야의 긴박한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마

침내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국민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이라는 긴 제목의 6.29 항복선언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6.29 선언이 발표되자 최루탄 포연으로 뒤덮였던 온 나라가 정적 속에 잠겨들었고 민주화투쟁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탄압의 주인공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만 주어졌을 뿐, 절박한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마침내 노동자들은 6.29선언 직후 분노의 함성을 터트리며 떨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여름 노동자대투쟁의 폭발이 그것이었다.

노동자들은 6.29 선언 직후부터 10월 초반까지 3개월여 동안 전국적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은 여러 형태의 투쟁을 통해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권력과 자본의 견고한 전제와 억압의 성채를 무너뜨리면서 전국을 휩쓸었다. 6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노동자들이 일으킨 노동쟁의는 총 3,255건이었고, 여기에 참가한 노동자는 121만 8천여 명이었다. 가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투쟁이었다.

‘87노동자대투쟁은 현대그룹의 거대 중공업사업장이 집결한 울산에서 촉발되어 마산·창원·부산·대구·광주·대전을 거쳐 서울과 경인지역으로 북상하였다. 투쟁은 제조업 특히 중공업 대기업 생산직 남성 노동자들이 주도했으며, 운수업, 경공업, 광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전 산업·전 규모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은 투쟁과정에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 생존권과 노조결성과 조합활동 보장, 단체협약 체결, 어용노조의 민주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억압적 병영적 노무관리 철폐와 각종 차별의 청산 등 억압적인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들 요구는 파업현장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로 광범하게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이들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 농성, 시위 등 다양한 행동을 벌였다. 이 행동들은 대부분 법률상 규정된 절차를 뛰어넘어 탈법·불법적인 형태를 띠었다. 노동자들은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먼

저 파업·농성·시위 등 단체행동을 벌여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형태 곧 '선 파업 후 협상' 형태로 요구조건을 확보해나갔다.

1987년 여름, 세 달 동안 전국 전 산업에 걸쳐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자대투쟁은 그동안 오래도록 잠재적 형태로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불만과 욕구가 거의 동시에 표출된 대중적 항거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맞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나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6월 항쟁의 승리와 그에 이은 억압적 통제기구의 이완이라는 열린 공간을 타고, ‘3저 호황’임에도 저임금·장시간 노동·병영적 노동 통제로 억압받아 온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자 떨쳐 일어난 일종의 노동항쟁이었다.

2) 민주노조진영의 구축과 성장

노동자들은 '87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제와 각종 제도와 구조가 지닌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고, 투쟁을 통해 노동자 자신들의 힘과 단결이 갖는 큰 의미를 깨달았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무력감이나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단련하여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자대투쟁은 일방적이었던 노사 간 힘의 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요구했고, 이후 노동운동은 조직·투쟁·이념 등 주요한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민주노조진영'이라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민주노조운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87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재벌그룹의 대기업들과 언론, 병원, 건설, 정부기관, 대학, 경제단체, 유통부문 등에서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과거 제조업 중심의 노동운동의 영역을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여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켰

다. 새롭게 생겨난 노조들은 스스로를 '민주노조'라 부르고 한국노총체제를 벗어나 지역별, 업종별, 그룹별 연대와 협력을 기초로 전국적 통일을 시도하였다. 민주노조들은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 →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전국투본, 1988.8) →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 1988.12)를 거쳐 전국중앙조직으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0.1)를 건설하고, 비제조업 중심으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1990.5)를 결성했다.

1988년 2월 재야 민주화세력의 분열을 틈타 등장한 노태우 정권은 민주적 개혁을 외면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988년 말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를 내리고 1989년 1월 2일 풍산금속노조의 파업현장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 등을 내세우며 노동운동의 고립화를 획책했다. 자본가들은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를 구성하고 무노동·무임금, 인사경영권 참여 배제, 전임자 임금 불지급 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또한 노태우 정권은 한 자릿수 임금인상과 총액임금제 등 임금억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개악과 전노협 파괴공작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노동현장은 대립과 투쟁의 격전지로 변한 나머지 '파업 → 공권력 투입 → 구속·해고'의 악순환이 수년 동안 되풀이되었다. 민주노조들은 1989~1995년 사이 노조원 2,290명이 구속되고 수천 명이 해고·수배되는 탄압을 무릅쓰고 조직을 사수하고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전개했다. 아울러 노동약법이 노동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요인임을 인식하고 노동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는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 1991.10) 조직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의 반대와 공격은 더욱 가중되었고 민주노조진영은 노동법 개정투쟁과 함께 전국중앙조직 건설에 나

서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를 내세우는 김영삼 정권이 등장했다. 문민정부는 군부 내 정치파벌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와 ‘돈 안 드는 선거제’ 도입,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 등 민주화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일방적 억압에서 노사자율, 합리적 노사관계를 제기하며 노동통제정책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제개혁조치들은 퇴조하고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 고통분담론 등을 논하며 노동자의 자제와 양보를 요구했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는 직접적인 임금억제정책 대신, 1993, 94년 ‘노총-경총 임금합의’와 같은 노사 간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노총-경총 합의는 한국노총 조직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임금인상 투쟁은 오히려 격화되었고 민주노조진영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노총 조직의 대대적인 이탈과 민주노조진영 합류를 가져왔다.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의 저항으로 당초의 임금억제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되고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무노동 부분임금제 인정 등 ‘원칙적인 노동행정 관행의 정착’에 대해 자본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영삼 정권은 출범 초기의 부분적인 개혁 조치들의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의 노동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노동관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사 간 노정 간 대립은 치열했다. 파업 건수는 급감하지만 전략적인 산업부문과 수출부문 대기업에서의 투쟁이 완강하게 벌어짐으로써 파업 지속 일수나 경제적 손실은 거의 줄지 않거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문민정부는 출범 초기에 받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쟁의 혐의 등을 적용하여, 1993~1995년 사이 10곳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였고 377명의 노조간부들을 구속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1993년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노동법 개정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조진영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1993.6)와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민노준, 1994.11)를 거쳐 전국중앙조직 건설로 매진했다. 민노준은 과거 투쟁의 관성화를 평가하고 임금·단협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과 함께 '사회개혁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아울러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다양한 조직발전논쟁을 거쳐 단위노조들을 산업별연맹으로 묶어내고 지역본부를 재편하였다. 민주노총 건설 추진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직·간접적 방법으로 방해책동을 벌였다. 정부는 주요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하는가 하면,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라 하여 간부들을 구속 수배하기도 하고, 민노준의 창립기금 모금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의 불법성 해석 전파 등을 행하였다. 경제 5단체는 민주노총 창립 전날 긴급회동을 통해 "민주노총이라는 급진과격세력이 노동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활동을 차단하고 노조전임자 파견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온 노동자 대중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향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주노조진영은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조운동의 총본산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깃발을 올리고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총진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대회에는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하였다. 민주노총에는 15개 산업(업종)조직과 10개 지역본부, 2개 그룹조직이 가맹했고, 단위노조는 861개에 조합원 41만 8,154명이었다. 창립대회는 초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권영길과 권용목을 선출했다.

민주노조진영이라는 새 주체의 형성으로 노동운동은 광범하게 확대된 투쟁주체와 투쟁역량 그리고 이념에서 눈에 띄게 변했다. 투쟁주체는 종래의 제조업 노동자들로부터 사무·전문·기술직종 등의 노동자들로 급속히 넓혀졌으며, 언론 민주화, 연구 자율성 보장, 의료 민주화, 학원의 자주화·민주화, 교육개혁 등 경제적 이해를 뛰어넘는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투쟁과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투

쟁은 노조가 주도함으로써 조직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아울러 지역별·산업별·그룹별 연대투쟁과 전국적 통일투쟁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1990년 민주노조진영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전노협은 스스로를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일방적 노사협조주의의 배격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통한 사회개혁, 그리고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투쟁성과 정치성을 강하게 띤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스스로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민주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87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축인 독점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대부분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이념적으로는 사회개혁적 또는 사회변혁적 관점을 지향하였다. 이는 총자본과 민주노조운동이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민주화 이행기인 1987년 이후에도 국가권력과 자본 측이 민주노조운동을 "계급투쟁과 노동해방 이념아래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하며 정치투쟁을 목표로 하는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탄압을 가한 것은 총자본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울러 민주노조운동의 대두와 확산으로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의 총본산으로 자처해오던 한국노총은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88년 이래 한국노총은 옥외 대중집회와 시위투쟁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종래와 다른 모습을 모이며 개혁을 추진했으나 1993, 94년 노총-경총 임금합의를 계기로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위기는 1996년 "현장과 함께하는 강한 노총 건설"을 내세우고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나서면서 타개의 가능성을 보였다. 한국노총의 개혁시도는 1996년 말 이후 정부와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한 전국 총파업을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보였다.

2. 협회의 출범

1) 출범의 배경

한국노동교육협회라는 단체가 세상에 이름을 올리려고 준비를 시작한 것은 1986년, 노동자대투쟁이 폭발하기 한 해 전이다. 그 주인공은 김금수, 천영세, 김유선이다. 이들의 이름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접, 간접으로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당시 이들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었다. 이들의 직책을 한국노총 1984년도 사업보고는 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위원, 직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1985년 7월 말 한국노총에서 나왔다. 이때 같이 나온 사람들은 사무차장 이성균, 교육부장 유종설, 조직부장 박홍섭, 여성부장 김근화 등 네 명과 민정식이라는 수위였다. 이들이 한국노총을 나온 이유는 해고와 사표 두 가지로 나뉘었다. 김금수, 이성균, 유종설, 박홍섭, 김근화는 해고이고, 천영세, 김유선은 다섯 사람의 해고의 부당함에 자진 항의사표를 던지고 한국노총을 뛰쳐나왔다. 이 해고사태에 대해 한국노총 김동인 위원장은 '재정난'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고 현장 노동자들의 활발해진 투쟁을 지원했다는 것이 실제 이유였다. 1984년부터 현장 노동자들의 신규 노조 결성과 임금인상투쟁이 빈발하고 사용자들의 탄압이 가해지자,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신민당, 민주협, 노동부지방사무소, 금속노련, 섬유노련 등 사무실을 접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급기야는 구로동맹파업이라는 역사적 투쟁까지 전개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에 대해 권력자들은 한국노총 실무자들이 조종하고 지원했

다는 구실을 붙여 해고해 버린 것이다. 다섯 사람은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이돈명, 조영래, 이상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1심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해고과정에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고 재정난 또한 이유가 안 된다고 판결했다. 2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노총 쪽 변호사 요청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밀린 임금을 받고 소송을 끝냈다.

1986년 4월 김금수, 천영세, 김유선 세 사람은 사랑방 비슷한 걸 하나 차려서 공부도 하고 사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가정집 2층을 얻어 사무실을 차렸다.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위치를 찾기 어려우나 당시로서는 지금처럼 번잡하지 않은 한적한 동네였다.

세 사람은 거의 매일 출근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오랜 선배이자 옛 친구들이 들려 한담을 나누거나 한국노총 당시 만나오던 간부들이 가끔 드나들 정도였다. 조직 밖에서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책을 쓰거나 교육을 하는 일이었다. 교육이라도 하고 싶지만 한국노총에서는 산별노조에 공문을 보내 “김금수, 천영세는 강사로 부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니 교육 요청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격동의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 1986년 하반기 정이환이 홍제동 사무실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섬유노련에서 일하다 시국 사건으로 해고된 상태였다.

그 무렵 학생운동 세력들은 민중과의 실천적 연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었다. ‘한국변혁운동의 주력군은 노동계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장으로 투신하는 재학생,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광범하게 들어간 것으로 지적되었고, 자본과 권력자들은 이들을 ‘위장취업자’로 규정하고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또 노동현장의 저항도 노조 조직화와 현장투쟁을 통해 침묵을 깨고 격화하였다. 이런 변화와 함께 민주화단체, 노동단체도 늘어났다.

1970년대에 제적된 학생운동가들이 출판사를 차려 책자를 발간하였다. <돌베개>를 비롯하여 <실천문학사>, <광민사>, <풀빛>, <학민사>, <한마당>, <사계절>, <백산서당>, <지양사>, <춘추사>, <동녘>, <미래사> 등 출판사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이들은 민중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서적들을 발간하는 한편 ‘무크지’를 통하여 노동문제 인식에 대한 대중적 확산을 시도하였다.

1979년 설립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1982년 말부터 신문기사와 각종 유인물을 모아 매년 『노동사회 사정』 등을 발간했다. 그러나 이들 책자들은 기초적인 개념 풀이나 인식을 넓히는 수준이었고, 예컨대 노동조합 결성이나 운영, 부당노동행위 대응방법, 단체교섭 전략 전술 등과 같이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서적들은 거의 보기가 어려웠다. 유일하게 장명국의 『노동법 해설』(석탑, 1982)이 현장의 목마름을 달래주고 있었다.

홍제동의 네 사람이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날을 보내는 동안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정세는 날이 다르게 격화하고 있었다. 큰 도시마다 최루탄으로 뒤덮이고 공권력과 혈투가 매일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통제와 강제된 잔업과 철야노동을 떨치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간헐적으로 시위투쟁에 가담하였다. 그런 속에서 서울의 제2금융권 사무직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의 4.13 호헌 지지선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넥타이부대’를 형성하여 항쟁시위에 참여하고 명동성당 철야농성에 가담함으로써 투쟁을 크게 전진시키고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격전 끝에 공권력은 도처에서 무장해제 당하거나 무력화되었고 전국은 혁명 전야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마침내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전두환을 대신하여 8개항의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최루탄의 포연으로 뒤덮였던 온 나라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이 정치적 정적은 7월 초 노동자들의 격렬한 함성과 투쟁으로 산산이 깨져나갔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7, 8, 9월 노동투쟁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제동의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 민주항쟁과 관련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노동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6월 항쟁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홍제동 사무실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들이 찾아오는 정도이고, 한국노총과 산별노련의 일부 간부들이나 후배들이 가끔 들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눌 정도였다. 그러던 중 1987년 봄, 인천에 있는 '새얼장학회'에서 『영국 노동조합운동사』 번역 요청이 왔다. 네 사람은 번역에 달려들었고 김금수를 역자로 하여 『영국노동조합운동사(상·하)』(시드니 웹 & 베아트리체 웹, 1990) 두 권으로 형성사에서 출간되었다. 현장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박인상 위원장과 피정선 국제부장이 찾아와 『노동교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당시 박인상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에 당선되어 '현장중심의 노동운동'을 기치로 개혁을 막 시작하던 참이었고,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

2) '87노동자대투쟁과 활동의 확대

전두환의 6.29 항복선언 후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적으로 번져가자 협회에도 큰 변화가 밀어닥쳤다. 격렬하게 투쟁하는 노동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응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수십 년간 누적됐던 불만을 폭발시켰지만 앞으로 생겨날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노동자들은 알지 못했다. 1980년대 전반기 지식인 출신 몇몇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조직결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분출하는 노동투쟁을 지원·지도하기에는 실천적 경험이 너무도 부족했다. 이런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의 상담에 응하고 자료를 만들어주며 실전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할 교육이 무엇보다 긴요해졌다. 현장 노동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협회의 존재가 알려졌고 찾아오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일손이 바빠졌다. 때

마침 활동가들이 협회를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배동문이었다. 대학을 나와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사무실에 나온 사람들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를 맞댔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긴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노동조합에서 겪었던 경험을 살려 책을 펴내기로 했다. 그 첫 번째가 1987년 8월 10일 도서출판 석탑이 출판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었다. 책의 내용은 한국노총에 있을 때 만든 『노동교본』과 그동안의 교육경험을 토대로 일본 책을 참고해서 작성한 ‘노동조합 실무 가이드북’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다 썼는데 막상 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당시에는 노동관계 서적은 정보기관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서 대부분 가명으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개인 가명보다는 단체 이름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일본노동자교육협회’의 예를 살려 ‘한국노동교육협회’로 하기로 했다. 이후 나온 책의 저자는 모두 한국노동교육협회였다.

노동항쟁이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협회에는 드나드는 노동자들이 날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할 일이 많아졌다. 홍제동 사무실은 외딴 곳이어서 노동자들이 찾아오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모여 얘기를 나누기에는 매우 비좁았다. 결국 1987년 10월 1일에 서울역 앞으로 사무실(서울 중구 봉래동 1가 83번지 광풍빌딩 602호, 전화 02) 756-4796~7)을 옮기고, 비로소 ‘한국노동교육협회’라는 간판을 달았다. 30여 평 정도의 사무실은 업무공간과 상담실, 교육장으로 나누었다. 노조결성과 임금·단체협약 교섭, 투쟁전략 전술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요청은 시간이 갈수록 폭증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드나들었고 현장에 갔던 지식인 활동가들의 왕래도 빈번해졌다. 서울역 ‘광풍빌딩 시대’는 이렇게 그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었다.

3. 협회의 지향점과 운영체제

1) 목표의 설정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급성장하면서 노사관계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협회의 활동도 왕성해졌다. 협회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높아졌다.

1988년 1월, 협회는 “노동교육 활동을 통해 이 땅의 노동운동의 발전에 적으나마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고 목표와 역할을 밝혔다. 그리고 주요 활동으로 △노동교육강좌 개설 △노동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동조합에 대한 강의 지원 및 강사 알선 △노동조합 결성 운영 및 활동 전반에 관한 상담 △교재 및 노동관계 자료집 발간 △기타 노동문제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을 내걸었다. 이어 1988년 6월에는 협회의 목표와 역할을 “노동교육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운동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방향을 지향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보다 힘차고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회보 『노동조합의 길』 및 자료집 발간을 추가했다.

협회는 한국 노동운동의 전환기적 고양국면 전개와 발전에 있어서 노동교육활동 또는 노동자교육운동의 임무를 설정했다. 즉, 노동대중의 투쟁과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자본 측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사상공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주체적 자각을 고양시키는 데 협회의 임무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동자로서의 주체의식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노동생활 실태를 토대로 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방침을 가능한 한 광범하게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일, 둘째, 노동자투쟁에 있어서 사상과 이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자본 측과 국가권력에 의한 반노동자적이고 반노동운동적인 사상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운동 내부의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설정했다.

협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식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체계가 필요해졌고 기초적인 운영비가 필요했다. 이에 1988년부터 회원제도를 도입하고 회비를 걷기 시작했다. 회원은 일반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의 세 가지로 나누어 모집했다. 회비는 6개월마다 분납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각각 연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회원은 교재, 노동관계 책자, 자료집 및 회보 등을 제공받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할 권한을 가졌다. 1992년에 들어 회비는 연간 4만 원, 6만 원,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회비는 일정 금액씩 들어오는 편이었으나 사무실 관리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모자라는 비용은 강사비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협회 식구들의 월급은커녕 차비도 챙겨주지 못했다. 그러나 협회 식구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축이라는 자부심으로 항시 열정과 희망을 잃지 않고 활동에 매진했다.

협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날로 늘어났다. 새로이 노조를 결성한 노조 간부들이나 노조 민주화에 노력하던 간부들과 활동가들, 지역노조협의회, 업종협의회,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전노협, 전국업종회의, 대기업연대회의, ILO 공대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거쳐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당시 활동했던 민주노조운동 주요조직의 지도부 간부들은 거의 대부분 협회를 거쳐 갔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다. 다른 노동단체들처럼 노동자들을 자기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협회를 찾아왔고 입소문을 타고 협회를 수소문해서 찾아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결과 조직과 협회로 연결되

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회가 연결되고, 협회를 연결고리로 하여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연대와 친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노동교육협회가 다른 노동단체와 다른 점이었다.

공안당국은 협회를 주시했다. 정보경찰이 서울역 광풍빌딩 경비실에 2년 넘게 상주하면서 협회와 노동자들을 감시했지만 꼬투리를 잡지 못했다. 노동조합 실무를 다룬 책들을 불온서적이 아니었고 악명 높은 '제3자 개입'으로 옹아매기도 어려웠다. 고작해야 강의 내용이나 원고를 몰래 모아 인용하여 『현대논단』이라는 정체불명의 잡지 등에 “봄철이면 나타나는 해충”이란 식으로 비방 기사를 내는 수준이었다. 이 기사에 대해 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중재결정을 받았고 『현대논단』은 사과 및 정정 보도를 냈다.

2) 활동체계의 정비

협회는 초기에는 상황에 따라 일을 맡아 진행했으나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의 체계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2일부터는 조직운영을 위해 교육부, 연구부, 총무부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그리고 부서별 책임자도 임명하여 허명구 사무국장, 박혜경 교육부장, 구용희 연구부장, 양기연 총무부장 등이 부서 책임을 맡았고, 나머지는 연구위원과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월 30일에는 전국 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과 함께 사무실(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동 평복빌딩 3층)을 이전하였다. 이 무렵 김두수, 유선희, 노광표, 김영두가 새로 들어와 합류했다. 협회 사람들은 이때를 '삼각지 시대'라고 부른다.

아울러 협회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며 고문도 초빙했다. 제1차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7월 30일에 열렸다. 회의에서는 정관을 확정짓고 임원으로 이사장 이돈명 변호사와 김금수 대표 및 고문 3인을 선출

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후 회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분기별로 열렸다. 제1차 이사회에서 확정된 고문 3명, 이사 13명, 운영위원 2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이일재, 전무배(‘역사학계’ 대표), 정도영(전 합동통신 외신부장)

이사 : 김경수(일동제약 전무이사), 김동식(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 김지영(김지영내과 원장),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나병식(도서출판 풀빛 대표), 박종기(공협상사 대표), 신인령(이화여대 법대 교수), 이문명(변호사), 이상수(변호사), 전기호(경희대 경영대학원 원장), 천영세(전노협 상임지도위원), 천정배(변호사), 황건(4월혁명연구소 연구위원장)

운영위원 : 김근화(여성자원금고 대표), 김남호(서울대병원노조 위원장), 김성우(통신노조연맹 국제국장), 김유선(전노협 정책실장), 김종철(한국노동교육원 총무과 대리), 김준묵(도서출판 미래사 대표), 노진귀(전국금속노련 노사대책국장), 박기학(도서출판 세계절), 박태주(전문기술노조연맹 위원장), 신금주(SKM노조 위원장), 양병민(서울신탁은행노조 부위원장), 유종설(전 한국노총 조사부장), 이덕만(전 한국노총 조직부장), 이상학(전 대한교육보험노조 위원장), 이석행(전노협 중앙위원), 이성균(한국노총 사무차장), 이원보(섬유노련 기획국장), 임승남(도서출판 돌베개 대표), 정원호(한국개발연구원노조 위원장), 정이환(사회학 박사), 조성준(민주당 성남을 지구당 위원장), 조한천(한국노총 정책실장), 피정선(국제노동연구소 소장)

3) 협회의 일꾼들

협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배동문이 들어온 뒤를 이어 1988년 봄에는 박혜경, 이형범, 박치관, 허명구가 들어왔다. 그 뒤로 양기연, 구용희, 이민영, 강영삼, 이병우, 김강하가 새로 참여했다. 대부분 인천, 부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 노동현장 활동을 한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협회에서 공부를 하기

도 하고 상담활동을 하는가 하면, 특히 설 새 없이 현장교육을 나갔다. 협회는 노동자들로 항상 북적거렸고, 민주노조의 산실이자 조합간부들의 사랑방이었다. 징역 살고 나온 노동자들이 술을 받아달라고 하는가 하면, 현장으로 내려갈 기차표 구매를 부탁할 정도로 격의가 없는 곳이었다.

이처럼 협회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이에 민주노조운동은 날이 다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단결과 연대로 나아갔다. 마창노련을 필두로 지역노조협의회가 전국 각지에 결성되고 업종노조협의회가 결성됐다. 민주노조들은 곳곳에서 장애물로 등장하는 노동법의 개정투쟁을 서둘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1988년 12월 22일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가 구성되었고 다음 해인 1989년 12월 17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22일 전노협이 역사적인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전노협준비위원장인 단병호 위원장이 협회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전국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다섯 명 뽑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1990년 4월 협의 끝에 천영세를 상임지도위원, 김유선을 조사부장으로 파견하였다. 이병우도 이때 전노협으로 옮겨갔다. 천영세는 1995년 민주노총 창립대회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유선은 전노협 조사통계국장을 거쳐 초대 정책실장에 이어 민주노총에서는 초대 정책국장을 맡아 1998년 2월까지 일했다. 이병우는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갔다가 2011년부터 전교조 서울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불의의 병을 얻어 지금까지 기나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4. 협회의 분야별 활동기록

1) 개요

한국노동교육협회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역할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분야별로 일을 나누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노동 관련 책과 회보에 글을 쓰고 안팎의 교육도 나가며 상담도 하고 조직활동을 지도·지원하는가 하면 토론회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 활동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교재 및 노동관계 책자 발간 △회보 발간 △노조조직화 지원 △노동교육 △월례토론회 등이었다.

2) 교재 및 노동관계 책자 발간

'87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에서 노동조합이 속속 결성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운영과 단체교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노조운영과 단체교섭에 필요한 실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상급조직의 '어용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미리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준비마저 하지 않은 채 조직을 만들다가 좌절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농간에 넘어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초기에는 주로 노동조합에 대한 해설과 노

조결성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석탑, 1987)과 『노동조합 어떻게 만드는가』(한얼, 1987)을 펴냈다. 『노동조합 어떻게 만드는가』는 다음해 도서출판 새길에서 개정판이 나왔다. 이어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돌베개, 1987), 『노동조합 일상활동 어떻게 하나』(돌베개, 1988),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새길, 1988) 등이 차례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역사인식의 길잡이』(1988)를 동녘이 펴내었고 『노동조합의 길잡이』(1988)를 새길에서 펴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돌베개)는 1989~1991년 동안 매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어 1989년 3월에는 『노동쟁의 어떻게 하나』(돌베개)와 다음해 10월에는 『알기 쉬운 노동쟁의조정법』(돌베개)을 출판했다. 땅값, 전월세가 폭등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땅과 집 그리고 재벌』(돌베개, 1990)이라는 책도 펴냈다.

이처럼 협회의 출판사업은 노동운동의 성장과 함께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1987년 3권, 1988년 6권, 1989년 2권, 1990년 2권, 1991년 1권의 책을 펴낸 셈이었다. 발간된 책들 대부분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필독서로서 자리매김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출판사업은 “간부학습교재 I, II 김금수 선생 강의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운동론』(1993)과 『간부활동론』(1994) 출판으로 이어졌다. 이 두 교재는 노동운동을 보는 관점과 노동운동의 전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세우고 간부들의 사상과 이론 수준을 높여 실천활동을 촉진시키는 한편, 고난을 극복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노조간부들의 역할과 자세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간부활동론』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속 개정판으로 출간되었고 2002년 5월에 일본에서 『노동조합리더론』(勞働組合リダ論)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주목을 받았다. 한국노동교육협회의 간행물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한국노동교육협회 간행도서

도서명	출간일	집필자	출판사
영국노동조합운동사(상,하)	1990.5	김금수	새얼장학회
노동자와 노동조합	1987.8.10	김유선	석탑
노동조합 어떻게 만드는가	1987.9.10	김유선	한얼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987.11.10	김유선	돌베개
노동조합 어떻게 만드는가(개정판)	1988.4.18	김유선	새길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	1988.1.30	천영세	새길
노동조합 일상활동 어떻게 하나	1988.1.20	정이환 김유선	돌베개
역사인식의 길잡이	1988.5	교육협회	동녘
노동운동의 길	1988.11.10	김금수	새길
1989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개정판)	1989.1.30	김유선	돌베개
1990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개정판)	1990.1.20	김유선	돌베개
1991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개정판)	1991.2.25	김유선	돌베개
노동쟁의 어떻게 하나	1989.3.5	김유선 정이환	돌베개
알기쉬운 노동쟁의조정법	1990.10.27	이형범	돌베개
땅과 집 그리고 재벌	1990.4.15	김유선	돌베개
노동운동론	1993.11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간부활동론	1994.4.1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3) 회보 발간

회보 『노동조합의 길』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구상되었고 1988년 6월 10일 제 1호를 시작으로 1994년 6월 제10호까지 발행하였고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일반에도 판매하였다. 하지만 회보 발간은 창간호 발간 후 2년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 9월에서야 재개되었다. 중단된 이유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노동운동에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책을 내기에는 열정과 능력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그 후 2년 동안 노동운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이미 다양하게 발간

되고 있는 노동관계 신문, 잡지들 속에서 회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쾌한 판단이 안 섰지만 “적어도 우리들 자신에게는 이 책을 내는 것이 우리를 계속 긴장하게 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해 계속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하고, 우리의 다른 활동이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새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노동조합의 길』 1990.9 제2호 1쪽). 회보는 1991년에 와서는 4월과 10월에 3호, 4호를 발간했고, 1992년에는 4월과 11월에 5호, 6호를 냈다. 그리고 1993년에는 6월, 9월, 12월에 7, 8, 9호를 내고, 1994년 6월에는 10호를 냈다.

회보의 다양한 내용을 분류해 보면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법과 규약, 노동교육 및 노동운동, 시사 교양, 임금 및 단체협약, 국제노동운동, 노동운동사, 건강상식, 노동조합 지원단체 소개, 협회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필자는 초기에는 김금수, 천영세, 김유선, 정이환, 배동문 등이 주로 기사를 썼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협회의 연구위원들이 분야를 맡아 원고를 채웠다. 김금수 대표를 비롯하여 구용희, 허명구, 이민영, 유선희, 양기연, 김두수, 강영삼 등이 주로 원고를 작성했으며, 많은 외부 필자들이 참여하였다.

4) 조직화 지원

1988년 당시 한국노총 조직 이외에도 전국 지역별로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설립되어 있었다. 상담소, 종교단체, 연구소, 지역노동자협의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을 협회는 1988년 4월 당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서울 : 전태일기념사업회, 국민운동본부 노동자공동위원회, 운수노동상담소(박종만열사 추모사업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성문밖교회, 동부노동상담소, 구로노동상담소
- 부산 : 노동자협의회, 노동상담소
- 인천 : 기독교노동상담소(일꾼교회), 인천지역해고자협회, 노동자의 골목집,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인천 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 대구 : 민주노조건설 노동자공동위원회
- 광주 : 노동사목
- 성남 : 만남의 집, 산자교회 노동상담소
- 안양 : 노동상담소
- 수원 : 노동상담소
- 반월 : 반월공단노동상담소
- 사북 : 노동사목
- 이리 : 근로자의 집
- 구미 : 나눔자리
- 마산 : 노동문제상담소, 경남노동자협의회
- 울산 :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이들 단체들이 '87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지원했는지 분명치는 않다. 협회에서는 대투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노조결성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맨 처음 협회를 찾아온 이는 서울지하철의 배일도였다. 배일도는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중심인물인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김준용의 소개로 흥제동 사무실을 찾아왔다. 배일도는 동료 몇 사람과 함께와 천영세와 상담을 했다. 천영세는 공기업이라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끝까지 갈거냐고 물었

고,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노조결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7노동자대투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8월 12일에 57명이 모여 결성되었고, 세 달 만인 11월 18일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만이 아니라 궤도노동조합운동과 전노협과 같은 전국단위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에 이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도 일찌감치 협회의 지원을 받아 결성되었다. 협회의 열정적이고 끈질긴 지원으로 한 병원에서 어용노조를 물리치고 민주노조 조직을 장악하면 다른 병원 노동자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고 이들을 모아 병원노련을 결성한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병원노련은 이후 서노협의 쌍두마차로 맹렬한 활동을 하게 된다.

5) 노동교육

협회는 노동현장의 투쟁이 진전됨과 함께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1987년 말경 노조결성과 노조운영, 기본활동과 관련된 상담은 경인지역만 해도 수백 건이 넘었다. 전국에서 교육을 요청하는 일이 급증했다. 1987년 11월, 협회는 해당 지역 노조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활동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과목은 노조결성, 일상활동,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합실무 등 노조활동 기본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런 가운데 1988년 임단투를 앞두고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이 임금인상투쟁공동교육을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협회에 의뢰해왔다. 마창노련은 1987년 12월 14일 최초로 결성된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였다. 지노협은 이후 전국 주요 공업지역에 들어서 민주노조 진영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다.

교육은 1988년 2월 8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됐다. 가톨릭노동교육원에서 주선

했고 장소도 내주었다. 참가자는 예상을 훨씬 넘어, 참가인원을 노조당 4명으로 제한했는데도 140명이나 되었다. 강의는 김금수, 천영세, 김유선, 정이환이 번갈아 맡았다. 마창노련 교육의 강의가 비는 낮에는 이석행이 대표로 뛰고 있는 한국노총 진주지구협의회로 날아가 교육을 했다. 밤에는 창원에서 낮에는 진주에서 교육하는 강행군이였다. 교육 열기는 더없이 뜨거웠고 노동자들은 강의 내용을 스피치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 교육은 1988년 마창노련이 입단투를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창노련은 그 여세를 몰아 조직을 대폭 확장했다. 마창노련 이흥석 의장은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 산하 전국 노동법개정투쟁본부 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 훗날 마창노련은 1988년 임금인상투쟁의 의의와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1987년 대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마창노련은 88년 입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마창노련이 88년 입투를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해내느냐에 따라서 마창지역 노동자들이 마창노련을 실질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에 88년 입투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었다.”(김하경, 『내 사랑 마창노련(상)』, 갈무리, 1999, 68쪽)

“마창노련이 처음 조직하고 투쟁한 88년 입투는 성과 있는 결실, 빛나는 승리를 일구어냈다. 대부분의 노조가 요구액의 60~80%를 쟁취했고 시티즌, 삼미금속, TC, 웨스트 등의 노조는 100%를 쟁취하는 쾌거를 올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위의 책, 96쪽).

마창노련의 교육을 전후하여 협회에는 교육 요청이 쇄도했다. 그 횟수와 내용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김유선은 1987년 7월부터 1988년 여름까지 8개월간 150~200여회 교육을 나갔고, 1990년까지는 500~600회기량 뒀던 것으로 기억했다. 교육을 나간 노동조합을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민주

노조들은 대부분 교육을 했고 전국적으로 안 가본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업종별로는 언론노조연맹 산하조직들은 모두 교육을 나갔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협회도 역할 변화가 필요했다. '87노동자대투쟁 이후 초기에는 노조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나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실무교육을 직접 수행했는데, 지역별·업종별협의회가 생겨나고 산업별연맹들이 결성되면서 교육의 대상이 바뀌었다. 노동조합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교육담당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그 결과 1989년 9월 15일부터 '강사훈련과정'이 시작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자체 교육역량을 갖추고 내부에서 간부를 발탁하여 육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은 김금수, 천영세, 김유선이 한국노총에 있을 때 직접 기획하고 지도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 과정은 참가자들 스스로 교안을 만들고 그 교안에 따라 강의를 하며 그 강의과정을 비디오테이프리코더(VTR)로 찍어서 집단적으로 평가해보는 훈련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실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사전교육과정 △교안작성과정 △VTR실습과정 △기타 문화교류과정 등 4단계로 구성되었다. 사전교육과정으로 노조운동의 주요 쟁점에 대한 특강과 교안작성을 돕기 위한 안내강의, 교안작성과정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교육 교안을 작성하는 과정, VTR 실습과정으로서 자신의 교안으로 직접 강의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평가하는 실습과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험 교류와 기타 노동문화 시간 등이 그것이었다. 초급과정은 1992년 가을까지 진행되었고 중급과정은 1992년 12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강사훈련과정은 협회가 노조간부를 모집하여 서울 송실대 사회봉사관에 서 합숙으로 진행하였지만, 참여가 어려운 지역이나 노조에는 프로그램이나 운영 집행에 대해 출장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대우조선노조 교육위원들의 두 차례에 걸친 자체 교육, 현대자동차노조 교육위원 자체교육 1회, 만도기계 상집간부

의 강사훈련 등이 그것들이었고, 광주, 부산지역 등의 자체 강사훈련과정은 직접 나가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강사훈련과정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6) 월례토론회

협회가 또 하나 역점을 두고 추진한 활동은 토론회의 조직이었다. 토론회는 매월 노동운동 안팎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의제를 선별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노동운동 방향 설정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개최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1992년 4월 10일 열린 제1차 월례토론회는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조직형태의 발전'을 주제로 시작되었다. 서울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150여 명의 청중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월례토론회는 1994년 10월 28일 제12회로 마감했는데, 큰 주제별로 보면 '노동운동 발전전략' 5회, '임금인상투쟁' 3회, '노동법과 노동정책' 3회, '노동정치' 1회 등이었고, 소주제별로는 32회였다. 총 27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분야별로 나누면 전노협 7명, 산별연맹 간부 7명, 단위노조 간부 8명, 지역노조 간부 2명, 연구소 4명, 전노대 2명, 협회 2명 등이다.([표 1-2] 참조)

[표 1-2] 한국노동교육협회 월례토론회 개최 상황(1992.4~1994.10)

회 주제	소주제 및 발표자	날짜
1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조직형태의 발전	김금수(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	1992. 4.10
2 6공화국의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1. 6공화국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김세균 서울대 교수) 2. 6공화국의 노동조합 탄압 :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김선수 변호사) 3. 6공화국 임금 정책, 6공화국 출범 이후 구속·해고 노동자 실태(김유선 전노협 조사통계국장) 4. 6공화국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안종민 전문노련 대외협력국장)	1992. 5.29
3 노동조합 운동의 올바른 방향 모색	1.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방향 모색(허명구 한국노동교육협회 사무차장) 2.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에 대하여(엄주웅 한국 노동운동연구소 소장) 3. 하안 가운데서 푸른 작업복까지, 직종과 권위의 벽 허물고(안지희 서울대학교노동조합 사무국장) 4. 부천지역 노동조합 연대활동의 현황(김정진 한길노동연구소 소장) 5. 자주적 총단결로 나아가자!(오길성 전국노동 조합협의회 사무총장)	1992. 7.10
4 현장조직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미상)	1992. 8
5 노동법개정 투쟁의 의의와 추진 방향	1. 92년 노동법개정투쟁의 의의와 방향(천영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지도위원) 2. 노동법개정투쟁의 활성화를 위하여(양규현 경기남부노동조합연합회 의장) 3. 92년 노동법개정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총단 결과 산별노조 건설로(김병근 통신개발연구원 노조위원장) 4. 현장토론 지침(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2. 10.8
6 대통령선거와 노동운동의 대응	1. 민주정부 수립과 노동조합(김근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2. 대통령선거와 노동조합의 대응 : 전노협의 방침을 중심으로(문성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중앙위원) 3. 대통령선거 시기의 노동조합 활동(최재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4. 대통령선거투쟁에서의 서노협의 실천방안(서울노동조합협의회) 5. 대통령선거 시기 병원노동자의 활동에 대하여(전국병원노동조합 연맹) 6. 노동자는 대통령선거 시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장활동을 중심으로(인천 한겨레민주노동자회 회보 「노동자의 벗」)	1992. 11.11

7 93년 임금인상 투쟁의 목표와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3년 임금인상투쟁의 목표와 방향(심상정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 의국장) 2. 93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투쟁의 기초(최은석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3. 정부출연기관 노동조합의 93년 임금인상투쟁(임상훈 산업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4. 93년 임금인상투쟁의 목표와 방침(최방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1993. 2.16
8 ILO 권고와 한국의 노동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교조 합법화의 정당성과 그 전망(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 책위원장) 2. ILO 조약과 한국의 노동법(김유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책실장) 3. 최근 노동법 개정 동향과 전망(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1993. 5.11
9 93 임투 평가와 하반기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3 현충련 공동 임금인상투쟁(박준석 현대정공노동조합 기획국장) 2. 대우조선노동조합의 93임금인상투쟁(최은석 대우조선노동조합 위 원장) 3. 93임투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과제(허영구 전국노동조합대 표자회의 집행위원장) 4. 93임금인상투쟁의 주요 상황 일지 	1993. 8.31
10 94년도 임금 교섭의 방향 -공동교섭을 중심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섭의 형태 2. 사무금융노련의 93임금공동교섭(이환구 전국사무금융노련 쟁의지 도국장) 3. 정부출연기관 노조, '집단교섭'의 성공과 실패(정원호 한국개발연 구원노동조합 위원장) 	-
11 민주노총,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방향에 대하여(문성현 전노협 사무총장) 2. 민주노총 건설 계획(김영대 전노협 수석부위원장) 3.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허영구 전노대 집행위원장) 4. 전노대 조직현황(전노대 정책반) 	1994. 6.17
12 자본의 합리화 공세와 노조의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노조의 대응(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 신경영전략과 노조의 대응(박준석 현대정공노조 기획실장) 3. 기업합리화와 노조의 대응(채은석 사무금융노련 수석부위원장) 4. 임금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노동연구원) 	1994. 10.28

제2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년의 궤적

1. 노동운동 상황의 변화

- 1) 자본의 세계화 공세와 1996/97 총파업
- 2) 외환위기와 노동운동의 충격
- 3)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창립

- 1) 설립 논의
- 2) 설립 준비
- 3) 창립대회
- 4) 초기 운영 상황

3. 연구소의 성장과 변화

- 1) 기반형성과 성장
- 2)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 3) 외환위기와 활동의 변화

4. 시련과 위기의 5년

5. 재도약을 위한 성찰과 모색

1. 노동운동 상황의 변화

1) 자본의 세계화 공세와 1996/97 총파업

'87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특징으로 드러내면서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1995년 11월 출범한 민주노총은 199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노동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1997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사회개혁 3대 과제를 쟁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산업별조직 및 지역조직의 통폐합과 조정 등 자체 조직의 정비를 서둘렀고 내셔널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자본의 경향을 보이고 반노동자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노동운동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이른바 ‘세계화 공세’와 맞부딪치게 된 것이었다.

199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직후, 문민정부는 ‘세계화 시대의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5월 9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발족시켰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로부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개혁하자는 취지였다. 노개위에는 민주노총 대표와 한국노총 대표가 함께 공식적으로 참가했고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노동법 개정’이었고 노사 간 공방은 11월까지 치열하게 벌어졌다. 자본 측은 단결의 자유 보장은 최대한 제한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시간제 등 이른바 고용의 유연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고, 노동진영에서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전

면 폐지와 정리해고와 노동자파견제도 등 고용의 유연화를 반대하며 맞섰다.

6개월 동안 노개위 협상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노사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1996년 11월 10일 노서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구성하고 노개위의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로 보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1996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여 대응태세를 갖추었고,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박인상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 및 노총·산별·지역조직 간부 철야 농성, 규탄대회 등을 통해 투쟁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재집권을 과신하며 재계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승한 신한국당은, 성탄절 휴일 다음 날인 12월 26일 새벽,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노동법 '개악'을 경계해오던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다. 12월 26일 85개 노조, 14만 2천여 명이 참가하여 시작된 전국적 총파업은 2월 28일까지 4단계로 전개되었다. 이 파업투쟁에 참가한 노조와 조합원 수의 누계는 3,422개 노조, 조합원은 387만 8,211명이었으며, 1일 평균 163개 노조, 조합원 18만 4,498명이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30회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어 연인원 150여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 총파업에는 전국의 사회·시민·농민·종교·운동단체들과 대학교 교수들이 지지투쟁을 벌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자유노련(ICFTU)을 비롯해 국제산별노조들과 각국의 노동단체들이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고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한편 한국노총은 1996년 12월 27일부터 1997년 1월 15일까지 2단계의 총파업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연인원 153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의 대중집회와 조합원 서명운동, 위원장의 단식투쟁 및 철야농성 등 다양한 투쟁방식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양대 노총의 대대적인 공동집회를 통한 연대와 공동행동, 사회·시민운동 및 국제조직의 지원이 확산되자, 1997년 2

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법 재개정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 11일, 국회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을 폐지하고 그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1996/97 총파업은 '87노동자대투쟁 이후 급성장한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것은 정부 수립 이후 노동조합이 주도한 최초의 정치적 총파업으로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노동조합 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쟁이었다. 아울러 한국노총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총파업의 직접적인 요구조건인 노동법 개정안은 날치기 노동법의 내용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곧 바로 폐지하고, 정리해고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을 제외하면 극히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다. 총파업의 한계를 절감한 민주노총은 일상적인 임금인상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1997년 말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대신 야당을 상대로 한 '정책연합'을 추진하였다.

2) 외환위기와 노동운동의 충격

1997년 11월, 김영삼 정권의 임기 끝 무렵 한국은 돌연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했고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나서 황급히 외채를 끌어들었다. 한국정부는 국제금융기구(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과, 정리해고와 노동자파견의 제도화 등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의 동의하에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6일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성사시켰다. 그 내용은 노동기본권 보장,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투명성 확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등 광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사회협약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새로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투쟁은 성사되지 않았고, 2월 13일 임시국회는 정리해고 법제화와 노동자파견법 제정을 의결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정리해고제 노동자파견제 철폐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불참을 거듭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사회협약의 이행은 ‘국가위기상황’을 빌미로 대부분 지연되거나 미진했다.

이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6.15 공동선언’(2000)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응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노동운동은 갈수록 심각한 침체양상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1998년 2월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참가와 불참을 거듭하다가 199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탈퇴를 결의함으로써 노정 대화 단절을 단행했다. 한국노총도 국민의 정부와의 정책연합을 파기했다.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는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노동현장에는 혼란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금융부문의 대규모 통폐합 조치와 자동차, 기계산업의 대량 정리해고가 단행되었으며, 고용이나 임금이나 택일하라는 자본의 공세 아래 임금동결, 임금삭감이 성행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급증하여 2003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55.4%를 넘어서기에 이르렀고, 대량실업 대책으로 추진된 ‘생산적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빗나간 채 초보단계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국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로 외환부채는 조기 상환했지만, 노동

자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고 노동운동은 날로 침체 양상을 더해가고 있었다.

2003년 2월 들어선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를 통한 민주화 진전을 추진했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도했다. 또한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40시간 근로제를 2003년 8월 말 채택했다. 그러나 철도, 은행, 화물연대의 파업이 폭발하고 개별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던지는 극한적 저항이 이어졌고 나라 안팎의 자본의 공세는 더욱 가중되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9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계획'(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천명했으나,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계로부터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한국노총만이 참가한 가운데 2006년 9월 대타협을 이루었고, 차별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와 금전보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한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을 통해 남·북한 간 평화공존체제의 기초를 놓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이라크 파병을 강행함으로써 노동·사회운동진영과는 치열한 갈등관계를 빚어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공세로 노동자의 삶은 벼랑으로 몰렸고 노동자의 저항은 필연이었다. 1997년에 87건으로 198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파업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462건에 이르렀다. 그 후 2005년과 2007년 각각 287건과 115건으로 감소하지만, 투쟁은 매우 완강했으며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주류를 이루었고 외환위기 이후 강제된 '양보교섭'의 결과를 회복하려는 임금인상투쟁,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장,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그리고 정책 제도개선 투쟁 등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구조조정 중단,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노동유연화 반대 및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법 개정 저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거의 연중행사처럼 단행했다. 그러나 권력은 국가위기를 배경으로 법과 원칙의 일방적 잣대를 들이댔고, 노동자투쟁은 방어적이고 수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각개격파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극한적인 투쟁 사례들이 빈발하였다.

노동운동은 노동자 생활의 피폐화와 함께 극심한 혼란과 시련으로 치달았다. 노동운동은 '위기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황타개를 위해 다양한 논의와 실천들을 시도하였다. 이른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집약되는 '양 날개 전략'이 그 하나이고, 이념의 재정립과 조직운영의 혁신이 다른 하나이었다. 양 날개 전략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의 출범과 민주노동당의 결성과 의회 진출로 그 가능성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산업별 결집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진보정당운동은 내부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다. 또한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노총은 '21세기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나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조직운영의 혁신은 조직 내부 모순과 비리의 표출로 당초의 의욕을 무색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파 간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조직혁신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2007년의 임원직선제 결정이었다. 직선제란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중앙과 현장의 거리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상황에서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을 주체로 나서게 하고 조직을 바닥에서부터 재조직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극에 달한 정파 간의 갈등과 선거 부작용을 막자는 것도 한 이유였다. 임원직선제는 노동조합 조직원리나 역할 등과 관련하여 반론이 분분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및 취합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2009년과 2012년에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가 2014년 12월

임원 직선제 투표를 실시한 끝에 한상균 위원장 중심의 집행부를 선출했다.

3)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경제살리기'를 내세우며 등장했다. 정권은 출범과 함께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의 백지화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이어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번져갔고 '72시간 연속 촛불집회', '100만 촛불대행진'이 폭발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했고 촛불시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해산시켰다. 소고기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구속했고 2009년에는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농성을 강제진압 했다. 이 진압과정에서 주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어 2008년에 엄습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폭적인 금리인하, 감세, 산업의 구조조정, 대중국 수출 증대와 고용 유연화를 확대하는가 하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행하였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이었으며, 여기에 이른바 '4대강사업'과 국제자원개발 및 방위산업 증강을 병자하여 방대한 국가재정을 탕진하였다. 또한 정권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추진해오던 민주화정책을 중단시키고 북한과의 평화협력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연평균 2.9%에 그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자처한 이명박 정권은 노동 유연화의 확대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두 축으로 노동정책을 강행했다. 정권은 노동통제를 위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2011), 노조전임자제도 폐지와 타임오프제

시행(2010.7), 법과 원칙에 의한 쟁의질서 확립 등의 제도 변화를 강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강제로 하락시켰다. 또한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개선명령과 단체협약 해지 등 일련의 억압조치를 취하고, 쌍용자동차노조의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투쟁에 대해 대대적인 공권력 투입, 대량해고, 구속 등 혹독한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파괴가 횡행하였다. 주로 조직력이 강한 민주노조들에 가해진 노조파괴공작으로,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복수노조제도가 악용되었고 용역강제와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와 같은 강압수단을 동원하여 노조활동을 봉쇄하였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권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스스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공약을 폐기했다. 경제 활성화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기초하에 대자본이 양적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한다는 전략으로, 박정희 시대의 거대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신화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권은 '노동개혁'을 내세워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의 사유화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확충을 통한 대자본의 이익 증대를 추진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노동 유연화 확대를 서둘렀다. 노사관계정책에서는 배제와 포섭, 즉, '사탕과 채찍'의 전통적인 분열전략을 구사했다. 민주노총을 떠받치고 있는 기간조직 중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2013년 하반기에 불법화하였고, 자본가들은 자주·민주적 노조들을 폭력배를 동원하여 파괴하는가 하면, 단체협약의 해지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노동조합의 숨통을 눌렀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2013년 12월 민영화 반대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체포를 명분으로 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난입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노조 때문에 노동시장이 왜곡됐다는 내용의 이념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락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들을 공공부문

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권은 한국노총에 대해 '노동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정권은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노동 유연화 확장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기간 연장과 일반해고제의 도입,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권 허용 등이 그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권은 9월 15일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내세우며 9월 16일 '5대 노동입법안'(파견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1일 노사정합의안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그럼에도 정권은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제도와 취업규칙 개정을 밀어붙이는 한편,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그리고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세력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잔혹한 탄압을 가했다.

노동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대항하여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 가장 상징적이고 격렬했던 투쟁은 쌍용자동차노조(2009) 및 한진중공업노조의 정리해고 반대투쟁(2013),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투쟁(2009년, 2013) 및 74일에 걸친 성과연봉제 반대투쟁(2016), 자동차산업의 노동시간 단축과 사내하청 철폐투쟁, 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화 요구 투쟁, MBC, KBS, YTN, 국민일보 등 언론계 노동자들의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투쟁(2011), 유성기업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및 노동기본권 확보투쟁(2012~2017), 삼성전자서비스노조의 노조인정 투쟁(2013) 등이었다. 중소기업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처절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은 노동조건의 개선과 특히 고용의 안정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단식과 삭발, 노숙농성, 삼보일배 등 극한적이고 처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했고, 오랜 고통에 지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빈발했다.

민주노총과 산별조직들은 2013년 이후 10여 차례의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항했으나 탄압 기조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21일간의 철도노조 파업과 2015년 11월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대회, 2016년 성과연봉제를 반대한 철도노조의 74일간의 파업 등은 제도상의 제약에도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고, 이 투쟁과정에서 양대 노총은 연대전략을 구사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채찍과 사탕의 분리 전략을 바탕으로 두고 대량 징계와 구속,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노조의 직접적인 파괴 등 강경한 탄압을 가해왔다. 정권의 탄압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극에 이르렀다.

박 정권은 2015년 11월 14일 민주노총과 53개 사회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서울 광장에서 개최한 '전국민중총궐기대회'에 물대포와 최루액을 대량으로 무차별 살포하였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감행하여 수백 명을 연행 조사하고 30명을 구속하였다. 법원은 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경제 살리기'와 반민주적 억압정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수준을 넘지 못했고 국민의 주요한 삶의 지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허우적거렸다. 노동조합과 그 연대세력들은 정권의 횡포에 온 힘을 다해 저항했고, 2016년 4월의 총선거에서는 야당의 무기력에도 박근혜 정권의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술한 비리들이 연이어 폭로되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거대한 촛불항쟁에 밀려 박근혜 정권은 2017년 3월 스스로 붕괴하고 5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반민주적 적폐의 청산과 포용성장 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제기하면서 일자리 우선 정책과 노동정책의 개혁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을 천명하였다.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창립

1) 설립 논의

1993년 2월 ‘문민’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기존의 노동억압정책을 완화하는 듯했으나 ‘고통분담론’,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워 점차 노동통제를 강화해갔다. 민주노조진영과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었고 문민정부는 출범 초기의 부분적인 개혁조치들을 포기하고 민주노조진영 간부들에 대한 수배·구속·해고 등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 무기한 연기 방침을 천명했다. 민주노조진영은 임금·단협투쟁, 노동법 개정투쟁과 함께 사회개혁투쟁에 힘을 쏟으면서, 전국조직 건설을 통해 노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민주노총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대기업별로 체계를 갖추고 전국중앙조직 건설로 나아가는 노동운동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한국노동교육협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협회 내부에서 나왔다. 노동교육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제지만 노조 조직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으로서 민주노총 중심의 체제가 곧 실현된다면 이제부터는 노동조합이 교육보다는 정책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단체들 사이에서도 노동운동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소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1994년 7월부터 제기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한국노동교육협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대해 협회

에서는 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검토한 후 1994년 10월 25일 협회의 이사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에 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만장일치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국내에는 노동운동과 관련한 단체, 모임, 그룹들이 산재해 있었고 노동문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도 제법 설립되어 있었다. 대학교 부설 연구단체로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1965),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1966)가 노동문제 연구와 교육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1973년 6월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고대NH회 사건'(민우지 사건)으로 연구원과 학생운동가 등 12명이 구속됨으로써 활동이 거의 폐쇄되었고,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는 노동문제 연구보다 주로 노조간부 교육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설립자인 바실 M. 프라이스 신부의 별세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노총은 오래 전부터 정책연구실을 운영해 온 데 이어, 1995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부설 사회경제연구소 설립을 의결하고 4월에는 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부에서도 '87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면서 노동문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8년 5월에 한국노동연구원을 설립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은 법률적 규정과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재야에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1991), 영남노동운동연구소(1994), 노동정책연구소(1993)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사회과학연구소가 1992년 한겨레연구소와 한국사회연구소가 통합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1995년 7월에 출범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재야 연구소들은 정책 생산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노동운동 지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출범할 경우 민주노조진영의 정책연구를 위한 역량 준비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 설립 준비

1994년 11월 초부터 협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가칭으로 정하고 전국단위 및 그룹단위의 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 및 연구소 설립에 찬동하는 인사들을 준비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구두로 연구소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준비위원 수락을 요청했다. 이어 11월 16일에는 가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노조조직 및 단체대표와 인사들에게 연구소 설립제안서와 준비위원 수락동의서를 발송했다. 민주노조진영의 주축이 되는 조직들과 사람들은 거의 다 연구소 설립에 동의했다. 진보적 지식인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젊은 변호사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기꺼이 참여를 약속했다. 1995년 1월 말경 설립동의서를 마감한 결과, 46명의 조직대표 및 개인이 준비위원 수락동의서를 보내왔고 3개 조직대표가 참관 의사를 알려왔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표 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준비위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직위
노동조합 (19명)	강희재	정투노련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준비위 공동대표
	김영대	전노협 수석부위원장	김유미	병원노련 위원장
	단병호	전노협 전 위원장	류대현	대학노련 위원장
	박태주	전문노련 위원장	배범식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
	배석범	건설노련 위원장	오상균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 위원장
	이규재	전국건설일용노협 위원장	이문희	전국지역의보노조 위원장
	이시형	전국단위농협노련 위원장	이재남	기총련준비위 위원장
	이형모	연론노련 위원장	전명혁	전국강사노조 위원장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	최은석	대노협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준비위 집행위원장		
노동단체 (17명)	권용목	영남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
	김상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김은희	노동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노동단체 (17명)	김세균	서울노동정책연구소 대표	노회찬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대표
	김승호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이사장	박순희	가톨릭노동사목 회장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재덕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의장
	방용석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지도위원	이원보	한국노동교육협회 부대표
	이영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회장	장영국	석탑노동연구원 원장
	임영일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	한경남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원장
	진방주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개인 (10명)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지영	인의협 김지영내과병원 원장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원순	변호사
	신인령	이화여대 법대 교수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돈명	변호사	이상수	변호사
	전기호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천영세	전국연합 상임대표
참관단체 (3명)	김국진	사무노련 공동대표	유덕상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허장	사무노련 공동대표		

이처럼 연구소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87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하여 노동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어온 여러 갈래의 지식인 그룹들을 하나의 틀로 묶자는 논의가 있었다. 민주노조운동을 정책적으로 지지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뛰어넘는 큰 그릇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995년 2월 7일 제1차 준비위원회가 서울 서대문에 있는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서 30명의 준비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서 김진균 준비위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설립취지문, 연구소 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 등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준비위원들의 구성과 분포를 고려하여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균(학계)을, 그리고 권영길(노동조합), 단병호(노동조합), 권용목(노동단체), 김금수(노동단체), 박원순(개인) 준비위원들을 공동대표로 추천하여 선임하고 3월 13일부터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4월 12일에는 준비위원회 공동대표회의를 열어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설립

일정 등 창립준비상황을 심의·점검하였다. 다음 날에는 25명의 준비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준비위원회회를 열어 연구소 설립을 확정하고 발기인 모집상황, 사무실 이전, 정관(안), 이사진 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그리고 ① 창립발기인총회는 4월 28일 개최 ②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분기당 1회에서 반기당 1회로 수정 ③ 회원은 노동조합과 단체 및 사람으로 구분 ④ 설립기금을 납부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회원자격 부여 ⑤ 임원 구성 등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 실무진은 제1차 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안 내문과 발기인 수락동의서를 작성하여 1995년 3월 13일부터 준비위원 전원과 한국노동교육협회 고문, 이사, 운영위원 및 연구소 설립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조직, 단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발기인 수락을 요청하고 발기인 수락동의서와 설립기금을 접수했다. 4월 25일까지 모집된 발기인은 228명이고 설립기금 모금액은 4,445만 6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 후 제1차 이사회가 열린 1995년 12월 5일까지 발기인은 252명으로 늘어났고 모금액도 6,435만 원에 이르렀다.([표 2-2] 참조)

[표 2-2] 부문별 발기인 분포 및 설립기금 모금 내역(1995.4.25 기준)

부문별	발기인 수(명)	기금 모금액(원)
노동조합 조직	31	3,026,000
노동조합 개인	43	2,150,000
노동단체	29	1,200,000
학계 및 연구자	26	1,650,000
법조계	11	2,300,000
정당	15	800,000
개인	73	33,330,000
총계	228	44,456,000

한편 연구소는 한국노동교육협회 사무실(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소재 평복빌딩)의 임대기간이 1995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5년 4월 1일 새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새 사무소 주소는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48 남산빌딩 201호(전화 02) 778-4225~4227, 팩시밀리 02) 776-4444)이었고 사무실 임대 규모는 총건평 45평(실제 면적 34평)에 임대료는 총 9,100만 원 전세였다.

3) 창립대회

1995년 4월 28일 오후 4시 30분, 마침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총회가 열렸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오거리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관이었고 130여 명의 발기인이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먼저 국민대 이광택 교수를 초빙하여 ‘노동조합의 정책활동’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들었다. 이어 김진균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임시의장을 맡아 개회인사를 하고 이돈명 변호사와 김말룡 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김금수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설립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발기인 대표로 김영대 전노협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한 「창립취지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구소는 창립취지문에서 “한국 노동운동 발전 도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 요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과제해결을 위해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부록 1] 참조).

이어 총회에서는 6장 28조, 부칙 3조로 이루어진 정관을 채택하였다. 정관은 제 2조에서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여 노동자의 총단결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① 노동운동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② 자료수집 및 출판사업 ③ 각종 토론회의 조직 ④ 노동교육사업 ⑤ 노동상담사업 ⑥ 국내외 노동단체 및 유관 연구단체

와의 연대사업 ⑦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정관에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와 그 밑에 이사회를 설치하고, 임원으로는 이사장, 감사, 소장, 부소장을 두었다.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합동회의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되며, 소장에게는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및 연구기획단을 관장하고 연구기획단 및 연구원의 임면권을 부여했다. 실무기구로는 연구실과 교육실, 사무국을 두었다. 그리고 재정은 정회원, 특별회원, 자료회원이 내는 회비를 기본으로 하여 충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문 10명을 추대하고 이사에는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6인을 포함하여 민주노조진영의 지역, 업종, 그룹과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선출하였다.([표 2-3] 참조)

[표 2-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명단

직책	이름	소속 직위	이름	소속직위
고문(10명)	이일재	노동운동가	전무배	전 민족일보 기자
	정도영	전 합동통신 편집국장	김병태	농업문제연구소
	이돈명	변호사	김윤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변형운	서울대 교수	김말룡	국회의원
	권처흥	사회운동가	이소선	전태일기념사업회 고문
이사(21명)	권영길	창립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권용목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
	단병호	전노협 대표	박원순	변호사
	양규현	노동조합 지역대표	배석범	업종노조 대표
	이재남	노동조합 그룹대표	배범식	업종노조 대표
	강희재	공노대	김승호	노운협
	양재덕	단체	이영순	여성
	김대환	인하대 교수, 부소장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전기호	경희대 교수	이상수	변호사
	김지영	김지영내과 원장	박중기	사업가
	천영세	전국연합 상임대표		
감사(2명)	김경수	일동제약 전무	천정배	변호사

이어 이사장에는 김진균, 소장에는 김금수, 부소장에는 이원보와 김대환이, 감사에는 김경수와 천정배가 선출되었다. 다만 종교계 인사의 이사회 참여는 차기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창립총회에서는 199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결정했다. 사업계획안은 연구실, 교육실, 사무국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당시 1995년도 사업계획안

분야별	구분	주제별
연구실	1) 조사연구사업	○노동조합 조직형태 ○경영참가 ○기타 노조 현안과제
	2) 정책토론회 조직	○정기토론회 ○비정기토론회
	3) 연구성과 발간사업	○회보발간 ○기타 단행본 출판
	4) 자료확보사업	○자료실 설치운영
교육실	1) 교육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활동 워크숍 ○노조 사업기획 및 운영훈련
	2) 간부양성을 위한 기획교육	○통일문제 워크숍 ○고급간부학교 ○강사훈련과정
	3) 교재 발간	○교육활동자료집 ○간부학습교재 ○한국노동운동사
사무국	1) 회의활동	○발기인총회(1회) ○자문위원회(2회) ○연구위원회(2회) ○감사회의(2회) ○정기이사회(2회) ○운영위원회(2회) ○연구기획단회의(12회)
	2) 재정사업	○회원 확충 ○기타 재정자립사업 ○자료회원 확보
	3) 연구소 기자재 확보	○컴퓨터 등 구입

연구소의 자산과 부채 및 재정은 한국노동교육협회에서 그대로 승계했다. 그 내용은 기금 3,200만 원, 도서 및 자료 11,500점, 컴퓨터 2대, 책상 10대, 의자 30대, 책꽂이 12대, 캐비닛 8대, 책장 및 서류함 3대, 복사기 1대, 팩시밀리 1대, 전화 4회선, 전화기 7대 등이었다. 부채로는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800만 원이 남

아 있었다. 그 자산과 자금을 밑천으로 연구소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구소는 협회의 기금 4천만 원(기금 3,200만 원+은행대출금 800만 원)과 받기인 모금액 4,445만 6천 원에 은행대출금 2,000만 원을 모아 남산빌딩 전세금(9,100만 원)과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이사비용을 충당했다.

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상재정은 회계연도를 5월부터 10월까지로 편성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총예산 중 정회원과 자료회원의 회비수입 9,120만 원, 연구·교육 등 사업수입 1,38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사업비(연구, 교육) 2,028만 원, 관리운영비 8,397만 원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집행결과 수입, 지출 모두 예산액의 33.3%, 32.7%에 불과해 빈약한 재정상황을 보여주었다.

4) 초기 운영 상황

연구소는 5월 9일, 오병철 선생이 써준 현판을 걸고 개소식을 가지고 이른바 ‘남산 시대’를 열었다. 11명의 연구원들은 상근, 비상근의 구분을 두지 않고 일했다. 연구과제와 노동교육 방향을 논의하고 노동현장에 대한 파견교육과 협회 때 계획한 교육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했다. 회보 『노동사회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4호를 냈고 첫 연구작품으로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역사와 현황』을 6월 14일 펴냈다. 첫 번째 연구과제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연구에 5월부터 착수했고 이어 8월에는 산별노조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해 말까지 5회의 토론회를 열었고, 11월에는 민주노총 창립에 발맞추어 진행된 ‘한국·브라질·남아공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연구·정보교류 프로그램 1차 회의’를 주관하였다. 그야말로 한시도 결눈질 할 틈이 없을 만큼 분망한 시기였다.

1995년 12월 5일 제1차 정기이사회가 열려 창립 이후의 활동을 점검하고 운영 규칙 제정, 각 위원회 위원의 배치 등 연구소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였

다. 김진균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회원 보고와 활동 보고에 이어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운영규칙은 총칙, 문서처리, 근무, 재정, 물품취급, 감사, 부칙 등으로 구성되었고, 실제 연구소 운영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구로 정관에 정한 연구실·교육실·사무국 설치를 재확인하고 연구실에는 연구위원, 교육실에는 교육위원을 배치하였으며 비상근위원도 규정했다. 회비는 정회원 개인 및 노동운동단체 및 기타 단체 매월 3만 원 이상, 노동조합 매월 5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특별회비는 당사자가 결정하고 자료회원은 월 1만 원(6개월 5만 원, 1년 10만 원)으로 규정했고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어 이사회는 자문위원, 연구위원, 운영위원을 다음 [표 2-5~7]과 같이 선출하였다. 다만 연구기획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표 2-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초대 자문위원 명단(26명)

구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단체(8명)	김은희	노동과건강연구원	노회찬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박순희	가톨릭노동사목
	방용석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손은하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양승조	인천노동교육연구원	정인숙	영화 전태일 집행위원
법조(10명)	김진국	서원합동법률사무소	김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문병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문한성	문한성 법률사무소
	신중원	인천노동법률사무소	이경우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이원재	서원합동법률사무소
	정태상	대원합동법률사무소	한정화	정일합동법률사무소
의료(1명)	양길승	성수의원		
개인(7명)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남상현	전 전노협 지도위원
	이덕만	한성기업	이석행	사람과 일터
	유종설	사업	조준호	사람과 일터
	김충선	생활지혜사		

[표 2-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초대 연구위원 명단(34명)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고병웅	고려대	곽노현	방송통신대	김상근	한신대
김세균	서울대	김수진	이화여대	김유선	민주노총
김태현	민주노총	김형기	경북대	김호기	연세대
노중선	통일문제연구소	류장수	노동교육원	박승희	성균관대
박준식	한림대	박호성	서강대	배순근	고려대
신광영	한림대	오삼교	고려대	윤진호	인하대
이광택	국민대	이병훈	코넬대	이정우	경북대
임영일	경남대	정건화	한신대	정명기	한남대
정승국	성균관대	정이환	서울산업대	조돈문	가톨릭대
조희연	성공회신학대	채창균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허명구	사람과 일터
홍성우	전남대	홍장표	부산공업대	황덕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황한식	경남대				

[표 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초대 운영위원 명단(24명)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병근	연전노조	김영대	민주노총	류대현	대학노련
문성현	금속연맹	박문진	병원노련	박태주	공노대
석치순	서울지하철	양경규	전문노련	송보순	병원노련
오상균	현충련 경인	이형모	언론노련	장달수	건설노련
전영일	KBS노조	정해숙	전교조	최동식	인노대
최문순	MBC노조	허영구	민주노총	허 장	사무노련

3. 연구소의 성장과 변화

1) 기반형성과 성장

연구소 활동은 연구, 교육, 국제연대를 세 축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연구활동은 내부 연구원을 중심으로 외부 연구자들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하에 선정된 『노동조합 경영 참가』였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연구소 초기부터 연구소의 기본적인 활동을 협력 지원해 주었고, 이 관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사업은 과제연구와 토론회, 회보 발간을 기본으로 하였다. 과제연구는 초기부터 노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었지만 전략적 목표는 산업별노조의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연구에 모아졌다. 기업별노조의 타파와 극복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정치력이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교육활동은 한국노동교육협회 때의 사업을 이어받아 각급 노조조직에 강사를 보내는 파견교육과 연구소와 각급조직이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기획교육을 기본 틀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실이 역점을 둔 것은 참여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론 개발이었다. 참여교육은 노동자가 교육의 대상자에서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강의식 노동교육방식을 벗어나 노동자의 지위와 의식변화에 상응한 새로운 시도였다.

국제연대는 노동운동의 기본전략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전 지구적 범람에 대응하여 제3세계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 활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의 민주노총과 한국의 민주노총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세 나라의 연구소가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민중연대, 진보연대 등 국내의 다양한 민중운동 및 연구 단체들과의 연대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연구소 출발 후 다른 연구소들과 연구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었다.

한편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과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대응하여 정면으로 맞섰다. 1996/97 총파업은 세계화를 둘러싼 총자본과 총노동의 거대한 대결의 장이었고 1987년 이후 급성장한 노동운동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역사적 계기였다. 1996년 12월 하순부터 1997년 2월 말까지 총파업이 전개되는 동안 연구소 연구원들은 거의 매일 집회장에 나가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1997년 2월 4일 '총파업투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월례토론회를 가졌다. 1996/97 총파업은 사상 최대 최장의 완강한 투쟁이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입증하는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의 한계와 과제 역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연구소의 기본활동은 지속되고 영역은 날로 확장되었다. 연구과제는 다양한 분야로 넓혀졌으며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어 갔다. 교육활동도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기본 목표에 따른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국제활동 역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연구소 활동의 확장은 회보 발간방식에 반영되었다. 1997년 6월호부터 『노동사회연구』를 『노동사회』로 제호를 바꾸고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전환한 것이다. 여기에는 박종기 이사의 재정적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총파업이 끝나고 정세 변화는 대통령선거로 집중되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1997년 12월 이른바 'DJP연합'을 성사시킨 새정치국민연합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36년 만에 야당으로 정권의 수평이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내세웠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이수라장이 되었고 노동운동은 마치 광풍처럼 휘몰아친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은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와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는 연구소의 적극적인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였고 연구소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구소 활동범위가 넓혀지면서 보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 하나의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 '사단법인 설립'이었다. 연구소는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9월 25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1998년 10월 12일 제7차 이사회와 제4차 정기총회에 법인 설립(안)을 상정하였다. 법인의 필요성은 이렇게 요약되었다.

- ① 지금까지 노동운동진영을 연구소 활동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왔으나 노동운동진영의 요구를 제도권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제기됨.
- ② 연구 영역의 확장을 통해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③ 연구소 본래의 설립취지와 합치하는 내용의 제도권 프로젝트와 광고 수주를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음.
- ④ 연구원 복지 향상(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계기로 삼음.
- ⑤ 현재의 정관에 의해 법인 설립이 가능함.

정기총회에서는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인 끝에 만장일

치로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문」과 「정관」이 채택되었고 임원이 선출되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의결되었다. 기존의 임원을 바탕으로 이사, 감사, 고문, 이사장, 소장 등이 선출되었다. 이날 채택된 사단법인 설립 취지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간 자본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노사정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며 노동운동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하에서 노동문제가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②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
- ③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와 절차를 거쳐 연구소는 1999년 2월 12일에 노동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 3일 노동부 제228호로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남산빌딩에서 서울 서대문 경기대학교 입구에 위치한 석당빌딩(충정로 2가 69-18)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당시 석당빌딩에는 사무금융노련이 들어있었고 채운석 위원장의 협력으로 교육장을 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연구소의 '서대문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3) 외환위기와 활동의 변화

1998년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소 과제로 제기된 것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이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노사정 합의 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왔다. 교원노조와 교육부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공무원노조가 직장협의회를 거쳐 공식으로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가져왔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응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노동운동은 갈수록 심각한 침체양상을 드러냈다.

노동운동의 침체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연구소의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집약되었다. 산별노조 건설은 연구부문만이 아니라 교육부문에서도 핵심 주제로 제기되었다. 연구소는 교육, 상담, 자문, 토론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별연맹과 단위노조에 산별노조 전환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로 1998년 2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00년 3월 3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재출발하고, 2001년 2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출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연구는 1996/97년 총파업 후인 1997년 6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97년 대선’을 주제로 한 제3차 월례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10월 26일 ‘국민승리 21’이 구성되고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대통령에 입후보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론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연구주제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주제로도 제기되었고 연구소는 많은 활동가들의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연구소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쇄도했고 공공

기관의 민영화가 진전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운동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1년 노동정책 포럼과 별도로 공공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은 이 같은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의 결과였다. 연구주제도 대부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는 주문이 거의 없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조용하면서 연구소와 노동자, 연구자들 간의 소통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99년 1월에 홈페이지(<http://klsi.org>)를 개통하고, 연구소 소개와 행사 안내, 노동사회 및 발간물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 1999년 9월 1일부터는 CUG(나우누리 go KLSI)을 개통하였다.

2002년부터 김유선 부소장의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 분석이 시도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 부소장은 통계청이 2000년 8월 시행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라는 제목으로 노동사회 2001년 5월호(통권 제54호)에 게재했다. 이 분석에 의하면 200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758만 명(임금노동자의 58.4%)에 이르고 있었으며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2001년에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피용자의 26.4%라고 밝혔다.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인 학회의 분석은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한 ‘장기임시근로자’ 500만 명(다른 고용형태와의 중복을 제외하면 367만 명)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한 데서 나타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으로 평가되었다. 김유선 부소장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가 실시된 해의 3월과 8월 두 차례 발표되었으며 연구와 언론에 많이 인용되었다. 아울러 이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었다.

노동현장에서의 후퇴를 차단하고 노동운동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섰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 했고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 연구소 김금수 이사장이 참여정부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2월 김대환 부소장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부소장을 사퇴했다.

초기의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도했다. 그리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정책 기조로 천명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자본의 공세는 더욱 가중되었고 경제 침체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남·북한관계의 진전이라는 역사적 성과와는 달리 노사정관계는 악화하였다. 참여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대화와 문제해결을 추진했으나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집행부사퇴가 이어졌다.

연구소는 기존의 산별노조 연구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와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산별노조 건설은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속노조에 이어 화학섬유노조, 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출범으로 결실을 거두었고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 이루어진 총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의회를 통한 진보정치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연구소는 침체된 노동운동 상황에서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그 계기는 2005년 5월 25일 열린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였다.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노동,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념토론회에서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이라는 기조연설에 이어 김유선 부소장이 ‘한국의 노동-진단과 과제’를 발표하고 신광영, 황기돈, 주대환, 김지예, 김종각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는 노동운동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 진전 과

정을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진로를 새로이 모색하려 했다. 『한국노동운동사 - 100년의 기록』(이원보 지음)을 연구소가 펴낸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후 연구소는 '87노동자대투쟁 20년이 다가옴에 따라 2006년 연구소 내부 공간을 재배치하고 연구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그리고 2007년에는 연구소 체계를 연구실과 기획실 체제로 개편하고 연구소 기본 사업으로 '노동운동 재활성화 전략'을 설정하는 한편, 9월에는 '87년 노동자대투쟁 20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산별시대 노동운동 과제'를 주제로 김금수 명예이사장이 기조강연을 했고 이병훈, 정이환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외중에 2007년 7월 이원보 이사장이 급작스럽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연구소를 떠났고, 다음 해 2월 제13차 정기총회에서 남상현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연구활동의 이러한 성장과 변화와 함께 교육, 국제활동도 최소한 2008년까지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기획교육은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지속되었고 내용도 충실해져갔으며 파견교육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도 노동 현장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가고 있었다. 노동교육방법론 연구와 토론회, 노동운동 및 교육교재 발간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국제활동은 민주노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의 민주노조들과 함께 한 '3국연대'가 2001년 변곡점을 맞은 대신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연구소의 참여도 확대되었고 국제인사교류도 활발하였다. 출판활동 역시 활발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4. 시련과 위기의 5년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반노동적인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민주노총은 임성규-신승철 집행부(2009.4) → 김영훈-강승철 집행부(2010.1.28)를 선출하며 임원직선제 등 노동운동 혁신과 재도약을 추진했다. 그리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 현상 타개를 시도했으나 상황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다. 2008년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민주노동당도 분열되어 진보신당이 떨어져나가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으로 재도약을 시도하여 2012년 총선거에서 13석을 확보했으나, 곧바로 당내 부정선거 파동이 일어 결정적인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시련 속에 자본가들은 폭력적인 노조파괴 책동을 자행했다. 안산 SJM, 만도기계 3개 공장에 대한 대규모 무장 용역강제의 난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해 저항하였고 ‘희망버스’ 등 시민운동이 지원에 나섰으나 폭력적 탄압은 그치지 않았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두드러진 가운데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새로운 변화의 하나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와 정책연합을 추진하여 실리주의 기초를 지속하였고 노사정위원회에도 계속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동운동 상황의 변화 속에서 연구소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에는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한 신문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연구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연구과제 수주가 중단됐다. 정권 탄압의 결과는 최악의 재정 상태로 나타났다.

수입은 2007~201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격감하였다.

연구소는 우선 지출경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07년 교육실을 기획실로 통합한 데 이어, 2009년 4월 28일 교육장을 폐쇄하는 등 공간을 축소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운동진영과 연구소의 관심은 2008년 경제위기의 도래와 함께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 집중되었고 연구소 기본과제로는 '노동운동과 연대'가 설정되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확산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문제는 이후 연구소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

연구소의 어려움은 2009~2010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2009년의 경우 연구실적은 11건에 그쳤고 2010년에는 15건으로 늘었으나 특별용역수입을 제외하면 전년 수준과 비슷했다. 노동포럼은 두 차례에 그칠 정도였다. 재정 상황의 어려움은 운영체계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2008년 현재 상근자 11명, 반상근 8명이었던 연구원의 수는 2009년에 들어 상근 2명, 반상근 1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2012년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다.

2008년 들어 연구소는 '발전방안대책팀'을 꾸리고 대안 마련에 골몰했다. 그 일환으로 회원확대를 위해 '함께하는 노동운동 희망 만들기'사업을 추진했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연구소는 급격히 악화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6월 24일 '우리 안에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서울 철도회관 웨딩홀에서 후원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연구소 회원과 후원회원 등 연구소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700여 명이었고 후원금을 낸 사람은 조직 100여 곳을 포함해 273명이었다. 후원금은 모두 6,497만 원(행사장 후원금 1,697만 원, 5~7월 약정후원금 4,800만 원)이었고 후원단체는 새날기획, 하이트맥주노동조합, 카스맥주노동조합, 신의주순대, 보건의료노조 재정국 등이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위해 원로 선배님들이 작품을 내셨는데, 이명직 선생 10폭 병품 등 3점, 오병철 선생 11점, 신영복 선생 12점 등이었다. 이 작품 판매 수익금은 2,035만 원이었

다. 이렇게 하여 후원행사 수입금은 원래 목표했던 7천만 원을 크게 초과한 8,532만 원에 이르렀다. 이 행사는 연구소 이사, 고문, 감사 등 어르신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회원 및 후원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엄혹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용기와 지혜를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은 행사를 치루는 동안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고 활동력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후원행사는 불안정했던 재정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2010년 재정상황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의 77.9%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로 모든 활동을 줄이고 내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구원 16명 중 상근자는 2명, 반상근자는 1명으로 줄었다. 회보 『노동사회』는 월간에서 격월간으로 줄이고, 부수도 대폭 감축했다. 노동포럼도 2회밖에 개최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구소는 방향전환을 시도했다. 곧 연구 프로젝트의 수주가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주와 의제 발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연구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광범하게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관련 연구 비중을 높이는 한편, 노동운동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주요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연구보고서 결과나 포럼의 주제, 각종 연구자의 토론회 발표 자료, 기타 연구자의 자유 주제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21일 이슈페이퍼 제1호를 발표하였고 연말까지 모두 9개의 의제를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운동은 노조 전임자가 크게 감축되고 2010년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더욱 위축되고 있었다. 2011년에 들어서도 연구소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연구과제는 16건에 2010년에 비해 오히려 금액이 줄었다. 특히 정부기관 발주는 3건으로 연구소 출범 이후 가장 적었다. 그럼에도 용역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용역의 납기 지연문제도 크게 호전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동포럼은 에버트 재단의 재정 지원에 힘 입어 '현장에서 듣다'라는 주제로 14회가 열렸고, 이슈페이퍼는 4회를 발간했다. 연구원들의 토론회 참가 등 대외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었고 파견교육도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연구용역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소의 기본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5. 재도약을 위한 성찰과 모색

2012년에 들어서면서 연구소 상황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연구사업의 실적은 15건으로 감소하는 반면 금액은 전년 대비 78.4% 이상 증가하여 당초 목표를 20% 초과 달성했다. 이는 서울시와 지방 의회 및 구청 등 지방자치체들로부터 연구 프로젝트가 새로이 수주되는 등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이것은 2010년 6월 2일 지자체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고 진보 교육감이 대거 진출한 결과였으며 특히 2011년 10월 26일 전국 지방 보권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2년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대문구청에서 연구과제를 수주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는 연구소 및 노동운동 차원 모두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업은 연구소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노동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이었다. 이 연구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점 연구과제로 제시된 '새로운 노동운동을 열자'의 구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산별노조 진단과 모색'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전환되었다. 곧 당초의 중점 연구사업은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략, 조직구조와 운영,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복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했으나 목표한 바대로 노동운동에 대한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존 연구과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소가 계획했던 두 차례 대토론회 중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 토론회'도 준비 부족과 다른 단체의 비슷한 행사와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개최되지 못했다. 다만 산별노조운동과 관련하여 ‘한국·독일·프랑스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비교적 성과 있게 치러 냈다. 이날 심포지엄은 4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참여하여 각국 산별노조 상황을 공유하고 발전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과 프랑스의 산별노조운동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

2013년에도 연구소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어, 연구실은 전년 대비 6건이 늘어난 총 2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그 금액은 당초 목표액을 68.5% 초과 달성함으로써 연구소 설립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과제의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했고 연구과제의 성격도 정책제언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자체를 비롯하여 비정규노동센터 설립, 임금체계 개편, 직접고용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 수립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쳤고, 2014년 연구과제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낳았다. 이는 연구소가 비정규직 노동문제 등 쟁점이 되는 노동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연구역량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이러한 연구실적은 연구소 재정 상황 타개에 크게 기여했고 그 결과 연구원이 늘어났다. 연구실은 상근자 1명과 반상근자 3명, 비상근자 2명을 확보함으로써 연구 인력의 기본적 안정화를 기하게 되었다.

이 같은 연구성과는 이슈페이퍼와 노동포럼 횟수의 증가와 연구원들의 활발한 대외활동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슈페이퍼는 2012년 6개에서 8개로 증가했고 노동포럼은 8회를 기록했다. 연구주제 발표와 토론 참가는 연간 102회, 기고 및 인터뷰는 연간 95회를 기록했다. 이런 한편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연구가 정체되는 현상을 낳았고 중심과제로 설정했던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 연구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편 연구소는 회보의 내용을 보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연구소의 창>을 개설하였다. 이는 연구원, 이사, 외부 연구자, 활동가들을 필진으로 하

여 시의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투고하는 칼럼 게재 방식이었다. 9월 13일 첫 작품을 선보인 연구소의 창은 이 해에 14주 동안 12회를 기록했다.

2014년은 전년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론회, 노동포럼, 이슈페이퍼를 통해 외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연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인력의 충원과 중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이 해에 연구원 2명(상근, 반상근 각 1명)을 공모하여 채용했다. 그 결과로 연구실의 연구원은 상근 2명, 반상근 5명, 비상근 2명, 객원 4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의 연구실적은 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건이 늘었다. 연구과제의 내용은 노동시장 및 근로실태 조사 12건, 노사관계 3건, 기타(인사조직, 지배구조, 교육, 인권 등) 7건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정규직 문제는 8건에 이르렀다. 또한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로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복수노조 사업장의 갈등사례 등이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중심과제로 설정했던 ‘노동운동의 위기진단과 대안’ 연구가 종결돼 그 결과를 출간하였다. 이 같은 연구활동과 함께 이슈페이퍼, 노동포럼, 대외활동도 크게 활성화하였다. 이슈페이퍼 발간은 상반기 18개 하반기 5개 등 총 23개로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났으며 노동포럼 역시 10회로 전년에 비해 2회가 늘었다. 연구주제 발표와 토론 참가는 연간 99회, 기고 및 인터뷰는 연간 66회를 기록했으며 칼럼 연구소의 창은 18회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연구주제의 발주처 가운데 공공기관이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산업별연맹이나 산업별노조 단위의 연구과제는 그 비중이 낮아진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소 설립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전략, 노사관계 관련 연구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2015년에 들어 박근혜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강

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의 대상 확대 등 노동의 유연화를 확장하려는 것이었고, 거대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신화를 관철하려는 전략에 기초한 것이었다. 연구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대응을 시의성 있게 진행하고 연구, 교육, 포럼, 이슈페이퍼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역점을 두어왔던 지역 노동정책 연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연구소는 2명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고 상근 2명, 반상근 1명, 비상근 5명, 객원 6명의 연구진이 되었다.

2015년 연구소는 총 17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였고 그 금액은 7억 7,442만 원으로 연구소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연구과제가 다른 해에 비해 많았던 데 있었다. 이는 연구소의 위상 및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의 연구 수주 역량이 축적된 결과였다.

연구과제를 주제별로 보면 노동시장 및 근로실태조사, 노동정책, 업종연구의 순으로 나타났고 노사관계는 2건에 머물렀다. 그 내용과 특징을 나누어 보면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인 기간제 일자리 및 임금피크제 확대에 대응하는 연구에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흐름도 연구하는 등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 노동시장 개선 및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광주광역시는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시행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과 제조산업 연구는 사업장 및 업종 내부 현안과 장기적 과제를 다룸으로써 민간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을 축적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양대 노총 제조업 노조의 연대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연구활동은 기본중심 과제가 실종되고 노동조합운동과 관련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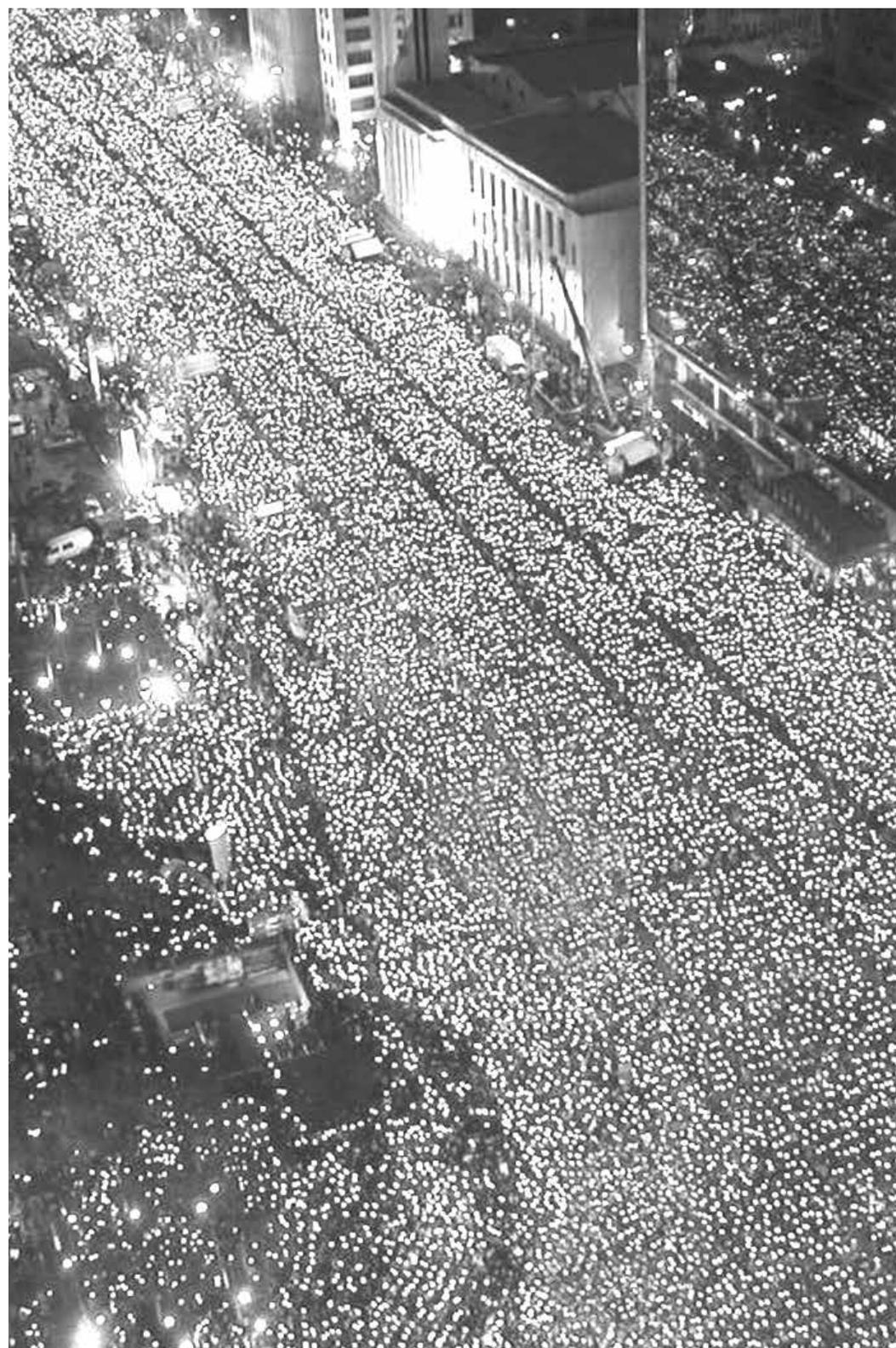
주제가 정체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산업별노조 또는 연맹에 부설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노동현장의 쟁점과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었다. 지자체의 고용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동영역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기존 관행의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해졌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2014년의 23개에서 12개로 크게 줄었으나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노동시장 진단 및 구조개선 방향에 집중되었다. 다만 연구과제의 중압으로 인해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일부 필자에 집중하는 한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노동포럼은 노동조합 조직화, 최저임금 문제, 노사정합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등 쟁점으로 부상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내용상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다루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활동의 확장은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활성화로 연결되었다. 연구원들은 토론발표에 118회 참가했으며 기고 및 인터뷰는 140회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파견교육도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영역확장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연구센터’와 ‘노동시장연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두게 되었다.

2016년과 2017년 연구소 활동은 2012년 이래 자리 잡은 연구실 중심의 사업을 기조로 하였다. 연구활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추세 그리고 총선거와 촛불항쟁 및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의 급변속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확산시키고 지자체의 선도적 노동정책 모델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노동조합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노동현장의 밀착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중점 목표로 삼았다. 특히 2017년은 문제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연구소에 던져주었다.

연구실 인력은 연구 역량의 양성과 확충 차원에서 매년 늘려 2017년에는 상근

4명이 되었고, 비상근 7명, 객원연구원 5명에 임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과제는 두 해 각기 23건이었으나 연구 수입은 당초 목표액의 105%, 144% 초과 달성했다. 과제의 발주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장 많고 노동조합,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의뢰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17년의 경우 신규 기관이 급증했는데, 이는 지자체의 노동기본정책 등과 관련하여 축적해온 역량의 평가 결과 이었다. 주제는 노동정책이 절반 정도이었고 노동시장, 노동조합, 노사관계, 기타 역량이 발휘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연구과제가 큰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자는 두 해 각각 29명씩 참가(연인원 71명과 80명)했다. 각기 9건과 14건을 기록한 이슈페이퍼는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이른바 노동개혁정책(성과주의 임금, 일자리, 노동복지 등)과 관련한 비판과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노조간부 간담회는 2년간 7회 실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데 노력했다. 연구원들의 토론회 발표, 기고 및 인터뷰 등의 외부활동도 매년 급증추세를 보였으며 파견교육 역시 2017년 현재 218회로 2014년 이래 연간 220건 수준을 유지했다. 두 센터 활동도 전 해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요컨대 2016, 2017년 연구소 활동은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첨예화라는 부정적 조건과 보수세력의 퇴조와 민주개혁세력의 진출로 집약되는 정치상황의 긍정적 변화 속에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제3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부문별 활동 기록

1. 연구사업

- 1) 개요
- 2) 연구주제
- 3) 협력기관과 연구진
- 4) 기타: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 창

2. 교육

- 1) 개요
- 2) 기획교육
- 3) 파견교육
- 4) 교육방법론 개발 연구
- 5) 토론회 및 노동강좌
- 6) 교재 발간
- 7) 기타 활동

3. 출판

- 1) 개요
- 2) 회보 : 『노동사회연구』와 『노동사회』
- 3) 일반도서

4. 연대

- 1) 국제연대 및 교류
- 2) 노동사회 연대
- 3) 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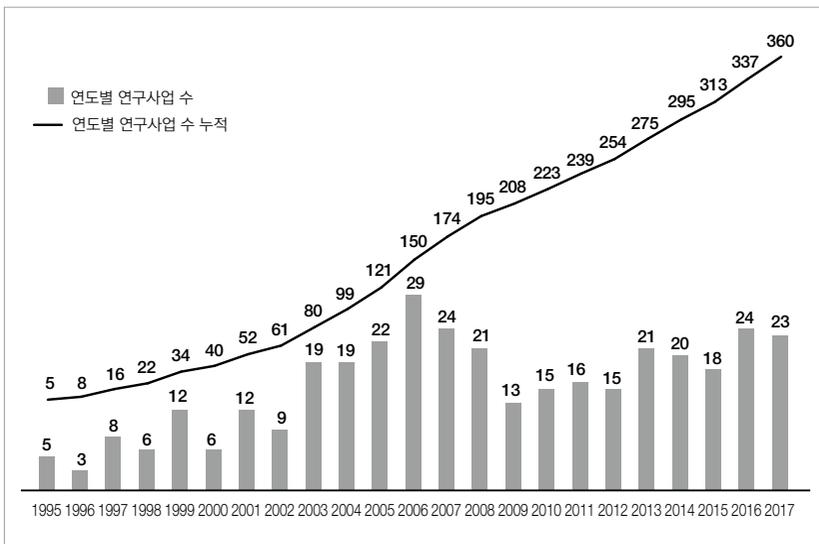
5. 조직과 운영

- 1) 체계
- 2) 회원
- 3) 회의
- 4) 연구원

1. 연구사업

1) 개요

[그림 3-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도별 연구사업 건수 추이: 2015~2017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모두 360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매해 평균 15.7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했고, 가장 많을 때는 한 해 동안 29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의 영역에 걸쳐 다종다양한 주제들을 다뤘고,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정부기관, 외국기관 등과의 두터운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소

안팎의 수많은 열정적인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 전개 과정과 추이를 어렵다면, △형성기(1995~2002) △발전기(200~2008) △후퇴기(2009~2012) △재활성화기(2013년 이후) 등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형성기는 연구소가 창립한 1995년부터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경까지의 시기다. 1995년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건설,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에 항의하며 진행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와 국가부도 사태 이후 노동현장을 불안과 공포로 수놓은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의 여파, 그 이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둘러싼 갈등 등이 이 시기를 상징하는 주요 사건들이다. 요컨대 이 시기 한국사회는 급격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노사정 주체들의 긴박한 대응의 모색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설립된 조직으로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 연구사업의 목적은 주로 노동운동의 전략적 발전 전망으로서 '산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임금 및 인사제도 개입과 이른바 '신(新)경영전략' 대응 및 경영참여 등 노사관계에 있어 대(對)사용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들의 마련 등에 초점이 두어졌다. 또한 노동교육과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됐다. 당시 연구사업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경륜 있는 학자들과 패기 넘치는 신진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 특수적 전문가로서 노동조합의 정책활동가들이 두루 참여했다. 또한 이 시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 마련에 있어서는 주로 노동조합과 외국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두드러졌으며,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진행한 사업도 상당수 있었다.

둘째, 발전기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이명박근혜 시대'를 앞둔 2008년까지다. 출범 초기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를 통한 민주화의 진전을 시도했

고, 특히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이름 아래 노동계를 포용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고, 2003년에는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소득 불평등 추세는 이 시기에도 갈수록 심화되어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권의 갈등이 정권 초기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후반기에는 참여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이라크전쟁 파병을 추진하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어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기도 하였다. 요컨대 노동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개입구조가 상대적으로 열린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용불안과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노사갈등과 노정갈등을 키워가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은 기존의 유산을 계승하는 가운데 새롭게 열린 정책 참여구조에 능동적으로 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연구소는 1995년 창립 이후 2002년까지 8년 동안 61개의 사업을 수행한 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6년 동안 134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해 7.6개가량의 연구를 수행하던 데서 3배가량인 연간 22.3개의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또한 연구주제와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인 발전을 이뤘다.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착목을 보다 심화시켜,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 외에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발전전략', '노동운동의 지역 사회 개입', '노동의 연대와 복지 강화 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운동 재활성화 전략' 등의 새로운 의제들을 제기했고, 노동교육과 조직진단에 대한 분석도 더욱 심화시켰다. 나아가 이 시기 연구소는 변화된 상황에 조용하여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연구소는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에 걸맞게 내부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예산

마련에 있어 외국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노동조합 및 공공·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안정화하였다.

셋째, 후퇴기는 이른바 ‘이명박근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기 시작한 2009년부터, 수구적 정치권력에 작으나마 균열이 가기 시작한 2012년까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자처하며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이전으로 역행하여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에 위치시켰고,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노동기본권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강화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폐지와 타임오프제도의 시행,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저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또한 노사갈등이나 시민저항의 현장에 대대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혹독한 제재를 가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용산 철거 반대투쟁에서 발생한 희생은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민간에서도 노동에 대한 탈법적인 공세들이 활성화되었다. 반윤리적인 전문가집단에 의해 작성된 정교한 노조 파괴 계획에 따라 노동현장에 교섭해태가 만연하고 용역강패가 동원되었고, 단체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공작들이 곳곳에서 자행됐다. 노동 입장에서는 하릴없는 시련의 시기였다.

수구적인 정치권력의 통치로 인한 시련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게도 들이닥쳤다. 우선 연구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해 수행한 연구사업은 평균 22.3개였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은 평균 14.7개로 약 34%가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연구소가 ‘검역주권 포기 반대 촛불시위’ 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연구용역 수주가 중단된 탓이 크지만, 노동조합이 탄압 일변도의 상황에 처하면서 투쟁 이외에 정책적 개입 등의 다른 방안을 고려할 여유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 시기 연구

소와 협력관계를 맺은 기관들의 비중을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당과 의회가 늘어났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소의 재정을 대부분 책임지는 연구사업이 위축되면서 상근 연구원의 수를 줄여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연구소 내부 사기에도 영향을 미쳐,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의제들을 의욕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연구소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청년실업자와 학교비정규직 등 비공식부문의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새롭게 포착하여 조사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씬 없이 만들어갔다.

넷째, 재활성화기는 수구 정치권력의 통치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2013년부터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이명박근혜 시대를 끝내고 '노동 존중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2013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명박근혜 시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기초를 이어받아 노동 유연화정책을 강화했으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를 심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였다. 또 한편으로 이명박 정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불법화 하였고, 2013년 12월 수배 중이던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의 체포를 빌미로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2015년 전국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물대포와 최루액에 폭행당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날 시위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활동가 30여 명이 구속되고 상당수가 중형에 선고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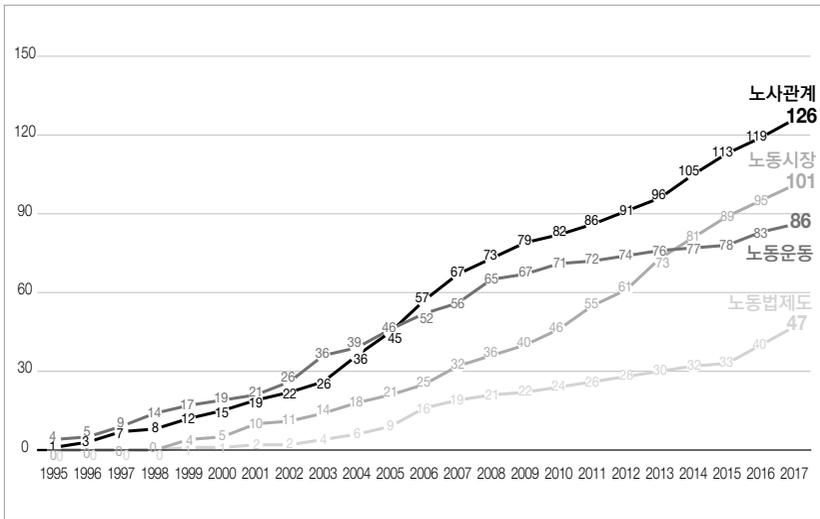
그러나 이렇듯 억압과 폭력이 누적되는 한편에는, '희망'의 새싹들이 두터운 더께를 뚫고 자라나고 있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그리고 2011년 재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 결과는 비록 '이명박근혜 시대'가 연장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지만, 권력의 억압에 맞서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가 일시적이거나 승

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고, 민주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과
 대한 진지가 '지역' 수준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저항
 과 반전의 작은 계기들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술한 비리들이
 연이어 폭로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민중의 힘이 거
 대한 촛불항쟁으로 분출할 수 있는 틈새가 되었다. 결국 2016년 말부터 한국사회
 를 아름답게 수놓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는 2017년 3월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고, 그해 5월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포용 성장을 제기하면서, 일자리 우선 정책과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게 2013년은 지난 몇 년간 겪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반전의 징후가 만들어진 시기였다. 우선 2013년을 계기로 연구사업의 양적 수
 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평균 14.7개 수준이었
 던 연구사업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은 44.2%가 증가한 매해 평
 균 21.2개를 기록했다. 이렇듯 연구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외부적 계기는
 2011년 재보궐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지역정부들이 곳곳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었다. 이 지역정부
 들은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지역 수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안
 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엄혹한 시절에도 비
 공식부문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노동사
 회연구소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 2013년 이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협력관
 계를 맺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또한 이렇듯 비정규직과 지자체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법제도 등 다른 주제
 의 연구들도 새롭게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매년 신진 연구인력을 매해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2) 연구주제

[그림 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주제별 누적 추이: 1995~2017



연구소가 지난 20여 년간 수행해온 전체 연구사업 360개를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등의 4개 대주제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 참조).

첫째, 노동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은 86개(23.9%)이다. 이는 형성기에 가장 비중이 높았다가, 발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가고 있다. 다만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상급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이나 전략과 이념을 생산한 연구결과, 또는 노동조합연합단체의 조직 발전 전망,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가의 경력관리 및 역량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의 대주제를 ‘노동운동’으로 분류했다.

둘째, 노사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은 126개(35.0%)로 가장 많다. 노

사관계를 주제로 하는 연구사업들은 꾸준히 많은 편이었지만, 특히 발전기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단위노동조합이 기업 수준 사용자와 관계에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이나 요구안을 생산했거나, 국가 또는 산업 수준에서 노동이 사용자의 방침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사관계 구조와 체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노사관계'로 분류했다.

셋째, 노동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은 101개(28.1%)로, 형성기와 발전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으나, 후퇴기 이후 비중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활성화기 들어서는 급증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세계에 대한, 지역 또는 산업 수준 실태조사에 기초한 연구결과들을 '노동시장'으로 분류했다.

넷째, 노동법·제도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은 47개(13.1%)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적다.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들은 형성기에는 거의 수행되지 않다가 발전기 이후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치구도가 전환되면서, 국가 노동정책의 새로운 틀 짜기에 우리 연구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준의 노동정책과 노동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노동법·제도'로 분류했다. [표 3-1]은 지금까지 서술한 각 시기별 연구과제의 주제 분포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3-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시기별 주제 분포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후퇴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	
	수(개)	비중(%)	수(개)	비중(%)	수(개)	비중(%)	수(개)	비중(%)
노동운동	26	(42.6)	39	(29.1)	9	(15.2)	12	(11.3)
노사관계	22	(36.1)	51	(38.0)	18	(30.5)	35	(33.0)
노동시장	11	(18.0)	25	(18.7)	25	(42.4)	40	(37.7)
노동법·제도	2	(3.3)	19	(14.2)	7	(11.9)	19	(17.9)
합계	61	100.0	134	100.0	59	100.0	106	100.0

(1) 형성기(1995~2002)

형성기인 1995년부터 2002까지 8년 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사업은 전체 61개다. 매년 평균 7.6개가량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이 중에서 대주제를 노동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26개, 노사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22개이다. 즉, 전체의 80% 가까이가 노동운동(42.6%)과 노사관계(36.1%)를 주제로 하는 연구사업들이었다. 한편, ‘노동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11개(18.0%), ‘노동법·제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2개(3.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3-1] 참조). “민주적 노사관계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것을 표방하고 창립된 조직으로서, 이 시기 연구소는 당시 전개된 급박한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착목했다.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 결과라 할 것이다. 이 시기 연구사업들을 각 영역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 노동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의 소주제를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조직진단과 개발’, ‘노동교육’ 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경제민주주의를 소주제로 하는 연구로는 『한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1995), 『노동의 인간화』(1996),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2002) 등이 대표적이다. 조직

진단과 개발을 소주제로 하는 연구로는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가는 노동조합 활동』(1997), 『노동조합의 조직개발』(2001),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2001)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교육을 소주제로 하는 연구로는 『21세기 노동교육』(1998), 『한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2001), 『평생교육 제도와 노동교육』(2002)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운동이 지향해야 할 임금정책, 한국사회 구조 분석에 기초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종합적 제언, 남아프리카와 독일 등 외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략·전술과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전개됐다.

한편, 이 시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결과들 중 노동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1995)이다. 이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 산별노조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산별노조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2000년대 초반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의 산별노조 전환 과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독립된 연구는 아니지만 기관지 『노동사회』에 연재된 글들을 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1999) 역시 당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주노동당 건설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

둘째, 노사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 중 상대적으로 빈번했던 것은 이른바 ‘신(新)경영전략’이라 불렀던 1990년대 중반의 주도적 경영방침,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것들이었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동조합의 대안』(1996), 『세계 자동차산업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운동』(1997), 『병원산업의 신경영전략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1997),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등이 있었다. 후자와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는 『화학섬유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2001), 『구조조정과 사무금융 노동조합: 실태와 과제』(2001),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2001), 『한국

통신(KT)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2001)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 원·하청관계와 노동조건 격차, 기업의 인사승진제도와 임금제도에 대한 대응 방향 등과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전개됐다.

셋째, 이 시기에는 노동시장과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들에는 『건설산업 노동시간 실태와 개선방향』(1999), 『대전지역 건설일용노동자의 의식실태 조사』 등 건설업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당시 건설업의 노동조건이 대표적인 비공식부문으로서 불법과 탈법이 횡행했던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금속산업 노동시장, 단시간 노동자의 상황, 자동차산업 동향 등도 주요 연구의 대상이 됐다. 또한 노동법·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1999년 이후에야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와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등이 그 대상이 됐다.

(2) 발전기(2003~2008)

발전기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사업은 전체 134개로 매해 평균 22.3개 가량이었다. 이전 시기인 형성기에 비해서 규모가 3배로 성장한 것이다. 이 연구사업들을 대주제별로 분류하여 보면, △노사관계 51개(38.0%) △노동운동 39개(29.1%) △노동시장 25개(18.7%) △노동법·제도 19개(14.2%) 순이었다([표 3-1] 참조). 형성기와 비교하면, 노동운동 관련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노사관계 관련 연구와 노동시장 관련 연구의 비중은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났고,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앞에서 언급했듯 노동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개입구조가 상대적으로 열린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용불안과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노사갈등과 노정갈등을 키워가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사

업에서 국가의 노동정책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관련 연구가 심화된 것은 이러한 형편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사업을 각 영역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 노동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의 소주제를 보면, '조직진단과 개발'과 '노동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제들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큰 가운데,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연구소가 새로운 노동운동의 의제들을 다양하게 제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 시기 조직진단과 개발과 관련된 연구사업의 세부 주제들은 주로 노동조합연합단체 차원의 조직혁신 방향에 대한 모색, 그리고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등에 대한 분석에 집중됐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노조연맹 통합 조사 연구』(2003), 『민주노총 조직운영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2005), 『민주노총 지역조직 실태와 과제』(2008) 등이 대표적이고, 후자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노조 선출직 간부의 경력 경로』(2003), 『노동조합 조직효과성과 조합원 참여 영향요인 연구』(2005), 『노동운동 리더십의 실태와 발전 방안 정책 연구』(2008)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조직진단과 개발 관련 연구들 중 『외국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교섭』(2003),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 연구』(2007),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운동방향 정립과 조직강화 방안 연구』(2008) 등과 같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과 성장 과정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노동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형성기보다 상대적으로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했다. 형성기의 노동교육 관련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었다면, 이 시기 연구들은 정보화 시대, 민주주의 교육, 직업능력개발 등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맥락 속에서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향으

로 전환했다. 이 시기 노동교육 관련 연구사업들로는 『정보화시대의 노동교육』(2003),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3), 『산업별 노조와 직업능력개발』(2007)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의 입장에서 산별노조 전환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화두였지만, 이와는 별개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적 의제들을 다양하게 제기하는 연구사업들을 진행했다. 공무원 노동운동의 이념과 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운동 재활성화 전략과 연대 전략, 지역사회 개입 전략,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 등이 이 시기 새롭게 연구소가 새롭게 제기한 의제들이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들로는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2003),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 전략』(2005),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2006), 『노동운동 재활성화』(2007), 『노동조합운동과 연대』(2008),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평가 및 비정규직 조직화 주요 사례 분석』(2008) 등이 있다. 또한 산별노조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이전 시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주제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구조 개선 방향』(2005), 『외국 산별노조의 임금정책 및 임금인상 요구안의 결정기준 연구』(2008), 『산별노조시대 고용, 임금 복지 연대전략』(2007)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금속노조 등 이 시기 새롭게 출범한 산별노조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진단 연구사업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둘째, 이 시기 노사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의 소주제들은 매우 다양했다. 다만 몇 가지 경향성이 존재하기는 했다. 이전 시기 ‘산별노조’라는 이슈에 대한 관심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산별노조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그리고 ‘초기업단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로의 개편 방향’ 등에 대한 관심으로 보다 심화되었고, 이 시기 정부의 열린 정책구조를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향성과 관련된 연구사업들로는

『계약산업 주5일제 개선방안 및 업종별 교섭』(2004), 『업종별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2006),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정책협의』(2007), 『지역단위 노사협력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07), 『산업별 교섭구조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2007),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등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향성과 관련된 연구사업들로는 『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방안 연구』(2004), 『공공서비스 노사관계』(2006), 『공무원 노사관계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2006), 『거버넌스 구조변화와 공공부문 노사관계』(2006), 『주요 선진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국제기구 제소 사례와 정부 대응경험 및 전략에 관한 연구』(2007)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연구소는 다양한 노사관계 이슈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연구했다. 작업장 감시,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단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등이 이 시기 연구소가 새롭게 발굴한 노사관계 관련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들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제도 도입 방안』(2004), 『한국의 사용자단체 연구』(2005), 『작업장 감시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5),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비판』(2006),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비정규직 투쟁 사례 연구』(2008) 등이 있다. 한편, 이 시기 연구소는 기존의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연구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외투 기업의 노동고용 관련 실태조사 및 인사노무관리 지원방안 연구』(2005), 『자동차 산업의 작업조직 변화와 노조의 대응정책』(2005), 『IMF 10년 백서, 금융산업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과제』(2007) 등 초기업단위 노사관계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단위노동조합의 대사용자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들에 대한 연구들도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셋째, 노동시장 관련 연구사업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연구사업이 양적으로도 늘었고, 연구주제나 조사대상이 질적으로 다양해졌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두드러진다. 먼저, 최저임금제도,

취업촉진정책 등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제도와 감정노동, 청년실업 등 새롭게 포착된 노동시장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됐다. 이를 연구주제로 하는 사업으로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노동시장 정책 과제』(2003), 『최저임금제가 저임금근로자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 평가』(2004), 『서비스종사자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정도가 근로자의 직무만족,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5), 『ILO 지역최저임금 실태분석』(2007), 『취약계층 근로자의 규모 추이와 일자리 이동 분석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 정책 방안 연구』(2007)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던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영세기업,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등에 속하며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을 노동보호정책의 대상과 노동조합의 조직화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시도했다. 『자활현장의 상황과 자활사업 발전방향 연구』(20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실태조사』(2005),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2006),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2007),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2008), 『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2008) 등이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서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보고서들이 출간됐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 결과로는 『한국의 노동 2007』(2007),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2007) 등이 있다.

넷째, 발전기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정부의 노동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가 참여한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다. 먼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당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사업들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2004), 『주요국의 취약계층 고용촉진 정책 연구』(2006), 『비정규직법 후속대책』(2007)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기초현황조사』(2004), 『국가경쟁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2006), 『한국의 이주노동정책과 노동시장·사회통합: 이주노동정책 평가 및 대안의 모색』(2006), 『작업장 감시장치에 관한 입법 경향과 정책 시사점』(200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노동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 정부 노동 행정 기관과 사회적 대화 기구들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수 진행됐다. 『노동위원회 50년사』(2003), 『노동행정사: 노동위원회 편』(2005),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서비스에 대한 노사당사자 의견조사』(2006), 『노사발전재단에 관한 연구: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2006) 등이 전자를 대표하는 사업이라면, 『서울지역 노사정 협력 모델 연구』(2006),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 비교연구』(2006) 등은 후자와 관련된 사업이었다.

(3) 후퇴기(2009~2012)

후퇴기인 2009년부터 2012까지 4년 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사업은 전체 59개였다. 매해 평균 14.7개가량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34%가 줄어든 것이었다. 이 시기 연구사업들의 대주제들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25개(42.4%) △노사관계 18개(30.5%) △노동운동 9개(15.2%) △노동법·제도 7개(11.9%) 순이었다([표 3-1] 참조). 이전의 발전기와 비교하면, 전체 연구사업 중 노동시장 관련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들의 비중은 모두 줄어들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시기에는 이른바 ‘이명박근혜 시대’를 수놓은 수구적 정치권력의 강압이 절정에 달했던 바, 노동 측에게는 하릴없는 시련의 시기였다. 연구소는 ‘검역주권 포기 반대 촛불시위’ 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연구용역 수주에서 배제됐으

며, 탄압 일변도의 상황에 놓인 노동조합들도 연구사업의 추진에 소극적이 됐다.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들의 비중이 줄어든 데는 이러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연구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공식부문의 취약한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다. 이 시기의 연구사업을 주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 노동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의 소주제를 보면, ‘조직진단과 개발’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발전기와 같이 새로운 전략적 의제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연구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연구소의 교육사업이 위축되면서 노동교육과 관련된 연구들도 1개를 제외하고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직진단 보고서』(2009),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50년 약사』(2010), 『한국 산별노조의 문제진단과 발전방안』(2012) 등에서 여전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중심 화두로서 산별노조에 대한 연구 관심과 현실의 산별노조와의 협력관계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과 현장조직』(2010), 『노동조합과 정당』(2012) 등 노동조합 안팎의 권력자원에 대해 성찰하는 연구들도 진행됐다.

둘째, 이 시기 노사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은 공공부문과 공무원 노사관계가 중심이었고, 그 외에는 임금제도나 인사제도 등과 관련된 단위노동조합의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노조의 대응방안』(2009), 『교원노조 단체교섭 해외사례 연구』(2011),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방안』(2012), 『공공기관 임금정책 연구』(2012)이 대표적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새로운 노사관계 이슈의 발굴과 분석에 도전하는 연구들도 일부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 비로소 공식화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사관계를 분석한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2009), 참여정부 시절 정책적으로 도입된 사회적 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한 『사회적 기업 노사관계 연구』(2012)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관련 연구사업은 연구소의 모든 활동이 후퇴했던 이 시기에 오히려 성장한 영역이다. 이전의 발전기에는 6년 동안 25개의 노동시장 관련 연구사업이 수행됐는데, 후퇴기 4년 동안 수행된 노동시장 관련 연구사업 건수 역시 25개였다. 매해 평균으로 하면, 4.2개에서 6.3개로 오히려 2.1개가 증가했다. 한편, 이 시기 노동시장 관련 사업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성을 보였다.

먼저,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간접고용, 서비스산업, 특수고용 등 이전 시기에 연구를 시작한 대상들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자, 음식점업 종사자, 행정인턴, 지자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등 새로운 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들이 전개됐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연구사업으로는 『가사근로 및 돌봄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2009), 『공공부문 행정인턴제도 실태 분석』(2009), 『사회적 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2009),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 조사와 고용안정 과제』(2011),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교사·학부모 인식조사』(2011),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분석』(2011), 『유통·호텔·골프장 업종 연구조사』(2012), 『서대문구 관내 음식점업 고용노동 실태조사』(2012) 등이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지자체나 지역의회 등과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된 연구사업들로, 일부에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지역정치세력들이 드디어 노동 문제를 자기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국제비교 연구’와 ‘지표개발 연구’가 진행됐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이전 시기 진행됐던 두 가지 연구사업 경향성이 합쳐져 발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에는 『한국의 노동 2007』(2007)과 같이 한국 노동시장을 개괄하는 연구 경향, 그리고 『국가경쟁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2006)와 같은 사회통합을 강화

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경향 등이 종합돼 있다. 국제비교 또는 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KLSI 고용지표, OECD 국가비교』(2010), 『직업별 고용의 질 지표 개발과 분석』(2011), 『지역 고용지표 개발 및 분석과 개선방안』(2011) 등이 있었다.

넷째,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는 이 시기 가장 후퇴한 연구영역이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주로 정당과 의회 또는 외국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고용, 노동, 사회보장법제』(2009),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2010),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2011) 등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간 단축 등 익숙한 주제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2012)처럼 새로운 주제의 연구사업들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만들어진 노동보호정책의 모범사례로서 평가받으며, 향후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연구사업들이 준거점이 됐다.

(4) 재활성기(2013년 이후)

연구소의 사업은 2013년을 기점으로 재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지난 해인 2017년 말까지 5년 동안 모두 106개의 연구과제가 진행됐다. 매해 평균 21.2개 수준으로 후퇴기의 매해 평균 14.7개에 비해 44.2%가 성장한 것이었다. 이 시기 연구사업들을 대주제로 분류해보면, △노동시장 40개(37.7%) △노사관계 35개(33.0%) △노동법·제도 19개(17.9%) △노동운동 12개(11.3%) 순이었다(표 3-1 참조). 이전의 시기에 비교할 때, 노동시장 관련 연구와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는 가장 활발했던 시기 수준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재활성화되었고, 노사관계 관련 연구도 발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다만, 노동운동 관련 연구는 매해 평균 2.4개로, 이 영역이 가장 위축되었던 후퇴

기(매해 평균 2.3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시기에는 시민의 힘으로 수구 정치권력의 '이명박근혜 시대'가 끝장났고, '노동 존중 사회'라는 용어가 국가의 정책적 화두로서 부상했다. 연구소의 연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된 것은 이런 정치적 맥락과 관련이 깊었다. 특히 2011년 보궐선거와 2010년,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슈들이 연구사업의 주제로서 부상했다. 각 주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 노동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시기의 노동운동 관련 연구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한편으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운동, 산별노동조합운동 등 전통적으로 연구소가 관심을 가졌던 이슈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집중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조직화 전략에 대한 사업으로는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 실태 및 조직화 방안 연구』(2013),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2014), 『사례지역 조직화 방안 수립 연구』(2017)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여성의 노조 참여'라는, 기존에는 다루지 않았던 이슈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수행된 『생애주기별 여성의 노동조합 참여 연구』(2016)는 그간 연구소의 연구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성인지적 관점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노사관계로 분류되는 연구사업들의 소주제는 이전의 후퇴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그 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꼽으면, 한편으로는 '안전 거버넌스'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등 상대적으로 생소한 이슈들과 관련된 연구사업들이 전개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그리고 지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노사관계 관련 세부 제도의 설계를 요구하는 실천적인 연구사업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전자의 흐름

과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연구』(201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적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우수 사례 연구』(2017) 등이 있었다. 후자의 연구사업들로는 『대우조선해양 임금, 직급, 생산 체계 연구』(2015),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개발 연구』(2016), 『몽골 산별 직무급 도입 컨설팅 연구』(2015~2017) 등이 있었다. 특히 몽골 산별 직무급 도입 컨설팅 연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을 받아 3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몽골을 연구진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산업의 임금제도 도입 방안을 설계하여 제시하는 연구사업이었다.

한편, 이 시기 노사관계 관련 연구사업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추세는 사업장단위에서 '비정규직 고용' 관련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상반된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2016년 이전에는 소위 시간선택제 등 비전형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사업장 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늘릴 수 있을지와 관련된 요구들이 주로 제기되었다면, 2016년 이후에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협조요청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특히 공공부문으로부터 제기됐다. 전자의 요구가 이른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노동을 강압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노동 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영향과 대응 방향 연구』(2013), 『공공 및 금융부문 시간제 여성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2015) 등이 있었고, 후자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국회 청소용역 직영화 전환 실행방안 연구』(2016),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연구』(2017) 등이 대표적이었다. 후자의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백, 수천 명의 비정규직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상당부분 시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공론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사회적 반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셋째, 노동시장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연구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는 연구영역이 되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 관련 연구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 후퇴기에 대해 평균 6.3개 진행되던 데서 재활성화기에는 대해 평균 8개가량의 노동시장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시기 노동시장과 관련해 다양한 소주제들이 연구됐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세였다. 먼저,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 집단들 중에서도 ‘청(소)년 노동자’에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실태 조사』(2014), 『인턴의 근로실태 및 권익보호 방안』(2014),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2016), 『청년 고용 및 가계 실태 분석과 청년 고용복지 정책 연구』(2016)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실업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구직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요청이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임에 따라 조사 요구는 ‘지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들로는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2013), 『고양시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 연구』(2013),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2014),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2015)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지역정부가 곳곳에서 들어섰다는 점, 그리고 2012년 우리 연구소의 연구결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2012)- 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모범 사례로 인해 지방정부가 노동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판이 형성됐다는 점이 시너지 효과를 낸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단위 연구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다음에 살펴볼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지방정부가 노동 이슈를 중앙정부의 이슈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슈로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넷째,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노동시장 관련 연구와 더불어 이전 시기에 비해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 활성화 양상은 이전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발전기의 활성화 양상과 뚜렷한 차별 지점을 보인다. 발전기 당시의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에 대한 것이었다면, 재활성화기에는 주요 대상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노동법·제도 관련 연구사업들을 보면, 『지자체 노사업무 사회적 대화 기구 발전 방향 연구』(2014), 『성남지역 노동권 보호와 권리확대 정책 연구』(2016),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생활임금정책 연구』(2016),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2017)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시기 노동법·제도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연구사업으로는 역사적 안목에서 중앙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노동위원회 60년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연구』(2014), 무역협정이 국가 노동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한·EU FTA 노동기준 관련 내용 및 이행실태 평가 연구』(2016) 등을 꼽을 수 있다.

3) 협력기관과 연구진

(1) 용역계약과 협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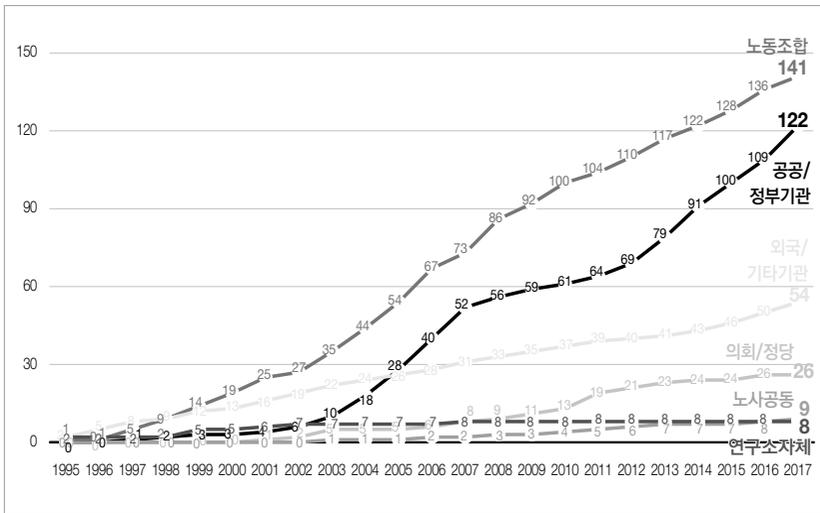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은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용역사업계약을 기초로 수행된다. 창립 초기에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한 적도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연구소의 연구사업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노동자의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이 조직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가공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협력기관들은 크게 보면 △연구소 자체 △외국·기타기관 △노동조합 △노사공동 △의회·정당 △공공·정부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외국·기타기관'에는 △외국 노동조합 △외국 공익재단 △국내 공익재단 △국내 시민사회단체 △기타 조직 등이 포함되고,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연합단체와 초기업단위노동조합(상급노동조합) △기업단위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회·정당'은 △국회 △지역의회 △교육위원회 △각 정당 및 부설 연구소 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공공·정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이래 2017년 말까지 수행된 연구사업의 지원 기관들을 앞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 구분해보면, △노동조합 141개(39.2%) △공공·정부기관 122개(33.9%) △외국·기타기관 54개(15.0%) △의회·정당 26개(7.2%) △노사공동 9개(2.5%) △연구소 자체 8개(2.2%) 순이었다(그림 3-3 참조). 노동조합이 가장 많았고, 노동조합과 공공·정부기관의 발주를 받아 수행하는 것의 비중이 약 73.1%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다수를 차지

하는 노동조합 및 공공·정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 발주 연구사업 141개 중에서 '노동조합연합단체 또는 초기업단위노동조합'(상급노동조합)과 관계 속에서 진행된 것이 98개이고, '기업단위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과 관계 속에서 진행된 것은 43개였다. 전자가 후자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한 공공·정부기관과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122개를 구분해 보면, △공공기관 51개 △중앙행정기관 37개 △지방자치단체 30개 △정부위원회 4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발주기관별 누적 추이: 1995~2017



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한 협력기관의 분포를 △형성기(1995~2002) △발전기(2003~2008) △후퇴기(2009~2012) △재활성화기(2013년 이후) 등 연구사업의 발전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표 3-2 참조).

[표 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시기별 발주기관 분포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후퇴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	
	수(개)	비중(%)	수(개)	비중(%)	수(개)	비중(%)	수(개)	비중(%)
공공/정부기관	6	9.8	50	37.3	13	22.0	53	50.0
의회/정당	2	3.3	7	5.2	12	20.3	5	4.7
노사공동	0	0.0	3	2.2	3	5.1	3	2.8
노동조합	27	44.3	59	44.0	24	40.7	31	29.2
외국/기타기관	19	31.1	14	10.4	7	11.9	14	13.2
연구소 자체	7	11.5	1	0.7	0	0.0	0	0.0
합계	61	100.0	134	100.0	59	100.0	106	100.0

첫째,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연구사업의 형성기에는 노동조합과 외국·기타 기관과 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사업이 27개(44.3%)였고, 외국·기타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 연구사업은 19개(31.1%)였다. 또한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진행한 연구사업도 7개가 있었다(표 3-2 참조). 이는 다른 시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었다. 이 시기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은 기관들의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과의 협력사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상급노동조합과 진행하는 연구사업이 17개(63.0%)로 단위노동조합 10개(37.0%)보다 많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2017년까지의 연구사업 단계에서는 상급노동조합이 발주한 연구사업의 개수가 단위노동조합의 2배 이상이다. 이 시기에는 그와 다른 경향을 보인 것은 노동조합연합단체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저발전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산별연맹과 산별노조는 주로 2000년대 이후 성장했다.

다음으로, 외국·기타기관과 협력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에버트 재단)와 연구소의 협력관

계가 매우 두텁게 형성됐다. 형성기 8년 동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은 모두 15개였다. 에버트 재단과 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매해 끊이지 않고 연구사업을 함께 진행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에버트 재단 외에도 네덜란드노총,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 국제건설목재노련 아태지역본부,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노련 아태지역본부, 국제사무전문노동조합연맹 등이 연구소의 연구사업을 지원했다. 에버트 재단을 제외하고는 이 시기 이후 연구소와의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체 재정으로 진행된 사업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한 연구사업들이 아니라, 외국 문헌에 대한 번역 작업 결과이거나, 기관지인 『노동사회』에 게재된 글들을 재가공한 결과물들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로는 『남아프리카 노동운동: 역사와 현황』(1995),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선택버 보고서』(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1999), 『구조조정기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적 개입』(1999) 등이 있었다. 앞의 두 보고서는 연구소 구성원들이 번역작업을 진행한 결과물이고, 뒤의 두 보고서는 노동사회에 실린 연구소 안팎 연구자들의 글들을 모아서 현안 의제에 맞춰 편집한 결과물이었다.

둘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사업의 발전기에는 여전히 노동조합과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기타기관과의 협력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공공·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 연구소가 수행한 134개의 연구사업 중 노동조합에서 발주한 것이 59개(44.0%)였고, 공공·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50개(37.3%)였다. 외국·기타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14개(10.4%)였다(표 3-2 참조). 외국·기타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절대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앞의 두 기관, 특히 공공·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그 비중이 줄어든 것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과 협력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이 발주한 59개의 연구사업 중에서 상급노동조합이 발주한 것은 36개(61.0%)이고 단위노동조합이 발주한 것은 23개(39.0%)였다. 앞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전체 누계에서처럼, 상급노동조합이 연구사업의 발주를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은 이 시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상급노동조합과의 협력사업을 보면, 산업이나 지역 수준의 노동조합연합단체나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연구사업을 위해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는 경우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노동조합총연합단체가 연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 상급노동조합이 발주한 연구사업 36개 중 한국노총과 그 부속기관(특히 중앙연구원)이 발주한 것이 모두 14개, 민주노총과 그 부속기관이 발주한 것이 7개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금융노조, 금속노조, 공공연맹 등이 연구소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단위노동조합 중에는 벽산건설노조, 하나은행노조, 기아차노조, 대우차노조 등이 연구소와 한 차례 이상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외국·기타기관과의 협력관계는 이전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버트 재단과 안정적으로 연구사업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련의 연구사업을 각각 1건씩 수주한 것이 특징적이라면 특징적인 일이었다.

다음으로, 공공·정부기관과의 연구사업 협력관계는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전 형성기 8년 동안 6개에 그쳤던 공공·정부기관 연구용역 수주는 이 시기 6년 동안 50건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 연구소가 공공·정부기관의 연구사업 발주를 맡은 개수는 △중앙행정기관 23개 △공공기관 22개 △정부위원회 4개 △지방자치단체 1개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노동부(15개)와 국가인권위원회(4개)의 연구용역사업 수주가 두드러졌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8개), 한국노동연구원(7개) 등과의 협력사업이 상대적으로 빈번했다. 또한 이 시기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와 연구소의 협력사업이

진행된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개수가 적긴 하지만 의회·정당과의 협력사업도 이 시기 상대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전 시기 2개에 그쳤던 의회·정당의 연구용역 수주는 이 시기에는 7개로 늘어났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하며 당시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친노동계 의원인 박인상 의원실(민주당)이 주로 연구소의 연구사업을 지원했다.

셋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연구사업의 개수가 감소한 가운데, 여전히 노동조합과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공공·정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사업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으며, 이를 대신하여 의회·정당과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 시기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사업 59개를 용역계약 발주 기관별로 분류하면, △노동조합 24개(40.7%) △공공·정부기관 13개(22.0%) △의회·정당 12개(20.3%) △외국·기타기관 7개(11.9%) △노사공동 3개(5.1%) 등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정부와의 관계가 약화되었음에도 공공·정부기관이 협력기관 분류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위원회와는 달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와 협력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연구소와 연구사업을 함께 진행한 협력기관들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한 24개 연구사업을 보면, 상급노동조합이 발주한 것이 16개이고 단위노동조합이 발주한 것이 8개였다. 즉, 전체적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정책연구에 있어 노동조합연합단체 및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기업단위노동조합에 비해 두드러지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가 이 시기 약화된 노사갈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연구보다는 투쟁과 단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연구

소와 협력관계를 맺은 상급노동조합을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총연합단체의 비중이 줄고 산업 또는 지역단위 상급조직들의 비중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연구소는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금융노조, 공공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여성노조, 증권노조, 전력노조 등 다양한 산업단위조직들과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다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이 시기에 모두 3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한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을 제외하고 이 시기 연구소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외국·기타기관은 없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 공공·정부기관과의 협력사업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위축됐지만, 새로운 경향성의 맹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연구소가 공공·정부기관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연구사업은 총 13개로, 발전기 50개에 비해 절대 수에서도 급소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3%에서 22.0%로 크게 줄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위원회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사업을 수행한 발전기에도 1개에 그쳤던 지방자치단체 발주 연구사업이 이 시기에는 4개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4개 기관 모두 '서울'(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서울노사정모텔협의회)이었다는 지역적 한계는 존재했지만, 이는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지점이었다. 한편, 이 시기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형성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역시 발전기(22개)에 비해 절대 수(9개)는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노동교육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이 시기에는 두 기관 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 함께일하는재단, 근로복지공단 등과도 새롭게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있어 의회·정당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해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 의회·정당이 발주한

연구사업은 12개로 발전기 7개에 비해 유일하게 절대 수에서도 많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에서 20.3%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다. 또한 이전 시기 연구소가 수행한 의회·정당 발주 연구사업은 주로 ‘친노동자’를 표방한 정당이 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실이 맡긴 것이었던 반면,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화됐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와 그 부속기관(입법조사처, 환경노동위원회)의 발주를 받은 연구사업이 4개였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의 발주를 받은 것이 2개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각각 2개, 그리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1개의 연구사업을 우리 연구소에게 맡겼다. 두드러진 점은 연구소가 처음으로 지역의회의인 서울시의회와도 협력 관계 속에서 연구사업을 1개 수행했다는 점이다.

넷째, 후퇴기로부터 상황이 반전되어 연구사업의 재활성화가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인 2017년 말까지, 연구소는 모두 106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재정을 지원한 발주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공공·정부기관 53개(50.0%) △노동조합 31개(29.2%) △외국·기타기관 14개(13.2%) △의회·정당 5개(4.7%) △노사공동 3개(2.8%) 등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공공·정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었다. 또한 후퇴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의회·정당 발주 연구사업은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공공·정부기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연구소와 연구사업을 함께 진행한 협력기관들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이 발주한 연구사업들을 살펴보면, 상급노동조합이 연구소에게 맡긴 것이 29개, 단위노동조합이 연구소에게 맡긴 것이 2개로, 기업별노조에 비해 노동조합연합단체와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주도성이 크게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 시기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형성한 상급노동조합을 살펴보면, 서비스부문

의 노동조합연합단체 또는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가 맡긴 연구사업도 5건을 수행했고, 양대 노총의 제조업 산별조직들의 연대체인 '제조공투본'의 발주한 연구사업도 수행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서비스부문의 상급노동조합 조직이 맡긴 연구사업들이었다. 특히 공공노련,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택시연맹, 공노총, 금융노조 등과는 이 시기 두 차례 이상 연구사업을 함께 수행했고, 통합공무원노조, 공공연맹, 전국학비노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등도 연구소에 연구사업을 맡겼다. 이 시기 연구소와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한 단위노동조합은 대우조선해양노조, 한화생명노조 등이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는 외국·기타기관과 사업 관행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이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기관은 여전히 에버트 재단이었지만, 그 외에도 ILO 동아시아 조직과 3년여에 걸쳐서 3차례의 연구사업을 진행했는가 하면, 공익재단인 2020재단, 그리고 성신회계법인 등 국내의 '기타기관'들과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ILO 동아시아 조직과 함께 진행한 연구사업은 역설적인 측면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설립 초기 주로 외국기관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선진국 노동조합의 활동과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으려 했던 연구소가, 그동안 축적한 우리의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몽골이라는 외국의 산업단위 임금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공공·정부기관이 발주한 연구사업을 맡는 경우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활성화되었다. 2013년 이후 5년 동안 연구소는 53개, 즉 매해 10개가 넘는 공공·정부기관 발주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연구사업 106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25개 △공공기관 15개 △중앙행정기관 13개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중앙행정기관의 협력관계가 다시 형성되었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강화된 것이다. 이는 서울시와 연구소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획되어 추진된 노동 관련 정책들이 전국 곳곳에서도 모범 사례로서 인식되면서, 우리 연구소에 정책적 협조를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여전히 서울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10개 연구사업), 그 외에도 고양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울산북구청 등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했으며, 성남시, 수원시, 아산시, 안산시, 용인시, 그리고 서울의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등으로 연구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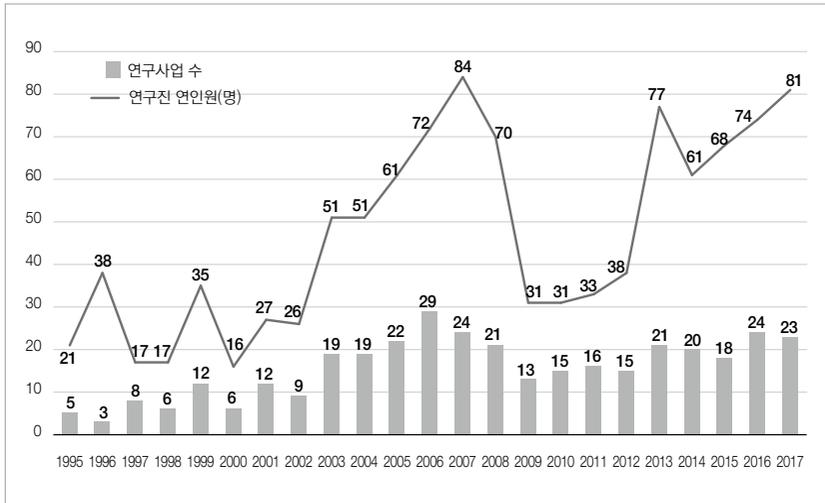
한편, 이 시기에는 이전의 후퇴기에 단절됐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복원되었다. 이 시기 연구소는 노동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7개)의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사업들도 수행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연구소는 노동 관련 조직인 한국노동연구원과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연수원 뿐만 아니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해왔다.

(2) 참여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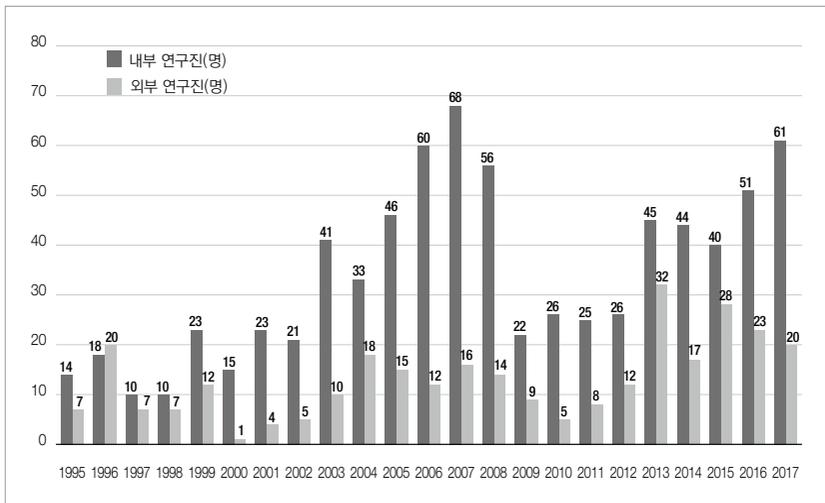
연구사업 개수와 참여 연구진 수의 전체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에 360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중복해서 셈하면 모두 1,080명이다. 평균으로 하면 연구사업 1개당 3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장 많았을 때는 2007년 84명이었고, 가장 적었을 때는 1997년과 1998년 17명이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외부 연구진의 참여가 많았던 1996년을 제외하면, 연구사업 1개당 평균 참여 연구진 수는 연도별로 2.1명에서 4.2명 사이였다. 연구사업 1개당 평균 참여 연구진 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발전기와 2013년 이후 재황성화기는 상대적으로 많았고, 1995년부터

터 2002년까지 형성기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후퇴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수와 연도별 참여 연구진 수 추이: 1995~2017



[그림 3-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연구진의 내부/외부 구성 추이: 1995~2017



매해 참여 연구진의 내부와 외부의 구성을 보면 [그림 3-5]와 같다. 지난 20여년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수 1,080명 중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소속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한 '내부 연구진'의 수는 778명(72.0%)이고, 외부에 있으면서 연구사업에 참여한 학자, 연구자, 노동조합활동가, 사회단체활동가 등 '외부 연구진'의 수는 302명(28.0%)이었다. 내부 연구진 수가 외부 연구진 수에 비해 대략 2.57배가량 됐다. 한편,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내부 연구진은 1997년과 1998년에 10명으로 가장 적었고 2007년에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 연구진은 2000년에 1명으로 가장 적었고, 2013년에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 연구진 수 대비 외부 연구진 수의 비율은, 예외적으로 외부 연구진이 많았던 1996년(0.9 : 1)과 예외적으로 내부 연구진 중심으로 운영됐던 2000년(15 : 1)을 제외하면, '1.4대 1'에서 '4.2대 1' 사이를 오간다.

이러한 추이를 △형성기(1995~2002) △발전기(2003~2008) △후퇴기(2009~2012) △재활성화기(2013년 이후)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3-3]과 같다. 첫째, 형성기에는 매해 평균 24.6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연구사업 건당 참여자 수는 4.1명이고, 이 중 약 69.7%가 내부 구성원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1996년 예외적으로 외부 연구자 참여가 많았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발전기에는 매해 평균 22.3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연구사업 건당 참여자 수는 2.9명이고, 이 중 약 50.7%가 내부 구성원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2000년 예외적으로 외부 연구자 참여가 적었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셋째, 후퇴기에는 매해 평균 14.8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연구사업 건당 참여자 수는 2.3명이고, 이 중 약 74.8%가 내부 구성원이었다. 건당 참여자 수도 가장 적도 내부 참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넷째, 재활성화기에는 매해 평균 21.2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연구사업 건당 참여자 수는 3.4명이고, 이 중 약 66.7%가 내부 구성원이었다.

[표 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시기별 연구진 수 및 구성 추이: 1995~2017

시기	연구진 연인원(명)	연구사업 수 (건)	사업당 참여자 (명)	내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명)	(%)	(명)	(%)	
형성기	1995	21	5	4.2	14	(66.7)	7	(33.3)
	1996	38	3	12.7	18	(47.4)	20	(52.6)
	1997	17	8	2.1	10	(58.8)	7	(41.2)
	1998	17	6	2.8	10	(58.8)	7	(41.2)
	1999	35	12	2.9	23	(65.7)	12	(34.3)
	2000	16	6	2.7	15	(93.8)	1	(6.3)
	2001	27	12	2.3	23	(85.2)	4	(14.8)
	2002	26	9	2.9	21	(80.8)	5	(19.2)
	평균	24.6	7.6	4.1	16.8	(69.7)	7.9	(30.4)
발전기	2003	51	19	2.7	41	(80.4)	10	(19.6)
	2004	51	19	2.7	33	(64.7)	18	(35.3)
	2005	61	22	2.8	46	(75.4)	15	(24.6)
	2006	72	29	2.5	60	(83.3)	12	(16.7)
	2007	84	24	3.5	68	(81.0)	16	(19.0)
	2008	70	21	3.3	56	(80.0)	14	(20.0)
	평균	64.8	22.3	2.9	50.7	(77.5)	14.2	(22.5)
후퇴기	2009	31	13	2.4	22	(71.0)	9	(29.0)
	2010	31	15	2.1	26	(83.9)	5	(16.1)
	2011	33	16	2.1	25	(75.8)	8	(24.2)
	2012	38	15	2.5	26	(68.4)	12	(31.6)
	평균	33.3	14.8	2.3	24.6	(74.8)	8.5	(25.2)
재활성화기	2013	77	21	3.7	45	(58.4)	32	(41.6)
	2014	61	20	3.1	44	(72.1)	17	(27.9)
	2015	68	18	3.8	40	(58.8)	28	(41.2)
	2016	74	24	3.1	51	(68.9)	23	(31.1)
	2017	81	23	3.5	61	(75.3)	20	(24.7)
	평균	72.2	21.2	3.4	48.2	(66.7)	24.0	(33.3)

4) 기타: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 창

연구소에서는 연구결과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거나 다양한 현안에 개입하기 위해서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 창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포럼은 1995년부터 매해 여러 차례 진행되는 토론회이며, 이슈페이퍼와 연구소의 창은 시기에 따라 배포되는 이슈파이팅 보고서와 칼럼을 일컫는다. 노동포럼은 1999년 시작해서 2017년 말까지 135회가 개최됐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이슈페이퍼와 연구소의 창은 각각 2011년과 2013년부터 시작됐다. 2017년 말까지 발간된 이슈페이퍼와 연구소의 창 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이슈페이퍼

번호	주제	발표자	날짜
2017년			
1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	1.5
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김유선	1.11
3	국회 청소 용역 직접고용 전환 사례 검토	김종진	1.24
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이종수	3.8
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노광표	4.5
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황수옥	5.25
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황수옥	6.21
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김유선	7.17
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이정봉	8.24
10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김유선	10.13
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 분석	정경은	11.23
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이정봉	11.30
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김유선	12.5
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김유선	12.13

번호	주제	발표자	날짜
2016년			
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노광표 박용철	3.7
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김유선	3.16
3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홍주환	5.23
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김유선 박관성	6.17
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김유선	7.7
6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노광표 박용철 윤자호	7.29
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노광표	9.20
8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김유선	11.8
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김유선	11.22
2015년			
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김유선	1월
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김유선	2월
03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김유선	3월
05	최저임금 미달자와 수혜자	김유선	4월
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김유선	5월
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3) 결과	김유선	6월
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김유선 윤자호	7월
09	서울 지하철의 안전 진단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노광표	9월
10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김유선	10월
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김유선	11월
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김유선	11월
2014년			
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김유선	1.23
2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과제	김종진	1.23
3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김유선	2.5
4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김유선	2.17
5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김유선	2.27
6	서울시 대학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 방향	박용철	3.2
7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방향	유형근	3.11

번호	주제	발표자	날짜
8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 방향	곽상신	3.24
9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 변경과 지역사회 변화	노광표 이정봉	3.26
10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모색	김유선	3.27
11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노광표	4.23
12	간접고용 실태와 개선방안	김유선	4.30
13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방안	김종진	5.14
14	최저임금 결정기준	김유선	5.28
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김유선	5.29
16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김유선	6.3
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6.11
18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	노광표	6.17
19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김유선	7.9
20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유선	9.1
2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진단과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노광표	9.25
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김유선	11.7
23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김유선 전사랑	12.8
2013년			
1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노광표 이문호 이정봉	3.4
2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쟁점	김종진	3.13
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6.6
4	통상임금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책	김유선	6.6
5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증잣대	김미영	9.2
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김유선	9.9
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11.19
8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윤정향	12.19
2012년			
1	노동시간 단축 방안	김유선	2.13
2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김유선	3.20
3	근로소득 불평등	김유선	5.17
4	2012.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6.5
5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김종진	9.17
6	2012.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11.8

번호	주제	발표자	날짜
2011년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6.7
2	“주 40시간 알바해도 등록금 마련 힘겨워”	김유선	6.23
3	2012년 일자리 예산안	김유선	10.20
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11.6
2010년			
1	개정 노동조합법 평가와 대응방향	김유선	1.21
2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개정 법안, 쟁점과 평가	김선수	2.1
3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김유선	2.25
4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김유선	3.22
5	10대 청소년 노동실태	김유선	3.29
6	최저임금제 개혁을 위한 국제연대운동과 그 시사점	윤진호	5.10
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년 3월 경찰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6.14
8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노광표	7.27
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년 8월 경찰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11.4

(2) 연구소의 창

번호	제목	필자	계재일
2017년			
1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10
2	'노동시간 단축'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6
3	나도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이명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2.13
4	왜 우리에게 '노동4.0'이 없는가? -독일 '산업4.0'이 주는 시사점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2.21
5	이생망과 일자리 공약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28
6	조직화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20
7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정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14
8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16
9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노동개혁 과제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5.17

번호	제목	필자	계재일
10	'노동 당사자주의'를 위해	전중휘(한겨레 기자)	5.30
11	숙련을 매개로 한 점진적 임금체계 개편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6.12
12	사회적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3
13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7.21
14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유연화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9.6
15	통계로 살펴본 82년생 여성 노동자 김지영 씨	정경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9.20
16	'9988'의 왜곡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0.17
2016년			
1	박근혜발 새누리표 노동개혁에 대한 한국노총의 단심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1.12
2	4·13 총선의 아젠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14
3	저성과자 해고 지침,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1
4	민주노총 2016년 사업 흐름과 투쟁계획	김석(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2.14
5	성과주의의 신화와 현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19
6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과제	손호철(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2
7	여성노동자가 행복해야 99%가 행복할 수 있다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3.8
8	문제는 정치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3.22
9	대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부터 이야기하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28
10	총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4.11
11	'최저임금'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큰 것인가?	김준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4.19
12	위험 사회에서 벗어나기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4.25
13	누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두려워하는가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5.03
14	일석사조의 노동시간 단축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5.12
15	조선산업 구조조정, 경영자와 채권단에 주는 면죄부인가?	조현우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5.24
16	구조조정의 정치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6.1
17	구의역 9-4번 승강장 앞에서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6.10
18	여성 고용차별 해법, '간접차별'서 찾자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6.13
19	위기의 조선산업, 해법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신원철(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27
20	저임금노동의 '혜택'에 빠진 학교당직기사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7.12
21	노사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8.2
22	기업별노조 한계와 이중노동시장의 강화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8.11

번호	제목	필자	계재일
23	경제 망칠 노동개혁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8.23
24	청년의 절박한 현실, '버팀목 수당' 필요해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9.6
25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9.12
26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9.28
27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물결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0.14
28	노동시간 단축과 6시간 노동제 실험	이명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0.18
29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11.2
30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라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1.7
31	저출산 해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부터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1.15
32	누가 택시발전법을 꺾대기로 만드는가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1.28
33	춧불항쟁과 사회개혁의 과제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2.20
2015년			
1	비정규직 대책, 정부의 속내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8
2	어두운 한국 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13
3	2015년 노사관계를 읽는 열쇠말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3.2
4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3.20
5	해방 70년, 또다시 형극의 벼랑에 몰린 노동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4.10
6	노동운동의 국제 감각과 새로운 침로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18
7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감시	김주일(한기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6.8
8	이타카, 그리스, 그리고 양극화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29
9	최저임금,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7.16
10	여유로운 삶, 어떻게 가능한가	강수돌(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8.3
11	노동시장 개혁의 큰 그림으로 맞서자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8.31
12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1.4
2014년			
1	2014년, 산별의 힘으로 돌파하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1.2
2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정부와 기업	나현필(국제민주연대)	1.7
3	비정상의 대표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박용석(공공운수연맹 기관사업본부장)	1.20
4	거꾸로 가는 공기업 정상화정책, 노조가 바로 잡아야	노광표(한노사연 소장)	3.2
5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3.17
6	노동조합의 우월한 자화상	이상현(ILO 연구조정관)	3.31

번호	제목	필자	계재일
7	현대차 지부 연대임금 전략은 허망한 꿈인가?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13
8	2014 노동절-재해공화국의 비극에 잠기다	이원보(한노사연 이사장)	4.28
9	세월호와 현대중공업 재벌의 탐욕은 재앙	하부영(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5.12
10	유령이 되어버린 진보정당들에게 필요한 것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6.9
11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6.25
12	태광 티브로드 사태를 통해 본 '뽀뽀업 효과'	강수돌(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7.17
13	요코하마 단상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7.28
14	노동소득분배율 높여야 경제가 산다	강병구(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13
15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병승(현대자동차 노동자)	8.29
16	경제민주화의 실종과 경기부양의 한계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0.27
17	쌍용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대응 방안	김태욱(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11.24
18	박근혜 정부의 하락, 무기력한 야권	유창선(정치평론가)	12.29
2013년			
1	한국 정치역학의 세 고리	이원보(한노사연 이사장)	9.30
2	'노동' 시간에서 '노동자'의 시간으로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0.7
3	기울어진 저울, 바로 잡기	노광표(한노사연 소장)	10.14
4	'폴라니의 추'를 움직이려면	이상현(ILO 연구조정관)	10.21
5	'법외노조' 전교조에 대한 두 가지 제언	이명규(한노사연 연구실장)	10.31
6	다시 전태일 열사를 찾으며	이원보(한노사연 이사장)	11.4
7	노동운동, 대안은 지역이다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1.19
8	장시간 노동 해소 접근, 근로시간 특례업종 논의부터	김종진(한노사연 연구위원)	11.25
9	희망버스와 태양의 학교	이수호(한노사연 이사)	12.02
10	철도노조의 아주 절박한 사회공공성 투쟁	이영수(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10
11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과제	이정식(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12.20
12	민주노총 총파업에 바란다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12.27

2. 교육

1) 개요

연구소 교육사업은 한국교육협회의 활동을 승계하여 출발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 출범 첫해 교육실의 주요사업은 전통적으로 해온 파견교육, 교육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노조간부 양성을 위한 기획교육, 교재 발간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교육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은 현장의 교육 요구를 수용함과 더불어 교육이론 및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이었다. 이는 민주노조들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다양한 교육사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지만 노동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관성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변화하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론과 교육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교육연구팀은 연구소가 출범하기 전에 구성되어 2주에 한 번씩 연구모임을 갖고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로 몇 가지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시도되었다. 여성간부 지도력 향상프로그램과 교육담당자 사업기획 훈련프로그램(FIET-KLC 여성간부교육 및 교육담당자 교육), 그룹토론식 종합강의, 버즈 그룹토론, 찬반토론 등이 그 예이다. 교육방법론 개발은 교육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육활동을 관통하는 기본의제였다.

교육사업은 교육실의 교육위원이 주관하였고 나머지 임원과 연구위원들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사업은 창립 이래 연구실, 사무국과

함께 편제된 교육실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2007년 연구실-기획실 체제로 바뀌면서 기획실 안의 교육국으로 편입되었다. 교육실장-교육위원의 집행체계도 교육국장-부장-차장으로 바뀌었다. 교육위원 또는 교육국 성원은 1995~2010년 사이 1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1995년 2명으로 출발하여 1996~1998년 4명, 1999~2001년 3명, 2002~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 2008년, 2010년 각 2명, 2007년, 2009년 각 1명이었다(명단은 [부록 4-9] 참조).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교육위원을 충원하지 못해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했고 교육사업은 파견교육만 남게 되었다. 다만 2008년부터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가 주도하는 세계노동운동사 강좌가 진행되었다.

2) 기획교육

기획교육은 노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사훈련, 노동교실, 역량향상훈련(기획, 조직, 여성, 교육, 홍보, 교섭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기획교육은 연구소 창설 이전부터 전개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 4월 말까지 총 26회를 진행했다. 이를 보면 중앙강사훈련(제13기~제15기) 3회, 단위노조 및 지역 강사교육과 지역 및 단위노조 교육담당자훈련 20회 등 모두 23회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994년의 7회(강사훈련 2회, 지역 및 단위노조 교육담당자훈련 5회)에 비해 3배가량 크게 늘어난 기록이다. 그러나 노동교실의 경우는 총 3회로써 1994년의 9회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표 3-4] 참조)

[표 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첫째 기획교육(1995)

종류별	구분	기간	장소	참석자
중앙 강사 훈련	제13기	1995.1.21~23	송실대 사회봉사관	단위노조 간부 40명
	제14기	1995.11.25~27	상동	단위노조 간부 32명
	제15기	1996.2.8~10	상동	단위노조 간부 39명
교육 담당자 훈련	중소기업은행노조	1995.1.5~, 주1회, 총10회	노조사무실	노조 상근간부
	노동과건강연구회 강사훈련	1995.2.18~20	노동과건강연구회	노조 산안부장
	대우조선노조부서 집행위원 기획훈련	1995.2.11~12	대우조선노조	부서집행위원회 교육담당자 13명
	만도기계노조 강사훈련	1995.3.6~8	만도기계노조	교육위원 15명
	현대정공 창원노조 교육담당자훈련	1995.4.13~14	현대정공 창원노조	교육위원 12명
	금융노련 강사훈련	1995.4.6~8	금융노련	단위노조 교육부장 20명
	FIET-KLC 여성간부교육	1995.6.15~16	청평 가든연수원	단위노조 여성간부 25명
	FIET-KLC 교육담당자교육	1995.6.28~30	남한강 수련원	가맹노조 교육담당자 15명
	FIET-KLC 3년 교육평가 워크숍	1995.8.21	여성개발원	가맹노조 국제 교육 여성 담당자 15명
	통일워크숍 간담회	1995.6.9	연구소	각 단위노조 통일일꾼 15명
	만도기계노조 교육위원교육	1995.10.4~6	가톨릭농민회관	각 지부 교육위원 14명
	기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교육	1995.10.30~11.1	기아 매플하우스	본조 지부 교육위원 15명
	한양대병원 노조간부학습	1995.11~12, 총8회	한양대 노조사무실	상집간부 15명
	섬유노련 화섬부회 편집교육	1995.11.29~12.1	화섬부회 사무실	산하노조 편집담당자 12명
	대구 노동정책연구소 강사훈련	1996.1.19~21	노동정책연구소	대구지역 노조간부 15명
금융노련 여성강사훈련	1996.2.13~15	송실대 사회봉사관	노조 여성간부 20명	
만도기계노조 교육위원교육	1996.2.26~29	대전 경화장	교육위원 15명	
한국통신노조 강사훈련	1996.3.12~13	송실대 사회봉사관	여성간부 및 114 지부장 20명	
한국통신노조 강사훈련	1996.3.27~29	송실대 사회봉사관	지방본부 위원장 및 교육담당자 30명	
SKM노조간부 및 대의원 수련회	1996.4.18	청평 샤넬연수원	간부 및 대의원 40명	
노동 교실	대우자동차 정비지부	1995.1.20~, 주1회, 총4회	지부 회의실	각 지부 간부 및 대의원
	쌍용자동차노조	1995.2.20~, 주1회, 총5회	노조 사무실	총집간부 및 교육위원 20명
	기아자동차노조	1995.3~, 주1회, 총6회	소하리, 아산	

강사훈련은 연구소가 실시하는 중앙강사훈련과 노조별로 실시하는 노조강사 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중앙강사훈련은 한국노동교육협회 시절인 1989년 9월 15일부터 시작되어 13기까지 이어졌고, 연구소로 전환한 이후에는 제14기(1995년 11월 25일)부터 19기(1999년 9월 15일)까지 모두 6회를 실시하였다. 노조 강사훈련은 1995년에 만도기계노조, 노동과건강연구회, 금융노련이 각 1회씩 3회, 1996년에 대구노동정책연구소, 금융노련(여성), 한국통신(2회)이 총 4회, 1999년에 한국통신노조가 1회를 실시하였다. 노동교실은 한국노동교육협회 시기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노동문제와 노조활동에 대한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강의식 노동 강좌로 구성되었고 연구소로 전환한 이후에는 폐지되었다.

역량향상훈련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과정별 학습은 노조원 또는 간부들의 교육정도에 따라 단계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조직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하나의 조직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하나의 조직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는 화학산업 교육활동가 양성 훈련과정(1997~1999),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대학원(2000),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간부교육 1기~4기(2007.9.17~11.7),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교육(2009),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전문가과정(2009)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02~2007년에 실시한 노조간부 기본교육이 34회 운영되었다.

특히 화학산업 교육활동가 양성 훈련과정은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 스웨덴노총 국제협력위원회(LO-TCO Council), 스웨덴산업노동조합(Industrifacket)의 후원으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초급과정 6회, 중급과정 3회, 고급과정 2회, 종합과정 1회 등 모두 12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급과정이란 노조 운영 및 역할 이해, 현장조직화의 의미 및 중요성 정립, 노조현안에 대한 발표력 실습, 현장토론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급과정은 노조 조직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소모임 운영방안, 사회정치적식 고취, 다양한 현장

토론방법 실습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급과정은 노동운동 현황과 당면과제, 정세분석 능력, 산별연맹 강화 및 정치활동 강화 방안, 간부 재생산을 위한 조직방안, 종합과정은 3개년 교육평가, 연맹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노동운동의 장기전략 수립,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모색 등으로 꾸러졌다.

노조간부 기본과정은 노동부 산하의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노조간부에게 필요한 기본교육과정에서부터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조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참여형 교육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기획교육은 1995~2009년 사이에 202회가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노동자는 8,956여명에 이르렀다.([표 3-5] 참조)

[표 3-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획교육 연도별 추이

연도	횟수	강사훈련	일반학습	전문역량훈련	과정별학습	참가자 수
1995	19	5(2)	10	4	-	300
1996	14	6(2)	6	2	-	479
1997	17	1(1)	8	4	4	420
1998	16	1(1)	8	3	4	478
1999	15	2(1)	7	1	5	437
2000	15	2	10	-	3	1781
2001	12	3	7	2	-	490
2002	12	-	5	2	5	364
2003	20	-	10	2	8	937
2004	12	1	6	5	-	398
2005	9	-	4	-	5	1775
2006	12	-	8	-	4	451
2007	13	-	10	-	3	366
2008	6	-	4	-	2	173
2009	10	1	2	4	3	107+α
계	202	22(7)	105	29	46	8956+α

* ()안은 연구소 주최 교육임.

3) 파견교육

파견교육은 1995년 1월~1996년 4월까지 월평균 19.5회로, 총 312회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간부 및 조합원은 19,396명이었다. 이를 세분하면 1995년 1월~12월까지는 214회(1만 3,111명), 연구소 창립 후인 1995년 5월~1996년 4월말까지는 201회(1만 3,891명)였다. 파견교육 내용을 주제별 비중을 분석하면 간부(또는 조합원)의 자세와 역할(16.2%), 정세분석(14.9%), 노동조합 조직론(14.3%), 노동운동론(10.5%) 등이 많았고, 노동교육(9.2%), 임단투전략 전술(7.9%), 자본의 전략에 대한 대응(6.7%), 단체교섭론(6.3%), 노동운동사(4.4%), 기초사회이론(3.8%) 등이 중간 정도였다. 그 밖에 노동법, 경영분석, 노사관계, 통일문제, 노동정책 등은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파견교육은 1995~2016년까지 총 3,972회를 수행하였고 월평균 15.1회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5~2000년까지 연간 200회를 상회하다가 2001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82회까지 낮아졌다.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고 2014년부터는 연간 200회 이상을 회복하였다.([표 3-6] 참조) 교육은 노조간부, 조합원 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참가자수는 조합원교육의 경우 1회에 수백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간부교육은 조직규모와 교육목표 및 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참가자 수가 달라졌다. 파견교육 규모는 매년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나 1995년 1만 3,661명(214회), 2002년 9,235명(160회), 2003년 7,583명(121회), 2004년 9,285명(120회), 2005년 9,683명(109회)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하면 1회에 68.3명이다. 이를 1995년에서 2016년 동안 운영된 교육 횟수 3,972회를 환산하면 참가자수는 2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파견교육의 주제를 보면 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집계한 경우 노동사회 기초부문(18.3%)이 가장 많았고, 노동운동론(14.8%), 정세분석(10.4%), 조합원 및 간부의 역할과 자세(9.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전체의 53.3%를 차지하

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공부문(7.7%), 노사관계(6.1%), 노동조직론(5.9%), 노동조건(5.0%), 교육방법론(4.9%), 임단투 및 단체교섭 전략 전술(4.1%)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노동운동사(3.2%), 자본전략 대응(2.6%), 노동정책(2.2%)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 밖에 노동법(1.2%), 비정규직 노동문제(1.3%), 노조 일상활동(0.9%), 노동시장론(0.8%), 여성문제(0.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특히 경영분석이나 통일문제 등은 각기 0.2%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파견교육을 실시한 노동조합과 단체를 분류해 보면 사업장 단위 조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전국 중앙조직인 양대노총과 산별연맹 및 산별노조, 양대노총 및 산별조직의 지역조직, 업종별 조직, 대기업연대조직, 업종별·지역별 연대조직 등 노동조합의 각급 조직단위에 광범하게 걸쳐 있다. 산업별·업종별로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운수, 통신, 사무전문, 공공 및 사회서비스 등에서부터 최근 새로 부상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지역에 산재한 노동사회단체,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대학동아리, 현장노조조직, 대학원, 청년회, 상담소, 실업복지센터, 사회복지사협회, 노무사단체, 종교단체 등과 중·고등학교, 진보정당,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3-6]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파견교육 연도별 추이

연도별	횟수	월평균 횟수	연도별	횟수	월평균 횟수	연도별	횟수	월평균 횟수
1995	214	17.8	2003	121	10.1	2011	134	11.2
1996	193	16.1	2004	120	10.0	2012	196	16.3
1997	255	21.2	2005	139	11.6	2013	198	16.5
1998	254	21.1	2006	170	14.2	2014	221	18.4
1999	265	22.0	2007	139	11.6	2015	212	17.7
2000	237	19.7	2008	82	6.8	2016	211	17.6
2001	193	16.0	2009	121	10.8	2017	218	18.2
2002	160	13.3	2010	137	11.4	합계	3,972	15.1

4) 교육방법론 개발 연구

교육방법론 개발 연구는 연구소로 전환되기 직전인 1995년 3월부터 교육연구팀이 구성되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연구팀은 교육실 3인과 비상근 교육위원 1인이 결합하여 격주로 회합을 갖고 노동교육이론에 대한 문헌연구와 국내외 교육실태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방법 개발 및 적용을 시도했다. 이들 연구와 논의를 기초로 1997년부터 노동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과제들을 수행했다. 그 출발점은 1997년에 진행된 ‘화학산업 현장활동가 양성 훈련과정’이었으며 연구과제는 노동교육방법론이었다. 이후 2008년까지 연구과제는 20개를 수행했으며 내용별로는 현장활동가 훈련 양성, 노동교육 방법론, 간부역량 향상, 조직개발론,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매뉴얼 등 노동교육과 관련한 전면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후원 또는 발주처 별로는 해외 노동단체 6곳이 3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5건, 한국노동교육원이 7건, 노동조합 4곳이 3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노동부가 각 1건씩이었다.

5) 토론회 및 노동강좌

① 월례토론회

연구소는 출범 후 협회 시기의 월례토론회를 부활하여 1997년 2월 2일~1998년 12월 말까지 10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토론회는 시기별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이는 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슈 중심의 월례토론회는 준비와 실행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데 교육실의 불안정한 인적 요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999년 4월부터는 연구실이 주관하여

‘노동(정책)포럼’으로 진행되었다.([표 3-7] 참조)

[표 3-7] 연구소 교육실 주관 ‘월례토론회’ 개최상황

구분	주제	일시	발제 및 토론자
제1차	총파업투쟁과 향후 과제	1997.2.4	김금수
제2차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현황	1997.4.9	김수행
제3차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97년 대선	1997.6.18	김수진, 양경규
제4차	한반도정세와 97년 통일운동의 방향	1997.7.22	강정구, 노중선
제5차	전환기 남아공의 노동운동	1997.8.23	글렌 아들러*
제6차	12월 대선과 진보정당 건설의 경로와 과제	1997.11.27	김동춘
제7차	한국의 임금체계 :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8.3	-
제8차	산별노조의 현장활동-독일건설노조	1998.4.14	미하엘 괴터**
제9차	노사정3자협의회의 성격과 전망(외국사례 중심)	1998.7.8	김수진
제10차	독일노동조합과 정당	1998.12.10	이원보, 천영세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Witwatersrand University 사회 학 교수

**독일 건설노조 코브렌츠 지부 사무장

② 노동강좌

각급 노동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다양한 욕구변화에 일일이 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연구소에서는 기획강좌의 일환으로 한겨레문화센터가 창립기념으로 개설한 ‘화요노동강좌’를 맡아 진행하였다. ‘21세기 노동운동을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시작된 강좌는 1998년 5월 1기, 1999년 11월 2기, 1999년 1월 (1.19~3.30) 3기, 1999년 5월(5.11~7.20) 4기, 2000년 1월(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1.18~2.29) 5기 등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강좌에는 수도권지역 노조간부 및 일반시민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연구소 사람들이 정세분석, 노동운동사,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 노조의 기본활동 등에 관한 강의를 맡아주었다.

6) 교재 발간

교육실에서는 노동자와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한 일반도서와 기획교육용 교재 및 연구과제 성과물을 발간하였다.

① 일반 도서

한국노동교육협회 당시 출판물로는 『노동운동론』, 『간부활동론』과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가 있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내용으로 한 책자들이었다. 이 밖에 9권의 책들은 대부분 노동교육체계와 조직개발 등을 주제로 한 것이었고, 2004년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관계법』(2004) 등을 발간했다.

[표 3-8]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교육 관련 도서발간 내역

번호	도서 이름	발행연도	저자
1	노동운동론	1993	김금수
2	간부활동론	1994	김금수
3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1995	김금수
4	희망찬 21세기를 열기위한 노동조합활동	1997	이원보 외
5	21세기 노동교육	199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6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현장활동과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	2000	김유선 외
7	노동조합의 조직개발	2001	박혜경 · 이광석
8	평생교육제도와 노동교육	2002	김민호 외
9	정보화시대의 노동교육	2003	이광석 외
10	2004 노동관계법	20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1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2005	박혜경 · 이광석 · 노광표
12	노동조합 조직가 교육훈련	2005	강연배 외

② 기획교육 교재

기획교육 교재는 총 202회(1995~2009) 교육 중에서 66회(1995~1998)에 해당하는 18종의 교재만 발간되었는데 교육 내용이나 주최한 조직의 필요에 따라 준비되었다. 예컨대 1996~1998년까지 수행한 6차례의 중앙강사훈련과정(제13기~제18기)에는 각 회마다 교재를 발간하여 활용하였다. 이밖에 노조강사훈련과정도 1995년에 만도기계노조, 노동과건강연구회, 금융노련이 각 1회씩 총 3회, 1996년에 대구노동정책연구소, 금융노련(여성), 한국통신(2회)이 총 4회, 1999년에 한국통신노조가 1회가 실시되었고, 교재도 발간되었다.

또한 역량향상훈련 곧 노동조합 간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과정별 학습의 경우에도 교재가 발간되었다. 화학산업 교육활동가 양성 훈련과정(1997~1999),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대학원(2000),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간부교육 1기~4기(2007.9.17~11.7),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교육(2009),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전문가과정(2009) 등이 그 대표적이다. 또한 2002~2007년에 34회 실시한 노조간부 기본교육이나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노조간부기본과정도 노조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훈련 과정으로서 교재 발간이 이루어졌다.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1999년 이후 136회에 이르는 기획교육도 내용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상당수가 교재를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표 3-9] 기획교육 교재 발간

연도	교육횟수	발간교재	발간 기간	비고
1995	19	3	1995.1.21~11.25	제13기 강사훈련 자료집 : 95년 임투와 현장조직 강화 외 2건
1996	14	2	1996.2.8~9.12	제15기 강사훈련 자료집 : 96년 임투 승리를 위한 중앙강사훈련, 제16기 노사관계 개혁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중앙강사훈련과정
1997	17	6	1997.3.6~12.3	제17기 강사훈련 자료집 : 총파업 투쟁과 노동운동의 전진 외 5건
1998	16	7	1998.2.12~8.26	제18기 강사훈련 자료집 : IMF체제와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외 6건

7) 기타 활동

① 학습모임

교육실에서는 1999년 하반기에 노동교육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교육의 현실 진단 및 발전방향에 대한 1차년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해 학습모임을 하였다.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모임은 노조의 상급단체 교육담당자 8명이 참가하여 노동교육실태, 노동교육 사례발굴, 기업교육 방법론, 교육방법 개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 하나의 학습모임은 김금수 명예이사장이 집필한 '세계노동운동사' 자료를 읽고 참가자들이 발제 토론하고 정리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2007년 6월 시작되었다. 2017년 현재까지 세미나는 8회가 진행되었고 2017년 말까지 세계노동운동사에서 특기할 만한 중요한 장면을 선정하여 30회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학습에서 논의된 내용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발간한 『세계노동운동사 1~3권』(2013)에 반영되었다. 이 모임은 2013년 6월 13일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표 3-10] 학습모임 : 세계노동운동사 세미나 현황

구분	인원	기간	진행	기타
1반	5	2007.7.13	월1~2회	-
보건반	12	2008.3.25~ 2009.11.9	-	보건의료노조 자체과정
2반	13	2008.11.6	월12회	-
3반	19	2010.1.11	월2회	-
4반	14	2010.10.12	월2회	민주노총 협력과정
5반	-	2011.9.7	-	-
인천반	-	2013.3.5	-	-
6반	-	2013.4.3	-	-

2009년에는 '김금수 선생과 함께 하는 노조간부 학습모임'을 개설하여 『노동운동론』, 『간부활동론』을 교재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1기에 10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 학습모임에는 상반기(4.7~6.16)에 노조간부 21명, 하반기(9.15~11.26)에 13명이 참가하였다.

② 노동교육 연대사업

연구소는 고유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상담을 전개하고 각급조직 또는 단체와 연대사업을 펼쳤다. 대체로 교육위원을 파견하여 교육이나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방식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민주노총 교육프로그램 개발(1999.3~9)
- ②민주노총 교육체계확립 프로젝트(2000.3~12)
- ③민주노총 노동대학 프로그램 개발팀(2006)
- ④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 실태조사 프로그램(2006)
- ⑤보건의료노조 교육 프로그램 개발(1999.3~12)
- ⑥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 노동대학원 후속과정(2000, 2002, 2003)
- ⑦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시민교육 기초조사 분석 연구사업(2002)
- ⑧한국노동교육원 중장기 발전방안 프로젝트(2002)
- ⑨한국노총 제조연대 해외 노조통합사례 조사 프로젝트(2003)
- ⑩조흥은행노조 파업평가 프로젝트(2003)
- ⑪근로복지공단노조 총파업투쟁 백서 발간(2002~2003)

이밖에 국제연대사업도 가졌는데 1999.2.8.~2.29에 국제 화학·에너지·광산 노련(ICEM)이 실시한 인도네시아노조 현장활동가 100여 명의 교육에 강사를 파견하였고, 1999년 3월에는 스웨덴 노동교육실태를 파악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

해 2명의 교육위원을 파견하였다. 또 2001년 상반기부터는 내용별 주제별로 교육 내용을 분류하여 개설한 홈페이지에 연구활동을 알렸다.

2008년 들어 연구소는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조합에 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투쟁을 격려했다. 당시 연구소가 지원한 조직은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노조, 이랜드 일반노조, 르네상스호텔노조, 학습지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코스콤, 이주노조, GM대우 비정규직, KTX, 강남성모병원, 콜트콜텍 등 어려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직들이었다. 2008년 2월 15일 한솔교육노조를 시발점으로 한 지원활동은 12월 27일까지 91회에 이르렀다.

3. 출판

1) 개요

출판사업은 자료 수집과 함께 정관에 연구소 목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본래 목적은 연구성과를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에 널리 알림으로써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었다. 연구소 출판사업은 정기간행물과 연구성과물 발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연구소는 연구 활동의 확대에 따라 출판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도서출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설립하고 서울 중구청에 1996년 7월 3일에 출판등록을 하였다. 1995년 4월~2017년 12월 말까지 정기간행물인 회보 『노동사회연구』(이후 『노동사회』로 제호 변경) 통권 197호를 기획·발간하였으며 연구성과물은 총 51건을 발간했다. 또 교육실에서는 교육교재 18건과 교육방법론 연구성과물 12건 등 모두 30건을 발간하였다.

한편 자료수집은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연구과정에서 요구되는 참고자료들이나 자료교환용 또는 토론회,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수집하는데 집중되었고 일부 필요한 자료들을 구입하는 데 그쳤다. 자료는 한국노동교육협회에서 넘어온 11,500점을 기초로 연구소 출범 후 1,500여 점이 추가되었고 2001년에는 연구소 소장 도서 및 자료 목록들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 자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200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자료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성공회대와 도서자료교환

MOU를 맺어 상당수의 자료를 인도하였다. 2017년 말 현재 연구소에는 도서 및 자료는 2,008점이 소장되어 있다.

2) 회보 : 『노동사회연구』와 『노동사회』

회보 발행은 1995년 4월 28일 연구소 창립총회 때 배포된 『노동사회연구』 창간호에서 시작되었다. 창간호는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노동사회연구”라는 제호로 “깨치는 노동자, 전진하는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영문으로는 “Labour Society Bulletin”이었다. 창간호에는 연구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을 한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사례로 나뉜 ‘특집’이 실렸다. ‘95년 임금교섭 진행 현황과 한국통신, 남해화학의 민영화’가 ‘노동동향’과 ‘현장통신’으로 실렸고 ‘연구논문’, ‘기획번역’도 함께 실렸다. [표 3-11] 참조

이후 회보는 격월간 형식으로 통권 제11호(1997년 3월호)까지 발간하다가 연구소 출범 2주년을 맞아 통권 제12호부터는 『노동사회』로 제호를 바꾸고 월간으로 발행하였다. 『노동사회』의 월간 발행은 박중기 이사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무배 이사가 운영하는 인쇄소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노동사회』는 제12호~제149호(2009년 12월호)까지는 월간으로 발행되었고, 그중 제18호~제149호까지는 7.8월을 합병호로 내었다. 단 2004년에만 예외였다. 그러나 연구소 재정상태로 제150호(2010년 1.2월호)부터 격월간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발간형태를 보면 격월간으로 60회, 월간으로 137회이다.

초기 『노동사회연구』는 권두언, 특집, 노동동향, 현장통신, 노동교육 연구, 연구논문, 기획번역 등으로 대부분 정형화되었다. 특집은 노동조합에 제기되는 정

[표 3-11] 회보 『노동사회연구』 창간호(1995.5.8) 차례

섹션	제목	글쓴이
창간사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융합해야	김진균
권두언	노동운동의 정책과제 해결을 위하여	김금수
특집 : 각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	전환기에 선 한국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황덕순
	독일노동조합의 임금정책	인수범
	일본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이민영
	'스웨덴 모델'에서의 자본과 노동	구용희
노동동향	95년 임금교섭 진행현황	인수범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김영두
	독일 금속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	송태수
현장통신	남해화학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	최병근
연구논문	스웨덴 노동조합의 조직개편과정	김수진
기획번역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조합의 전략	폴 보레헴
	실업 :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구용희
연구소 동정	노동운동 이론과 정책의 산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책적 문제들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노동동향은 노동운동, 노동경제, 노사관계, 국제노동 등 현안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현장통신은 단위노조나 연맹의 투쟁과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노조활동을 개선시키는 간접경험을 제공하고 노동교육 연구는 교육실의 노동교육 연구성과 및 노동조합들의 모범적 교육활동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노동조합 교육활동의 체계화와 교육방식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월간으로 바뀐 후에는 회보 형식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충실하게 담은 노동관계 잡지를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는 기존의 『노동사회연구』의 구조를 이어나가며 새로운 분야를 계속 추가했다. 그 내용은 권두언, 특집, 기획, 노사관계, 노동동향, 현장통신, 노동교육, 국제노동, 연구노트, 기획번역, 월례토론회 중계, 교양, 노동정보 활용, 시평, 기획연재 등으로 점차 내용을 다양화하였다. 그러나 2010년 격월간으로 다시 바뀐 이후

에는 특집, 길찾기, 쟁점과 대안, 이슈와 현장, 배움터, 연구소 소식 등으로 정형화하였다.

노동사회의 제호는 인쇄체를 써오다가 1999년 7.8월호(통권 35호)부터 오병철 선생이 써주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글씨 중에서 ‘노동사회’ 부분을 사용하였다. 『노동사회연구』는 제7호(1996년 5월호)부터 판형이 4.6배판에서 국판으로 바뀌었다. 제작은 창간호부터 1997년 6월호까지는 전무배 이사가 운영하는 동방인쇄소가 맡았고, 1997년 7월호~2009년 5월호까지는 형제인쇄소, 그 이후는 동광인쇄소에서 출간하였다.

회보의 양은 『노동사회연구』 제1호 146쪽에서 출발하여 제197호가 111쪽으로 총 2만 7,862쪽이었으며 1호당 평균 142쪽을 기록했다. 이를 세분해 보면 최저는 84쪽(제48호, 2000년 11월호)이었고 최고는 220쪽(제15호, 1997년 9·10월)이었으며 100쪽 미만은 7권(3.6%), 100~150쪽 129호(65.5%), 151쪽 이상 61권(31.0%)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200쪽을 넘는 것은 8권이었다. 여기에 실린 총 기사건수는 2,895건(월평균 15건)이었으며 필자는 모두 751명이었다. 연인원으로 집계한 필자는 2,895명 중 내부 연구원 1,228명(42.4%), 외부 필자 1,667명(57.6%)이 참여하였다.([표 3-12] 참조)

필자별 투고 횟수를 보면 총 751명의 필자 중 1회가 510명으로 67.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2회 116명(15.4%), 3회 46명(6.1%), 4회 23명(3.1%), 5회와 7회 각 11명(1.5%), 6회 9명, 7회 4명, 9회, 11회, 14회가 각 2명, 10회 5명, 15회 3명의 순이었다. 특히 17회, 19회, 20회, 21회, 25회 등 장기간 투고한 필자는 각 1명으로 주로 연재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슈에 따라 기고한 경우도 많았다.

회보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의 내용구성과 편집은 대부분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편집위원회는 초기에는 연구실 연구위원들이 논의하여 내용을 결정하다가 1998년부터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또는 격월간 1회 회의를 열어 전호를 평가하고, 회보의 방향과 내용, 필자 등을 논의하였다. 편집

[표 3-12]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 발간 추이

연도별 월호	통권(권수)	기사총수(월평균)	외부필자	쪽수(월평균)
1995.5~11	1~4(4)	44(11)	19	559(140)
1996.1~10	5~9(5)	48(10)	22	690(138)
1997.1~12	10~17(8)	136(17)	86	1,103(138)
1998.1~12	18~28(11)	185(17)	138	1,654(151)
1999.1~12	29~39(11)	150(14)	78	1,433(130)
2000.1~12	40~49(10)	137(14)	66	1,159(116)
2001.1~12	50~60(11)	158(15)	85	1,388(127)
2002.1~12	61~71(11)	186(17)	103	1,487(136)
2003.1~12	72~82(11)	229(21)	128	1,663(152)
2004.1~12	83~94(12)	260(22)	169	1,755(147)
2005.1~12	95~105(11)	239(22)	154	1,847(168)
2006.1~12	106~116(11)	189(18)	120	1,796(164)
2007.1~12	117~127(11)	173(16)	114	1,887(172)
2008.1~12	128~138(11)	162(15)	117	1,710(156)
2009.1~12	139~149(11)	114(11)	54	1,374(125)
2010.1·2~11·12	150~155(6)	55(10)	19	725(121)
2011.1·2~11·12	156~161(6)	46(8)	16	751(126)
2012.1·2~11·12	162~167(6)	58(10)	23	898(150)
2013.1·2~11·12	168~173(6)	68(12)	31	837(140)
2014.1·2~11·12	174~179(6)	71(12)	36	859(144)
2015.1·2~11·12	180~185(6)	62(11)	24	781(131)
2016.1·2~11·12	186~91(6)	61(11)	27	773(129)
2017.1·2~11·12	192~197(6)	64(12)	38	733(123)
합계	197	2,895(15)	1,667	27,862(142)

위원회는 연구소 내부 연구위원,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해오다가 노동조합 또는 사회·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외부 위원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혼용되었다. 외부위원의 구성은 매년 일정하지 않았는데 적합한 위원의 영입이 매우 어

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2006년 3월~2007년 3월에는 15명의 외부위원을 구성하고 2012년과 2013년에도 6명의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의욕을 보였다. 외부위원들은 미비한 조건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으나, 회보 또는 연구소에 대한 평가와 현장의 요구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6년부터는 연구소 내부 논의를 중심으로 회보 편집이 이루어졌다.

한편 회보 담당자는 초기에는 연구실 연구위원들이 맡았으나 1998년부터는 편집실이 별도로 설치되었고, 상근 또는 반상근 형태로 근무하였다. 편집실 담당자는 2008년 12월까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재정사정으로 1명으로 줄었다.([표 3-13] 참조)

[표 3-13] 『노동사회』의 편집 체계

기간	편집회의	편집위원(명)			편집자(명)
		총수	내부	외부	
1998.1~1998.8	월1회	4	4	-	1
1998.9~1999.12	월1회	6	2	4	1
2000.1~2000.12	월1회	3	3	-	2
2001.1~2001.12	월1회	4	4	-	2
2002.1~2002.12	월1회	6	6	-	2
2003.1~2004.12	월1회	5	3	2	3
2005.1~2006.2	-	-	-	-	2
2006.3~2007.6	격월 1회	17	2	15*	2
2007.7~2007.12	격월 1회	9	6	3	2
2008.1~2008.12	격월 1회	8	6	2	2
2009.1~2009.12	격월 1회	6	6	-	1
2010.1~2011.12	격월 1회	-	-	-	1
2012.1~2013.12	격월 1회	9	3	6**	1
2014.1~2015.12	격월 1회	4	2	2	1

주 * 민주노총 3, 한국노총 3, 정당 2, 시민 사회단체 3, 언론 4

** 민주노총 1, 한국노총 1, 사회 시민단체 3, 언론 1

연구소 출범 후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 발간 부수는 2017년 말까지 모두 16만 710권이였다.([표 3-14] 참조) 대체로 월간이 격월간보다는 많이 출간되었으며 쪽수나 기사 건수도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발간된 회보는 대부분 회원에게 배포되었고, 자료 교환처와 주요 도서관에도 매월 보내졌다. 그리고 일부가 2001년부터 ‘그날이오면’ 등 사회과학 서점 2곳과 인터넷 알라딘을 통해 판매되었고 2002년부터는 영풍문고, 교보문고 종로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교보문고, 영풍문고(광화문, 강남), 알라딘, ‘그날이오면’에서 판매하였다.

[표 3-14]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 발간부수 추이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발간부수	3,200	4,000	4,000	5,800	8100	8,800	7,700	7,80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발간부수	8,900	11,000	11,000	12,000	11,000	11,000	11,000	6,000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발간부수	5,400	5,400	4,600	3,920	3,620	3,410	3,060	160,710

한편 연구소 출범을 전후하여 생겨난 다른 연구소에서도 정기 간행물들이 출간되었다. 그 가운데 1987년 이후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1992년 한겨레연구소와 한국사회연구소가 통합한 단체로 이미 『동향과 전망』(1988), 『월간동향』(1989)을 정기적으로 출간한 데 이어 1994년에는 월간 『흐름』을 내놓고 있었다. 1991년 설립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월간 『민주노동과 대안』을 내놓았고 1994년 출범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연대와 실천』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현장에서 미래』를 1995년 7월부터 격월간으로 출간하고 있었다. 또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에서는 『함께 가는 길』(1995.8), 우리일터기획에서는 노동잡지인 『사람과 일터』(1995.9) 등이 있었다.

3) 일반도서

연구소가 출범한 후 30년 동안 연구소가 펴낸 도서는 1993년 『노동운동론』을 시작으로 2017년 말 『한국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독일공동결정제도의 발전이 주는 시사점』까지 모두 51권으로 연평균 2.2권이었다. 23년 사이 가장 많이 출간된 해는 1999년과 2005년으로 각 6권이었으며 다음으로는 1995, 1996, 2001, 2004, 2007, 2008년이 각 3권, 1997, 1998, 2000, 2002, 2003, 2006, 2015년이 각 2권, 나머지는 각 1권씩이었으며 한권도 출판하지 않은 해는 2004년뿐이었다. 분야별로는 노동운동이 24권, 노사관계가 10권, 노동교육과 노동시장이 각 8권이었고 노동법 1권이었다. 연구과제가 모두 360개가 진행된 것에 비해 출간되어 일반에 공개된 양은 매우 적은데, 이는 연구성과 출판을 발주처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연구성과 중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한 연구결과물은 출판이 허락되어 회원과 일반에 배포되었다.

[표 3-15] 주제별 도서 출판 추이

연도별	노동운동	노동교육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	합계
1995	3					3
1996	1		2			3
1997			2			2
1998		2				2
1999	3		1	2		6
2000	1	1				2
2001	1	1	1			3
2002	1	1				2
2003	1	1				2
2004	2				1	3
2005	1	2	1	2		6
2006	2					2
2007	1		1	1		3
2008	2			1		3
2009	1					1
2010				1		1
2011			1			1
2012	1					1
2013	1					1
2014						
2015	1			1		2
2016	1					1
2017			1			1
계	24	8	10	8	1	51

4. 연대

1) 국제연대 및 교류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는 노동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본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소는 출범을 전후하여 국제연대 활동을 중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민주노조 진영의 경험이 짧아 국제연대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연구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결정하면서 국제연대 활동은 동력을 얻게 되었다.

연구소의 국제연대 사업은 1995년 '3국연대' 활동으로 그 막을 열었다. 이후 국제연대 활동은 매년 그 범위가 늘어나 각국 차원을 넘어 국제노동단체, 연구단체 및 국제노동기구(ILO)와도 교류를 갖게 되었다. 3국연대 프로그램은 2001년 이후에는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에 참가하면서 종료되었다. 국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 1일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5년 1월 18일 열린 제10차 총회에서는 연구소 부설기관으로 국제정보센터를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센터는 국내 노동운동을 해외에 소개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국제교류 지원, 번역 및 통역, 컨설팅, 국제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중심사업인 국내 노동운동의 해외 소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차적인 사업으로 흘러 본래의 기조가 살아나지 못했다.

결국 센터는 2006년 이후 ILO의 노사관계 연구사업에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하여 2009년 국제센터 담당자가 연구소를 떠나면서 국제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2011년 5월부터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 등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등 국제활동 재개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최근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제인사 교류는 2010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그 이후는 특히 해외 파견은 크게 침체되었다. 다만 해외 인사의 내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내방이 많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을 통해 독일 등의 연구자의 내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 3국연대 :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연구/정보교류 프로그램

연구소는 발족 직전인 1995년 3월부터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조합 중앙조직 및 노동연구소 간의 교류/연대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것이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연구/정보교류 프로그램(3국연대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제3세계 국가 중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연대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3국의 노동운동이란 한국의 민주노총, 브라질의 브라질노총(CUT),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가 주도하는 노동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며, 연구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브라질 DESEP,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NALEDY)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소와 민주노총이 공동 사업으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이 후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1차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표 3-16] 참조)

[표 3-16] 3국연대 프로그램 제1차 대표단 명단

국가별	성명	소속 및 직책
브라질	켈트 아롭슨	CUT 국제국장
	버지니아 마리아 살레스	브라질 화학노조
	마르코 아우렐리오 마이아	금속노조
남아프리카공화국	제레미 바스킨	NALEDY소장
	피터 단찌에	NUMSA(금속노조) 사무차장
	무지 부텔리지	CWUI(화학노조) 사무총장
한국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영대	민주노총(준) 부위원장
	양경규	전국 전문기술노련위원장

제1차 프로그램은 1995년 11월 5일~14일에 민주노총 창립대회 참가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①외국 대표단 입국과 프로그램 소개 ②에버트 재단, 연구소, 민주노총 방문 ③대공장 및 노조 방문(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충련) ④ 3국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세미나 ⑤구로공단 중소기업장 및 노조 방문 ⑥민주노총 출범식 및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참관 ⑦영화 <청년 전태일> 관람과 전국노동자대회 참관 ⑧'여성과 노동조합' 토론회 참석과 평가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틀간 열린 '3국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3국의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운동의 이념과 기초, 노동운동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각국 대표들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및 노동자 상태, 노동의 역사, 조직현황 및 구조, 노동운동의 이념과 기초, 정부 및 사용자 의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현황, 노동조합의 주요 정책과제와 정치활동 등 노동운동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상호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국 대표들은 민주노총 출범 전야제와 민주노총 결성식에서 나타난 한국의 노동문화와 노동운동의 건강성 및 투쟁성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후에도 대표단들은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1996년 10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7년에는 브라질에서 만나 3국 노동운동의 연대를 넓혀가기로 결의하였다.

제2차 프로그램은 1996년 11월 16일~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연구소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단 3명이 함께 참가하였다. 한국과 브라질 대표단은 현장시찰(농촌 및 흑인 집단거주 지역, 소웨토)과 공장견학(광산, 자동차, 제약, 유리), 직장위원과 남아프리카 노동운동 상황과 3국의 경제 비교분석에 관한 토론, COSATU 대표와 중앙교섭의 역할과 기능(ESCOM),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NEDLAC) 및 정책 토론, COSATU-NALEDY 방문, 셉텨버위원회와 COSATU의 미래전략 및 3국 노동운동의 전망에 관한 토의, 에너지·광산 관련 산업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 보고 청취, 광산노조와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방문 등의 일정을 보냈다. 제3차 프로그램은 1997년 11월 16일~2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도 연구소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 3명이 참가하였다.

이후 3국연대 프로그램은 2000년에 개최되었다. 8월 23일~25일까지 독일 본 구스타프 스트레스만 연수원에서 열린 회의는 3차례 프로그램을 종합 정리 평가하고 공동계획, 공동행동 및 지도부 교류 등 후속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는 한국-브라질-남아공 대표단이 참가했고 독일노총, 네덜란드노총 및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측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에서는 연구소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 2명이 참가했다.

제4차 프로그램은 2000년 11월 13일~14일에 서울 그린호텔에서 3국 대표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는 연구소 대표 3명, 민주노총 대표 5명, 남아공 COSATU 1명, NALEDY 3명, 브라질 CUT 1명, DESEP 4명이었다. 참가자들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시행할 3년차 공동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공동연구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브라질), WTO 및 국제기구(남아공), 다국

적기업(한국)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을 진행한다.

- 노동조합 교류사업은 브라질 CUT, 남아공 COSATU, 한국 민주노총이, 연구사업은 브라질 DESEP, 남아공 NALEDY, 한국 KLSI(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담당한다.
- 3국 노동운동 지도부 간의 연대모임은 3년 동안 2회,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은 3년 동안 4회를 개최한다.
-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연구내용을 요약한 교육 자료를 만들기로 한다.

이어 3국연대 프로그램은 2001년 네덜란드와 서울에서 연이어 열렸다. 2001년 6월 12일~13일 동안 열린 네덜란드 회의에는 한국에서 민주노총 대표 3명, 연구소 대표 1명이 참가했고 남아공의 NALEDY, 브라질 CUT, 그리고 네덜란드 노총(FNV) 대표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3국 간의 교류를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4국 교류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다국적 기업 감시, 다자간 무역체제 문제 등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200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3국연대 프로그램 연구 분야에는 연구소 대표 3명과 브라질 CUT 국제국장(Kjelt Jakobsen), 남아공 NALEDY 국제담당(Alistar Smith)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네덜란드 회의 논의내용 확인과 함께 3국 교류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 다국적기업 감시, 다자간 무역체제 대응 등 지난 회의에서 결정했던 연구주제와 더불어 '남반구 노동운동 네트워크'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조직 분야의 3국연대 프로그램은 제6차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SIGTUR)¹ 서울대회와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의 주관으로 한국노동교육

1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호주노총 서호주지역본부가 세계화 대응

원에서 열린 연대회의에는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대표 등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호주의 노조 대표단과 유럽경제개발기구 노조회의(OECD-TUAC),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의 대표 225명이 참가하여 세계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국-남아공-브라질의 민주노조 조직과 연구소들을 양측으로 한 3국연대 프로그램은 2001년 이후 3국의 노동조합 조직이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이 약화되었고 연구소 간의 교류는 재정적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2) 국제 네트워크

①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

국제노동자교육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는 1945년 노동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자교육에 관련된 각국 노동조합, 국제산별연맹, 노동자 교육단체, 비정부기구(NGOs)들이 모인 국제조직으로, 1997년 현재 53개국에 100여 개의 회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본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었다. 연구소는 1998년 1월 30일에 '범주4' 회원(최저회비 납부, 연 30만원)으로 가입하였다. 협회는 1996년 총회에서 교육의 주제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질서재편의 시기에 국제노동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추진된 것이 국제스터디서클(International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한 '인도양노동조합대회'가 시발점이었고 1991년 5월 제1차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민주노조들과 독립노조활동가 및 남아공 COSATU에서 참가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연대 국제회의는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조직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가는 가운데, 1999년 10월 남아공 COSATU가 주최한 제5차 대회에서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세계화와 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남반구의 시도 : 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sation and Trade Union Rights, SIGTUR)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국의 민주노총은 남아공대회에 참가한 후 가입했다.

Study Circle; ISC)이었다. 협회는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진 2개의 ISC를 운영한데 이어 아시아에서도 시도하였고 1998년 9월 23일부터 4일 동안 아태지역 스터디서클프로젝트 준비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졌다. 윤효원 당시 편집실장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차원의 국제스터디서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ISC는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세계화와 노동운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협회의 교재를 활용하여 5개국(한국, 필리핀, 호주, 파키스탄, 인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2명의 노동자들이 6회의 학습소모임을 가졌다. 이어 7월 29일~31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태지역 스터디서클 프로젝트 평가회의를 가졌다.

협회는 2000년 8년 23일~27일에는 핀란드 헬싱키 근교 <Workers Academy>에서 59개 조직 7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8차 총회를 가졌고, 2002년 7월 12일~17일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세계화와 노동자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3년 2월 22일~24일에는 IFWEA 아시아지역 총회가 열렸다. 연구소는 이 세 모임에 대표를 파견했다.

협회는 교육활동만이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왔고 그 일환으로 2006년 10월 24일~10월 26일에 IFWEA-GN(Global Network) 아시아지역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열린 이 회의는 연구소가 준비와 조직화를 담당했고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 네트워크 회원단체대표와 협회 사무총장 등 17명이 참가했다. 이 회의는 노동교육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대응활동 등 GN활동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후 협회와의 교류는 협회 활동이 아시아 차원에서는 거의 중단되었고 협회가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GN활동에 중점을 둬으로써 연구소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② 국제정책 네트워크(Global Policy Network ; GPN)

GPN은 세계 각국의 진보적 노동관련 연구단체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25개국에서 참가하고 있고 연구소는 2001년 3월 1일에 가입했다. 연구소는 2002년 9월 1일~5일에 열린 GPN 아태지역회의(태국 방콕)와 2006년 4월 25일~28일에 열린 아시아 워크숍(인도 뉴델리)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나, 이후 수년간 GPN 활동이 부진하였고 연구소 활동도 약화되면서 활동이 중지되었다.

③ 국제 네트워크(Global Network)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노조, 사회운동 단체, NGO 등이 참가하는 국제조직으로, 연구소는 한국 코디네이터 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2월 22일~25일에 국제 네트워크 마닐라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다. 2003년 2월 22일~24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 네트워크 제2차 지역회의 및 아태지역 세미나에도 대표를 참가시켜, 포럼을 활용한 세미나 개최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5월 12일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6월에는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④ 임금지표(Wage Indicator) 연구 프로젝트

2005년 들어 연구소는 부설기관인 국제정보센터를 통해 네덜란드노총(FNV)으로부터 '임금지표' 사업 참가를 요청받았다. 임금지표 사업이란 FNV가 여성 임금 격차해소 방안의 하나로 임금조사 사업에 착수했다가 본격적인 임금 비교를 위해 대상을 노동시장 전체로 넓히면서 남아공, 브라질, 인도 및 한국도 대상이 되었다. 이를 위해 FNV, 암스테르담 대학 등이 참가하여 임금지표재단(Wage Indicator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임금, 연금,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의 각 부문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 임금정책의 자료화, 노조조직화의 수단, 임금의 균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05년 11월 재단의 Paulien Osse 사무국장이 방한하였고, 연구소 담당자와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 프레시안, 매일노동뉴스 관계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설문지, 웹 구축 등에 관한 워크숍을 거쳐 연구소와 11월 8일 계약을 체결했고 김유선 소장을 중심으로 연구진 4명을 편성하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1년여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유럽과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연구방식, 경험 등이 크게 달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6년 11월 20일 임금지표 사업본부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⑤ ILO 아시아노사관계연구

2006년 초 국제노동기구(ILO)는 동아시아지역사무소 차원에서 노사관계 협력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IR-Asia.net 확립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연구소에 초기 작업의 코디네이터를 맡아줄 것으로 요청해왔다. 그 내용은 단체교섭제도와 관행, 분쟁해결제도 절차와 관행, 사회적 대화 제도와 절차 등 3개 주제에 대한 각국보고서 작성, 주제별 지역 비교보고서 작성, 동아시아 노사관계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웹 기반 구축 등이었다. 대상 국가는 한국·일본·중국·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라오스는 전문가 부재로 유보·미얀마·부르나이는 ILO 미가입 및 제재국으로 제외) 등이었다. 연구소는 연구원 5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2006년 7월 10일~15일, 2007년 3월 10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중간 점검회의를 가진 후 2007년 지역조사보고서를 완결하고 동아시아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그리고 2기 사업으로 최저임금제도 조사·연구사업에 착수하였고 2009년 3월 1일자 완료하였다.

⑥ 아시아 2015회의 및 국제노동조합연구네트워크

2006년 연구소는 영국노총 아시아지역 노조운동 관련 단체로부터 영국 외무부 국제개발본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공동주최 ‘아시아 2015 : 성장촉진, 빈곤종식’ 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 연구소는 2006년 3월 6일, 7일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주요 아시아개발도상국의 장관급, 대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였으며, NGO와 협의한다는 명분으로 NGO의 하나로 연구소를 초청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했다. 다만 회의 참석을 기회로 영국노총, 영국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할 수 있었고 영국노총, IFWEA 본부 사무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어 연구소는 2006년 9월 30일~10월 6일에 열린 국제노동조합연구네트워크(Global Union Research Network : GURN) 사회보장 워크숍에 대표를 파견했다. ILO와 EU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사회보호와 사회적 포괄’이라는 주제의 회의를 계기로 GURN이 노동진영의 참가자를 조직하여 별도의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었다.

(3) 국제인사교류

연구소는 1995~2017년 사이 해외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에 65명의 연구원을 파견하였다. 초기에는 3국연대 회의와 관련한 파견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국제노동자교육협회, 국제정책네트워크 등 국제운동단체의 활동에 참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내방자는 209명으로 파견자에 비해 3.2배나 많았다. 내방인은 초기에는 3국연대 회의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노동교육과 관련한 해외노동단체 간부들의 방문이 증가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비정규직 연구자들과 한국 노동정책 연구자들이 대거 연구소를 찾았다. 이 가운데 특이하게도 외국 연구자가 연구소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학습하는 경우가 2회나 있었다. 그 하나는 2001년 9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개월 넘게 Lars Lindstroem 스웨덴 스톡홀름대 정치학과 전임강사가 연

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한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 일본 류코쿠대학 와키다 시게루 교수(비정규직 노동법 전공)가 연구소에 체류한 것이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성장과 노사관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한국 노동조합과 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해 연구원들과 자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4) 기타 국제활동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확대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자료와 정보의 교류이다. 연구소는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성장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연구소 설립 준비기간 중인 1995년 2월 『한국의 노동상황』(The Labour Situation In Korea)을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국내 관련단체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ILO, 주요 국제노동단체에 배포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 노동시장 상황, 노동조합 구조, 한국 노동법의 주요쟁점,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상황, 노동교육 방법론,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 등이었다. 이 소책자는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를 세계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국제노동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후 연구소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구소는 이후 정기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려 했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인력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이어 연구소는 1995년 6월에 『남아공화국의 노동운동-역사와 전망』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제3세계의 민주적 노동운동이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그해 11월 한국-남아공-브라질 3국연대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이들 나라의 민주노조 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책자의 발간은 1999년 초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섹템버 보고서』(The September Report)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는 1985년 출범한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방향과 장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년여

[표 3-18] 국제인사 교류 내역

연도	내방인원	내역	파견인원	내역
1995	30	3국연대 교류, 덴마크 일반노조 연수단 등	-	-
1996	-	-	1	3국연대 교류(남아공)
1997	-	-	3	3국연대 교류(브라질) 국제금속노련 세계총회, 아시아유럽노조대화 등
1998	-	-	4	ITS 교육프로젝트, Ditsela교육활동가대회, IFWEA 교육회의 등
1999	45	NALEDY, FNV, IMF 간부, 일본 오히라 연구원, 독일 브레멘대 교수 등	5	IFWEA 교육회의, 인도네시아노조간부교육, 스웨덴 노동교육 연수 등
2000	16	3국연대회의, 독일사민당, 덴마크 노동교육가, ICEM, EPI, GPN	6	독일 3국연대 회의, IFWEA 세계총회, 유럽 및 북구 노동교육 연수
2001	16	3국연대 회의(연구소), FES, 캄보디아노총,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 ICEM, 스웨덴 대학교수, 남아공대학 교수,	8	3국연대 회의(네덜란드), ICEM, 아시아민중연대, 일본젠센동맹, ICEM, BASF, FNV Company Monitor회의 등
2002	12	스웨덴 금속노조, 일본 오사카 항만노조, 일본 렌고, FNV, 스웨덴노동자교육협회, FES 등	11	GPN, 일본 지치로, ICEM, 일본 비정규노동조직, 영국 TUC, 아시아노사관계대회 등
2003	6	스웨덴 금속노조, CAW 캐나다자동차노조, 일본 전노련 등	8	GPN, ICEM, 네덜란드 Company Monitor, 호주 제조업노조, ICEM세계총회 등
2004	7	스웨덴 금속노조 등	3	WSF, BASF, IMF 자동차총회,
2005	2	미국 코넬대학교수, 네덜란드 임금지표	7	ILO, IMF, Focus on the Global South, 몽골
2006	-	-	5	노조국제회의, ILO연구, 아시아2015회의, GPN, IFWEA, GURN
2007	1	스웨덴의회	3	IFWEA-GN, ILO
2010	30	베트남 노사정, 일본 젠노련	1	아시아유럽 연구기관 연대포럼
2011	1	와키타 시게루 교수	-	-
2012	11	비정규직 중국연구자 등	-	-
2013	5	산별노조토론회 참가 등	-	-
2014	1	일본연구자	-	-
2015	6	일본 비정규직 연구자 등	-	-
2016	13	일본 노동정책 연구자 등	-	-
2017	37	일본 노동정책 연구자 등 독일 연구자 등	-	-
계	209		65	

주) ITS : 국제산별연맹, Ditsela(Development Institute for Training, Support and Education for Labour; 남아공노동교육원), IFWEA(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 국제노동교육협회), NALEDY(남아공노총연구소), FNV(네덜란드 노총), IMF(국제금속노련), ICEM(국제화학일본노련), EPI(Economic Policy Institute), GPN(Global Policy Network; 국제정책연구소), CAW(캐나다자동차노조), WSF(세계사회포럼), GURN(Global Union Research Network; 국제노조연구네트워크)

에 걸쳐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변화한 안팎상황을 전제로 COSATU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적 조합주의'를 권고하였다.

이후 국제교류를 위한 출판활동은 국제활동의 침체와 함께 중단되었다가 2007년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한국의 노동』이 나왔고 2008년에는 영문판으로 『Working Korea 2008』이 발간되었다.

2) 노동사회 연대

(1) 노동연대

연구소는 사회변혁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중요성과 민중운동과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출범 이후 민중운동과의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연대활동은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 시민운동 단체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연대활동은 초기에는 민주노총의 출범과 산업별·지역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합운동의 기조와 운영,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다. 예컨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민주노총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프로젝트사업이나 민주노총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단위노조 대표자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집행), 보건의료노조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1999.3~2000.12, 외국 산별노조의 교육사례, 노조설문, 면접조사, 교육프로그램 설계 등)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 이후에는 양대 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 등 산별노조 출범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연구소는 일상적으로 각급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교류와 상담을 통해 연대를 확대 강화해 왔으며, 주요한 노동자투쟁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또한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단체의 구성에도 일정한 역할을 맡아 운동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2) 사회연대

연구소는 출범 후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민족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민중 운동의 주요한 투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개혁사회단체 연대회의(민주연대)’ 참여(1997.5.8)와 8.15 평화통일 민족대회(1997.8.8) 참여이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전국규모 사회 시민 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1996/97년 노동법 개악반대 총파업 투쟁에 이어 1997년 말 밀어닥친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폭발과 그에 따른 민중진영의 저항투쟁 및 노동현장 투쟁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회연대를 수행했다. 연구소는 각종 쟁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단체 구성, 기자회견, 성명 발표에 참여하거나 집회 시위, 시국농성, 캠페인 등 집단행동에 가담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9년〉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상설공동투쟁체) 건설 논의 참가(3.22)
- 〈2000년〉 ○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참가(3.27, 민주노총 등 30여 개 민중 사회단체)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 민중대회 참가(4.1, 민주노총 등 32개 민중시민단체 참가)
 - 철도비리 척결 및 철도노조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5.8, 철도노조 직선제 관련 탄압진장 조사 결정)
 -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6.22,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15개 노동·사회·시민단체 참가)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참가(6.26, 양대노총 26개, 노동·사회·시민단체)
 - 삼성 등 재벌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대위 구성 참가(6.29, 민주노총, 민교협, 민변 등)

- 매향리 미국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참가(6.30)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발족 참가(7.21,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2개 단체)
-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국민연대 결성 참여(9.28)
- 전국실업극복단체 연대회의 전국 실업자대회 참가(12.16)
- 〈2001년〉 ○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공동투쟁체로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 결성 참가(3.14)
- 쌀 수입 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미국반대를 위한 전국 민중대회 참가(12.2)
- 반민주악법 저지! 파병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 참여(12.4~12.7)
- 〈2002년〉 ○ 2002 3.30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참가
- 2002. 6.13 의정부 신효순·심미선 살인 미군공동대책위원회 참가
- 2002. 6.30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참가
- 2002.9.13.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결성 참여
- 2002. 11.30 민중연대·살인미군 철수·소파개정·비정규직 철폐·쌀개방 반대 등 전국 민중대회 참가
- 2003.12.6. 민중연대 서울 등 70여 개 시군에서 전국민중대회 참가(노무현정권의 반민중적 정책 심판 및 이라크파병 반대 등 8대 요구)

한편 2002년 이후 연구소가 참가한 사회 민중운동은 다음과 같다.

- 〈2002~2003년〉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 비정규 노동자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 노동네트워크
-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국민연대

-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 최저임금연대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 〈2004년〉
 - 2003년과 동일
 - 언론개혁시민연배
- 〈2005년〉
 - 2004년과 동일
 - 표현과 창작의 자유지키기 대책위원회
 - (가)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 〈2006년〉
 - 2005년과 동일
 - 한국진보연대(준)

연구소의 사회연대 활동은 2007년을 고비로 크게 달라졌다. 곧 연구소 차원의 연대는 형식적인 운동 참여를 벗어나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연대와 지원이라고 판단하여 노동운동 중심으로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 활동 참가는 개인자격으로 변경하고 연구소 차원의 참가는 대폭 축소되었다. 그 결과로 2007년, 2008년은 사회운동과의 결합은 한국민중연대에서 탈바꿈한 한국진보연대로 통합하고, 나머지 3개 활동(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노동네트워크, 최저임금 연대)으로 집중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임원 또는 연구위원들의 개인적인 외부활동(토론, 세미나, 강연, 자문, 기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대의 성과를 시도하였고, 공식적인 연대기구로 최저임금연대와 전국감정노동네트워크(2016년 2월 출범)에 2017년까지 참여하였다. 한편 연구소 연구원들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의 하나로 설정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진보정당 결성과 활동에 참여하였다.

3) 대외활동

연구원들은 연구소 본연의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대외적인 연계를 갖고 활동하였다. 연계 대상은 노동조합, 공공기관, 지자체, 연구단체, 언론기관, 학회, 대학 등이었으며 정부기관도 포함되었다. 연계방식은 대체로 자문, 고문, 이사, 공익위원 운영위원, 평가위원, 편집위원 등 다양했으며 정부기관의 대표로 활동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연구원들은 토론회 및 세미나에 참가하고 기고 및 인터뷰도 적극 수행하였다. 토론회 및 세미나의 경우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내부 토론회와 포럼에 참여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외부 토론회에 적극 진출하였다.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 형태로 토론회에 참가한 횟수는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3년부터는 연간 100회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183건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05~2017년 사이 참가횟수는 모두 916회를 기록하였다.

기고 및 인터뷰도 2000년대 들어 활성화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 급증하였다. 2010년 27회이었던 연구원들의 기고 및 인터뷰는 매년 늘어나 2017년에는 135회에 이르렀고 2004~2017년에는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모두 687회나 되었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은 노동문제의 실상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킬 뿐 아니라 연구소 역할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그 결과로 연구소의 사회적 인지도는 해마다 높아졌고 연구단체로서의 중요도는 영향력이 큰 보수적인 언론매체를 포함한 평가에도 매년 상승하였다. 곧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주요 9대 언론매체에 연구소가 노출된 빈도는 2011년 106회에서 출발하여 2012년 161회, 2013년 173회, 2014년 203회, 2015년 268회, 2016년 240회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였다. 또한 자본 측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일보의 『한경비즈니스』는 매년 국내 싱크탱크 활동을 평가하는 가운데,

여성·노동 분야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0년 9위에서 매년 상승하여 2018년 현재 3위라고 발표하였다.

[표 3-19] 한경비즈니스가 발표한 '여성·노동 분야'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순위(1~10위)

순위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	한국직능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고용정보원
6	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	공공서비스노조사회공공연구소	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대노동문제연구소	고대노동문제연구소
7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민주노총중앙연구원	민주노총	서울대여성연구소 이대한국여성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8	서울대여성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대한국여성연구원	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대노동문제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고대노동문제연구소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서울대여성연구소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0	고대노동문제연구소	민주노총중앙연구원	민주노총중앙연구원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서울대여성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중앙연구원	이대한국여성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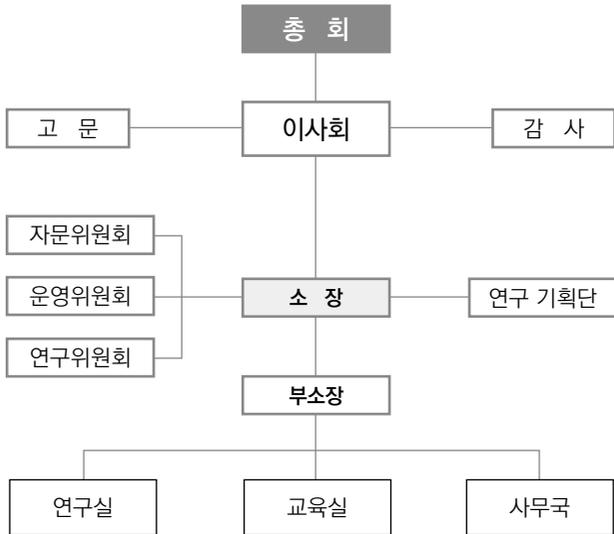
5. 조직과 운영

1) 체계

연구소 조직과 운영체계는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정관에 규정되었다. 정관은 총회와 이사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었으며 자문기관으로 사업방향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두었다.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기구로서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들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소장이 지명한 사람들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집행부서로는 연구실, 교육실과 총무, 회계, 서무,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두었다.

이 정관에 따라 1995년 12월 5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는 연구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운영규칙은 6장 5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었고 연구소 운영의 기본원칙과 절차 및 근무조건, 감사 절차,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였다. 각 위원회는 민주노조진영의 각 조직과 새로운 민주화 시대를 이끌어 갈 학계, 법조계, 사회운동계의 중심인물들을 총망라한 의욕적인 진용이었다. 이를 통해 명실공히 민주노조운동의 싱크탱크 역할을 힘차게 펼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정관에만 규정된 존재로 남고 말았다. 다만 연구기획단 만이 창립 후 5차례 회의를 갖고 연구소 운영과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림 3-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당시 기구표



연구소 운영의 틀은 1996년 5월 14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제2차 정기총회를 계기로 바뀌게 된다.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매년 1회’ 개최한다고만 규정한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종전 정기총회 규정이 사업집행의 정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창립시기인 4월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임단투 협상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아울러 ‘정기적인 감사’를 ‘연 2회 감사’로 변경하고 회계연도를 정기총회 시기의 변경에 따라 매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개정하여 규정했다.

1997년 9월 30일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서는 현실적인 조건 변화에 따라 연구소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기로 의결하였다. 먼저 회원 중에 ‘자료회원’을 폐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가입절차를 삭제했다. 두 번째로 연구소 기구로 규정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는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위원 중 상당수가 비회원이며 반기별 회의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폐

기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 세 위원회와 연구기획단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기획단을 설치하기로 개정하였다. 세 번째로 집행부서를 종래의 '2실 1국'(연구실, 교육실, 사무국)에서 자료실과 편집실을 신설하여 4실 1국으로 확장했다. 그것은 자료의 급증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졌고 회보 『노동사회』가 월간으로 바뀌고 연구 성과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편집기능이 확충된데 따른 것이었다. 네 번째로 연구소 약칭을 '한국노연'으로 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Labour & Society Institute(KLSI)'로 규정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의 엄습과 노동운동 상황의 급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는 연구소의 적극적인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였다. 그 하나의 방책으로 제기된 것이 사단법인 설립이었다. 연구소는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9월 25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1998년 10월 12일 제7차 이사회와 제4차 정기총회(서울 향린교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설립을 결정하였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일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행기구를 사무국으로 일원화하고 사무국에는 부소장, 사무국장, 연구실, 교육실, 자료실, 편집실, 총무실을 두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다. 이중 사무국장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일상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실은 노동정책포럼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방향을 기획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기구로 연구기획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이는 종래 노동정책포럼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포괄하고자 했으며, 우선 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과 7명 내외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며 모임은 3개월에 1회로 정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 활동은 기대만큼 이루어지 못했다.

연구소는 사단설립 한 달 후인 1999년 5월 6일 보금자리를 석당빌딩(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으로 이전하고 이른바 '서대문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월 1일자로 연구원들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

험에 가입하여 복지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9월 1일자로 연구소 홈페이지 (<http://klsi.org>)를 개설하여 연구소 활동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정보통신부가 1월 15일 홈페이지 개편과 인터넷 매체에 의한 회원서비스 확충을 위해 편집실에 설치되었다.

[표 3-20]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관 내용 변경 비교

조항별	개정 이전	사단법인
이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목적	노동자 총단결과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	민주적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 발전 기여
사업	조사연구, 토론회, 교육, 상담, 연대사업, 기타	
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	
회원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활동참여권	
회원의무	정관준수, 활동참여, 회비납부	정관 준수, 결의사항 이행, 회비납부
가입탈퇴	가입-소장승인, 탈퇴-본인의사	가입-이사회승인, 탈퇴-본인의사
회원제명		장애 조정, 명예훼손, 6월이상 회비 미납
기구	총회, 이사회, 운영기획단, 사무국	총회, 이사회, 사무국
임원	이사, 이사장, 감사, 소장, 부소장	이사, 이사장, 감사, 소장
임원임기	2년	
총회기능	정관제개정, 해산, 임원선출, 사업계획, 예결산, 기타	
이사회기능	총회상정안건, 총회위임안건, 운영규정 제개정 기타	
감사	업무 및 회계 정기감사 2회 및 보고	재산회계감사, 시정요구, 이사회 총회, 회의시 의견진술권
집행부서	사무국장, 연구실, 교육실, 자료실, 편집실, 사무국	부소장, 사무국장, 연구실, 교육실, 자료실, 편집실, 총무실
재정	회비, 사업수입, 기타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기타
회계연도	10월 1일~다음해 9월 30일	1월 1일~12월 31일
해산 청산	총회 결정	총회결정,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단체 기증

이러한 연구소 운영체제 곧 4실 1국 체제(연구실, 교육실, 편집실, 자료실, 사무

국)는 2006년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2003년 1월 21일 열린 제8차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부소장 2명을 약간 명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로 위치가 변동된 인사들과 연구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해 4월 김금수 이사장이 참여정부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취임으로 사임한 데 따라, 4월 29일 제15차 이사회에서 명예이사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2003년 4월에는 국제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정보센터 준비위원회를 두었고 2005년 1월에 열린 제10차 총회에서 정식기구로 승인받아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소 운영체제는 2007년 2월 13일 제12차 정기총회 때의 정관 개정을 통해 크게 변화하였다. 곧 종래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연구실(자료실 포함)을 중심으로 하고 기획실, 국제정보센터 등 '2실 1센터 체제'로 단순화한 것이다. 그 가운데 기획실은 종래 독립기구로 활동해온 사무국, 편집실, 교육실을 총무국, 편집국, 정보통신국, 교육국으로 편제하여 포괄하였다. 이는 편집, 교육 등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이동하거나 연구소를 그만둔 데다가 재정압박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해에 이원보 이사장이 급작스럽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임원 변경이 이루어졌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등장하고 연구소는 커다란 시련에 봉착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8년 8월 연구소 발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였고 9월에는 "함께 하는 노동운동 희망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확대사업에 나섰다. 그리고 2010년 2월 제16차 총회에서는 정관을 바꾸어 실제운영과 관련하여 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도 연구실 중심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중심축인 연구실마저도 상근자가 크게 감축되고 반상근 비상근체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11년에 들어서서 연구소 사정은 다소 호전되지만 전문인력과 재정의 부족으

로 효율적인 운용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1년 말에는 기획실의 교육국, 정보통신부, 국제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총무국, 편집국, 국제노동위원, 정보통신위원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회계감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예산편제를 운영예산과 사업(실행)예산으로 분류하여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탁사업 관련 예산이 일반예산과 혼재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예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연구실·기획실 체제는 2013년 말 선임연구위원제를 신설하고 2015년 연구실에 연구영역 확장을 위해 공공부문 연구센터와 노동시장 연구센터를 설치하였고, 2017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회원

연구소 회원은 출범당시 채택된 정관에서 연구소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노동운동가, 노동운동단체, 노동문제전문가,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단체로 하여 구성하며 회원에는 정회원, 특별회원, 자료회원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이며, 특별회원은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구소 활동에 기여한 사람, 노동조합 및 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회원 회비를 납부한 사람, 노동조합, 단체로 한정하였다. 회원은 “정관에 규정한 연구소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소 활동의 성과들을 공유할 권리를 공유한다”(정관 제7조)라고 정관은 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회원별로는 약간의 권리나 혜택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운영에 참여할 모든 권한이 주어졌고 특별회원과 자료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는 회비를 비롯한 연구소의 성과물들이 제공되었다.

[표 3-21] 연도별 회원증감 추이

연도	정회원(명)								자료회원(명)	총계 (명)
	노조조직	노조개인	운동단체	법조계	정계	학계	개인	소계	소계	
1995	34	74	61	11	15	30	65	290	54	344
1996	12	16	-	12	2	5	23	70	135	205
1997	19	20	2	8	6	9	24	88	251	339
1998	20	35	-	8	10	11	22	106	348	454
1999	21	40	-	7	8	11	37	124	452	576
2000	27	44	6	8	4	11	32	132	425	557
2001	28	40	10	8	4	12	33	135	443	575
2002	28	47	12	9	7	18	22	143	432	578
2003	41	49	12	7	7	21	28	165	503	668
2004	53	46	13	6	12	21	28	179	548	727
2005	47	41	9	5	12	26	33	173	548	721
2006	44	35	8	5	13	29	39	173	609	782
2007	43	32	9	3	14	25	31	157	549	706
2008	44	35	11	5	10	30	38	173	671	844
2009	39	39	8	6	11	29	43	175	658	833
2010	36	33	7	6	8	28	40	158	574	732
2011	40	35	9	8	10	28	40	170	584	754
2012	39	35	10	5	11	35	47	182	608	790
2013	40	28	12	6	6	31	46	169	529	698
2014	34	19	11	4	5	34	41	148	413	561
2015	31	22	13	3	7	37	41	154	407	561
2016	26	19	6	2	7	34	36	130	347	477
2017	23	18	6	1	9	34	36	127	349	476
합계	769	802	235	143	198	549	825	3,521	10,437	13,958

출범 당시 회원은 설립 발기인을 회원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회원은 창립총회 당시의 발기인 228명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제1차 이사회(1995년 12월 5일) 당시 정회원수는 추가로 등록된 발기인 24명을 포함한 발기인 252명

등 282명과 신규 정회원 8명을 합한 290명이었으며 자료회원은 54명이었다. 회원은 창립 이후 2017년까지 연인원으로 정회원 3,521명, 자료회원 10,437명 합계 13,958명이었다. 연평균으로 하면 정회원 153명, 자료회원 453명 합계 606명이었다.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 나타난 회원총수는 1995년 344명에서 2008년 844명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정회원과 자료회원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정회원의 분포는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립 첫해에는 노조 개인 25.5%, 개인 22.4%, 운동단체 21.0%, 노동조합 조직 11.7%, 학계(연구자 포함) 10.3%, 정치계(정부 및 산하기관 포함) 5.2%, 법조계 3.8% 순으로 구분되었다. 각 부문마다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계와 개인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1995~2017년 사이 정회원 분포는 개인 23.4%, 노조개인 22.8%, 노동조합조직 21.8%, 학계 15.6%, 운동단체 6.7%, 정계 5.6%, 법조계 4.1%의 순서로 나타났다.

회원규모는 노동운동 발전에 대한 연구소의 기여도와 연구소 재정문제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다. 따라서 연구소는 창립 직후부터 회원확대를 가장 중요한 사업목표로 삼았다. 우선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회원이 된 경우 회비를 계속 납부한 회원만을 정회원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은 1997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규가입은 극히 저조했고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창립 후 곧바로 회원정비와 확충을 추진했다. 매년 열리는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회원확대를 결의하였고 연구소 성원들은 회원확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0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3년에는 회원확대를 중점사업으로 구체화 일상화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대응하여 회원확대에 역량을 동원하였다. 사업은 9개월간(2000.9~2009.5) 자료회원 2배 증가(1,500명 확보), 정책회원 7,000명 확보를 목표로 삼고

2008년 연말까지 총회원 1000명(300명 증가) 확보를 추진했다. 방법으로는 우편 홍보물(이메일 웹 메일 포함) 발송, 텔레마케팅 작업, 언론 홍보, 직접홍보(노조 행사 참여 및 노조방문, 전화홍보 등), 노동포럼 활성화 등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텔레마케팅사업의 백지화 등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회원확대는 2008년 중 128명 가입(정회원 14, 자료회원 114)에 그쳤다. 2012년에도 신규회원이 69명 늘었으나 탈퇴 역시 29명이나 되었다. 2013년에도 회원관리체계 개편(일상적인 회원소통 및 서비스체계 구축), 집중 회원확대사업의 실시(상반기 전체 역량 투입), 회원확대 일상화(연구와 회원확대 연동), 회비수입의 전년대비 30% 증대 등을 내세우고 의욕적인 회원확대사업을 벌였다. 이를 위해 회원과 이메일 웹진,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일상적인 소통체계를 확충하고 이슈페이퍼, 연구소의 창 등을 발행하여 서비스를 충실화하고자 했다. 연구원들에게는 일상사업들과 회원확대사업을 연동하기 위한 체계구축사업을 벌이는 한편 회원확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했다. 진행방법은 신규회원 발굴, 기존 회원 회비인상, 회비납부방법 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나타난 성과는 37명 증가(정회원 8명, 자료회원 29명)로 나타났고 그 내용은 신규가입 31명, 회비인상 2명, 회비납부방법 개선 4명이었다.

이후 회원사업은 2013년의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2017년 현재 회원은 476명(정회원 127명, 자료회원 349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정회원은 개인 28.3%, 학계 26.8%, 노조개인 18.2%, 노조조직 18.1%, 정계 7.1%, 운동단체 4.7%, 법조계 0.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회의

(1) 총회

연구소 회의체계는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이사회와 일상적인 연구원 회의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총회는 1995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3회 개최되었는 바 정기총회 22회, 임시총회 1회이었다. 이사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열렸는데 2017년까지 모두 45차 개최되었다. 연구원 회의는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회의로 매주 1회 열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기총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정관 개정, 사업계획안 심의, 예산안 심의, 사업 보고 심의, 결산심의, 임원 선출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이러한 내용으로 총회가 열리고 임원 선출은 임기가 도래한 2년마다 이루어졌다. 임원이 결원되는 경우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10회 미만이었다.

총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원이다. 다행히도 23차의 총회 가운데 성원 미달인 경우는 없었지만 위임자가 많아 실제로 총회 참석회원은 극히 적었다. 총회 참가자는 회원 정족수 3,759명 중 62.1%인 2,336명이었지만 이중 실제 참가자는 618명으로 정족수의 16.4%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위임자가 참가자 중 1,718명으로 73.5%의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부록 4 참조).

(2) 이사회

① 이사회 구성의 변화

창립 당시 이사회는 민주노조진영 인사들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와 발기인 분포에 따라 분야별 대표로 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노동조합 19명, 노동단체 17명, 개인 10명(학계 5, 법조계 3, 재야 2)과 참관단체 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기인도 노동조합 조직, 노동조합 개인, 노동단체, 학계 및

연구자, 법조계, 정당, 개인 등으로 준비위원회와 유사하였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에서는 21명의 이사를 선출하였다. 부문별로는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6명(노동조합 3, 노동단체 1, 학계 1, 법조 1), 노동조합 5명(지역 1, 업종 2, 그룹1, 공노대 1), 노동단체 2명, 여성 1명, 학계 3명, 법조 1명, 재야 3명 등으로 분포되었다.

이후 연구소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의 출범에 따른 각급 조직의 재편을 배경으로 조직확대를 목표로 세우고 이사회 구성을 대폭 늘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개혁에 맞추어 회원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노총의 산별연맹 대표를 1997년 영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이사회 규모와 구성은 1997년 40명(민주노총 20, 한국노총 5, 노동단체 3, 학계 4, 법조계 3, 재야 5)로 변화하였으며 1998년 43명, 2000년, 2002년 각 50명, 2004년 51명, 2006년 53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다시 40명 선으로(2008년 41명, 2010년 42명, 2012년 40명)로 감소하였고 2014년부터는 30명, 2017년에는 35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의 대표가 변경되거나 소속단체와 직위가 달라진데 따른 것이며 2014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연령층을 낮추고 학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② 이사회 회의

이사회는 창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3회 열렸으며 그 중 임시이사회는 2회였다. 이사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개최되었는데 대체로 상반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한편 하반기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사회 회의에는 고문과 감사도 참석하여 논의하는 일이 많았다. 참석자는 회의 때 마다 다르지만 실제 참석보다 위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사의 정수는 1,770명(연인원)이나 참석자는 1,376명으로 참가율은 77.7%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참석자는 561명으로 정족수의 3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임이었다.

(3) 감사

감사는 업무와 회계내용을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창립 당시 1명이었으나 1999년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2명으로 늘었다. 2001년 1월 12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감사는 복수, 홀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명으로 변경하였다. 이전에는 전문적인 감사 경험보다는 법률에 조예가 깊거나 시민운동이나 노조운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선출했으나, 2010년부터는 회계와 세무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선출하였다. 감사는 정기총회 직전에 연 1회 실시되며 사업 감사만이 아니라 회계, 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을 수시로 행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 고문

고문제도는 창립 이래 “연구소 사업방향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고문은 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정관과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창립 당시 고문은 노동·사회운동 및 학계의 원로 10명(권처흥, 김말룡, 김병태, 김윤환, 변형운, 이돈명, 이소선, 이일재, 전무배, 정도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김말룡 고문의 작고(1996.10)로 1997년 9명이 되었다. 또 다시 정도영 고문이 별세(1997) 후 부인 박춘 여사가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2002년에 박인상 한국노총 전 위원장(전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10명이 되었다. 2008년에는 김경수, 박종기, 전기호 등 이사 3명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13명이 되었다가 이돈명 고문이 작고(2010.1.11)하고 이소선 고문이 별세(2011.9.3)하셨고, 이일재 전 고문(2012.3.24)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2013년까지 11명의 고문이 활동했다. 그 후 2014년 이사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이사 8명이 대거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고문은 17명으로 늘어났으나, 김윤환 고문이 별세(2015.2)하셨고 다음해 전무배 고문이 세상을 떠셨다(2016.4). 2017년을 기준으로 고문은 15명이다.

고문들은 의결기구에 속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연구소의 운영과 노동운동의 진로에 대하여 많은 권고와 제안을 함으로서 연구소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4) 연구원

출범당시 연구소 연구원은 11명으로 출발하였다. 임원 4명(이사장, 소장, 부소장)과, 연구실 4명, 교육실 2명, 사무국 2명(1명 겸직)의 분포였다. 김진균 이사장과 김대환 부소장만이 대학 강의 때문에 비상근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근이었다. 총무간사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보수였다. 연구소는 연구실, 교육실, 사무국으로 편제되면서 연구원은 연구위원, 교육위원, 사무국장과 총무간사로 일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2008년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1명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12명까지 격감하였지만 다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22명에 이르렀다. 2010년의 경우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연구소가 축소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연구원의 총수는 연인원으로 368명이었다. 이를 근무형태별로 나누면 상근 172명, 반상근 67명, 비상근 81명, 객원 33명, 휴직 16명이었다. 개인별로는 65명이었다.

근무체제는 상근, 비상근으로 출발하여 2000년에 이르면 반상근 체제가 나타났다. 연구원 가운데 대학 강의 등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다. 상근은 1995년에서 2008년까지 9~12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9년부터 2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13년부터 조금씩 늘어났다. 반상근은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2009년부터는 연구소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근, 반상근이 줄고 비상근이 급증하였다. 객원연구원은 1998년 1명에서 200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중 일부는 반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표 3-22] 연구원 근무 상황(매해 말 또는 회계연도 말 기준)

연도	총수	상근	반상근	비상근	객원	기타(휴직)
1995	11	9	-	2	-	-
1996	13	10	-	3	-	-
1997	11	9	-	2	-	-
1998	11	9	-	-	1	1
1999	11	11	-	-	-	-
2000	12	10	2	-	-	-
2001	14	9	2	3	-	-
2002	17	11	2	3	-	1
2003	20	12	4	3	-	1
2004	17	10	6	-	-	1
2005	18	10	6	-	-	2
2006	17	10	6	-	-	1
2007	17	11	6	-	-	-
2008	21	11	8	-	-	2
2009	16	2	1	8	-	5
2010	12	2	1	7	2	-
2011	16	2	2	9	3	-
2012	15	2	3	7	3	-
2013	16	3	3	5	5	-
2014	19	4	5	7	4	-
2015	21	4	3	8	6	-
2016	20	5	4	6	4	1
2017	22	5	3	8	5	1
계	368	172	67	81	33	16

부록

—

[부록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 창립취지문

[부록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관(안)

[부록 3]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설립취지문

[부록 4]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 1) 연구사업
- 2) 노동포럼
- 3) 노동교육 관련 연구
- 4) 연구소 발간 단행본
- 5) 회원총회 개최
- 6) 이사회 개최
- 7) 감사
- 8) 역대 임원진
- 9) 역대 연구소 구성원

[부록 1]**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 창립취지문**

한국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고양단계를 맞게 되었으며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큰 발걸음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역량은 새로운 지평을 힘있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노동운동은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한 대중적 토대와 주체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역사발전의 추진 주체로서 주요 임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이러한 발전의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과 권력 측의 지배와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 측의 합리화공세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 강화를 기도하면서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과 분열을 획책하고 노동조합의 약화를 겨냥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논리에 치우쳐 임금억제와 노동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시책을 펴는가 하면, 노동기본권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본과 권력 측의 이러한 공세는 노동운동의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의 주체적 역량 발전을 위해서도 조직, 투쟁, 정치 역량 강화와 함께 운동이념의 정립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박한 요구와 주요 과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노력은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주요 과제의 본질을 정확히 구명함과 아울러 실천적 해결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는 한국 노동운동 발전 도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 요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 외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각급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 노동문제 전문연구자, 노동운동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민주인사 등을 주체로 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실질적인 방침을 창출해 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참다운 평등과 자유가 충만한 민주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995년 4월 2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 발기인 총회

[부록 2]**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관(안)****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여 노동자의 총단결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전개한다.

1. 노동운동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2. 자료 수집 및 출판사업
3. 각종 토론회의 조직
4. 노동교육사업
5. 노동상담사업
6. 국내외 노동단체 및 유관 연구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소재지)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구성

제5조 (회원) 연구소는 위 목적에 찬동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노동운동가, 노동운동단체, 노동문제연구가, 위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하여

구성하며 회원에는 정회원, 특별회원, 자료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2. 특별회원: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구소 활동에 기여한 사람, 노동조합 및 단체 및 사람
3. 자료회원: 소정의 자료회원 회비를 납부한 사람, 노동조합 및 단체

제6조 (가입 및 탈퇴) 본 연구소 가입은 본인의 신청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이 되며 본인의 희망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연구소의 회원은 본 정관에 규정한 연구소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소 활동의 성과들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본 정관에 규정한 각급활동에 참여하며 별도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기구 및 기능

제9조 (기구의 종류)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고문
4. 자문위원회
5. 운영위원회
6. 연구위원회
7. 연구기획단

제10조 (총회) 연구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사업계획, 예산수립 및 결산승인

[부록 2]

2. 정관의 개정
3. 임원 선출
4. 통폐합 및 해산 결의
5. 기타 연구소의 중장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및 연구소 소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결의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작성 및 심의
3. 고문 추대
4. 자문위원, 운영위원, 연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6.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신규 회원 자격심사 및 승인
8.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고문) 연구소 사업방향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 (자문위원회)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지도 자문의 기능을 갖는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및 연구소 소장, 부소장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5조 (연구위원회)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관한 지도 자문의 기능을 갖는다.

제16조 (연구기획단) 연구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0 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총회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9조 (각 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반기별로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20조 (합동회의) 1. 이사장은 소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 및 각급 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각급위원회의 합동회의는 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소장이 의장이 된다.

제21조 (회의 성립)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 정관의 개정, 임원 불신임, 통폐합 및 해산의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참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

제22조 (임원의 구성)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20명 내외

[부록 2]

- 3. 감사: 약간 명
- 4. 소장: 1명
- 5. 부소장: 2명

제23조 (임원의 권한) 연구소 임원의 권한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연구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와 각위원회의 합동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 2. 이사: 제11조에 규정한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한다.
- 3. 감사: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행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4. 소장: 연구소 운영의 책임을 지며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기획단 회의 및 각 위원회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연구기획단 및 연구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 5. 부소장: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집행부서) 연구소에는 다음의 집행부서를 설치한다.

- 1. 연구실: 연구 조사에 관한 사업 및 각종 정보, 자료의 관리 출판에 관한 사업
 - 2. 교육실: 노동교육에 관한 사업
 - 3. 사무국: 총무, 회계, 서무, 관리에 관한 사업
- 단, 집행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26조 (기금) 연구소 기금은 발기인 또는 회원의 기부금 및 기타 재정수입으로 조성한다.

제27조 (운영비) 연구소의 운영비는 회비 및 기타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비) 회원이 납부할 회비의 내역은 별도 운영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 (법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제3조 (효력 발생) 이 정관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록 3]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설립취지문

한국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고양단체를 맞게 되었으며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큰 발걸음의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역량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리하여 한국노동운동은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한 대중적 토대와 주체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노사 간의 균형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과 역사발전의 추진 주체로서 주요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노동운동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였다. 자본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 강화를 강행하면서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과 분열을 도모하고 노동조합의 약화를 겨냥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은 저성장 고실업 시대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노사관계의 균형은 현저하게 훼손되고 노동자들의 참여의식은 그 근저로부터 뒤흔들림으로써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인 민주주의 실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의 주체적 역량 발전을 위해서도 조직, 투쟁, 정치역량 강화와 함께 운동이념의 정립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실한 요구와 주요 과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 노력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주요과제의 본질을 명확히 구명함과 아울러 실천적 해결 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한국노동운동 발전 도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 요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 연구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각급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 노동문제 전문연구자, 노동운동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모든 민주인사들을 주체로 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실천적인 방침을 창출해 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참다운 평등과 자유가 충만한 민주사회건설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부록 4] 1) 연구사업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2017년		
1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노광표 이명규	고용노동연구원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주환 황수옥 이수정	고용노동부
3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종진 박용철 손정순 박종식 윤자호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 용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종진 정경은 박용철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5 KTO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구 용역	김종진 정경은 김가람 방미진 박관성	한국관광공사
6 NCS 기반 노사파트너십 인적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우수사업장 사례 연구	노광표 우상범 박용철 윤자호	한국전기공사협회
7 서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노원주민 인식 실태조사	김종진 윤자호 이주영	노원노동복지센터
8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체계 및 단체협약 발전 방안 연구	이주환 신태중 이종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9 일자리 통계 개선방안	김유선	일자리위원회
10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방안	이명규 노광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1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김유선 이명규 윤정향 박용철 우상범 이종수 이주영 임상훈 이상민 유병홍 김주일 고희면 정희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2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김종진 박용철 정경은 김가람 홍관희	광주광역시
13 광주광역시 청년 계층별 실태조사	김종진 이정봉 박관성 윤자호	광주시청
14 정부 가이드라인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	김종진 정경은 이명규 윤자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5 공공부문이슈보고서발간	노광표 박용철 윤자호	공공노련
16 서울시 서북권역 직장맘 WLB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연구	윤정향 윤자호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17 몽골광산산업 직무급 도입 컨설팅	노광표 박용철 이종수	ILO 베이징/몽골
18 청년 노동시장 분석	김유선	2020재단
19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	노광표 이명규 이정봉	공노총 정책연구소
20 서울시 지방공기업 임금제도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노광표 박용철 이정봉 박관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21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기준 수립 용역 중 일부 (노무관리 기준 설계)	황수옥 박관성	성신회계법인
22 사례지역 조직화 지도 작성	노광표 이주환 이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3 한국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독일공동결정제도의 발전이 주는 시사점	황수옥 이주환 이주영	에버트 재단
2016년		
1 '몽골 산별 직무급' 컨설팅 연구	노광표 이종수	ILO 중국/몽골
2 성남지역 노동권 보호와 권리확대 정책연구	김유선 김종진 황수옥	성남시청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모델 갱신 및 2017년 표준생계비 산출	윤정향 김미곤 이시균	민주노총
4 공공부문 이슈보고서 발간	노광표 박용철 윤자호	공공노련
5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개발 연구	김유선 김종진 이명규 곽상신 박기산	서울연구원
6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생활임금정책 연구	김종진 박용철 이정아 송민정	아산시청
7 노동시간 및 근속 통계 분석	김유선 윤정향 박관성	2020재단
8 금융노조 산별 강화 방안 연구	노광표 박용철	금융노조
9 2016년 노사상생플러스교육 평가 및 발전방안	노광표 홍주환 박관성	노사발전재단
10 (전기, 에너지, 자원산업에 특화된) 노사 파트너십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노광표 박용철 이상범 윤자호	한국전기공사협회
11 고양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	유병홍 김윤숙 김가람	고양시청
12 서비스산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조사	김종진 박관성	서비스연맹
13 생애주기별 여성의 노동조합 참여 연구	윤정향 황수옥 윤자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4 한·EU FTA 노동기준 관련 내용 및 이행실태 평가	김미영 정소연 이주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5 청년 고용 및 가계 실태 분석과 청년 고용복지 정책 연구	이상범 정경은 이주환	노동연구원/서울연구원
16 보건의료노조 임금체계 실태 분석 및 대안 모색	홍주환 이주환 천용성	보건의료노조
17 서울 노원구 시민 노동인권과 권리 인식조사	김종진 윤자호	노동복지센터
18 서울노동복지센터 확대 방안 컨설팅 연구	홍주환 정경은 황수옥	서울시 노동정책과
19 국회 청소년직역 전환 실행방안 연구	박용철 김종진 문지선	국회사무처
20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	김종진 박관성 윤자호 소준철 김수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 공공부문 노조의 이념 및 사업구조 연구	노광표	통합공무원노조
22 7대 광역시 택시사업장의 임단협 실태조사 및 임금구조 개선 방향	노광표 이명규 박관성 박기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23 공무원노동조합 재정자리 방안 연구	노광표 이종수 김민재 채준호 박기산	공노총
24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연구	노광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2015년		
1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 방안 연구	김유선 김종진 박용철 이주환 곽상신 전명훈, 채준호 홍관희	광주광역시
2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노광표 곽상신 이승우 조수진 한인임 손영우	서울모텔협의회
3 공공부문 연구	노광표 이정봉	한국노총 공공노련
4 마포구 관광산업 판매종사자 고용창출력 강화방안	박용철 김종진 이정봉 우상범 윤자호	고용노동부
5 한국의 고용노사관계 진단 및 대안모색	노광표 홍주환 윤자호	고용노동부
6 서비스연맹 전 조합원 실태조사	김종진 김보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7 한국의 노동 2016	김유선 구도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8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 실태조사	김종진 박기산 윤자호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9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	김종진 김보성 김현주 이진우 서수민	국가인권위원회
10 노사상생플러스 교육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노광표 홍주환 윤자호	노사발전재단
11 대우조선해양 임금, 직급, 생산체계 연구	임상훈 이상민 노광표 허민영 곽상신 인수범 박용철 박종식 이중수 엄재연 유동희	대우조선해양
12 제조산업 발전 연구	김유선 김성혁 손정순 정경은 박대일 윤자호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13 한국형 연대임금 연대고용 모델 탐색	김유선 윤정향	노사정위원회
14 공공 및 금융부문 시간제 여성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이주환 윤정향	한국노총여성본부
15 서울시 공기업 임금피크제 컨설팅 용역	김유선 박용철 이정봉	서울시
16 서울시지하철 임대매장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김종진 윤자호	서울시
17 몽골 임금결정 제도 컨설팅	노광표 이중수	ILO 베이징몽골
18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5	김유선	2020재단
2014년		
1 근로실태조사 계획	김종진 윤정향 박용철	서울시
2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방안	노광표 이문호 이정봉	울산북구청
3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노광표 임상훈 우상범	한화생명노조
4 지자체 노사업무 사회적 대화 기구 발전방향 연구	노광표 홍주환 손영우 박명준	서울시노사정서울모텔협의회
5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 조합원 요구안 실태조사	김종진 전사랑	보건의료노조
6 자회사 운영 관련 주요사항 연구	이명규 김종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7 120 다산플렉서 운영효율화 연구	김종진 박용철 권혜원 김승섭	광주여자대학교
8 서비스산업 여성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재구조화 방향 모색	김종진 윤정향 김보성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9 민주노조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	이상학 이주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0 복수노조사업장 갈등 사례분석 및 해결방안	홍주환 이명규 송민지	고용노동부
11 공공기관 청년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모델개발	노광표 임상훈 박용철	한국노총 공공연맹
12 노동위원회 60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김인재 김미영 이주환 노호창 남군준	중앙노동위원회
13 택시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근로 개선모델 연구	노광표 이정봉 전사랑 이문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4 청소·경비원의 휴게시간 실태조사	김유선 윤정향 송민지	고용노동부
15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노광표 이정봉 전사랑 김인재 윤가석	서울시 의회사무처
16 인턴의 근로실태 및 권익 보호방안	윤정향 이명규 송민지 전사랑	고용노동부
17 노사 상생협력 교육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노광표 박용철 외	(재)노사발전재단
18 한국사회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김종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9 2014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김종진	서울시
20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실태 조사	이수정 이주환	성북구

2013년

1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 영향 분석 및 대책 연구	노광표 이문호 이정봉	울산 북구청
2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임금 및 직제 개편	임상훈 박용철 이명규	시설관리공단 노사
3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연구	김종진 이명규 이정봉	서울농수산물공사
4 전 조합원 노동실태조사 및 5개년 시계열 분석과 합의	김종진 이명규 외 1인	보건의료노조
5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김종진 이정봉 이주환 외 8명	국가인권위원회
6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전략	이명규 김종진 이주환 외 5명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7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이명규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
8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 실태 및 조직화 방안	김종진 이주환 오형석	보건의료노조
9 공기업 아웃소싱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광표 이명규 박용철	공공노련
10 정년연장에 따른 중장년 노동력 활용을 위한 금융산업 직무분석	임상훈 박용철 인수범	금융경제연구소
11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안	노광표	한국노동연구원
12 2014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윤정향 이시균 김미곤	한국노총
13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영향과 대응 방향 :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유병홍 이주환	노동부유관기관노조
1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	김유선 김종진 이명규 광상신 유형근 외 5명	민주노총 서울본부
15 장시간근로 개선에 따른 일자리창출 영향요인 연구	노광표 이정봉 김주일 이상민 이문호	노사발전재단
16 고양시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 연구	정경은 이정봉 허인	고양시청
17 임금체계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방안 연구	김유선 오학수	한국노동연구원
18 IT산업 근로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	노광표 이문호 광상신	고용노동부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19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방향	김유선	홍영표 의원실
20 고양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연구	임상훈 조현민	고양시청
21 2013년 노사관계 평가와 법제도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이원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1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노광표 김주일 이승현 이정봉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지부
2 2012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 임금 및 노동조건 조사 보고서	김종진 이정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3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김유선 정승국 김종진 윤정향 유형근 김미영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4 공공기관 임금정책 연구	노광표 이정봉 김유선 이상훈 유성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5 서울시 학교 비정규 실태조사	김승호	서울시의회
6 유통/호텔/유희산업종 연구조사 보고서	김종진 권순원 김수영 이명규	서비스연맹
7 보건의료산업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모델 연구	김종진 박명준 채준호	보건의료노조
8 사회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석 :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정향	한국노동연구원
9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방안	노광표	한국기술교육대 노동행정연구수원
10 서대문구 관내 음식점업 고용노동실태 조사	이정봉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11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 호봉제 도입 방안 연구	임상훈 이명규 김유선	국회 사무처
12 사회적 기업 노사관계 연구	이정봉 김성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	노광표 홍주환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범협의회
14 대한생명 노동조합 인사제도 개선방안	노광표 임상훈 박희상	사무금융 대한생명노조
15 한국 산별노조 문제진단과 발전방안	김승호 김종진 인수범 이상훈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1년

1 서비스산업 고용관계와 노동과정	김종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 노동조합과 정당	김승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 2011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및 임금조사	김종진 홍석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4 직업별 고용의 질 지표 개발과 분석	김유선	한국고용정보원
5 지역 고용지표 개발 및 분석과 개선방안	김유선	민주정책연구원
6 복수노조제도의 도입과 인천택시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호	인천광역시 택시업종 노사단체
7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교사·학부모 인식조사	이명규	전국여성노조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8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김유선	환경노동위원회
9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분석	김종진 김지수 홍석범	국회입법조사처
10 교원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노광표	고용노동연구원
11 교원노조 단체교섭 해외사례 연구	노광표 이승협 채준호 손영우 이명규	서울특별시 교육청
12 전국전력노동조합 조직진단 및 조합원 의식조사 연구	노광표 홍주환	전국전력노동조합
13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고용안정 과제	이명규 인수범 윤정향	홍희덕의원실 외
14 증권산업 임금체계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김승호 인수범	증권산업노조
15 청년실업대책평가와 정책개선 방안	김유선 이정봉 이명규	민주정책연구원
16 대안적 고용지표 개발	김유선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		
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조의 조직기반 변화에 관한 연구	인수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 (주)만도기계 월급제 방안 연구	노광표 홍주환 김보성	금속노조 만도지부
3 KLSI 고용지표, OECD 국가비교	김유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4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김승호 이명규 홍주환 인수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 하나은행 경영실태에 대한 전직원 의견조사 분석	인수범	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
6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김유선	한국고용정보원
7 보건의료산업 직종 연구	인수범 김종진	보건의료노조
8 하이트맥주 · 진로의 노사관계 진단 및 직원의식 조사	노광표 권순원 임상훈 홍주환 김종진	하이트맥주
9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50년 약사	이명규 이주환	금융노조
10 인천택시 근로조건 및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연구	인수범 이명규 김승호	민주택시인천본부/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11 퀵서비스 종사자 설문조사	김종진 퀵서비스노조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12 노동교육 발전방향	이병훈 이명규 남정민	노동행정연구원 노동조합
13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김유선	홍영표 의원실(한노위)
14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김유선	홍영표 의원실(한노위)
15 우리은행 노동조합 조직운영과 과제	김종진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2009년		
1 공공부문 행정인턴제도 실태 분석	김종진 김재민 이진영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2 경제위기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	인수범 이주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연구	김유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4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김종진 이명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 비정규고용에 관한 고용, 노동, 사회보장법제	김미영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6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연구	이명규 김미영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7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이영환 이정봉 김종진 김성기 황인매	함께 일하는 재단
8 벽산건설 노동조합 정책개발을 위한 조합원 및 비정규직 직원 조사 보고서 통계표	노광표	벽산건설노동조합
9 가사근로 및 돌봄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이정봉 김유선 김미영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10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노조의 대응방안 연구	조명래 노광표 최승철 이명규	민주노총 공공노조
11 SC제일은행 경영 및 노사관계 진단 직원 의식조사	노광표 홍주환	SC제일은행노동조합
12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직진단 보고서	이병훈 이명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3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광표 김현준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1 전기검침사업 제한경쟁입찰과 우편송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노광표 유형근 이정봉	검침사업장노조
2 강원랜드 서비스(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노광표 김종진 배준범 박선영	강원랜드노조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이정봉	민주노총
4 KB 국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노동조합 대응방안 연구	노광표 김영두 권순원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5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평가 및 비정규직 조직화 주요 사례 분석 보고서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진숙경	민주노총
6 노동조합운동과 연대	이병훈 김영두 김승호 인수범 이명규 이주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7 산별노조시대의 노동복지전략	유형근 이정봉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8 건설노조 조합원 생활실태 및 임금실태 조사결과	김유선 김승호 홍주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9 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김종진 이정봉	민주노총 공공노조
10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의 운동방향 정립과 조직강화 방안 연구	노광표 김승호 홍주환 이승협	민주공무원노동조합
11 노동운동 리더십의 실태와 발전 방안 정책 연구	노광표 김승호 인수범	노동부
12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인수범 이정봉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3 외국 산별노조의 임금정책 및 임금인상 요구안의 결정기준 연구	인수범 김종범 박영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4 금속산업 임금구조와 임금체계 분석 보고서	김영두 유형근 신재열	민주노총 금속노조
15 교원, 공무원, 민간기업 간의 임금수준과 임금제도 비교 및 개선과제	김유선 김영두 윤영모	전교조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16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단체교섭 연구	노광표 이정봉	한국노동연구원
17 작업장 감시장치에 관한 해외 입법 경향과 정책 시사점	이병훈 김인재 유형근 신재열	노동부
18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유선 김미영	민주노동당
19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비정규직 투쟁 사례 연구	노광표 김영두 김종진 이명규 이주환 강은애 문지선 전병훈 김직수	한국노동연구원
20 현대그룹 노사관계 사례연구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김승호	포스코 경영연구소
21 민주노총 지역조직 실태와 과제	김유선 정경은 이정봉	민주노총
2007년		
1 민간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체계 적합성 조사	인수범	한국고용정보원
2 주요 선진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국제기구 제소 사례와 정부 대응경험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이병훈 윤영모 노광표 김영두 인수범 유형근	노동부
3 하나은행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 의견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김영두	하나은행 노동조합
4 노동운동 재활성화	인수범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유형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 한국의 노동(working korea 2007)	김유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6 산업별노조와 직업능력개발	김유선 정원호 김승호 인수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보건의료노조 직종 및 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조건 및 고용실태 조사	홍주환	보건의료노조
8 산업별 교섭구조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김유선 이시균 김현우	민주노동당
9 산별노조시대 고용, 임금, 복지 연대전략	윤진호 정이환 김유선 이병훈 정원호 윤정향 이시균 안정화 김승호 김종진	민주노총
10 IMF 10년 백서, 금융산업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과제	노광표 김준 김종진 유형근	금융노조
11 SC제일은행, IMF 10년 외자금융기관 노사관계	노광표 홍주환 유형근 윤여협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
12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정책협의	김승호 노광표 김영두	노동부
13 취약계층 근로자의 규모 추이와 일자리 이동 분석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 정책방안 연구	김유선 한준 김영미 인수범	노동부
14 비자발적 이직자 중 구직급여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실업급여제도 개선 연구	홍주환	노동부
15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이주희 김유선 최인미 진숙경 김종진	국가인권위원회
16 참여와 혁신을 위한 노사관계 진단 매뉴얼 개발	이병훈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이명규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17 진로기업의 인수합병 이후 조직문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연구	김종진 이정봉 이명규	한국노동교육원
18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연구	노광표 홍주환	한국노동연구원
19 지역단위 노사협력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이병훈 김영두 이정봉 손동희	노동부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20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적 패러다임 구축과 대국민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노광표 홍주환 하재룡	서울시
21 ILO 지역최저임금 실태분석	김유선 김영두 윤영모	ILO
22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김유선 이병훈 김영두 김승호 인수범 김종진 유형근 이정봉	국회 입법조사처
23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4 2007 보건의료산업의 인력 임금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	김유선 홍주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6년

1 산별노동조건에 대한 조합원 의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김승호 김영두	기아자동차노동조합
2 서울지역 노사정 협력 모델 연구	김현우 김종진 이명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 부천금형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실태조사 연구	송보화 인수범	부천시 금형조합
4 주요 외국인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 비교연구 용역 결과보고	김현우	노사정위원회
5 국가경쟁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	박준식 김영범 권해사 김유선 홍주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6 캐리어 노동조합 정책 연구	홍주환	캐리어노동조합
7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조합원 의식조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홍주환 김현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8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광표 이명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9 거버넌스 구조변화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홍주환 김현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0 보육, 사회복지, 자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김종진	민주노총 공공연맹
11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과 노동시장·사회통합 : 이주노동 정책 평가 및 대안의 모색	박준식 홍주환 인수범 유형근 홍원표	한국국제노동재단
12 국립공원관리공단 노동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홍주환 김종진 이명규 최은계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
13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	노광표 홍주환	한국노동연구원
14 수협중앙회 조합원 의식조사 및 노동조합 발전방향 연구	노광표 김종진	수협중앙회노동조합
15 부천지역 전기산업 고용 수급 활성화 정책 연구	노용진 노광표 홍주환	한국노동복지센터
16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비판	노광표	한국노총 공공노련
17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	김인재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국가인권위원회
18 노사발전재단에 관한 연구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인수범 김현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 주요국의 취약계층 고용촉진 정책 연구	김유선 홍주환 김현우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20 전력산업 노사관계 발전방안	배규식 김승호 김영두 유형근	한국노동연구원
21 합병은행 노사관계 발전방안	김주일 인수범 김종진 김승호	금융노조
22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서비스에 대한 노사당사자 의견조사	김영두	노동부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23 공무원 노사관계 갈등요인 및 해소 방안 연구	노광표 홍주환	노동부
24 업종별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김승호 김영두 홍주환	노사정위원회
25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합 의식 실태 연구	김유선 김종진 홍주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6 세계의 주요 노동조합총연맹 규약 비교 연구	김현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7 독일 및 미국의 자동차산업 단체협약 분석	이승협 최인이 홍주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8 노동운동의 지역개입 전략	김현우 이상훈	민주노동당
29 공공서비스 노사관계	노광표 홍주환	노동부
2005년		
1 고용허가제 1년, 외국인력 정책 및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방향	권해자 강연배 김현우	국제노동재단
2 노동조합 조직효과성과 조합원 참여 영향요인 연구	김영두 김승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 한국의 사용자단체 연구	노광표 김영두 이상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4 성모자애병원 경영진단	권순식 인수범	성모자애병원 노동조합
5 서비스종사자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정도가 근로자의 직무만족,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천안 상록파크랜드 사례	권순식 송보화 노광표	한국노동교육원
6 GM대우 노사관계 및 노조활동 연구	조성재 인수범 김영두 김승호 최은계	한국노동교육원
7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8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김종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 외투기업의 노동고용관련 실태조사 및 인사노무관리 지원방안 연구	노용진 노광표 김현우	노동부 국제협력실
10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상태와 조직화 문제	김종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11 노동행정사: 노동위원회 편	이원보	한국노동교육원
12 산재의료관리원 인사제도 및 직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노광표 김종진 인수범	산재의료관리원노동조합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갈등 조정 방안 연구	노광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4 보건의료노조 임금정책: 산별임금체계를 중심으로	김유선 김승호	보건의료노조
15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대응 및 지배구조개선 연구	김현우	공공연맹
16 작업장 감시가 노동인권엔 미치는 영향 연구	박준식 이병훈 김인재 정진주 김현우	국가인권위원회
17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구조 개선방향	김유선 이주희 조용만 이승욱 이병훈 정숙국 김인재 이명규	민주노총,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실태조사	김인재 김유선 김승호 김종진	노동부 근로기준과
19 고용 및 전직지원과 노동조합의 역할	노광표 김종진	벽산건설노동조합
20 민주노총 조직운영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김승호 김영두 인수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1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조직진단 및 혁신방안 조합원·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김승호 김종진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22 노동교육 실태 조사 연구	노광표 최용숙 최은계	한국노동교육원
2004년		
1 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방안 연구	김유선 김인재 노광표 김종진	행정자치부
2 2004년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 조사서	김영두 김종진	대우자동차노조
3 병원산업 주5일제 개선방안	김주일 이상민 김영두	한국노동교육원
4 제약산업 주5일제 개선방안 및 업종별 교섭	김성희 황선웅	한국노동교육원
5 자동차산업의 작업조직 변화와 노조의 대응정책	인수범 이상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6 자활현장의 상황과 자활사업 발전방향 연구	김종진 김현우	자활후견인기관노동조합
7 최저임금제가 저임금근로자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 평가	김유선 김종진	노동부
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관련 노동조합 의견조사	노광표 김영두 김종진 김현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조사	김유선 김현우	국가인권위원회
10 제조업공동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정원호 노광표 황선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1 고용환경 변화와 노조의 대응	김유선 노광표 인수범 이상호	한국노총 정책본부
12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제도 도입방안	정형욱 전희경	노동부
13 하나은행의 직무성과급제 및 여행원제 개선	김영두	하나은행 노동조합
14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김재진 신원철 안병룡 인수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15 벽산건설노조 정책개발을 위한 조합원 및 비정규직 직원 조사 보고서	노광표 김종진	벽산건설노동조합
16 한미은행 6·25 총파업 평가서	인수범 김종진 윤재설	한미은행 노동조합
17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사업에 관한 연구 : 한국노총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원보 김종진 김현우	한국노총
18 (주)만도 생산기능직사원 인사 및 승진제도 연구 보고서	노광표	만도기계노동조합
19 노동조합 조직가 교육훈련	강연배 권현지 권혜원 서성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03년		
1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신광영 박장현 김종범 홍주환 노광표 인수범 김종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 외국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교섭	노광표 인수범 박장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 대우종합기계 매각 및 이전에 대한 대응방안	노광표	대우종합기계 사원협의회
4 주요 자동차 업체의 임금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김영두 인수범 권혜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5 대우자동차 노조조직통합 및 정책과제	김영두 인수범	대우자동차노동조합
6 정보통신산업의 비정규직 노동 현황과 과제	김영두 신원철	한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7 벽산건설의 도약과 노사화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박준식 노광표 인수범 김종진	벽산건설주식회사/ 벽산건설노동조합
8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의 질 저하와 저임금 고용 개선 방안	권해자	국회의원 박인상 의원실
9 민주노조운동의 형성	이원보	한국노동연구원
10 노조선회귀 간부의 경력 경로	김태현 외 1인	한국노동연구원
11 노조연맹 통합 조사 연구	권해자 강연배	제조연대
12 정보화시대의 노동교육	이광석 박해경 강연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3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방안	김태현 황종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4 청년 실업의 원인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권해자 황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5 노동위원회 50년사	김태현	중앙노동위원회
16 한국의 규제완화와 실태연구	김종진 윤영모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사무소
17 조흥은행 총파업 평가	임동수 인수범 김종진	금융노조 조흥은행 지부
18 금융산업노조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 수립	이원보 노광표 김종진	금융산업노동조합
19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원보 김유선 박해경 정민승 이근수 강연배 최은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년

1 국민은행 신인사제도 평가와 대응 방안	인수범	국민은행노동조합
2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김영두 인수범 김재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 한국 진출 네덜란드기업 다국적기업의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연구	김태현 노광표	네덜란드노총
4 국내 기업복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김유선 이병훈 류만희 인수범	한국노동복지센터
5 노동조합 정책역량 강화 방안 연구	김태현 노광표	한국노동연구원
6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 방향	김영두 인수범 김종진	국회의원 박인상 의원실
7 한국노총 개혁방안 연구	이원보 노광표 임찬영 인수범	한국노총 개혁특위
8 평생교육 제도와 노동교육	김민호 노일경 강연배 박해경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9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박해경 이광석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년

1 대전지역 건설일용노동자의 의식실태 조사	인수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2 구조조정과 사무금융 노동조합 : 실태와 과제	홍주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3 대우종합기계 사무직 노동자 의식 · 실태 조사	홍주환	대우종합기계 사원협의회
4 기아자동차 용역업체 노동자 실태 및 의식 조사	홍주환	기아자동차노동조합
5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김영두 홍주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6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김태현 인수범	국회의원 박인상 의원실
7 한국통신(KT)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김영두 김태현 배규식 홍주환	한국통신노동조합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8 노동조합의 조직개발	박혜경 이광석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9 노동조합 조직개발 및 조직진단 Tool 개발 연구보고서	박혜경 김영두 김승호	한국노동교육원
10 한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김민호 김승곤 이원보 박혜경 이광석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1 임금정책	김유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2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	이병훈 노광표 오건호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년

1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현황활동가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	김유선 홍주환 인수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 화학섬유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김영두 인수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3 보건의료노조의 인사승진정책	인수범 고수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4 금융노조의 활동평가	이원보 박혜경 홍주환 윤효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5 자동차산업의 동향과 전망	김영두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6 한국노총 50년사	이원보 인수범 이광석 윤효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9년

1 동의료원 기구개편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이민영 인수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동의료원지부
2 단시간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 불법·부당노동행위 실태분석과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영 이민영 홍주환	노사정위원회
4 경제위기와 한국노사관계	정이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 손해보험의 연봉제, 노동조합의 대안	이민영 인수범	손해보험노동조합
6 건설산업 노동시간 실태와 개선방향	이민영 홍주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7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윤진호 이병희 채진호 김영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8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선편비보고서	코사투 선편비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9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김금수 정영태 오삼교 이민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 구조조정기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적 개입	김금수 김상조 김영명 김유선 심상정 윤진호 윤효원 이민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1 사회보험 개혁과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 과제	이광찬 원석조 이민영 김영두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12 금속산업 노동조건,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1998년

1 보건의료노조의 임금정책	황덕순 이민영 김영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 건설업의 임금·인사제도 :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3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제목	연구자	발주처
4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	조돈문 이병훈 박준식 장홍근 이민영 이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 독일 건설노조의 정책과 활동	장은숙 편역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 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6 21세기 노동교육	박해경 노광표 윤효원 이현경 손유미	네덜란드노동총, 국제화학에 너지광산일반노련, 국제건 설목재노련, 아태지역본부,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노련 아태지역 본부
1997년		
1 한국통신 조합원 설문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통신노동조합
2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	인수범	국제사무전문노동조합연맹
3 희망찬 21세기를 열기 위한 노동조합활동	이원보 김준 노중기 이민영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4 노동조합과 임금체계 : 연대를 위한 모색	강신중 황덕순 주진우 김영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 세계 자동차산업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운동	이병훈 홍주환 인수범	한국노동연구원
6 병원산업의 신경영전략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	신원철 정창기 인수범	민주노동 전국병원노동조합 연맹
7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혁신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이병희 김영두 홍주환	신용보증기금노동조합
8 환경변화와 대우중공업노동조합의 과제	이원보 황덕순 정재호 이민영	대우중공업노동조합
1996년		
1 노동의 인간화	박준식 정이환 박명준 이민영 인수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 자동차산업 원 · 하청관계와 노동자 간 격차 :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장표 조성재 김승호 김영두 박영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 공기업의 경영혁신 : 노동조합의 대안	김대환 윤건수 윤두섭 서달원 이민영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
1995년		
1 한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정이환 이민영 김영두 인수범 정건화 김유선 주진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 산별노조의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금수 이민영 인수범 정성국 이원보 신원철 오삼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 정부투자기관 임금제도 조사연구 : 임금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원보 김영두 정원호 홍주환 신원철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4 남아프리카 노동운동 :역사와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한국 노동상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록 4] 2) 노동포럼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회차	연도	시기	주제	발표 및 토론	비고
1	1999	4.10	산별노조의 건설	윤진호 최경숙	
2	1999	5.14	경제위기하 노동조합의 개입전략과 추진방식	조돈문 노중기 김태일	
3	1999	6.9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황덕순 김종각 주진우	
4	1999	7.16	99년 상반기 노동운동 투쟁평가	김영대 전재환 정소성 차수련	
5	1999	8.21	노동조합 민주주의	임영일 고영주	
6	1999	9.18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과제	김유선 김형근 김태홍 임미령 최규덕	
7	1999	10.16	노동운동의 발전전망	노진귀 김태현	
8	1999	12.9	세계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이병훈 A.V.Jose	
9	2000	1.30	산별노조의 조직과운영 - 집중성인가 현상성인가	박태주	
10	2000	3월	대우자동차의 진로와 노조의 대응방향	정승일 김기원 조돈문	
11	2000	5월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전병유	
12	2000	6월	덴마크 노동교육의 현황	Flemming Carlsen, Poul Erih Olsen	
13	2000	12월	한국 노사관계 모델과 노동교육의 발전방향	김유선 인수범 박혜경 방기원	
14	2001	6월	정규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연대	김태현	
15	2001	11월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대응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	국제심포지엄
16	2001	12월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조변화와 노조의 대안	박혜경 홍주환	
17	2002	7.19	산별노조운동 - 쟁점과 과제	김득연 김승호 이주호	
18	2002	9.12	미국식 자본주의, 우리의 대안인가?	이찬근	
19	2002	10.25	브라질 대선과 노동자당	오삼교 정영태	
20	2002	11.29	평생교육제도의 노동교육 적용방안	김민호 강연배 이호창	
21	2002	12.16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인수범 김영두 김재우	
22	2003	1.20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과제	김수진 박준식	
23	2003	5.12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윤효원 윤영모	
24	2003	8.20	금속산별 교섭의 평가와 전망	김승호 이주희 박원용	
25	2003	9.5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이호근 송원근 김유선	
26	2003	10.7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평가	김유선 김선수	

회차	연도	시기	주제	발표 및 토론	비고
27	2003	10.31	정보화시대의 노동교육	이광석 홍진관 박찬식	
28	2003	11.25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신광영 김종범 노광표	
29	2004	5.13	4·15 총선과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	김동춘 이상학 이재영	
30	2004	6.12	독일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Manfred Weiss 정원호	
31	2004	7.12	동아시아 지역의 노사관계	이창휘	
32	2004	9.6	일본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와키다 시게루	
33	2004	10.26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광표 홍성호	
34	2004	12.10	노조 조직활동가 훈련체계	강연배 서성철	
35	2004	12.21	작업조직 변화와 노동조합 정책	인수범 이상호	
36	2005	2.24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권혜자 이주희	
37	2005	4.12	한국노동운동의 연대와 정치세력화	은수미 김윤철	
38	2005	5.10	단체협약상의 양성 평등	바바라 슈티글러 김지희 김선희 신경아	
39	2005	5.25	한국의 노동, 과거 현재 미래	발표: 김유선, 토론: 신광영 황기돈 주대환 김지예 김종각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40	2005	10.19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주요쟁점과 과제	이주호 정일부 허인	
41	2005	12.15	지역사회와 노동운동 개입전략	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42	2005	12.28	노동조합 조직효과성과 조합원참여 결정요인	김영두 김승호	
43	2006	2.8	2006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과 전망	배규식 김태현 이용범	
44	2006	3.8	빨간 불 켜진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노광표	
45	2006	6.22	특수고용노동의 법적 문제	김인재	
46	2006	7.13	판도라의 상자, 한미 FTA	정태인	
48	2006	8.23	새 금속산별의 조직체계와 교섭구조	발표: 김승호, 토론: 한석호	
52	2007	1.17	2007년 노사관계 전망	발표: 김태현, 토론: 배규식	
53	2007	3.22	민주노총 직선제 올바른 선택인가	발표: 조효래 토론: 김승호 김명호 김태연	
56	2007	7.25	중앙교섭을 둘러싼 금속노조의 딜레마	발표: 김승호, 토론: 조건준 조성재	
57	2007	8.20	미국 유통업의 변화: 임금, 젠더, 기업전략	크리스 티리	
58	2007	9.12	87년 노동자대투쟁 20년: 산별시대 노동운동 과제	기조강연: 김금수 주제발표: 이병훈 정이환	87년 20주년 기념토론회
60	2007	10.10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 전망	발표: 김연철	
61	2007	10.26	차기 정부의 노동 정책과제	발표: 김태현 이민우 토론: 김유선 임영일	

회차	연도	시기	주제	발표 및 토론	비고
62	2008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2008년 정치경제 전망	발표: 정영태 정태인 토론: 손석준 조원희	
	2008	4.30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것과 살릴 것	발표: 신광영 박상훈, 토론: 이영희 양정주 이수호 전재환 김민영 조희연	창립 13주년 토론회
63	2008	6.27	사회 공공성 투쟁의 오늘과 미래	발표: 오건호, 토론: 정태인 홍주환	
64	2008	9.30	산별노조 시대 노동복지 전략	발표: 유형근 이정봉 토론: 제갈현숙 이주호	
65	2008	10.9	노동운동과 연대	발표: 김영두 인수범 이주환 김승호 토론: 이상우 이남신	
66~68	2008	11.7	현장에서 바라본 경제위기와 그 해법은	발표: 민경웅 정남구 정태인	노동포럼 3회 연속시리즈
69	2008	12.12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토론: 김민영 김유선 김종각 김태현 임영일 임윤옥	
70	2009	3.5	양대 노총의 09년 과제는 무엇인가	발표: 김동만 임성규	
71	2009	3.20	금속노조 완성전략과 09년 교섭 투쟁	발표: 허부영 토론: 오민규 박영기 신성목	
72	2009	6.8	민주노총 사회연대 전략	발표: 한석호, 토론: 오건호	
73	2009	10.30	비정규 고용에 관한 미국 노동법의 쟁점과 내용	발표: 김미영, 토론: 류기락	
74	2009	12.8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발표: 김종진, 토론: 정이환 이남신	
75	2010	1.21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과 노동현장의 대응방향	발표: 김유선 권영국 토론: 박수근 이주호	
76	2010	5.4	노동조합운동의 지방선거 개입전략과 과제	발표: 정영태 하승수, 토론: 김태현 양 정주 정종권 홍영표 홍희덕 김기식	
77	2011	2.18	민주노총 활동가의 눈에 비친 남미 및 유럽노동조합운동	발표: 김태현	
78	2011	3.4	중동에 부는 민주화바람, 노동자의 역할은?	발표: 문이얼 토론: 조일준	
79	2011	3.28	비정규직 조직화 후대에 이은 이대, 연대, 고대 청소 용역투쟁	발표: 유남미	
80	2011	4.11	아시아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천국?	발표: 윤효원	
81	2011	4.25	미국의 노조는 자본에 완전히 투항했나?	발표: 이주호	
82	2011	6.8	경계계가 바라보는 복수노조	발표: 장정우	
83	2011	6.22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발표: 문진규	
84	2011	7.6	경북지역 노동조합의 현황과 전망	발표: 오세용	
85	2011	9.8	재정위기의 본질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발표: 장도중	
86	2011	10.7	금속노조 통합선거 의미와 과제	발표: 박상철	

회차	연도	시기	주제	발표 및 토론	비고
87	2011	11.23	독일자동차산업의 최근노사관계	발표: 만프레드 바뉴펠, 토마스 하이페너, 악셀 하우저-디츠	
88	2011	12.13	한국서비스산업의 고용관계와 노동과정	발표: 김종진, 토론: 조성주 이성종	
89	2011	12.15	노동조합운동과 정당	발표: 김승호, 토론: 허현무	
90	2011	12.21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발표: 김유선 토론: 김태현 이정식 임상훈	
91	2012	2.29	내가 생각하는 진보정당의 방향	발표: 임성규 양경규 이영희	
92	2012	3.14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발표: 유형근, 토론: 조건준	
93	2012	4.26	지역과 산별 사례로 본 4.11 총선에서의 노동정치 평가와 향후 과제	발표: 이주호 강인석 토론: 김윤철	
94	2012	5.23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성찰	발표: 정성희 토론: 이상진 심재욱 한석호	
95	2012	7.26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금속산업 노사관계 전망	발표: 박태주 토론: 허부영 이종탁	
96	2012	10.26	갈림길의 금속노조, 현장에서 돌아보기 - 만도지부 및 SJM지회 투쟁사례	발표: 김창한 조건준 토론: 임영국 공계진	
97	2012	10.31	한국·독일·프랑스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 ①한국, 독일, 프랑스 산별노조의 교섭구조와 조직전략 ②한국 산별노조 쟁점과 과제	발표: 김유선 토마스 하이페터 장 마리 페르노 토론: 코지 모리오카 임상훈 배규식 이병훈 공광규 이정희 나영명 박준형	국제 심포지엄
98	2013	2.27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에 있어서 내부 노동시장의 영향과 노사의 전략적 선택 : 조선맥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박용철	
99	2013	3.27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표: 이정봉 토론: 최창준 류일환	
100	2013	4.25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 손정순 김종진 김선수 토론: 이종훈 은수미 심상정 박지순 유정엽 김태현	
101	2013	7.23	가까이에서 본 독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발표: 박명준, 토론: 이문호	
102	2013	8.21	한국의 임금체계와 대안적 임금체제	발표: 정이환, 토론: 이정식	
103	2013	9.26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와 대안1 - 산업별노조운동과 공공부문노조운동	발표: 이주호 토론: 이주희 박용철	
104	2013	9.30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와 대안2 - 정치세력화와 지역노조운동	발표: 박용석 토론: 이상윤 홍주환	
105	2013	11.28	노조 간부가 꼭 알아야 할 국제노동기준들	발표: 윤효원, 토론: 나현필 정혜원	
106	2014	2.21	통상임금 판정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발표: 김홍영 김유선 토론: 정문주 김은기 공광규 전종덕 공성식 나영명 노재욱 엄교수	

회차	연도	시기	주제	발표 및 토론	비고
107	2014	3.12	의사 파업과 의료 영리화	발표: 우석균, 토론: 김태훈 정재수	
108	2014	4.23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	사회: 임상훈, 토론: 김주일 김준영 심상완 이석행 조성주 조태일	창립 19주년 토론회
109	2014	5.22	민주노조운동 정체성 변동에 관한 연구 - 저항 정체성을 중심으로	발표: 이상학 토론: 한석호 진숙경	
110	2014	6.18	6.4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발표: 박동천 토론: 박승흡 서복경 이병렬 이호	
111	2014	8.21	해외 노동운동 시리즈 - 집단적 노사관계	발표: 손영우 황경진	
112	2014	9.25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깊이 들여다보기	발표: 유형근 김종진 토론: 정준영 하윤정 김지수	
113	2014	10.10	사례로 본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 - 4개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운동 재활성화 방안	발표: 이상학 이주환 토론: 노중기 유형근 조건준	
114	2014	11.19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공적연금의 미래	발표: 이희우 주은선 토론: 은수미 윤석명 오건호 김인재	
115	2014	12.17	2014년 노사관계 평가와 신년 전망		
116	2015	3.17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 및 교섭구조와 발전전략	발표: 이상훈, 토론: 이상학 이주환	
	2015	4.22	노동, 미래를 위한 연대와 전진	발표: 김유선 이병훈 토론: 김태현 노진귀 배규식 정이환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
117	2015	5.27	최저임금과 임금 -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기능과 현실태	발표: 이정아 토론: 김유선	
118	2015	6.26	일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상황과 과제	발표: 간바야시요지 다케노부미에코	
119	2015	7.21	서비스노동자,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발표: 이성종 이만재	
120	2015	8.27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 사례 평가 - 희망연대노조	발표: 김은선, 토론: 김현우	
121	2015	9.23	노사정 합의 평가와 향후 대응 과제	토론: 김선수 김유선 은수미 이주희	
122	2015	10.15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사교섭, 쟁점과 과제	발표: 최병승, 토론: 김철식	
123	2015	12.8	한국 노동시장 어디로 가는가? - 성장체제 전환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발표: 김유선 전병유, 토론: 박수근 임상훈 김진방 김연명 이상호	
124	2016	3.23	독일 사례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일반하고 지침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발표: 황수옥 박은정	
125	2016	4.23	총선 이후 열린 공간과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 김영훈 이병훈 정문주 조성재	
126	2016	5.11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 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	발표: 김유선, 토론: 김영훈 이인영 김성식 이정미 강성태	
127	2016	6.22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 노동자의 경계없는 노동시간	발표: 김기선 주은선	

회차	연도	시기	주제	발표 및 토론	비고
128	2016	8.29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평등 추이	발표: 이철승 토론: 박태주 이주호 조건준	
129	2016	9.30	일·가정 양립의 올가미? - 여성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발표: 신경아 토론: 황수옥 조주은 박찬미 김수경	
130	2016	12.2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모색 - 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	토론: 박태주 배규식 이병훈 김태현 이주희 김유선 김선수	
131	2017	5.30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발표: 오준호, 토론: 제갈현숙 황선자	
132	2017	6.20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조가 나아갈 길	발표: 이병훈 토론: 노중기 조성재 유정엽 박은정	
133	2017	7.12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발표: 이주호 박준형 토론: 강진구 이정희 최재혁	
134	2017	9.15	골리앗, 서른 잔치는 끝났다 - 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 한국노동운동의 현주소	발표: 이원보 유형근 손정순 이주환 토론: 박점규 김진익 김금숙 조성주	87년 노동자 대투쟁 30년 기념토론회
135	2017	11.2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발표: 배규식 토론: 배동산 이찬배 정승국 박대성	

[부록 4] 3) 노동교육 관련 연구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후원*	연구진
1 화학산업 현장활동가 양성 훈련과정	화학산업 현장활동가 양성	1997.1~ 1998.10	ICEM, LO/ TCO, Industrifacket	박해경 노광표 윤효원 최응숙
2 노동교육방법론	한국적 노동교육방법론 개발	1997.3~ 1998.2	FNV, FIET APRO, IFBWW-APRO	박해경 노광표 윤효원 이현경 손유미
3 노동교육방법론 개발 2년차	방법론 개발과 아시아 보급	1999.5~ 1999.12	FNV, ICEM	박해경 노광표 이광석
4 한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노동교육 실태 파악과 발전방향	2000.5~ 2001.1	한국노동교육원	이원보 김민호 박해경 이광석
5 현장활동가 교육훈련 체계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훈련 체계	2000.3~ 2000.12	FES	노광표 박해경 이광석
6 노조간부 역량강화와 교육훈련	산별연맹 채용간부 현황과 역량 개발	2000.3~ 2001.1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호 오건호 노광표 인수범
7 노동조합 조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산별노조의 역동적 조직문화 구축	2001.2~ 2001.11	FES	이광석 박해경
8 전교조 현장활동가 양성 단계별 교육훈련과정 개발	전교조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기획 및 집행	2001.3~ 200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광석 조남규 홍진관 황현수 강성자
9 단계별 노동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노조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기획	2001.9~ 2001.12	한국노동교육원	이원보 이광석 박해경 여상태 이공희
10 평생교육제도의 노동교육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제도적 지원체제 검토와 노동교육 제도화 가능성 및 방안 모색	2002.2~ 2002.12	FES	강연배 김민호 박해경 노일경
11 노동조합 교육담당자 표준 매뉴얼	노동교육의 기본정의와 노동교육의 전 과정 집행 매뉴얼	2002.6~ 2002.12	한국노동교육원	박해경 이광석 노일경
12 정보화시대 노동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 활용 노동교육 현황 파악 및 적용 발전 가능성 전망 모색	2003.3~ 2003.12	FES	이광석 강연배 박해경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후원*	연구진
13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현황 파악, 노동자 대상의 민주주의 교육 영역과 방향 제시	2003.5~ 2003.1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원보 김유선 정민승 박해경 이근수 강연배 최은계
14 노동조합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외국 노조의 조직을 하려대책과 한국 상황파악 및 조직활동가 양성방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시	2004.3~ 2004.12	FES	강연배 권현지 권혜원 서성철
15 노동조합의 조직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노조 조직개발의 필요성과 이론적 기초, 조직진단 기법 개발	2004.10~ 2005.1	한국노동교육원	박해경 김영두 김승호
16 노동조합 교육실태 조사 연구	노동교육의 발전 추세 및 변화 양상 점검과 노동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2005.7~ 2005.11	한국노동교육원	노광표 최용숙 최은계
17 금속연맹 금속노조 교육교재 매뉴얼화	교육 주제별 영역별 교안 수집 편성	2005.7~ 2005.9	전국금속산업 노동조합 연맹 전국금속 노동조합	최용숙 최은계
18 전국교육공무원노조연맹 교육프로그램 설계	공무원노조 특성에 맞는 간부양성 프로그램 개발	2007	전국교육공무원연맹 (노동부 노동단체지원 프로그램)	최은계 이지섭
19 노동사회 아카데미	노조간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진행, 세미나, 노동포럼 공개 강좌	2007	노동부(비영리법인 지원 프로그램)	최은계 김진
20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교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사 단체교섭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8	한국노동교육원	김유선 노광표 최용숙 최은계 견명인

주) FNW: 네덜란드 노총, FIET-APRO: 국제상업사무노련 아태지역본부, IFBWW-APRO: 국제건설목재노련 아태지역본부, ICEM: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 LO/TCO: 스웨덴노동조합 국제협력위원회(LO/TCO Council), Industrifacket: 스웨덴산업노동자노조,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부록 4] 4) 연구소 발간 단행본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저자	발행연도	쪽수
1	노동운동론	김금수	1993	189
2	남아프리카 노동운동 : 역사와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역	1995	94
3	한국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유선	1995	65
4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정이환 정건화 김유선 주진우 김영두 이민영	1996	214
5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금수 이민영 인수범 정승국 오삼교 신원철 이원보	1996	402
6	정부투자기관 임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121
7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노동자간 격차	김영두 박영삼 조성재 홍장표	1997	196
8	노동의 인간화	박준식 정이환 이민영 인수범 박수진 박영준	1997	292
9	21세기 노동교육	박혜경 노광표 윤효원 이현경 손유미	1998	329
10	희망찬 21세기를 열기 위한 노동조합활동	이원보 김준 노동기 이민영	1998	202
11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김영두 윤진호 이병희 채진호	1999	253
12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1999	111
13	전략적 개입 : 구조조정기 노동운동의 대응	김금수 김상조 김연명 김유선 심상정 윤진호 윤효원 이민영 이병훈 이병희 조돈문	1999	300
14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김금수	1999	273
15	셉템버 보고서	COSATU 셉템버위원회	1999	356
16	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	정이환	1999	74
17	간부활동론	김금수	2000	195
18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	김유선 노광표 박혜경 이광석 인수범 홍주환	2000	414
19	노동조합의 조직개발	박혜경 이광석	2001	170
20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	노광표 오건호 이병훈 인수범	2001	219
21	공공부문 노사관계 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김영두 홍주환	2001	192
22	평생교육제도와 노동교육	김민호 노일경 박혜경 강연배	2002	185
23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김영두 인수범 김재우	2002	234
24	외국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교섭	노광표 박장현 인수범	2003	154

번호	제목	저자	발행연도	쪽수
25	정보화시대의 노동교육	이광석 박혜경 강연배	2003	272
26	2004 노동관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244
27	간부활동론(개정판)	김금수	2004	195
28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이해	김종법	2004	204
29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2004	200
30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박혜경 이광석 노광표	2004	216
31	노동조합 조직가 교육훈련	강연배 권현지 권혜원 서성철	2004	146
32	작업조직 변화와 노동조합 정책	인수범 이상호 김영두	2004	140
33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 민주노총 임금정책 방향	김유선	2005	150
34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이원보	2005	432
35	노동조합 효과성과 조합원 참여 영향요인 연구	김승호 김영두	2006	170
36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2006	163
37	한국의 노동 2007	김유선	2007	112
38	거버넌스 구조 변화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홍주환 김현우	2007	140
39	노동운동의 미래의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광표 이명규	2007	184
40	working korea 2007	김유선 지음 윤영모 번역	2008	127
41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전략	김승호 김영두 김종진 유형근 김종진	2008	228
42	산별노조 시대 노동복지 전략	유형근 이정봉	2008	93
43	노동조합 운동과 연대	김승호 김영두 인수범 이명규 이병훈 이주환	2009	152
44	KLSI 고용 지표 : OECD 국가 비교	김유선	2010	108
45	서비스 노동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김종진	2011	186
46	한국 산별노조의 문제진단과 발전방안 : 급속, 금융, 보건의료, 공공노조 사례	이원보 인수범 김종진 이명규 이정봉 김승호 이상훈	2012	359
47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개정증보판)	이원보	2013	464
48	한국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김종진 박용철 박종식 유형근 이상학 이상훈 이정봉 이주환	2015	321
49	한국의 노동 2016	김유선	2015	94
50	생애주기별 여성노동자의 노조 참여 연구	윤정향 황수옥 윤자호	2016	144
51	한국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독일공동결정제도의 발전이 주는 시사점	황수옥 이주환 윤자호	2018	194

[부록 4] 5) 회원총회 개최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횟수	시기	장소	참석자*	주요 의결 안건
1	1995.4.28	서울대 동창회관(서울 마포)	228/128	창립선언문 채택, 정관 제정, 임원 선출
2	1996.5.14	종로성당	284/147 (41+ 106)	일반 안건**, 정관 개정, 이사 보선
3	1997.9.30	송실대 사회봉사관	135/71 (23+49)	일반 안건, 정관 개정, 임원 선출
4	1998.10.12	서울 향린교회	106/101명 (15+86)	일반 안건, 사단법인 설립
5	2000.1.26	연구소 회의실	124/85 (21+64)	일반 안건
6	2001.1.12	연구소 회의실	132/82 (21+61)	일반 안건, 임원 선출 감사 3인
7	2002.1.16	연구소 회의실	137/90 (29+610)	일반 안건, 이사·감사 보선
8	2003.1.21	연구소 회의실	143/102 (16+86)	일반 안건, 정관 개정, 이사 보선
9	2004.2.19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165/108 (18+90)	일반 안건, 임원 선출
10	2005.1.18	연구소 회의실	179/108 (35+73)	일반 안건, 국제정보센터 설립 인준
11	2006.1.17	연구소 회의실	173/116 (30+86)	일반 안건, 임원 선출
12	2007.2.12	연구소 회의실	173/110 (23+87)	일반 안건, 정관 개정
13	2008.2.19	연구소 회의실	157/102 (18+84)	일반 안건, 임원 선출
14	2009.2.10	연구소 회의실	173/116 (37+79)	일반 안건
15	2009.10.26 (임시총회)	연구소 회의실	173/97 (9+89)	정관 개정
16	2010.2.4	연구소 회의실	175/102 (14+88)	일반 안건, 정관 개정, 임원 선출
17	2011.2.16	연구소 회의실	158/93 (20+73)	일반 안건, 이사장 보선
18	2012.2.14	연구소 회의실	171/92 (11+81)	일반 안건, 임원 선출
19	2013.1.29	연구소 회의실	179/106 (23+83)	일반 안건, 소장 보선
20	2014.2.11	연구소 회의실	169/119 (14+105)	일반 안건, 임원 선출
21	2015.2.3	현래장(서울 마포)	148/103 (22+81)	일반 안건, 이사 보선
22	2016.2.16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51/87 (29+58)	일반 안건, 임원 선출
23	2017.2.21	연구소 회의실	126/71 (21+50)	일반 안건

주 *) 참석자는 회원 총수/참석자 총수(참석자+위임자)

주 **) '일반 안건'은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임.

[부록 4] 6) 이사회 개최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주요 심의 안건
1	1995.12.5	연구소	21/13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제정
2	1996.5.14	종로성당	21/15(9+6), 고문4	일반 안건
3	1996.12.18	병원노련 회의실	21/13(9+4), 고문 4, 감사 1	3국연대, 노동법 연구, ILO 자료
4	1997.9.30	송실대 사회봉사관	21/15(7+8), 고문 8, 감사 1	총회 상정 안건
5	1997.12.3	병원노련 회의실	40/24(30+14, 고문 3, 감사 1	일반 안건, 회원 확대
6	1998.9.25	병원노련 회의실	43/25(11+14), 고문 10, 감사 1	일반 안건, 사단법인 설립
7	1998.10.12	향린교회	43/23(12+11), 고문 5	법인 설립, 총회 상정 안건
8	1999.5.28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43/25(13+12), 고문 6	일반 안건, 법인 설립
9	2000.1.26	연구소	50/34(10+24)	총회 상정 안건
10	2001.1.12	연구소	50/33(8+25), 고문 2	총회 상정 안건
11	2001.9.11	사무연맹회의실	50/33(11+22), 고문 2	일반 안건, 예산 항목 조정
12	2002.1.16	사무연맹회의실	50/39(11+28), 고문 2	총회 상정 안건
13	2002.10.1	사무연맹회의실	50/42(13+29), 고문 3	일반 안건
14	2003.1.21	연구소	50/40(11+29)	총회 상정 안건
15	2003.4.29	연구소	50/45(13+32)	일반 안건, 임원(이사장) 보선
16	2004.2.19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51/43(13+30)	총회 상정 안건
17	2004.8.26	연구소	51/42(20+22)	일반 안건, 회원 확대
18	2005.1.18	연구소	51/45(18+27), 고문 4, 감사 1	총회 상정 안건
19	2005.8.30	연구소	51/38(16+22), 고문 2	일반 안건, 부채 상환
20	2006.1.17	연구소	53/40(13+27), 고문 3, 감사 3	총회 상정 안건
21	2006.9.6	연구소	53/43(19+24), 고문 3 감사 1	일반 안건, 운영규정 개정
22	2007.2.13	연구소	53/19+28), 고문 3, 감사1	총회 상정 안건
23	2007.8.27	연구소	53/39(11+28), 고문 3, 감사 1	일반 안건, 임원(이사장) 보선
24	2008.2.19	연구소	41/37(11+26), 고문 1, 감사 1	총회 상정 안건
25	2008.8.28	연구소	41/30(10+20)	일반 안건
26	2009.2.10	연구소	41/35(9+26), 고문 2, 감사 2	총회 상정 안건

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주요 심의 안건
27	2009.8.25	연구소	41/34(9+25)	일반 안건
28	2009.10.26	연구소	41/33(4+29)	일반 안건
29	2010.2.4	연구소	42/36(5+31)	총회 상정 안건
30	2010.8.24	연구소	42/34(14+20)	일반 안건
31	2011.2.16	연구소	42/32(6+26)	총회 상정 안건, 예산 분리
32	2011.8.22	연구소	42/30(11+19), 고문 2	일반 안건
33	2012.2.14	연구소	40/33(10+23), 고문 3	총회 상정 안건
34	2012.8.28	연구소	40/39(11+28)	일반 안건, 운영규정 개정
35	2013.1.29	연구소	40/35(13+22)	총회 상정 안건
36	2013.8.27	연구소	40/30(12+18), 고문 1	일반 안건, 예산 항목 전용
37	2014.2.11	연구소	34/34(8+26), 고문 1	총회 상정 안건, 운영규정 개정
38	2014.8.26	연구소	30/26(13+13)	일반 안건, 예산 항목 전용
39	2015.2.3	현래장(서울 마포)	30/23(14+9), 고문 4, 감사 1	총회 상정 안건, 운영규정 개정
40	2015.8.25	복성각(서울마포)	30/26(13+13), 고문 4, 감사 1	일반 안건, 감사 선임
41	2016.2.16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0/25(14+11), 고문 2, 감사 1	총회 상정 안건
42	2016.8.24	연구소	30/24(14+10), 고문 4, 감사 1	일반 안건, 이사 보선, 예산 항목 전용
43	2017.2.21	연구소	34/24(14+10), 고문 4, 감사 1	총회 상정 안건

주 *) 참석자: 정원/참석자(참석+위임)

[부록 4] 7) 감사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번호	총회 일자	감사 명단	감사일	비고
1	1995.4.28	김경수 천정배	1996.2.12	설립 재정 분계
2	1996.5.14		-	-
3	1997.9.30		1997.9.26	회비 증대, 연구원 급료 인상
4	1998.10.12	천정배 박원순	1998.10.9	수입 확충
5	2000.1.26	천정배 박원순 정태상	2000.1.22	사단법인화 재정 확충
6	2001.1.12		2001.1.11	연구사업 증대 평가, 회비 확충
7	2002.1.16	김형탁 박홍섭 정태상	-	-
8	2003.1.21		2003.1.18	회비 확충, 퇴직금 적립
9	2004.2.19	김형근 박승흡 오길성	2004.2.18	회비 납입 방법 개편
10	2005.1.18		2005.1.13	연구 성과 외화, 회원확대
11	2006.1.17		2006.1.12	예산 항목 통일, 부채 상환
12	2007.2.13		2007.2.5	이사 의무 규정, 재정난 해소 방안
13	2008.2.19		2008.2.14	연구수입 표준 세입 균형
14	2009.2.10		2009.2.3	회비수입 구조개선
15	2009.10.26		임시총회	-
16	2010.2.4		-	-
17	2011.2.16	김형근 이형범 황효진	2011.2.12	퇴직금 지급 기준, 운영비와 사업비 분리
18	2012.2.14		2012.2.6	예산 항목 조정
19	2013.1.29		2013.1.23	적정
20	2014.2.11	이형범 나순자 황효진	2014.2.6	적정
21	2015.2.3		2015.1.21	적정
22	2016.2.16	이형범 나순자 신무	2016.1.22	적정
23	2017.2.21		2017.2.9	적정

[부록 4] 8) 역대 임원진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연도	이사	감사	고문	이사장/소장/부소장
1995	권영길 권용목 김금수 김진균 단병호 박원순 양규현 배석범 이재남 배범식 강희재 김승호 양재덕 이영순 김대환 신인령 전기호 이상수 김지영 박종기 천영세 (21명)	김경수 천정배	이일재 전무배 정도영 김병태 이돈명 김윤환 변형윤 김말룡 권처흥 이소선 (10명)	김진균 김금수 이원보 김대환
1997	강승규 고영구 권영길 김국진 김규철 김금수 김대환 김성태 김승구 김지영 김진균 김형근 남상헌 단병호 박문진 박원순 박종기 박현수 배범식 배석범 배종배 신인령 심일선 양경규 양재덕 오길성 유재섭 이부영 이상수 이영순 이원보 서명관 이형모 장 운 전기호 정갑득 조준호 천영세 추원서 허영구 (40명)	김경수 천정배	이일재 전무배 정도영 김병태 이돈명 김윤환 변형윤 권처흥 이소선 (9명)	김금수 이원보 김대환
1998 (법인)	고영구 권영길 김금수 김대환 이원보 천영세 허영구 (7명)	박원순 천정배		
1998	강승규 고영구 권영길 김국진 김규철 김경수 김금수 김대환 김성태 김승구 김지영 김진균 김형근 남상헌 단병호 박순희 박홍섭 박종기 박현수 배범식 배석범 배종배 신인령 심일선 양경규 양재덕 오길성 유재섭 이갑용 이부영 이상수 이영순 이원보 최문순 장대익 장 운 전기호 정갑득 조준호 차수련 천영세 이용득 허영구 (43명)	박원순 천정배	이일재 전무배 김병태 이돈명 김윤환 박춘 변형윤 김말룡 권처흥 이소선 (9명)	김금수 이원보 김대환 김유선
2000	강승규 고영구 권영길 김국진 김규철 김경수 김금수 김대환 김성태 김승구 김연환 김지영 김진균 김형근 남상헌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상 박종기 박현수 박홍섭 배범식 배석범 배종배 신인령 심일선 양경규 양재덕 오길성 유재섭 이갑용 이부영 이상수 이수호 이영순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장 건 장대익 장 운 전기호 정갑득 조준호 차수련 천영세 최문순 추원서 허영구 (50명)	박원순 천정배 정태상	이일재 전무배 김병태 이돈명 김윤환 박춘 변형윤 김말룡 권처흥 이소선 (9명)	김금수 이원보 김대환 김유선
2002	강승규 고영구 권영길 김경수 김국진 김규철 김금수 김대환 김성태 김연환 김윤백 김지영 김진균 김형근 남상헌 단병호 문성현 박문진 박순희 박원순 박종기 박현수 배범식 배석범 배종배 신인령 심일선 양경규 양재덕 오길성 유재섭 이갑용 이부영 이상수 이수호 이영순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장 건 장대익 장 운 전기호 정갑득 조준호 차수련 천영세 천정배 최문순 허영구 (50명)	김형탁 박홍섭 정태상	이일재 전무배 김병태 이돈명 김윤환 박인상 박춘 변형윤 권처흥 이소선 (10명)	김금수 이원보 김대환 김유선 김태현

연도	이사	감사	고문	이사장/소장/부소장
2004	강승규 객태원 구수영 권영길 김경수 김국진 김규철 김금수 김대환 김유선 김지영 김칠준 김태현 김형탁 남상현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규 박중기 박현수 박홍섭 배범식 배석범 배중배 백순환 신인령 신학림 심일선 양재덕 양형승 윤영규 윤진호 이남수 이병균 이상수 이석행 이수호 이영순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장대익 전기호 정갑득 정이환 정태상 조준호 천영세 천정배 피정선 (51명)	김형근	이일재 전무배 김병태	이원보 김유선
2006	강승규 객태원 구수영 권영길 김경수 김국진 김금수 김유선 김인재 김지영 김태현 김형탁 남상현 노진귀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규 박준식 박중기 박현수 박홍섭 배강욱 배경태 배석범 배중배 신원철 신인령 신학림 심일선 양재덕 양형승 윤진호 이병균 이병훈 이상수 이석행 이수호 이영순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장대익 전기호 전재환 정갑득 정이환 정태상 조준호 천영세 천정배 피정선 홍명옥 (53명)	김형근	이일재 전무배 김병태	이원보 김유선
2008	구수영 권영길 김국진 김금수 김유선 김인재 김지영 김태현 나순자 남상현 노광표 노진귀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규 박준식 박해경 박홍섭 배중배 신원철 양재덕 양형승 윤진호 이병훈 이석행 이수호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이형범 장대익 정갑득 정승국 정이환 정진화 조준호 천영세 피정선 허명구 홍명옥 (41명)	김형근	권처홍 김병태 김경수	남상현 김유선
2010	구수영 권영길 김국진 김금수 김유선 김인재 김지영 김태현 나순자 남상현 노광표 노진귀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규 박준식 박해경 박홍섭 배옥병 배중배 신원철 양재덕 양형승 윤진호 이병훈 이석행 이수호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오동진 정갑득 정승국 정이환 정진화 정진후 조준호 천영세 피정선 허명구 홍희덕 (42명)	김형근	권처홍 김경수 김병태	남상현 김유선 노광표 오동진
2011	구수영 권영길 김국진 김금수 김유선 김인재 김지영 김태현 나순자 남상현 노광표 노진귀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규 박준식 박해경 박홍섭 배옥병 배중배 신원철 양재덕 양형승 윤진호 이병훈 이석행 이수호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오동진 정갑득 정승국 정이환 정진화 정진후 조준호 천영세 피정선 허명구 홍희덕 (42명)	김형근	권처홍 김경수 김병태	이원보 김유선 노광표 오동진
2012	구수영 권영길 김국진 김금수 김유선 김인재 김지영 김태현 나순자 남상현 노광표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규 박준식 박해경 박홍섭 배옥병 배중배 신원철 양형승 윤진호 이병훈 이석행 이수호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오동진 정갑득 정승국 정이환 정진화 정진후 조준호 천영세 피정선 허명구 홍희덕 (40명)	김형근	권처홍 김경수 김병태	이원보 김유선 노광표 오동진 김승호

연도	이사	감사	고문	이사장/소장/부소장
2013	구수영 권영길 김국진 김금수 김유선 김인재 김지영 김태현 나순자 남상현 노광표 단병호 문성현 박순희 박인규 박준식 박해경 박홍섭 배옥병 배종배 신원철 양형승 윤진호 이병훈 이석행 이수호 이용득 이용식 이원보 오동진 정갑득 정승국 정이환 정진화 정진후 조준호 천영세 피정선 허영구 홍희덕 (40명)	김형근 이형범 황효진	권처흥 김영환 박인상 전기호 (11명)	이원보 노광표 전무배
2014	강규혁 구수영 김금수 김남근 김동만 김문호 김선수 김유선 김유천 김인재 김태현 남상현 노광표 박승흡 박인규 박준식 박해경 신승철 신원철 오동진 유지현 윤진호 이병훈 이원보 임상훈 정승국 정이환 정진후 천영세 홍영표 (30명)	나순자 이형범	권영길 권처흥 김경수 김병태 김윤환 김지영 단병호 박순희 박인상 박중기 박홍섭 배종배 변형윤 이수호 전기호 전무배 조준호 (17명)	이원보 노광표
2016	강규혁 구수영 김금수 김남근 김동만 김문호 김선수 김유선 김유천 김인재 김태현 남상현 노광표 박승흡 박인규 박준식 박해경 신승철 신원철 오동진 유지현 윤진호 이병훈 이원보 임상훈 정승국 정이환 정진후 천영세 홍영표 (30명)	나순자 신무 이형범	권영길 권처흥 김경수 김병태 김지영 단병호 박순희 박인상 박중기 박홍섭 배종배 변형윤 이수호 전기호 조준호 (15명)	이원보 노광표 홍주환
2017	강규혁 구수영 김금수 김남근 김동만 김동명 김만재 김문호 김선수 김유선 김유천 김인재 김태현 남상현 노광표 박승흡 박인규 박준식 박태주 박해경 배규식 신승철 신원철 오동진 유지현 이병훈 이원보 임상훈 정승국 정이환 정진후 천영세 홍영표 황기돈 (34명)	나순자 신무 이형범	권영길 권처흥 김경수 김병태 김지영 단병호 박순희 박인상 박중기 박홍섭 배종배 변형윤 이수호 전기호 조준호 (15명)	이원보 노광표

[부록 4] 9) 역대 연구소 구성원

연구소 활동

자료 목록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사장	김진균	김금수							이원보		남상헌			이원보											
소장	김금수	이원보							김유선															노광표	
부소장	이원보 김대환	김대환	김대환 김유선				김대환 김유선 김태현		노광표 박해경	노광표		노광표 이병훈	노광표 이병훈 오동진	노광표	노광표 오동진			홍주환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연구실	이민영				김태현	이민영 권해자		김승호					홍주환			박관성									
	김영두										이명규														
	인수범										박용철														
	박영삼	홍주환			노광표			홍주환 유형근			윤정향														
	오삼교				김종진																				
	권순식 송보화								이정봉		이정봉														
	김현우								김미영		이주환														
																			송민지 전사랑	황수옥 윤자호					
																							정경은 이주영		
	교육실 (교육국)	박해경																							
노광표				강연배																					
윤효원			이광석																						
이현경			최은계																						
편집실 (편집국)					임동수		최용숙		견명인																
					윤효원		양희선		이지섭																
					배지영		이명규																		
정보					박해용 송승현		김진						문진규												
국제					윤영모								윤효원												
사무국 (총무국)	박해경			윤효원			박정심			심종미		양미경		양은숙											
	김희정	이선옥	김채미	최은계		임서영		이명규																	

연표

1986년	4월 26일 한국노동교육협회 설립(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5월 3일 인천 5.3 민주항쟁 사태 발생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직선제 개헌거부 특별담화(4.13 호헌 조치)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 6.29 선언 발표
	7월 5일 현대그룹 울산현대 엔진노동자 101명 노동조합 결성, '87노동자대투쟁 발화 전국 확산시작
	8월 10일 『노동자와 노동조합』 출간
	9월 10일 『노동조합 어떻게 만드는가』 출간
	10월 1일 서울 중구 봉래동 83 광풍빌딩(서울역 앞)으로 사무실 이전
	11월 0일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출간
	12월 14일 마산·창원지역 노동조합총연합 결성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민정당 노태우 당선)
1988년	1월 20일 『노동조합 일상활동 어떻게 하나』 출간
	1월 30일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 출간
	2월 1일 마창노련 임투 공동교육(~2.22)
	4월 26일 제13대 총선거(투표율 75.8%,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
	5월 29일 서울지역노조협의회 결성
	5월 『역사인식의 길잡이』, 『영국노동운동사』, 금속노련 『노동교본』 출간
	6월 10일 회보 『노동조합의 길』 창간
	8월 25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 개소
	11월 10일 『노동조합의 길잡이』 출간
1989년	3월 5일 『노동쟁의 어떻게 하나』 출간
	9월 15일 강사훈련과정 제1기 개설(1999년 말까지 총19차)

	10월 30일 『알기 쉬운 노동쟁의조정법』 출간
1990년	4월 15일 『땅과 집, 그리고 재벌』 출간
1992년	3월 20일 제1회 월례토론회 : 노동조합 조직형태 발전 5월 29일 제2회 월례토론회 :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7월 제3회 월례토론회 :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방향 8월 제4회 월례토론회 : 현장조직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8일 제5회 월례토론회 :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의와 추진방향 11월 11일 제6회 월례토론회 : 대통령선거와 노동운동의 대응
1993년	1월 2일 교육부, 연구부, 총무부로 기구 개편 2월 16일 제7회 월례토론회 : 1993년 임금인상 투쟁의 목표와 방향 3월 3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동 평복빌딩 3층(삼각지)으로 사무실 이전 5월 제8회 월례토론회 : ILO권고와 한국의 노동법 7월 30일 제1차 이사회, 정관 확정, 이사장 이문영, 대표 김금수 선출,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8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8월 31일 제9회 월례토론회 : 1993년 임투 평가와 하반기 과제 9월 17일 제10기 강사훈련과정(~9.19),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10월 23일 제2차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3사분기 사업보고 토론, 4사분기 사업계획 심의 11월 『노동운동론』 출간 12월 7일 제10회 월례토론회 : 1994년도 임금교섭의 방향-공동교섭을 중심으로 12월 18일 기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강사훈련과정 지원활동(~12.20)
1994년	1월 22일 제11기 강사훈련과정 주제 : 94년 임금인상투쟁과 조합원의 역할(송실대 사회봉사관) 4월 『간부활동론』 출간 7월 1일 연구소 설립 논의 10월 25일 협회 이사, 운영위원 합동회의에서 연구소 설립 추진 결정 11월 1일 전국단위 노동조합, 그룹단위 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 및 연구소 설립에 찬동하는 인사를 준비위원으로 선정, 준비위원 수락 요청 11월 1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 준비위원회에 연구소 설립제안서와 준비위원 수락동의서 발송
1995년	1월 5일 중소기업은행노조 간부학습 시작(주1회 총10회) 1월 20일 대우자동차노조 정비지부 노동교실(주1회, 총4회) 1월 21일 제13기 중앙강사훈련(~1.23, 단위노조 간부 40명)

1월 30일	연구소 설립추진 관련, 46명의 조직대표 및 개인 준비위원 수락, 3개 조직대표 참관 희망의견 제시
2월 7일	제1차 연구소 준비위원회(서울 서대문 선교교육원) : 준비위원장(김진균), 공동대표(김진균, 김금수, 천영세, 단병호, 박원순) 선출, 설립취지문 연구소 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 추진 일정 등 심의 의결
2월 11일	대우조선노조 부서집행위원 기획훈련(~2.12)
2월 18일	노동과 건강 연구회 강사훈련 과정(~2.20)
2월 20일	쌍용자동차노조 노동교실 시작(주1회, 총5회)
3월 2일	기아자동차노조 노동교실 시작(주1회, 총6회)
3월 6일	만도기계노조 강사훈련(~3.8)
3월 3일	연구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협회 고문, 이사, 운영위원 및 연구소 설립참여 예상자 등에 연구소 설립 안내문건, 발기인 수락동의서 등 발송
3월 20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1차 모임(연구소)
4월 1일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48 남산빌딩 2층으로 사무실 이전
4월 6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강사훈련(~4.8)
4월 12일	연구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회의 :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설립 일정 등 검토
4월 13일	제2차 연구소 준비위원회(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발기인 모집상황, 사무실 이전, 정관안, 이사진 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창립총회일 등 심의연구소 설립 확정
4월 13일	현대정공 창원노조 교육담당자 훈련(~4.14)
4월 25일	연구소 준비위원회, 발기인 참여 수락 총228명, 연구소 설립 모금액(1차 마감) 44,456,000원
4월 2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대회(서울대 동창회관)
5월 9일	회보 『노동사회연구』 창간, 연구소 개소식(서울 중구 회현동)
5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연구 착수
6월 9일	통일워크숍 간담회(연구소, 통일일꾼)
6월 14일	『남아프리카 노동운동: 역사와 현황』 출간
6월 15일	국제사무노련 한국위원회(FIET-KLC) 여성간부교육(~6.16)
6월 23일	토론회 : 주제 '미국의 노사관계'
6월 28일	국제사무노련 한국위원회(FIET-KLC) 교육담당자 교육(~6.30)
6월 30일	연구소 창립토론회 "세계화와 한국의 노사관계"
8월 18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발전방향" 토론회
8월 21일	국제사무노련 한국위원회(FIET-KLC) 3년 교육평가 워크숍
8월	산별노조 연구 착수(~1996.3)
9월 5일	산별노조 연구 유럽방문 조사를 위한 사전 워크숍(연구소)
9월 9일	산별노조 연구 유럽방문조사단 출국(~10.5)
10월 1일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착수(~1996.2)
10월 4일	만도기계노조 교육위원 교육(~10.6)
10월 30일	기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교육(~11.1)

11월 7일	산별노조 연구 유럽방문조사 결과보고회
11월 8일	한국·브라질· 남아공 노동운동발전을 위한 연구·정보교류 프로그램 1차 회의(~11.9)
11월 10일	민주노총 창립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연세대 노천극장)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연세대 대강당, 866개 노조 41만 여 조합원 대표 366명의 대의원, 국내외국민 500여 명 참석)
11월 12일	민주노총 창립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여의도광장, 7만여 명 참가)
11월 20일	덴마크 일반노조(SID)연수단 연구소 방문(F. Carlsen 외 23명)
11월 22일	연구과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워크숍
11월 25일	제14기 중앙강사훈련(~11.27, 송실대 사회봉사관)
11월 29일	섬유노련 화섬부회 편집 및 컴퓨터교육(~12.1)
11월	한양대병원노조 간부학습(~12월 말, 총8회)
12월 5일	제1차 정기 이사회

1996년

1월 19일	대구 노동정책연구소 강사훈련(~1.21)
1월 25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출간
1월 31일	96년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2월 7일	96년 경제전망 토론회
2월 8일	95년 임투 승리를 위한 제15기 중앙강사훈련(~2.10)
2월 12일	연구소 회계감사
2월 13일	금융노련 여성간부 강사훈련(ILO후원)(~2.15)
2월 26일	만도기계노조 교육위원 교육(~2.29)
3월 12일	한국통신노조 강사훈련(~3.13)
3월	노동의 인간화 연구 착수(~1997.3)
3월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 연구 착수(~1997.10)
3월 27일	한국통신노조 강사훈련(~3.29, 송실대 사회봉사관)
3월 31일	회보 『노동사회연구』 제6호 출간
4월 1일	한국통신 조합원 설문조사(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투쟁 대비)
4월 9일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워크숍
4월 18일	SKM노조간부 및 대의원 수련회
5월 8일	만도기계노조 교육위원 교육(~5.10)
5월 14일	제2차 이사회 및 제2차 정기총회(종로성당, 사업보고, 결산보고, 정관개정, 이사보선, 1997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의결)
5월	정부의 공기업경영합리화 조치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연구 착수(~1996.8)
6월 30일	정책토론회 : 산별노조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3일	도서출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출판 등록(서울 중구청)
7월 11일	신용보증기금 대의원 수련회

9월	3일	만도기계노조 대의원교육(~9.5)
9월	12일	노사관계개혁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제16기 강사훈련 과정(~9.14)
9월	17일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출간
9월	17일	기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교육(~9.20)
10월	3일	김말룡 고문 별세
11월	7일	AMK노조 간부교실(~11.12)
11월	16일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발전을 위한 연구·정보교류 프로그램 참가(~11월)
11월	18일	서울대병원노조 간부학습(매주1회, 총8회)
11월		환경변화와 대우중공업노동조합의 과제 연구 착수(~1997.4)
11월		병원산업의 신경영전략 실태조사(~1997.10)
12월	18일	제3차 이사회 및 송년회(병원노련 회의실)
12월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혁신과 노동조합의 대안 연구 착수(~1997.6)
12월		자동차산업의 경영혁신과 작업장 민주화 연구 착수(~1997.8)

1997년

1월	25일	화학산업노조 교육활동가 워크숍
2월	4일	제1차 월례토론회 : 총파업 투쟁과 향후 과제
3월	1일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의 범주4 회원으로 가입
3월	6일	총파업투쟁과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제17기 강사훈련 과정(~3.8)
3월	19일	만도기계노조 교육위원 교육(~3.20)
3월		서울대병원노조 간부학습(~4월)
3월		노동조합 교육방법론 개발 연구 착수(~1998.2)
3월		기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교육(2박3일)
4월	9일	제2차 월례토론회 :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현황
4월	24일	SKM노조 대의원 간부교육(~4.26)
4월		희망찬 21세기를 열기위한 노동조합활동 연구 착수(~1998.5)
4월		노동조합과 임금체계 연구 착수(~1998.5)
5월	2일	기아자동차 영업지부 교육위원 교육(~5.4)
5월	23일	제1기 화학산업 교육활동가(초급) 훈련과정(~5.25)
5월	25일	국제금융노련(IMF) 제29차 세계총회(~5.30,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대표 파견
5월	26일	아시아 유럽노조 대화 워크숍에 대표 파견(~5.29, 태국 방콕)
6월	18일	제3차 월례토론회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97년 대선
7월	1일	회보 『노동사회연구』를 『노동사회』로 제호 변경, 격월간을 월간으로 확대
7월	3일	신용보증기금노조 간부교육(~7.5)
7월	22일	제4차 월례토론회 : 한반도 정세와 97년 통일 운동의 방향
8월	23일	제5차 월례토론회 : 전환기 남아공의 노동운동

8월	경영합리화와 전문관리직노동조합 연구 착수(~1997.10)
9월 3일	제2기 화학산업 교육활동가 훈련과정(~9.5)
9월 22일	상업연맹 조직활동가 교육(~9.24)
9월 26일	연구소 회계감사
9월 30일	제4차 이사회 및 제3차 정기총회(정관 개정, 임원 선출)
10월 15일	노동조합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교육담당자 워크숍
10월 20일	만도기계 교육위원 교육(~10.23)
10월 23일	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1차 교육담당자 워크숍(~10.25)
10월 26일	국민승리21 본조직 결성식 및 권영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11월 14일	상업연맹 대의원 합동교육
11월 16일	한국 브라질 남아공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연구 정보교류 프로그램 참가(~11.26, 브라질)
11월 18일	제3기 화학산업 교육활동가(초급) 훈련과정(~11.20)
11월 27일	제6차 월례토론회 : 12월 대선과 진보정당 건설의 경로와 과제
12월 3일	제5차 이사회
12월 3일	화학산업 교육활동가 교육 평가 워크숍

1998년

1월 15일	제1기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강좌(3개월간 10회)
1월 20일	임원 신년간담회 및 98신년회
2월 12일	기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교육
2월 18일	제18기 중앙강사 훈련과정(~2.20)
2월 26일	제4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중급) 훈련과정 실시(~2.28)
3월 21일	TRW노조 확대간부교육(~3.22)
3월 24일	인천제철 노조 확대간부 교육(~3.25)
3월 25일	만도기계 교육위원 교육(~3.28)
4월 1일	제5기 화학산업 교육활동가(초급) 훈련과정 실시(~4.3)
4월 14일	제8차 월례토론회 : 산별노조의 현장활동 사례-독일건설노조
5월 21일	아시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교육
5월 29일	한국고속철도공단노조 대의원 교육(~5.30)
7월 8일	제9차 월례토론회 : 외국 사례를 통해 본 노사정 3자 협의의 성격과 전망
8월 7일	흥기운수 학습소모임(~8.9)
8월 23일	국제산별연맹(ITSS) 프로젝트 수립 교육 파견(~8.30, 말레이시아)
8월 26일	제6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초급) 훈련과정 실시(~8.28)
9월 13일	남아공노동교육원(Ditsela) 교육활동가 대회 참가(~9.21,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9월 20일	제2기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강좌
9월 23일	국제노동자교육협회 아태지역 스타디스클 프로젝트 준비회의 참가(~9.26, 필리핀 마닐라)

- 9월 25일 제6차 이사회, 사단법인 설립 추진 의결
- 10월 12일 제7차 이사회 및 제4차 정기총회, 사단법인 설립 결정
- 10월 28일 제7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초급) 훈련과정
- 11월 8일 롽 리스(남아공노총연구소 COSATU NALEDY 연구원) 내방
- 12월 9일 제9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초급) 훈련과정 실시(~12.11)
- 12월 10일 제10차 월례토론회 : 독일노동조합과 정당

1999년

- 1월 1일 『셈템버보고서』 출간
- 1월 19일 제3기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강좌 : 21세기 노동운동을 준비하며(~3.30)
- 1월 28일 Anny(네델란드노총 FNV 국제국장) 내방
- 2월 8일 인도네시아에 노동교육 강사 파견(~2.18)
- 2월 10일 셸리그슨 (국제금융노련(IMF) 국제국장) 외 2명 내방
- 2월 12일 노동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
- 2월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 아태지역 스타디서클 프로젝트 회의(서울)
- 3월 4일 제10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초급)훈련과정 실시(~3.6)
- 3월 12일 스웨덴 노동교육 실태 파악 및 교류촉진을 위한 탐방(~3.19)
- 3월 22일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설 논의 참가
- 3월 31일 제11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초급) 훈련과정 실시(~4.2)
- 4월 3일 사단법인 설립허가증(노동부 제228호) 교부
- 4월 10일 제1차 노동정책포럼 : 산별노조의 건설
- 4월 12일 김정연법률사무소에 사단법인 법원 등기 완료
-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 완료(등기번호 003100, 등록번호 11021-0031006)
- 5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2층으로 연구소 이전
- 5월 10일 아시아지역의 노동교육의 현황교류 및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 5월 11일 제4기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강좌 : 21세기 노동운동을 준비하며(2개월 10회)
- 5월 14일 제2차 노동정책포럼 :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개입전략과 추진방식
- 5월 28일 제8차 이사회
- 6월 19일 제3차 노동정책포럼 :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 7월 16일 제4차 노동정책포럼 : 99년 상반기 노동운동 투쟁평가
- 7월 21일 루이제 하그(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원) 내방
- 7월 23일 주소 이전에 따라 사단법인 이전 등기
- 7월 29일 IFWEA 아태지역 스타디서클 프로젝트 평가회의 참석(~7.31, 필리핀)
- 8월 13일 서대문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음
- 8월 21일 제5차 노동정책포럼 : 노동조합 민주주의
- 8월 25일 제12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중급) 훈련과정 실시(~8.27)

9월 1일	연구소 홈페이지(www.ksli.org) 개통. CUG(나우누리 go KLSI) 개통
9월 15일	아키라 스즈키(일본 호세이대 오히라연구소 연구원) 외 3명 내방
9월 18일	제6차 노동정책포럼 : 단시간근로자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9월 21일	마이크 머피(ICEM 프로젝트개발국장) 내방
10월 1일	히켈(독일 브레멘대 교수) 외 2명 내방(에버트 재단 초청)
10월 13일	제13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중급) 훈련과정 실시(~10.15)
10월 16일	제7차 노동정책포럼 : 노동운동의 발전전망
11월 1일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가입
11월 23일	대만산업총노조 추진위원회 한국방문단 29명 내방
11월 24일	제14기 화학산업 현장활동가(고급) 훈련과정 실시(~10.26)
11월 26일	화학산업 현장활동가 훈련과정 교육평가회
11월 27일	헤닝 칼슨(스웨덴 산업노조 Industrifackett 국제국장) 내방
12월 9일	제8차 노동정책포럼 : 세계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2월 15일	아콕스(스웨덴 금속노조 SMU 국제국장) 내방

2000년

1월 10일	기아자동차노조 교육위원 수련회(교육위원 18명)
1월 11일	연구소 회계감사 실시
1월 14일	대우자동차 교육위원 수련회
1월 18일	제5기 한겨레 노동강좌 개최 : 21세기 노동운동을 준비하며(~2.29)
1월 26일	제9차 이사회, 제5차 정기총회(임원 선출)
1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1월 30일	제9차 노동포럼 : 산별노조의 조직과 운영-집중성인가 현장성인가
1월	한국노총50년사 연구 착수(~2001.1)
2월 8일	택시연맹 산별노조 순회교육(~2.29)
2월 14일	현대자동차노조 강사훈련(2.16)
2월 24일	만도기계노조 강사훈련(2.26)
2월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 연구과제 착수(~2001.1)
3월 23일	LG화학노조 교육
3월 27일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참가(민주노총 등 30여 개 민중 사회단체 구성)
3월	제10차 노동정책포럼 : 대우자동차의 진로와 노조의 대응방향
3월	현장활동가 교육훈련체계 프로젝트 착수(~2000.12)
3월	노조간부의 역량강화와 교육훈련 프로젝트 착수(~2001.1)
4월 1일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 민중대회 참가(민주노총 등 32개 민중시인 단체 참가)
4월 6일	민주택시 핵심간부 순회교육(~2000.5.11)
4월 17일	한국통신 지부장교육(~4.21)

4월	제6기 한겨레 노동강좌 개최
5월 8일	철도비리 척결 및 철도노조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참여(철도노조 직선제 관련 탄압진장 조사 결정)
5월 9일	Willi Hliger(독일 사민당 간부), 한국의 노동자정체세력화 관련 연구차 내방
5월 23일	민주택시노조 선봉대 합숙교육(~5.25)
5월	제11차 노동포럼 :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5월	비정규직 웹진 기획시리즈 착수(~2000.9)
5월	한국노동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프로젝트 착수(~2001.1)
6월 1일	Flemming Carlsen, Poul Eriih Olsen(덴마크 노조운동가), 덴마크 노동교육포럼 진행
6월 13일	신한은행 지부장교육
6월 22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15개 노동시민단체,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6월 26일	한국가스공사노조 간부교육(~6.27)
6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참가(양대 노총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6월 29일	삼성 등 재벌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대위 구성 참가(민주노총, 민교협, 민변 등)
6월 30일	매항리 미국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참가
6월	제12차 노동포럼 : 덴마크 노동교육의 현황
6월	금융노조의 활동평가 연구 착수(~2000.12)
7월 21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8월 23일	남아공 · 브라질 · 한국 3국 노동조합 연대회의(베를린) 대표 파견
8월 23일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 제18차 세계총회 참석(핀란드 헬싱키)
8월 23일	제1기 현대자동차 노동대학원 교육 실시(~8.25)
9월 19일	한국노동교육원 유럽노조 연구사찰단 파견(~9.29)
9월 28일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 국민연대 결성 참여
9월	화학섬유산업 구조조정과 노조의 정책 연구과제 착수(~2001.9)
10월 1일	노동조합 교육체계연구차 스웨덴 덴마크 순방(~10.14)
10월 4일	현대자동차노조 2기 노동대학원 교육(~10.6)
10월 10일	도시철도노조 대의원교육(~10.19)
10월 16일	Erwin Schweisshelm(FES 아시아 국제산별노련 담당자) 내방
10월 17일	Binda Pandney(네팔노총GEFONT 교육국장) 내방
10월 19일	금속노련 산별노조순회교육(~10.24)
10월 29일	연구소 체육대회(서울대 노천극장)
10월	자동차산업의 동향과 전망 연구 착수(~2001.9)
10월	보건의료노조의 인사승진정책 연구 착수(~2001.5)
10월	한국통신(KT)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2002.3)

11월 6일	Peter Schmitt(ICEM 화학산업 담당국장) 내방
11월 7일	Robert Blecker(미국경제정책연구소 EPI), 연구소의 Global Policy Network(GPN) 참가문제 논의
11월 13일	남아공 · 브라질 · 한국 3국 노동조합 연대 회의(서울 개최) 참가자 내방
11월 15일	Joven Mardelang(필리핀 하원 노동위원회 간사) 한국노동법 체계 논의
11월 16일	충북대병원노조 1일 조합원교육
11월 23일	민주화학연맹 현장활동가 교육(~11.24)
11월 26일	ILO 튜린센터 오스트리아노총 방문(~12.9)
12월 16일	전국실업극복단체 연대회의 전국 실업자대회 참가
12월 16일	Wendy Miu(홍콩노총HKCTU 조직국장) 내방
12월	제13차 노동포럼 : 한국 노사관계 모델과 노동교육의 발전방향

2001년

1월 12일	제10차 이사회, 제6차 정기총회, 월간 「노동사회」 통권 50호 발행
1월 27일	Nobert von Hofmann(FES 한국담당관) 내방
1월	대전지역 건설일용노동자 의식실태조사 착수(~2001.3)
1월	구조조정과 사무금융노동조합 : 실태와 과제 연구 착수(~2001.3)
2월 5일	Seng Phally(캄보디아 노동조직(CLO)소장) 외 노조간부 3명 내방
2월 10일	Karl-Peter Thorowaldsson(스웨덴노동자교육협회(ABF) 의장), Ulf Lundgren(국제국장) 내방
2월 27일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 출간
2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2001.11)
2월	노동조합 조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착수(~2001.11)
3월 1일	Global Policy Network 참가
3월 14일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공동투쟁체로 민족 · 자주 · 민주주의 ·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 민중연대(민중연대) 결성 참가
3월 19일	연구소 홈페이지(www.klsi.org) 제2차 개편
3월	대우종합기계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자의식 실태조사 착수(~2001.5)
3월	전교조 현장활동가 양성 단계별 교육훈련과정 개발 연구 착수(~2002.2)
3월 31일	민중연대(준) 주최, 종묘공원 전국민중대회 참가
4월 2일	Elizabeth Cotton(ICEM 교육국장) 내방
4월	기아자동차 용역업체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시작(~2001.5)
5월 7일	제1회 공공포럼 : 공공부문 현황과 발전방향
5월 8일	민주택시노조 강사훈련(~5.10)
5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연구 착수(~2001.9)
6월 3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 기념사업회 상근자 및 각 단체 회원 및 가족 50여 명 체육대회(서울대 노천극장)
6월 11일	ILO국제산별노련 실무자교육프로그램 파견(이탈리아 토리노센터, ~6.22)
6월 12일	한국 · 남아공 · 브라질 3국 연대 프로그램 관련 네덜란드 회의 참가(~6.14)

6월 15일	대우자동차 군산지부 간부교육(~6.16)	
6월	제14차 노동정책 포럼 : 정규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연대	
7월 3일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간부교육(~8.3)	
7월 4일	한국노총 제조연대 교육선전일꾼 교육(~7.6)	
7월	제2회 공공포럼 : 국가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8월 3일	전교조 전국교육담당자 연수(~8.5)	
8월 15일	8.15 민족통일 대축전(-8.21, 평양)	
9월 6일	경기도노조 강사훈련(~9.8)	
9월 10일	Lars Lindstroem(스웨덴 스톡홀름대 정치학과 전임강사) 연구소 상근(~10.18)	
9월 11일	제11차 이사회	
9월 25일	화학노련 지도자훈련과정 제1과정(~9.27)	
9월	제3회 공공포럼 :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 설계	
9월	단계별 노동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착수(~2001.12)	
10월 24일	건설연맹 강사훈련과정(~10.27)	
10월 26일	아시아민중연대포럼,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이 한국민중에 끼친 영향 발표	
10월	한국통신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연구 착수(~2002.3)	
11월 8일	Eddie Webster(남아공 위츠대 교수), Sakehela Buhlungu(남아공 위츠대학교 연구원) 내방	
11월 10일	Kjelt Jakobson(브라질 CUT 국제국장), Alistair Smith(남아공 NALEDI 국제담당), Arokia Dass, Phanom Balue, Warangkana Rattanarat(태국 노동단체 CLISI 소속활동가) 내방	
11월 10일	한국 · 남아공 · 브라질 3국연대-서울 모임	
11월 11일	제15차 노동정책 포럼 :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대응과 노동자 정치세력화(국제심포지엄)	
11월 14일	일본 쟁센 동맹 파견(~11.1)	
11월 21일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간부교육(~12.20)	
11월 25일	ICEM 화학분과 총회 참가(~11.28)	
11월 27일	화학노련 지도자훈련과정 제2과정(~11.28)	
11월 29일	독일기업 BASF 아태지역 노조네트워크회의 참가(~12.4, 싱가포르)	
11월	제4회 공공포럼 :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에 관한 시론	
12월 2일	쌀 수입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반정부화 미국반대를 위한 전국 민중대회 참가	
12월 4일	반민주악법 저지! 파병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 참여(~12.7)	
12월 8일	FNV 주관 Company Monitor회의 참가(~12.13)	
12월	제16차 노동정책 포럼 : ①산별노조 조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②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조변화와 노조의 대안	
<hr/>		
2002년	1월 1일	회보 『노동사회』를 영풍문고, 교보문고, 종로서점 등에서 판매 시작
	1월 16일	제12차 이사회 및 제7차 정기총회(임원 선출)

1월 26일	스웨덴 금속노조 국제국 Bengt Jakobsson, Jan-Ake Olsson 내방
1월 29일	제5차 공공포럼 :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평가와 과제
1월 29일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담당자 교육(~1.30)
2월 22일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 참가(~2.25, 필리핀 마닐라)
2월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연구 시작(~2002.11)
2월	평생교육제도의 노동교육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시작(~2002.12)
3월 4일	현대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교육(~3.7)
3월 15일	나카무라 쓰요시(전일향만노조 오사카 지부) 내방
3월 20일	나카지마 아키야마(일본 렌고 국제국장), 이노구치(지치로 국제국장) 내방
3월 21일	Annie van Wezel(FNV 국제국장) 내방
3월	국민은행 신인사제도 평가와 대응 연구 착수(~2002.4)
3월	네덜란드 기업 노사관계 실태(~2002.8)
3월 30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참가
4월 1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1기(~4. 4)
4월 14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1기(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개최)
4월 17일	제조연대 기본과정 1기 과정(~4.19)
4월 23일	제6차 공공포럼 : 한국통신 민영화와 노조의 대응방향
4월 25일	금융노조 노동대학 합숙교육(~4.27)
4월 25일	일본 렌고, 지치로 초청 방문(~4.28)
5월 3일	ICEM 노동조합 전략기획회의 참가(~5.10, 네팔 가트만두)
5월 9일	Bertil Kristensson(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ABF) 전무) 등 4명 내방
5월	기업복지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착수(~2002.9)
6월 13일	의정부 신효순, 심미선 살인 미군공동대책위원회 참가
6월 20일	제7차 공공포럼 : 공무원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착수
6월 29일	비정규 고용노동자의 권리확보 : 레미콘노동자 투쟁의 교훈과 공동행동의 과제 한일 공동 심포지움 참가(~6.30, 일본 오사카)
6월	노동조합 교육담당자 표준매뉴얼 제작 프로젝트 시작(~2002.12)
6월 30일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참가
7월 2일	연구소 부소장(직대)에 김태현 연구위원 임명
7월 10일	제조연대 기본과정 제2기(~7.12)
7월 12일	IFWEA 주최, 세계화와 노동자교육 세미나 참가(~7.14, 영국 맨체스터)
7월 17일	영국노총 TUC 방문, Tom Jenkins 국제국장 면담, 산하 교육센터 방문
7월 19일	제17차 노동포럼 : 산별노조운동-쟁점과 과제
7월	노동조합 정책역량 강화방안 연구 시작(~2002.10)
8월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시작(~2002.9)
8월	한국노총 개혁방안 조사 연구(~2002.10)

9월 1일	Global Policy Network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참가(~9.5, 태국)
9월 3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제3기(~9.6)
9월 12일	제18차 노동포럼 : 미국식 자본주의, 우리의 대안인가?
9월 13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결성 참여
9월 14일	브라질 노동자당 대선캠페인 참가(~9.22, 브라질 상파울로)
9월 26일	Grigitte Goergen, Marei John(FES 아태지역담당) 내방
10월 1일	제13차 이사회
10월 8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제4기(~10.11)
10월 25일	제19차 노동포럼 : 브라질 대선과 노동자당
10월 30일	연론노조 동아일보 신문인쇄지부 교육(~11.1)
11월 11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 선진국연구시찰단 파견(~11.19, 영국 프랑스)
11월 18일	이랜드 노조 등 노동조합 합동교육(~11.20)
11월 25일	월간 『노동사회』 통권 70호 발행
11월 27일	ILO FES, UNI 공동후원 아시아노사관계대회 참가(~11.30, 필리핀 마닐라)
11월 29일	제20차 노동포럼 : 평생교육제도의 노동교육 적용방안
11월 30일	민중연대 살인미군 철수 소파개정 비정규직 철폐 쟁개방 반대 등 전국 민중 대회 참가
12월 16일	제21차 노동포럼 :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12월 30일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출간

2003년

1월 13일	Jan-Ake Olsson과 Rogern Johansson(스웨덴 금속노조 국제국) 내방
1월 18일	연구소 회계감사
1월 20일	제22차 노동포럼 :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과제
1월 21일	제14차 이사회 및 제8차 총회(정관 개정, 임원 보선)
1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기능 연구 착수(~2003.9)
2월 22일	IFWEA Global Network 지역회의 참가(홍콩)
2월 25일	현대자동차노조 교육위원 교육(~2.28)
3월 18일	노조간부기본과정 57기(~3.21)
3월 25일	제8차 공공포럼 :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3월 25일	김금수 이사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취임
3월 27일	KT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 교육(~3.28)
3월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2003.11)
3월	정보화시대 노동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착수(~2003.12)
4월 1일	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회 설치
4월 2일	대우자동차 대의원교육(~4.3)
4월 3일	전북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 교육(~4.4)

4월 10일	전국 공무원노조 지부장 교육(~4.12)
4월 22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6기(~4.25)
4월 29일	제15차 이사회
4월	대우자동차 노조조직통합 및 정책과제 연구 착수(~2003.10)
4월	노조 선출직간부의 경력경로 연구 시작(~2003.9.)
4월	대우종합기계 매각 및 이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시작(~2004.2)
4월	정보통신산업의 비정규직 실태분석 연구 시작(~2003.11)
4월	벽산건설 구조조정기 노사관계 연구 시작(~2003.12)
4월	저임금노동 실태 및 정책과제(~2003.9)
5월 12일	제23차 노동포럼 :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5월 15일	프랑스 사회당 전당대회 참가(~5.20)
5월 21일	노조간부기본과정 7기(~5.23)
5월 26일	ILO 다국적기업 감시규제 틀 프로그램 참가(~6.6, 이탈리아 토리노)
5월 30일	제9차 공공포럼 : 정보통신산업의 고용관계
5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시작(~2003.12)
5월	국제노동운동의 현황과 새로운 흐름 연구 시작(~2003.12)
6월 1일	정신대문제협의회 관련 ILO총회 참가(~6.12)
6월 16일	신한은행노동조합 간부교육(~6.18)
6월 19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8기(~6.22)
6월 23일	네덜란드 노총(FNV)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모니터 회의(~6.2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6월 26일	SKM노동조합 간부교육(~6.28)
6월	글로벌네트워크 세미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주관 개최
7월 1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9기(~7.4)
7월 19일	현대중공업노조 기획담당자 교육(~7.20)
7월 26일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교육(~7.27)
7월	노조연맹 통합 조사연구 시작(~2003.10)
7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방안 연구 시작(~2003.10)
7월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연구 시작(~2003.10)
7월	노동위원회 50년사 연구 시작(~2003.1)
8월 20일	제24차 노동포럼 : 금속산별 교섭의 평가와 전망
8월 21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교육위원 교육(~8.23)
8월 24일	후주 제조업노조 방문(~9.7)
8월 26일	Carol Philips(캐나다자동차노조(CAW) 국제국 직원) 내방
8월 27일	ICEM 세계총회 참가
9월 5일	제25차 노동포럼 :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9월 23일	노조간부기본과정 10기(~9.26)

9월 24일	일본 제노렌 소속 오다카와 요사카주(전일본공공서비스노조연맹 사무총장) 등 4명 내방
9월 27일	월간 『노동사회』 통권 80호 발간
9월 30일	경기도노조 간부교육(~10.2)
9월	한국의 규제완화 실태 연구 시작(~2003.10)
9월	『노동사회』 편집위원회 재구성
10월 7일	제26차 노동포럼 :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평가
10월 28일	노조간부기본과정 11기(~10.31)
10월 31일	제27차 노동포럼 : 정보화시대의 노동교육
10월	조흥은행 총파업 평가 연구 시작(~2003.11)
11월 20일	매일노동뉴스로부터 총9만3천주(4억6천5백만원) 중 10%인 9,300주(4,650만 원)를 기부출연 형식으로 증여받음
11월 25일	제28차 노동포럼 :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11월 27일	경기도노조 교육(~11.28)
12월 2일	건설운송노조 간부교육(~12.4)
12월 6일	민중연대 서울 등 70여개 시군에서 전국민중대회 개최, 서울대회 참가(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 심판 및 이라크파병반대 등 8대 요구)
12월 9일	노조간부기본과정 12기(~12.12)
12월	금융산별노조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시작(~2004.5)

2004년

1월 14일	Jan-Ake Olsson(스웨덴 금속노조 국제국) 내방
1월 16일	제4차 세계사회포럼(WSF) 참가(~1.19)
2월 9일	제3차 바스프 아태지역노조 네트워크회의 참가(~2.10, 싱가포르)
2월 14일	초대 이사장 김진균 교수 별세
2월 18일	2003년도 회계감사(감사 : 김형탁, 정태상)
2월 19일	제16차 이사회 및 제9차 총회
2월 21일	국제노동자교육협회 아시아 지역회의 참가
2월	공무원노사관계 교섭모델 연구 시작(~2004.5)
2월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착수(~2004.3)
3월 9일	한국노동교육원 노조간부 기본과정 제13기(~3.12)
3월	노동조합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착수(~2004.12)
3월	제약산업 주5일제 개선 및 업종별 교섭(~2004.12)
4월 1일	『간부활동론』 3판 출간
4월 10일	『2004 노동관계법』 출간
4월 14일	대우자동차노조 대의원교육(~4.2)
4월 20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제14기(~4.23)
4월 28일	금융노조 노동대학(~4.29)

4월	자동차산업 작업조직 변화와 노조의 대응정책 연구 시작(~2004.12)
4월	병원산업 주5일제 개선방안 연구 개시(~2004.5)
5월 12일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출간
5월 13일	제29차 노동포럼 : 4·15 총선과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
5월 13일	대학노조 방송통신대 지부 교육(~5.14)
5월 19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제15기(~5.21)
5월 27일	공무원노조 신입 신생지부장 교육(~5.28)
5월	자활사업 발전방안 연구 시작(~2004.10)
5월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 평가 연구 시작(~2004.9)
5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노조의 정책방안 연구 시작(~2004.7)
5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현황조사 착수(~2004.8)
6월 12일	제30차 노동포럼 : 독일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노동
6월	제조업 공동화와 노동의 대응 연구 시작(~2004.11)
6월	고용환경변화와 노조의 대응 시작(~2004.11)
6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방안 연구 시작(~2004.10)
7월 12일	제31차 노동포럼 : 동아시아지역의 노사관계
7월 13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제16기(~7.16)
7월 24일	칩팩코리아노조 상집대의원 교육(~8.25)
7월 28일	『노동사회』 통권 90호 발간
7월	하나은행의 직무성과급제 및 여직원제 개선 연구 개시(~2004.8)
8월 1일	사무실 임대채계약(계약기간 ~2005.1.31. 106명 보증금 8천5백만원, 임차료 1,588,000원, 관리비 1,082,800원)
8월 26일	제17차 이사회
8월 31일	『이탈리아노동운동의 이해』 출간
8월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연구 개시(~2004.12)
9월 6일	제32차 노동포럼 : 일본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9월 13일	참여교육 전문강사 과정 제1기(~9.17)
9월 20일	금융노조 노동대학(~9.22)
9월	벽산건설노조 정책방안 연구 시작(~2005.2)
9월	미은행 파업평가 연구 개시(~2005.1)
9월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평가 연구 시작(~2004.12)
10월 12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제17기(~10.15)
10월 26일	제33차 노동포럼 :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10월	노동조합의 조직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시작(~2005.1)
10월	만도기계 직급체계 개편 연구 개시(~2005.2)
11월 5일	“한국노동운동사-역사의 현장과 증언” 강좌 개설

12월 10일	제34차 노동포럼 : 노조 조직활동가 훈련체계
12월 21일	제35회 노동포럼 : 작업조직 변화와 노동조합 정책
12월 27일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출간
12월 28일	『노동조합 조직가 교육훈련』 출간
12월 30일	『작업조직 변화와 노동조합 정책』 출간

2005년

1월 9일	금속연맹 국제노동기구 운수장비업종 회의 참가 지원(스위스 제네바)
1월 13일	연구소 회계감사 실시
1월 14일	대우자동차노조 교선위원수련회(~1.16)
1월 15일	금속노조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 사업단 스웨덴 연수 지원 참가(~1.22)
1월 18일	제18차 이사회 및 제10차 총회 : 국제정보센터 설립 인준
1월 30일	현대자동차노조 간부 스웨덴 연수 지원 참가(~2.4)
2월 24일	제36차 노동포럼 :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3월 1일	사무실 임대재계약 (계약기간 ~2007.2.29, 106평, 보증금 1억1천8백만원, 임차료 2백만 원, 관리비 95만 4천 원)
3월 8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18기(~3.11)
3월 29일	국제금속노련 아태총회 참가 지원(~4.1, 태국 방콕)
3월	외국인력 정책 및 취업교육 실태의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 시작(~2005.7)
4월 12일	제37차 노동포럼 : 한국노동운동의 연대와 정치세력화
4월 12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19기(~4.15)
4월	노동조합 운영과 조직효과성 연구 시작(~2005.11)
4월	성모자애병원 경영분석 착수
4월	한국의 사용자단체 연구 시작(~2005.11)
4월	서비스종사자의 감정노동 연구(~2005.11, 상록파크랜드)
4월	GM대우자동차 노사관계 연구 착수(~2005.12)
5월 1일	ILO 동아시아 사무국에서 윤영모 국제정보센터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 -ILO 몽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지원사업 참가
5월 10일	제38차 노동포럼 : 단체협약상의 양성 평등
5월 2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기념토론회 주제: 한국의 노동, 과거 현재 미래 * 기조연설: 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 * 주제발표: 한국의 노동-진단과 과제 * 기념 리셉션: 월간 『노동사회』 통권 100호 CD 증정 * 『한국노동운동사-100년의 기록』 출간
5월	지역사회와 노동운동 연구 시작(~2005.10)
5월	노동조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연구 착수(~2005.11)

5월	부천지역 몰드밸리 등 테크노밸트 형성에 따른 중소기업 훈련수요 현황과 인적자원 수급원활화 정책과제 연구 착수(~2005.11)
5월	외투기업의 노동고용실태 및 인사 노무관리 연구 착수(~2005.12)
5월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조직화 문제(~2005.12)
6월 14일	제39차 노동포럼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동기부여 과정
6월 14일	Focus on the Global South 이사회 참가(~6.16, 태국 방콕)
6월 14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20기(~6.17)
6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대응 및 지배구조 개선 연구(~2005.11)
6월	보건의료노조 산별임금체계 연구 착수(~2005.8)
6월	공공기관 이전 갈등에 따른 조정방안 연구 시작(~2005.9)
6월	노동행정사-노동위원회 연구 시작(~2005.11)
6월	산재의료관리원 직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작(~2005.12)
7월 9일	대우자동차노조 소위원회 수련회(~7.10)
7월 11일	연구소 상반기 사업평가 모임
7월	단체교섭 구조 개선방향 연구 착수(~2005.8)
7월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착수(~2005.12)
7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실태조사 착수(~2005.12)
7월	노동조합 교육실태 조사 연구 착수(~2005.11)
7월	금속연맹 금속노조 교육교재 매뉴얼화(~2005.9)
8월 1일	동아시아 노사관계 정보축적공유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가(~2006.7.31)
8월 30일	제19차 이사회
9월 6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21기(~9.9)
10월 6일	LG화학 여· 주· 노조 조합원교육(10.10, 10.13, 10.14, 10.18, 10.21)
10월 19일	제40차 노동포럼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주요쟁점과 과제
10월 25일	국제금속노련 아태지역 자동차회의 참가(~10.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0월	벽산건설 아웃플레이스먼트 사례 연구 착수(~2006.2)
10월	민주노총 조직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2005.12)
11월 8일	Paulien Osse(네덜란드 임금지표 재단의 사무국장) 방한, 임금지표 사업관련 간담회 -워크숍-계약체결(~11.10)
11월 25일	LG석유화학노조 조합원 교육(11.30, 12.2, 12.6)
11월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 의식조사 착수(~2005.12)
12월 5일	한국노동교육원 노조간부 기본과정 22기(~12.9)
12월 15일	제41차 노동포럼 : 지역사회와 노동운동 개입전략
12월 26일	연구소 하반기 사업평가모임
12월 28일	제42차 노동포럼 : 노동조합 조직효과성과 조합원참여 결정요인
12월 29일	정보통신부 설치

2006년

1월 12일	연구소 회계감사
1월 17일	제20차 이사회 및 제11차 정기총회(임원 선출)
1월 18일	대학노조 국립대본부 교섭위원 1차 교육(~1.20)
1월	기아자동차노조 산별전환을 위한 연구 착수(~2006.9)
1월	서울지역 노사정협력모델 연구 착수(~2006.3)
1월	부천시 금형조합 인력구조 실태조사 연구 시작(~2006.4)
2월 8일	하이트맥주노조 상집간부 교육(~2.10)
2월 8일	제43차 노동포럼 : 2006년 노사관계 주요쟁점과 전망
2월 15일	하이트맥주노조 대의원 교육(~2.17)
2월	브라질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 비교 연구 착수(~2006.3)
2월	국가경쟁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 시작(~2006.7)
3월 1일	연구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로그인제 도입
3월 6일	고령화 저출산 연석회의 해외연수 지원(~3.10,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3월 6일	아시아 2015 회의 : 성장추진 빈곤중심 회의 참가(영국 런던)
3월 8일	제44차 노동포럼 : 빨간 불 켜진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3월 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 교육(~3.24)
3월	제2기 노동사회 편집위원회 운영(노동운동 시민운동 활동가 15명)
3월	캐리어노동조합 정책연구 착수(~2006.5)
3월	한국 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정책연구 시작(~2006.6)
4월 18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23기(~4.21)
4월 25일	Global Policy Network(GPN) 아시아워크숍 참가(~4.28, 인도 뉴델리)
4월 26일	GPN 운영위원회 참석(인도 뉴델리)
4월	보육 사회복지 자활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 시작(~2006.7)
4월	부천시 지역 전기산업 고용수급 활성화정책 연구 시작(~2006.10)
4월	세계화와 국제이주-한국의 이주정책 방향 연구 시작(~2006.11)
4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 착수(~2006.11)
4월	거버넌스 구조면화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 시작(~2006.11)
4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시작(~2006.11)
5월 23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24기(~2006.5.26)
5월 26일	스웨덴 금속노조 위원장(스테판 뢰프벤) 연구소 방문
5월	수협중앙회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시작(~2006.7)
5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 시작(~2006.11)
6월 22일	제45차 노동포럼 : 특수고용노동의 법적 문제
7월 3일	연구소 상반기 평가 워크숍 개최
7월 10일	ILO의 동아시아 지역국의 단체교섭 제도와 관행 분쟁해결 제도, 사회적 대화 제도와 관행 연구 중간점검회의 참가(~10.15, 태국 방콕)

7월 13일	제46차 노동포럼 : 판도라의 상자, 한미FTA
7월 20일	제47차 노동포럼 :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를 통해 본 한국적 사회적대화의 가능성과 과제
7월 21일	연구소 내부 공간 재배치
7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비판 연구 시작(~2006.8)
7월	주요국의 노사발전재단 사례연구 시작(~2006.8)
7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사관계 연구 시작(~2006.11)
7월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시작(~2006.11)
8월 22일	기아자동차노동대학(~11.4)
8월 23일	금융노조 노동대학(~8.25)
8월 23일	제48차 노동포럼 : 새 금속산별의 조직구조와 교섭구조
8월 30일	함평군 공무원노조 기획교육(~9.1)
9월 6일	제21차 이사회 개최
9월 19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26기(~9.22)
9월 21일	연구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9월	전력산업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시작(~2006.11)
9월	금융산업 조직통합과 노사관계 변화 연구 시작(~2006.11)
9월	주요국의 취약계층 고용촉진 정책 연구 시작(~2006.12)
9월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시작(~2006.12)
9월	공무원노사관계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 연구 시작(~2006.12)
9월 30일	국제노동조합연구네트워크(Global Union Research Network, GURN)사회 보장정책 워크숍 파견 참가(~10.6, 포르투갈 리스본)
10월 24일	국제노동자교육협회연맹-글로벌네트워크(IFWEA-GN) 아시아지역 회의 주최(~10.26)
10월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수요조사연구 시작(~2006.12)
10월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현황 분석 시작(~2006.12)
10월	노사관계 소통 저해요인 분석 착수(~2006.12)
11월 8일	제49차 노동포럼 : 브라질 플라정부 4년 평가 및 과제
11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교육(~11.16)
11월 20일	네덜란드 임금지표재단과 한국임금지표 사업 중단 합의
11월 21일	노조간부 기본과정 28기(~11.24)
11월 23일	제50차 노동포럼 :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1월	화이트칼러 미조직노동자 고용환경 및 노조의식 연구 시작(~2006.12)
11월	주요국 노동조합연맹의 규약 분석 시작(~2006.12)
12월 15일	2006년 평가 및 2007년 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워크숍
12월 18일	증권노조 여성위원회 해외조사연구(영국 Amicus노조) 지원(~2010.2.4)
12월 20일	제51차 노동포럼 : ①기업의 사회적 책임, ②공공부문 거너년스 변화와 노사관계 재편
12월	독일 미국 자동차산업 단체협약 분석 시작(~2007.2)
12월	노동운동의 지역개입전략 연구 시작(~2007.4)

2007년

1월 29일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기획교육(~1.31)
1월 31일	방송통신대 노조간부 기획교육(~2.2)
1월 31일	Tony Avirgan(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GPN 코디네이터) 방문 및 간담회
1월	민간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체계 및 평가기준의 적합성 조사 착수(~2007.6)
2월 5일	연구소 회계감사 실시
2월 6일	하나은행노조 상집간부 기획교육(~2.27)
2월 12일	제22차 이사회 및 제12차 총회 개최(체계 개편-사무국장제 폐지, 연구실·기획실 편제)
2월	연구소 기본사업 "노동운동 활성화 전략" 연구 내부 세미나(1년) 진행
3월 2일	연구소 기획실 신설(교육국, 편집국, 총무국, 정보통신국) 및 인사 발령
3월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기획교육(~3.14)
3월 22일	제53차 노동포럼 : 민주노총 직선제 올바른 선택인가
3월	주요선진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국제기구 제소 등 관련사례와 대응경험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착수(~2007.10)
4월 17일	노조간부기본과정 30기(~4.20)
4월	하나은행 인사제도 관련 전 직원 의견조사 착수(~5.7)
4월	산별교섭구조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착수(~6.30)
4월	보건의료노조 직종 및 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조건 및 고용실태 조사 착수(~2007.7)
4월	산별노조시대 고용 임금 복지 연대전략 연구 시작(~9.30)
4월	Labor Movement Revitalization 연구 착수(~2007.10)
4월	Working Korea 연구 착수(~2007.10)
4월	산업별노조와 직업능력개발(~2007.12)
5월 15일	노조간부기본과정 31기(~5.18)
5월	비자발적 이직자 중 구직급여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실업급여제도 개선 연구 시작(~9.30)
5월	IMF이후 10년, 금융노조 백서사업 시작(~2007.10)
5월	SC제일은행, IMF10년 외자금융기관 노사관계 연구 시작(~11.30)
5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규모추이와 일자리 이동 분석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 정책 방안 연구 시작(~11.30)
5월	산별노사관계와 사회적 파트너십 연구 착수(~12.21)
6월 8일	우리은행노조 여성위원 기획교육(~6.9)
6월 15일	금융경제연구소 주최 IMF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 IMF 이후 노사관계 변화와 FTA 시대 노동의 과제
7월 13일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제1기 학습 시작
7월 20일	연구소 상반기 워크숍(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수립)
7월	진로기업 인수합병 이후 조직문화와 노사관계 진단 착수(~2007.11)
7월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연구 시작(~12.10)
7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연구 시작(~2007.12)
7월	참여와 혁신을 위한 노사관계 진단 매뉴얼 개발 착수(~2008.1)

7월	공공부문 노조조직현황 및 단체교섭 실태조사 착수(~2008.2)
8월 20일	크리스탈리(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 발표(주제: 미국 유통업 현황)
8월 27일	제23차 이사회 개최
9월 12일	〈87년 노동자대투쟁 20년: 산별시대 노동운동 과제〉 토론회 * 기조강연 : 김금수 명예이사장 * 주제발표 : ①한국 산별임금체계 ②한국 산별노동조합운동의 과제
9월 17	일교육기관공무원연맹 기획교육 1기(~9.19)
9월 28일	하나은행노조 상집간부 기획교육
9월	지역단위 노사협력 연구 착수(~12.21)
9월	서울시 공무원 노사관계 진단 연구 시작(~2008.2)
9월	ILO 지역 최저임금 연구 시작(~2008.7)
10월 10일	교육기관공무원연맹 기획교육 2기(~10.12)
10월 23일	교육기관공무원연맹 기획교육 3기(~10.25)
11월 7일	교육기관공무원연맹 기획교육 4기(~11.9)
11월 13일	〈화요노동강좌〉 진행(~12.4)
11월 27일	노조간부기본과정 32기(~11.30)
11월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연구 시작(~2008.1)
12월 13일	〈호주 노사관계법 개악과 호주노총의 대응〉 워크숍 -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작 - 노동사회 아카데미; 노동조합 정파의 이면, 힘 또는 독? - 노동사회 아카데미; 사회적대화, 전략적 개입인가, 노동포섭인가? - 노동사회 아카데미;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 - 노동사회 아카데미; 전환기를 겪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적 좌표

2008년

1월 31일	제62차 노동포럼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2008년 정치경제 전망
1월	전기요금고지서 우편송달 및 제한경쟁입찰 시행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시작(~2008.5)
2월 15일	장기투쟁사업장 자원활동 돌입
2월 19일	제24차 이사회 및 제13차 총회 개최
2월 27일	『한국의 노동 2007』 영문판 발행
2월 28일	장기투쟁사업장 자원활동(기릉전자노조 : 3.28-6.12, 17회 참가)
2월	강원랜드 서비스 감정노동관련 정책마련 연구 시작(~2008.6)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 비정규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참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투쟁문화제 지원활동
3월	연구소 연구기본과제 "노동운동과 연대" 세미나 진행
3월	간접고용노동자 실태 연구 착수(~2008.7)
3월	경마산업 운영시스템 개혁방안 연구 시작(~2008.8)
3월	금융지주회사의 노사관계 연구 착수(~2008.8)

3월	노조간부기본과정 제3기
4월 28일	교육연맹 교섭위원 기획교육(~4.30)
4월 30일	창립 13주년 토론회 "노동자정치세력화 버릴 것과 살릴 것" 개최
4월	건설산업 임금체계 실태조사 착수(~2008.8)
4월	복지서비스부문 노동자 실태조사 및 조직화사업 연구 착수(~2008.8)
4월	비정규직 조직화활동 사례 분석 착수(~2008.9)
4월	노동조합운동과 연대 연구 시작(~2008.9)
4월	산별노조시대의 노동복지 전략 연구 시작(~2008.9)
4월	노조간부기본과정 3기
5월 2일	회보 『노동사회』 표지 개편
5월 9일	KTX 투쟁 800일 문화제 등 참가(~5.22)
5월 30일	기륭노조 고용노동성장 추분문화제 참가(5.31~6.7 4회)
5월	금속산업 임금구조와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2008.9)
5월	노동조합의 지역복지체계 참여방안 연구 시작(~2008.10)
5월	외국산별노조의 임금정책 및 임금인상요구안의 결정기준 연구 착수(~2008.10)
5월	전교조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 비교 연구 시작(~2008.11)
5월	공무원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전략 연구 착수(~2008.12)
5월	노동운동 리더십의 실태와 발전방안 정책연구 착수(~2008.12)
6월 2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조 기획교육(~6.4)
6월 9일	백만 촛불을 지키는 문화예술행동 참가
6월 12일	기륭전자노조 단식농성장 문화제 참가(~12.26, 29회 참가)
6월 27일	제63차 노동포럼 : 사회공공성 투쟁의 오늘과 미래
6월	공공부문 조직현황 및 단체교섭연구 II 시작(~2008.12)
7월 4일	우리은행노조 여성위원 기획교육(~7.5)
7월 22일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철폐의 날 참가
7월	작업장 감시장치 연구 시작(~2008.12)
8월 18일	"연구소 발전방안 대책TF" 구성
8월 28일	제25차 이사회 개최
9월	연구소 회원 확대 사업("함께하는 노동운동 희망 만들기") 진행
9월 18일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자료교류 협약서" 체결
9월 19일	〈민중의 소리〉와 콘텐츠 제휴 협약서(MOU) 체결
9월 23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2차 행동 참가
9월 27일	부산교육청 공무원노조 기획교육(~9.28)
9월 30일	강남성모병원 투쟁문화제 참가(11.4, 11.18, 12.2)
9월 30일	제64차 노동포럼 : 산별노조 시대 노동복지 전략

10월 9일	제65차 노동포럼 : 노동운동과 연대
10월 12일	연구소 워크숍 개최(~10.13)
10월 21일	콜트지원문화제 참가(~11.8, 12.9~14)
10월 24일	연구소 동향 웹 메일 회원 발송 시작
10월 25일	영등포산업선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참가
10월	현대그룹 노사관계 사례연구 시작(~2008.11)
10월	산별협약 효력확장 연구 시작(~2008.12)
10월	비정규직 투쟁사례 연구 시작(~2009.2)
11월 7일	제66차 노동포럼 : 현장에서 바라본 경제위기와 그 해법은
11월 11일	제67차 노동포럼 : 현장에서 바라본 경제위기와 그 해법은
11월 17일	제68차 노동포럼 : 현장에서 바라본 경제위기와 그 해법은 - 미국 금융위기와 한미 FTA 그리고 대안
11월	교원 임금교섭 실태 및 임금교섭구조 개선방안 연구 시작(~2009.4)
11월	민주노총 지역조직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시작(~2009.4)
12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연구 시작
12월 12일	제69차 노동포럼 :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12월 12일	인천지역 투쟁사업장 하루주점 지원활동
12월 15일	연구소발전방안TF 최종보고서 채택
12월 24일	국가인원위원회와 간담회 진행
12월 27일	비정규직 철멸 촛불문화제 참가
	교육실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교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착수

2009년

1월 5일	『산별노조 시대 노동복지 전략』 출간
1월 12일	제11차 노동사회 편집위원회 개최(2.2, 3.16, 4.13, 5.11, 6.15, 7.11 17차 회의 진행)
2월 3일	연구소 회계감사
2월 10일	제26차 이사회 및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3월 5일	제70차 노동포럼 : 양대노총의 2009년 과제는 무엇인가
3월 11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남부지역 간부 기획교육(~3.12)
3월 1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남부지역 간부 기획교육(~3.19)
3월 20일	제71차 노동포럼 : 금속노조 완성전략과 09년 교섭 투쟁을 위한 현장토론회
3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전문과정 1기(~3.25, 경북 경남)
3월 25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 간부 기획교육(~3.26)
3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전문과정 2기(~4.1, 중앙행정부, 충청)
3월	공공부문 행정인턴제도 실태분석 착수(~2009.5)
3월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연구 시작(~2009.8)

3월	전교조 조직진단 연구시작(~2009.9)
3월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 변화 연구 시작(~2009.10)
4월 6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전문과정 37기(~4.8, 전북 전남)
4월 7일	김금수 선생과 함께하는 노조간부 학습모임 1기(~6.16, 총10회)
4월 15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전문과정 47기(~4.17, 서울, 경기)
4월 28일	연구소 업무 공간 축소(~4.29)
4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연구 시작(~2009.6)
4월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연구 시작(~2009.9)
4월	비정규고용에 관한 고용 노동 사회보장법제 연구 시작(~2009.9)
5월 6일	공무원노조 지부 간부교육(~5.8)
5월	사회적 기업 노동 실태 연구 시작(~2009.10)
6월 일	제72차 노동포럼 : 민주노총 사회연대 전략
6월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후원 "연구소에 날개 달아주기" 행사 <우리 안에 미래가 있다> 개최 (서울 철도 웨딩홀)
6월	벽산건설 노동조합 정책개발 연구 시작(~2009.10)
6월	가사근로 및 돌봄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작(~2009.12)
7월 7일	한국노총 강사양성 교육(~7.10)
7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노조의 대응방안 연구 개시(~2009.9)
8월 25일	제27차 이사회 개최
8월 30일	연구소 내부 워크숍 개최(~8.31)
9월 15일	김금수 선생과 함께하는 노조간부 학습모임 27기(~11.29, 총10회)
9월 25일	민주금융노조 교섭위원 교육(~9.26)
9월	SC제일은행 경영 및 노사관계진단 직원의식조사 착수(~2009.11)
10월 18일	회원과 함께하는 건강 산행(북한산)
10월 26일	제28차 임시이사회 및 제15차 임시총회 개최(정관 개정)
10월 30일	제73차 노동포럼 : 비정규고용에 관한 미국의 고용 및 노동법제 내용과 쟁점
11월 20일	연구소 내부워크숍(2010년 운영방향)~11.21)
12월 2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공청회
12월 8일	제74차 노동포럼 :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12월 14일	한경비즈니스(제732호), 연구소를 "한국의 싱크탱크 여성/노동분야 5위"로 발표(2008년 8위)
12월 21일	연구소 내부 워크숍
<hr/>	
2010년	1월 1일 회보 『노동사회』(150호)를 월간에서 격월간으로 발간
	1월 21일 제75차 노동포럼 :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과 노동현장의 대응방향
	1월 21일 <이슈페이퍼> 『개정 노동조합법 평가와 대응방향』
	2월 1일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전임자관련 개정 법안, 쟁점과 평가』

2월 4일	제16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 이사회
2월 25일	〈이슈페이퍼〉『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정책 평가』
3월 22일	〈이슈페이퍼〉『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3월 29일	〈이슈페이퍼〉『10대 청소년 노동실태』
3월	하나은행노조 설문조사 분석 착수(~4.9)
3월	만도기계 월급제 방안 연구 시작(~9.30)
3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조의 조직기반 변화에 관한 연구(~8.3)
3월	KLSI 고용지표-OECD 국가 비교(~2010.11)
3월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연구 착수(~2010.11)
4월	보건의료산업 직종연구 착수(~2010.8.31)
4월	베이비붐세대의 대량퇴직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정책과제(~2010.12)
5월 4일	제76차 노동포럼 : 노동조합운동의 지방선거 개입전략과 과제
5월 10일	〈이슈페이퍼〉『최저임금제 개혁을 위한 국제연대운동과 그 시사점』
5월 20일	금융노조50년 백서 연구 시작(~7.20)
5월	하이트맥주 조직문화와 노사관계 진단(~2010.7)
6월 14일	〈이슈페이퍼〉『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년 3월 경찰부가조사 결과)』
7월 19일	민주택시노조(인천) 근로실태조사 착수(~11.15)
7월 21일	베트남 노사정 방문단 내방
7월 27일	〈이슈페이퍼〉『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8월 24일	제30차 정기이사회
8월 27일	연구소 내부 워크숍(~8.28)
8월 31일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조사(퀵서비스)(~9.30)
10월 5일	일본 전노련 비정규직 대책 방문단 내방
10월 28일	연구소 내부 워크숍(~10.29)
10월 24일	OECD 국제 비교연구 착수(~12.23)
10월 24일	주40시간 실태 연구 시작(~12.23)
10월	노동교육 발전방향 연구 시작(~2011.1)
11월 4일	〈이슈페이퍼〉『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년 8월 경찰부가조사 결과)』
11월 11일	아시아 유럽 연구기관 연대포럼 참가(~11.12)
12월 28일	『KLSI 고용 지표 : OECD 국가 비교』 출간
12월	우리은행노동조합 조직운영과 과제
<hr/>	
2011년	1월 11일 이돈명 고문 별세
	2월 12일 연구소 회계감사
	2월 16일 제31차 정기이사회, 제17차 정기총회

2월 18일	제77차 노동포럼 : 민주노총 활동가의 눈에 비친 남미 및 유럽노동조합운동
2월	서비스산업 고용관계와 노동과정 연구 시작(~2011.11)
2월	노동조합과 정당 연구시작(~2011.11)
3월 4일	제78차 노동포럼 : 중동에 부는 민주화바람, 노동자의 역할은?
3월 28일	제79차 노동포럼 : 비정규직 조직화-홍대에 이은 이대, 연대, 고대 청소년층 투쟁
3월	2011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및 임금조사 착수(~2011.6)
3월	직업별 고용의 질 지표개발과 분석 시작(~2011.7)
3월	지역 고용지표 개발 및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시작(~2011.8)
4월 11일	제80차 노동포럼 : 아시아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천국?
4월 25일	제81차 노동포럼 : 미국의 노조는 자본에 완전히 투항했나?
5월 29일	연구소 상반기 내부수련회(~5.31)
5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실태 및 인식조사 착수(~2011.6)
5월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이 인천택시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시작(~2011.7)
6월 7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6월 8일	제82차 노동포럼 : 경영계가 바라보는 복수노조
6월 22일	제83차 노동포럼 :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6월 23일	〈이슈페이퍼〉 『주40시간 일바해도 등록금마련 힘겨워』
6월	최저임금 수준과 고용효과 연구시작(~2011.8)
6월	교원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착수(~2011.10)
6월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분석 착수(~2011.11)
7월 6일	제84차 노동포럼 : 경북지역 노동조합의 현황과 전망
7월	교원노조 단체교섭 해외사례 연구 시작(~2011.11)
8월 22일	제33차 정기이사회
8월	전력노동조합 조직진단 및 조합원 인식조사 착수(~2011.10)
9월 1일	연구소 산행(유명산)
9월 3일	이소선 어머니(연구소 교문) 별세
9월 5일	일본 류코쿠대학 와키타 시게루 교수 내방
9월 6일	제85차 노동포럼 : 재정위기의 본질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9월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고용안정 과제 연구 착수(~2012.1)
10월 3일	연구소 하반기 내부수련회(~10.4)
10월 5일	도전받는 정당정치, 그리고 진보의 길 길 토론회(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공동 주최)
10월 7일	제86차 노동포럼 : 금속노조 통합선거 의미와 과제
10월 20일	〈이슈페이퍼〉 『2012년 일자리 예산안』
10월	증권산업 임금체계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시작(~2012.1)
11월 6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1월 22일	일본 노동재단(JILAF) 회장단 내방
11월 23일	제87차 노동포럼 : 독일자동차산업의 최근 노사관계
11월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정책개선방안 연구 시작(~2012.2)
12월 13일	제88차 노동포럼 : 한국서비스산업의 고용관계와 노동과정
12월 15일	제89차 노동포럼 : 노동조합운동과 정당
12월 21일	제90차 노동포럼 :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12월	대안적 고용지표 개발 연구 착수

2012년

2월 6일	연구소 회계감사
2월 13일	〈이슈페이퍼〉『실노동시간 단축방안』
2월 14일	제33차 정기이사회, 제18차 정기총회
2월 29일	제91차 노동포럼 : 내가 생각하는 진보정당의 방향
2월	공공 직업훈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시작(~2012.6)
3월 14일	제92차 노동포럼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은 어떻게 해체되어 갔는가?
3월 14일	중국 비정규직과 차별제도 연구팀 류사오난 등 9명 내방
3월 20일	〈이슈페이퍼〉『2011년 공공 비정규직 사용실태 발표』
3월 24일	이일재 고문 별세
3월 24일	한국 노사정 및 학계 아시아 반차별 비교연구 방문 간담회
3월	보건의료노조 노동실태조사 착수(~2012.5)
3월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연구 시작(~2012.11)
4월 3일	회보 『노동사회』 2012년 1차 편집위원회
4월 26일	제94차 노동포럼 : 4.11 총선에서의 노동정치 평가와 향후 과제 : 지역조직과 산별조직의 사례
4월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착수(~2012.6)
4월	공공임금정책 연구 시작(~2012.8)
4월	한국 산별문제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시작(~2012.11)
5월 17일	〈이슈페이퍼〉『근로소득 불평등』
5월 20일	상반기 내부 수련회(~5.22)
5월 23일	제94차 노동포럼 :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성찰
5월 25일	회보 『노동사회』 2012년 2차 편집위원회
5월	사회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석-노인돌봄시장 연구 착수(~2012.10)
5월	서비스 장시간노동 및 외주화 대응방안 연구 시작(~2012.11)
5월	보건의료산업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모델 연구 시작(~2012.12)
6월 5일	〈이슈페이퍼〉『2012.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7월 25일	회보 『노동사회』 2012년 3차 편집위원회
7월 26일	제95차 노동포럼 :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금속산업 노사관계 전망

7월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시작(~2012.10)
7월	서대문구 음식점 고용 노동실태 연구 시작(~2013.2)
7월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 기념 토론회
8월 28일	제34차 정기이사회
8월 29일	시라이시 타카시(일본 관제 워킹푸어연구회 이사장) 내방
9월 17일	〈이슈페이퍼〉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9월	국회 민간소속 근로자 호봉제 도입방안 연구 시작(~2012.12)
10월 5일	회보 『노동사회』 2012년 4차 편집위원회
10월 26일	제96차 노동포럼 : 갈림길의 금속노조, 현장에서 돌아보기-만도지부 및 SJM지회 투쟁사례
10월 31일	제97차 노동포럼[국제 심포지엄] 한국·독일·프랑스 산별노조: 진단과 과제 - ①한국, 독일, 프랑스 산별노조의 교섭구조와 조직전략 ②한국 산별노조 쟁점과 과제
10월	사회적 기업 노사관계 연구 시작(~2012.12)
11월 4일	하반기 내부 수련회(~11.6)
11월 8일	〈이슈페이퍼〉 『2012.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1월 30일	『노동사회』 2012년 5차 편집위원회
11월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 시작(~2013.2)
11월	대한생명보험 신인사제도 도입과 노조 대응방안 연구 시작(~2013.2)
12월 27일	제18대 대선 평가와 노동운동의 과제 특집 좌담
12월 31일	『한국 산별노조의 문제 진단과 발전방안』 출간
12월	연구소 기구, 연구실과 기획실(총무국, 편집국, 국제노동위원, 정보통신위원)로 재편. 운영예산과 사업예산 구분 시작

2013년

1월 10일	『세계노동운동사』 출간
1월 23일	연구소 회계감사
1월 29일	제35차 정기 이사회, 제19차 정기총회
1월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 영향분석 및 대책 연구 시작(~2013.4)
2월 21일	『세계노동운동사』 출판기념회 주관(서울 은행회관)
2월 27일	제98차 노동포럼 :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에 있어서 내부노동 시장의 영향과 노사의 전략적 선택: 조선맥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2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임금 및 직제개편 연구 시작(~2013.5)
2월	농수산 간접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시작(~2013.5)
3월 4일	〈이슈페이퍼〉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3월 13일	〈이슈페이퍼〉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쟁점』
3월 26일	『한국노동운동사-100년의 기록』 개정증보판 출간
3월 27일	제99차 노동포럼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과제
3월	조합원 노동실태조사 및 5개년 시계열 분석과 함의 연구 시작(~2013.5)

3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착수(~10.26)
3월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전략(~2013.11)
4월 25일	제100차 노동포럼 :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4월	울산지역 여가실태조사 착수(~2013.4)
4월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착수(~2013.7)
5월 4일	연구소 이전(서울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 빌딩 502호)
5월 15일	연구소 새 홈페이지 개설
5월 29일	이전 사무실 개소식
5월	공기업 아웃소싱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시작(~2013.8)
5월	정년연장에 따른 중장년 노동력 활용을 위한 금융산업 직무분석 연구 시작(~2013.10)
5월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실태 및 조직화방안 연구 시작(~2013.12)
6월 6일	〈이슈페이퍼〉『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6월 9일	상반기 내부 수련회(~6.10)
6월 13일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회장 김정근) 창립총회
6월 17일	일본 노동정책연구 연구기구 오학수 박사 내방
6월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시작(~2013.7.20)
7월 23일	제101차 노동포럼 : 가까이에서 본 독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7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조사 착수(~2013.12)
8월 21일	제102차 노동포럼 : 한국의 임금체계와 대안적 임금제
8월 22일	일본 대동문화대학 타카야스 유이치 교수 내방
8월 27일	제36차 정기 이사회(2013년 상반기 사업보고 등 심의 의결)
8월	공공부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노동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작(~2013.11)
8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조사 착수(~2013.12)
9월 2일	〈이슈페이퍼〉『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종 잣대』
9월 9일	〈이슈페이퍼〉『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9월 18일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원자료 · 문헌 · 연구보고서의 기탁 협약체결(~2018.9.18)
9월 26일	제103차 노동포럼 :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1] - 산업별노조 운동과 공공부문노조운동
9월 30일	제104차 노동포럼 :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2] - 정치세력화와 지역노조운동
9월 30일	(연구소의 창 : 한국 정치역학의 세고리) 발표
9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영향요인 연구 시작(~2013.12)
9월	고양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착수(~2013.12)
10월 7일	(연구소의 창 : 노동시간에서 노동자의 시간으로) 발표
10월 14일	(연구소의 창 : 기술어진 저울 바로잡기) 발표
10월 21일	(연구소의 창 : 폴라니의 추를 움직이려면) 발표

10월 26일	하반기 내부수련회(~10.29)
10월 31일	(연구소의 창: 법외노조 전교조에 대한 두가지 제언) 발표
10월	임금체계 개선과 축소방안(~2013.12)
10월	IT산업 근로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2013.12)
10월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방향(~2013.12)
10월	고양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시작(~2014.1.7)
11월 4일	(연구소의 창: 다시 전태일 열사를 찾으며) 발표
11월 19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1월 19일	(연구소의 창: 노동운동, 대안은 지역이다) 발표
11월 25일	(연구소의 창: 장시간 노동 해소 접근, 근로시간 특례업종 논의부터) 발표
11월 28일	제105차 노동포럼: 노조 간부가 꼭 알아야 할 국제노동기준들
11월	지역산업 근무형태변경과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시작(~2014.2)
12월 2일	(연구소의 창: 희망버스와 태양의 학교) 발표
12월 10일	(연구소의 창: 철도노조의 아주 절박한 사회공공성투쟁) 발표
12월 19일	(이슈페이퍼)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12월 20일	(연구소의 창: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과제) 발표
12월 27일	(연구소의 창: 민주노총 총파업에 바란다) 발표
12월	서울시 공무원 근로실태 조사 착수(~2014.1)
12월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시작(~2014.3)
12월	정보통신위원 공석, 김유선 소장 선임연구위원 직위 변경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와 자료기증협약 체결
	민주당 정책연구원과 MOU 유지

2014년

1월 2일	(연구소의 창: 2014년 산별의 힘으로 돌파하는 보건의료노조) 발표
1월 7일	(연구소의 창: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정부와 기업) 발표
1월 20일	(연구소의 창: 비정상의 대표작,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1월 23일	(이슈페이퍼)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1월 23일	(이슈페이퍼)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1월 27일	(사)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창립총회
2월 5일	(이슈페이퍼)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월 6일	연구소 회계감사
2월 11일	제37차 정기 이사회, 제20차 정기 총회
2월 17일	(이슈페이퍼)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2월 21일	제106차 노동포럼: 통상임금 판정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2월 27일	(이슈페이퍼)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월	민주노조운동 위기진단과 대안 연구 시작(~2014.10)
2월	복수노조사업장 갈등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시작(~2014.12)
3월 2일	〈이슈페이퍼〉 『서울시 대학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3월 2일	(연구소의 창 : 거꾸로 가는 공기업 정상화정책, 노조가 바로잡아야) 발표
3월 11일	〈이슈페이퍼〉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실태와 개선방향』
3월 12일	제107차 노동포럼 : 의사 파업과 의료영리화
3월 17일	(연구소의 창 : 비정상상의 정상화의 길) 발표
3월 24일	〈이슈페이퍼〉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3월 26일	〈이슈페이퍼〉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 변경과 지역사회 변화』
3월 27일	〈이슈페이퍼〉 『임금체계 개편논의 비판적 검토와 모색』
3월 31일	(연구소의 창 : 노동조합의 우울한 자화상) 발표
4월 13일	(연구소의 창 : 현대차지부 연대임금 전략은 허망한 꿈인가?) 발표
4월 17일	상반기 내부 수련회(~4.19)
4월 23일	제108차 노동포럼 : [창립 19주년 토론회]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
4월 23일	〈이슈페이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4월 28일	(연구소의 창 : 2014노동절-재해공화국의 비극에 잠기다) 발표
4월 30일	〈이슈페이퍼〉 『간접고용실태와 개선방안』
4월	지자체 노사업무 사회적 대화기구 발전방향 연구 시작(~2014.6)
4월	2014년 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노동실태 및 임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착수(~2014.6)
5월 12일	(연구소의 창 : 세월호와 현대중공업 재벌의 탐욕은 재앙) 발표
5월 14일	〈이슈페이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
5월 22일	제109차 노동포럼 :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변동에 관한 연구-저항 정체성을 중심으로
5월 28일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결정기준』
5월 29일	〈이슈페이퍼〉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5월	공공기관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체계모델 개발연구 시작(~2014.11)
5월	노동위원회 60년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연구 시작(~2014.12)
6월 3일	〈이슈페이퍼〉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규모와 기업체규모별 고용비중』
6월 9일	(연구소의 창 : 유령이 되어버린 진보정당들에게 필요한 것) 발표
6월 11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6월 17일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
6월 18일	제110차 노동포럼 : 6.4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6월 25일	(연구소의 창 : 전교조에 대한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발표
6월	120다산클러스터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 시작(~2014.12)
6월	서비스산업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재구조화 방향 모색 연구 착수(~2014.12)

7월 4일	하반기 내부수련회(~7.5)
7월 9일	〈이슈페이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7월 15일	일본 관제 워킹푸어 연구회 이사장 내방
7월 17일	〈연구소의 창 : 태광 티브로드 사태를 통해본 평평업 효과〉 발표
7월 28일	〈연구소의 창 : 요코하마 단상〉 발표
7월	택시 저임금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연구 시작(~2014.12)
8월 13일	〈연구소의 창 : 노동소득분배율 높여야 경제가 산다〉 발표
8월 21일	제111차 노동포럼 : [해외노동운동 시리즈] 집단적 노사관계
8월 27일	제38차 정기이사회
8월 29일	〈연구소의 창 : 현대차 불법파견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발표
9월 1일	〈이슈페이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9월 18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주최 제4회 노동문화상에서 노동학술부문 대상 수상
9월 25일	제112차 노동포럼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깊이 들여다보기
9월 25일	〈이슈페이퍼〉 『공공부문 노사관계 진단과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10월 10일	제113차 노동포럼 : 사례로 본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 - 4개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운동 재활성화 방안
10월 27일	〈연구소의 창 : 경제민주화의 실종과 경기부양의 한계〉 발표
10월 30일	하반기 야유회
10월	인턴의 근로실태 및 권익보호방안 연구 시작(~2014.11)
11월 17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1월 18일	서울노동권익센터 설립 신청
11월 19일	제114차 노동포럼 :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공적연금의 미래
11월 24일	〈연구소의 창 : 쌍용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대응방안〉 발표
11월	감정노동 연구 시작(~2014.12)
11월	노동조합 조직진단 시작(~2014.12)
11월	노사발전재단 교육프로그램 개발 착수(~2014.12)
11월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시작(~2015.1)
11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서울 신촌 흥대앞 착수(~2015.1)
11월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착수(~2015.2)
11월	전국 무기계약 기간제 임금체계 및 실태조사 착수(~2015.2)
12월 8일	〈이슈페이퍼〉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12월 17일	제115차 노동포럼 : 2014년 노사관계 평가와 신년 전망
12월 29일	〈연구소의 창 : 박근혜 정부의 하락, 무기력한 야권〉 발표
12월	한경비즈니스 "100대 싱크탱크 조사에서 여성/노동분야 5위"로 선정 발표

2015년

1월 8일	(연구소의 창: 정규직 대책 정부의 속내) 발표
1월 12일	<이슈페이퍼> 『기간제법 시행효과』
1월 13일	(연구소의 창: 어두운 한국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발표
1월 21일	연구소 회계감사
1월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연구 시작(~2015.4)
1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 시작(~2015.7)
1월	공공부문 연구(월간 브리핑) 시작(~2015.12)
2월 3일	제39차 정기이사회, 제21차 정기총회
2월 10일	<이슈페이퍼> 『박근혜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월 25일	김윤환 고문 별세
2월	마포구 관광산업 판매종사자 고용창출력 강화방안 연구 시작(~2015.12)
2월	한국의 고용노사관계 진단 및 대안 모색 연구 시작(~2015.12)
3월 2일	(연구소의 창: 2015년 노사관계를 읽는 열쇠말) 발표
3월 12일	<이슈페이퍼>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3월 17일	제116차 노동포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 및 교섭구조와 발전전략 : 공격적인 조직화사업 이후의 과제들
3월 20일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발표
3월	한국의 노동 2015 연구 시작(~2015.12)
4월 10일	(연구소의 창: 해방 70년, 또다시 형극의 벼랑에 몰린 노동) 발표
4월 14일	<이슈페이퍼> 『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4월 20일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4월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기념토론회 주제: 노동, 미래를 위한 연대와 진전 * 주제발표: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김유선), 노사관계와 노조운동의평가와 과제(이병훈) * 토론: 김태현, 노진귀, 배규식, 정이환
4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착수(~2015.6)
4월	서비스연맹 전조합원 실태조사 착수(~2015.11)
5월 6일	<이슈페이퍼>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5월 18일	(연구소의 창: 노동운동의 국제감각과 새로운 침로) 발표
5월 27일	제117차 노동포럼: 최저임금과 임금-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기능과 현실태
5월	대우조선해양 임금 지급 생산체계 연구 시작(~2015.10)
5월	제조산업 발전 연구 착수(~2015.10)
5월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 착수(~2015.11)
5월	노사상생플러스 교육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시작(~2015.12)
6월 8일	(연구소의 창: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 감시) 발표
6월 16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6월 25일	한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일본 연구자 다케노부 미에코(와코대 교수) 등 5명 내방
6월 26일	제118차 노동포럼 : 일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상황과 과제
6월 29일	(연구소의 창 : 이타카, 그리스 그리고 앙국화) 발표
7월 16일	(연구소의 창 : 최저임금,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표
7월 21일	제119차 노동포럼 : 서비스노동자,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7월 30일	(이슈페이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7월	한국형 연대임금 연대고용 모델 탐색 연구 시작(~2015.10)
7월	공공 및 금융부문 시간제 여성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시작(~2015.11)
8월 3일	(연구소의 창 : 여유로운 살림, 어떻게 가능한가?) 발표
8월 5일	(이슈페이퍼) 『서울지하철의 안전진단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8월 12일	일본 대동문화대학 타카야스 유이치 교수 내방
8월 24일	제40차 정기이사회 개최
8월 25일	(이슈페이퍼) 『청년고용실태와 대책』
8월 27일	제120차 노동포럼 :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 사례 평가-희망연대노조
8월 31일	(연구소의 창 : 노동시장 개혁의 큰 그림으로 맞서자) 발표
9월 23일	제121차 노동포럼 : [긴급좌담] 노사정 합의 평가와 향후 대응 과제
9월	서울시 공기업 임금피크제 컨설팅 영역 착수(~2015.11)
10월 15일	제122차 노동포럼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사교섭, 쟁점과 과제
10월	서울시 지하철 임대매장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착수(~2015.12)
11월 4일	(연구소의 창 :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발표
11월 16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8)』
11월 25일	(이슈페이퍼)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12월 8일	제123차 노동포럼 : 한국 노동시장 어디로 가는가?~성장체제 전환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12월 21일	『한국의 노동 2016』 출간
12월	몽골 임금결정제도 컨설팅 착수(~2015.12) 두 개의 부설센터 설립 운영

2016년

1월 12일	(연구소의 창 : 박근혜발 새누리표 노동개혁에 대한 한국노총의 단심) 발표
1월 14일	(연구소의 창 : 4.13총선의 아젠다) 발표
1월 15일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조사 연구협력 업무협약 체결
1월	성남지역 노동권 보호와 권리확대 정책연구 시작(~2016.5)
1월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모델 갱신 및 2017년 표준생계비 산출(~2016.12)
1월	공공부문 이슈보고서 발간(~2016.12)
2월 1일	(연구소의 창 : 저성가자 해고지침,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발표
2월 14일	(연구소의 창 : 민주노총 2016년 사업흐름과 투쟁계획) 발표

2월	16일	제41차 정기이사회, 제22차 정기총회
2월	19일	상반기 내부 수련회(~2.23)
2월	19일	(연구소의 창: 성과주의의 신화와 현실) 발표
3월	2일	(연구소의 창: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과제) 발표
3월	7일	〈이슈페이퍼〉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과제』
3월	8일	(연구소의 창: 여성노동자가 행복해야 99%가 행복할 수 있다) 발표
3월	11일	감정노동네트워크 출범(참석: 김종진, 윤자호)
3월	16일	〈이슈페이퍼〉 『제20대 총선 일자리공약 비교』
3월	22일	(연구소의 창: 문제는 정치다) 발표
3월	22일	타나카 아키히코(류코쿠대 교수,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일본연구자) 등 5명 내방
3월	23일	제124차 노동포럼: 독일 사례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일반하고 지침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3월	28일	(연구소의 창: 대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부터 이야기하자) 발표
3월		몽골 산별 직무급 컨설팅 연구 시작(~2016.5)
3월		서울형 노동시간단축모델 개발 연구 시작(~2016.8)
3월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생활임금정책 연구 시작(~2016.9)
3월		생애주기별 연성의 노동조합 참여 연구 시작(~2016.11)
3월		노동시간 및 근속통계 분석 시작(~2016.12)
3월		금융노조 산별강화방안 연구 시작(~2016.12)
4월	4일	노동조합 간부 초청간담회(사무금융노동조합)
4월	11일	(연구소의 창: 총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발표
4월	14일	전무배 고문 별세
4월	19일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큰 것인가?) 발표
4월	23일	제125차 노동포럼: 총선 이후 열린 공간과 노동운동의 과제
4월	25일	(연구소의 창: 위험사회에서 벗어나기) 발표
4월		한·EU 자유무역협정 노동기준 관련 내용 및 이행실태 평가 시작(~2016.11)
5월	3일	(연구소의 창: 누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두려워하는가?) 발표
5월	11일	제126차 노동포럼: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 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
5월	11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캠페인 참가
5월	12일	최저임금연대 4차 회의 참가(참석: 이주환, 박관성)
5월	12일	(연구소의 창: 일석사조의 노동시간 단축) 발표
5월	19일	최저임금연대 전문가 간담회(민주노동 대회의실)
5월	23일	〈이슈페이퍼〉: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5월	24일	(연구소의 창: 조선산업 구조조정, 경영자와 채권단에 주는 면죄부인가? 발표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 공감문화제(삼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5월		고양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 시작(~2016.9)

6월 1일	(연구소의 창 : 구조조정의 정치) 발표
6월 3일	최저임금연대 6차 회의 및 공감문화제(구로디지털단지)
6월 10일	(연구소의 창 : 구역역 9-4번 승강장 앞에서) 발표
6월 13일	(연구소의 창 : 여성고용차별 해법, 간접차별서 찾자) 발표
6월 16일	윤진호 이사 별세
6월 17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6월 22일	제127차 노동포럼 :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노동자의 경계 없는 노동시간
6월 27일	(연구소의 창 : 위기의 조선산업, 해법은 사회적대화로부터) 발표
6월 28일	감정노동네트워크 회의(참석: 김종진, 윤자호)
6월	서비스산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조사 시작(~2016.9)
6월	노사파트너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작(~2016.10)
6월	청년고용 및 가계실태분석과 청년 고용복지정책 연구 시작(~2016.11)
6월	2016년 노사상생플러스교육 평가 및 발전방안 시작(~2016.12)
6월	보건의료노조 임금체계 실태분석 및 대안모색 시작(~2016.12)
7월 7일	(이슈페이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7월 12일	(연구소의 창 : 저임금노동의 혜택에 빠진 학교 당직기사) 발표
7월 27일	노동조합간부 초청간담회(김경란 민주노총 비전국장)
7월 29일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7월	서울 노원구 시민 노동인권과 권리인식 조사 시작(~2016.9)
7월	서울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 연구 시작(~2016.10)
7월	국회 청소용역 직영화 전환 실행방안 연구 시작(~2016.11)
8월 2일	(연구소의 창 : 노사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
8월 11일	(연구소의 창 : 기업별노조 한계와 이중노동시장의 강화) 발표
8월 16일	노동조합간부 초청간담회(정길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8월 23일	(연구소의 창 : 경제망칠 노동개혁) 발표
8월 24일	제42차 정기 이사회 개최
8월 27일	요코다 노부코(일본 간사이대 교수) 내방
8월 29일	제128차 노동포럼 :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평등 추이
9월 6일	(연구소의 창 : 청년의 절박한 현실) 발표
9월 7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캠페인 참가
9월 7일	한국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관련 일본연구자 다나카 아키히코 교수 등 5명 내방
9월 12일	(연구소의 창 :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발표
9월 20일	(이슈페이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9월 24일	연구소 이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50, 3층)
9월 26일	연구소 이전 개소식

9월 28일	(연구소의 창 :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발표
9월 30일	제129차 노동포럼 : 일·가정 양립의 올가미?~여성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9월 30일	연구소 지경기부금단체(2016.1.1~2021.12.31)로 재지정(기획재정부)
9월	서울시 청년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실태조사 착수(~2016.12)
9월	공공부문노조의 이념 및 사업기조 연구 시작(~2016.12)
10월 14일	(연구소의 창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물골) 발표
10월 17일	노동조합간부 초청간담회(박혜경 민주노총 교육원장)
10월 18일	(연구소의 창 : 노동시간 단축과 6시간 노동제 실험) 발표
11월 2일	(연구소의 창 :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발표
11월 7일	(연구소의 창 :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라) 발표
11월 8일	〈이슈페이퍼〉『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11월 15일	(연구소의 창 : 저출산 해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부터) 발표
11월 22일	〈이슈페이퍼〉『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11월 24일	(사)노동복지나눔센터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사업 지원(고양협약 체결)
11월 28일	(연구소의 창 : 누가 택시발견법을 꺾게기로 만드는가?) 발표
11월	7대광역시 택시사업장의 집단협 실태조사 및 임금구조 개선방향 연구 시작(~2016.12)
11월	공무원노동조합 재정자립방안 연구 시작(~2016.12)
12월 2일	제130차 노동포럼 :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모색-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
12월 13일	감정노동네트워크 회의
12월 20일	(연구소의 창 : 촛불항쟁과 사회개혁의 과제) 발표
12월 24일	『생애주기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 연구』 출간
12월 26일	송년회

2017년

1월 5일	〈이슈페이퍼〉『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
1월 9일	연구소 2017 사업평가 2차 회의
1월 10일	(연구소의 창 :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발표
1월 11일	〈이슈페이퍼〉『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발표
1월 20일	일본 관제워킹푸어연구회 이사장 내방
1월 23일	연구소 2017 사업평가 3차 회의
1월 24일	〈이슈페이퍼〉『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사례 검토』 발표
1월 24일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서울 잠실체육관) : 위원장 김주영, 사무총장 이성경 후보 선출
1월 26일	설날휴무(~1.30)
2월 6일	(연구소의 창 : 노동시간 단축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발표
2월 7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서울 KBS 스포츠월드), 정치방침 논쟁
2월 9일	연구소 회계감사
2월 13일	(사)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정기총회

2월 13일	(연구소의 창: 나도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발표
2월 21일	제43차 정기이사회, 제23차 정기총회
2월 21일	(연구소의 창: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발표
2월 23일	연구소 상반기 워크숍(~2.27)
2월 28일	(연구소의 창: 이생망과 일자리 공약) 발표
3월 1일	일본 사이타마대 우중원 교수 내방
3월 8일	제1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양극화(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3월 8일	(이슈페이퍼)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3월 10일	헌법재판소,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재판관 8명 전원 일치) 결정
3월 15일	제2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노동시장(김유선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3월 20일	(연구소의 창: 조직화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발표
3월 22일	제3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경제성장(윤원배 숙명여대 명예 교수)
3월 29일	제4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차별(최정표 건국대 교수)
3월 31일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 수감
4월 3일	독일 연구자(Daniel Buhr 튀빙겐대학 교수 등 5명) 내방
4월 5일	제5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사회적 경제(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4월 5일	(이슈페이퍼)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발표
4월 12일	제6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금융(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4월 14일	(연구소의 창: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발표
4월 19일	제7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경제민주화(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4월 26일	제8회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경제정책 강좌: 재정(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4월 2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광장의 경고, 촛불민심을 들으라! 제23차 촛불집회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6%, 문재인 후보 41.08% 득표로 당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발령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방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5월 16일	(연구소의 창: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발표
5월 17일	(연구소의 창: 문재인정부가 맞닥뜨린 노동개혁과제) 발표
5월 27일	독일사민당 부당수 내방
5월 30일	(연구소의 창: 노동 당사자주의를 위해) 발표
5월 31일	제131차 노동포럼: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6월 7일	한국 노동정책 관련 일본 연구자 와키타 시게루 교수 등 10명 내방
6월 9일	故 윤진호 교수 1주기 추도식 및 추모논문집 발간
6월 12일	(연구소의 창: 숙련을 매개로 한 점진적 임금체계 개편) 발표
6월 20일	제132차 노동포럼: 새정부 노동정책과 노조가 나아갈 길
6월 21일	(이슈페이퍼)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발표

7월 3일	(연구소의 창 : 사회적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 발표
7월 12일	제133차 노동포럼 :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16.4%) 결정
7월 17일	Marcus Strohmeier(오스트리아 노총 국제본부장) 등 3명 내방
7월 17일	〈이슈페이퍼〉 『대기업 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발표
7월 21일	(연구소의 창 :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발표
7월 25일	범우법인 지평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관련 업무협약 체결
7월 28일	Mitsuyoshi Nozomi(일본 오카야마현 시의원) 등 12명 내방-서울시 노동정책 간담
8월 24일	〈이슈페이퍼〉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발표
8월 2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취임
8월 29일	제44차 청기사사회(상반기 사업보고, 결산보고, 예산변경 및 항목전용 심의)
9월 4일	요코다(横田)(일본 구주대학 교수) 내방
9월 6일	요코다 노부코(일본 간사이대학 교수) 내방
9월 6일	(연구소의 창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유연화) 발표
9월 7일	일본 아시히신문 부국장 등 3명 내방
9월 15일	제134차 노동포럼 :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토론회] 콜리앗 서른잔치는 끝났다
9월 20일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 간부(박기산 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9월 20일	(연구소의 창 : 통계로 살펴본 82년생 여성노동자 김지영씨) 발표
10월 13일	〈이슈페이퍼〉 『한국의 청년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발표
10월 17일	(연구소의 창 : 9988의 왜곡) 발표
10월 22일	몽골의 임금체계 연구팀 출국(~10.28)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동계 대표초청 간담회 및 만찬, 민주노총 불참 통보
11월 1일	에버트 재단 Maria Beihof(아태지역 담당) 등 2명 내방
11월 8일	노동조합 간부 초청간담회(허인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
11월 22일	제135차 노동포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11월 23일	〈이슈페이퍼〉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발표
11월 24일	학술 이사 간담회
11월 30일	〈이슈페이퍼〉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과제』 발표
12월 3일	몽골 임금체계 연구팀 출장(~12.8)
12월 5일	〈이슈페이퍼〉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발표
12월 13일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발표
12월 18일	연구소 내부 평가워크숍(~12.20, 제주도)
12월 27일	노동조합간부 초청간담회(오상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략조직팀장)
12월 29일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 결선투표(12.22~28)에서 김위원장 명환,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사무총장 백석근 후보 당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사

- 노동의 미래를 향한 연대와 전진

2018년 4월 24일 초판 1쇄 발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음

발행인 : 김유선

편집 : 이주환, 정애경

디자인 : 화소

펴낸곳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록 : 2011년 1월 31일 제312-2011-000005호

주소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홈페이지 : www.klsi.org

값 12,000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Printed in Korea

ISBN 978-89-90497-31-4 (03300)

한국노동교육협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30여 년을 돌아보며
다시 희망을 다짐합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입으로 말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이론과 정책을 생산하겠다는 첫 마음을 되새기겠습니다.
참다운 평등과 자유가 충만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50(총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Tel. 02-393-1457 Fax. 02-393-4449
<http://klsi.org>